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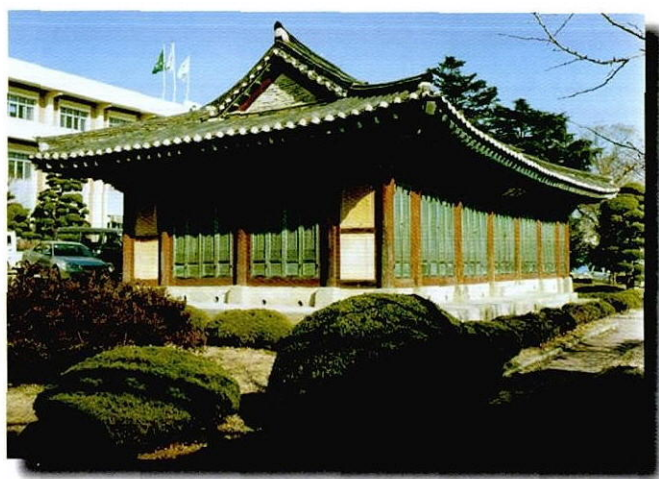
서산시지 제3권

서산의 정치와 행정



서산시지 제3권

서산의 정치와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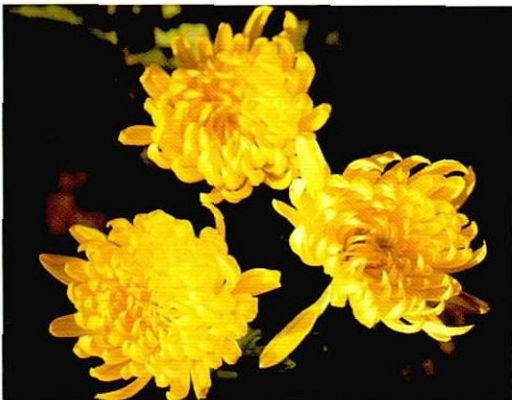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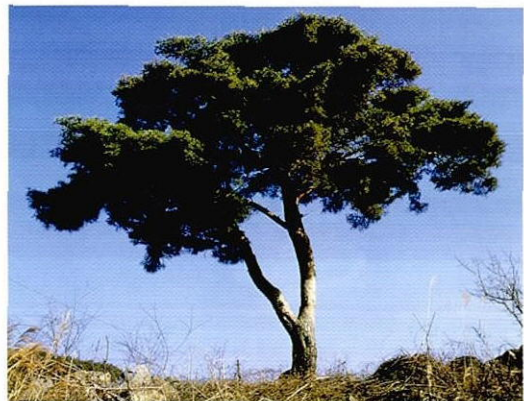


① 서산시의 영문표기문자인 “S”자와 시나무의 소나무를 형상화하였으며, 서산시 전체의 자연조건인 대자연의 풍요로움과 쾌적한 환경을 나타냄.(녹색)

② 서산시의 대표적 문화재인 마애삼존불상과 뫼 “山”을 형상화하였으며, 무궁한 도약, 전진, 발전을 나타냄.(백색)

③ 서산시의 맑고 푸른바다를 형상화하였으며, 서해안 중심지로서 온시민의 화합, 단결을 나타냄.(청색)

※ 서산시 심볼마크의 의미는 서산시 천혜의 자연조건인 대자연의 풍요로움과 무궁한 도약, 전진, 발전을 나타내며, 서해안 중심지로서의 온시민의 화합, 단결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미래를 향한 발전하는 도시이미지를 상징함.



■ 까 치

시민들이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

■ 소나무

사계절의 푸르름은 씩씩한 시민의 기상을 상징.

■ 국 화

시민의 인정어린 순수함을 상징.

시민의 노래

서산에 살리라



1. 가 야 - 산 푸른 숲에 해 뜨 - 는 아 침
2. 옥 녀 - 봉 솔밭 에는 푸 르 - 른 달 빛



활 기 - 찬 거리 마다 꿈 이 - 님 치 - 고
넉 넉 - 한 가슴 따다 사 랑 - 의 노 - 래



미 래 - 로 가는 고장 서 산 - 의 숨 결
가정 마 - 다 마을 따다 아 늑 - 한 불 빛



서 해 - 안 물길 타고 내 일 - 이 온 다
둘 러앉은 얼굴 따다 웃 음 - 꽃 핀 다



아 아 축복 의 땅 내 사랑서 산 시



살 - 리 라 여 기살리라 서 산에 살 리 라

밝은 미래를 꿈꾸는 새 서산



우리 고장의 모든 발전과정과 역사적 사실을 집대성한 “서산시지(瑞山市誌)”를 발간하게 된 것을 15만 시민들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산은 옛부터 인심이 온후하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며 충, 효, 예를 숭상하는 높은 선비정신으로 성현들을 많이 배출한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이러한 옛 선현들의 발자취와 지혜의 숨결을 찾아 상세하게 재조명하여 이번에 발간하는 “서산시지(瑞山市誌)”는 1982년 “서산군지(瑞山郡誌)” 증보판을 발간한지 15년이 지난 지금 새로이 발전된 그간의 변화상과 전에는 기록하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보충하여 지리, 역사,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발자취를 생생하게 기록 게재 했습니다. 하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하고 숨겨진 사실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서산시지(瑞山市誌)”의 발간은 우리서산의 실상을 바로 알고 역사속에서 얻어지는 경험적인 교훈과 자긍심을 일깨우며 서산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고 위상을 드높이 세우는 귀중한 문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충분하지 못한 여건속에서도 “서산시지(瑞山市誌)”발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공주대학교 이해준 교수님을 비롯한 집필위원과 편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4월 일

서산시장 김 기 홍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우리 서산

우리 서산시의 역사, 사회, 전통문화를 비롯한 경제의 발전상과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산시지(瑞山市誌)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금번에 발간한 서산시지(瑞山市誌)가 15만 시민과 후손들이 행정, 문화, 경제 등 서산 역사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서로서 유익한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시는 문화적으로 옛부터 예행의 고장, 충절의 고장으로 옛 선조들의 전통과 미풍양속을 이어받은 유서깊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미국생산을 중심으로한 1차산업의 기반고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1,2,3차 산업의 균형을 이루고 서해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도·농복합형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시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조화와 균형을 이룬 문화의 도시, 교육·행정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옛 선조들의 전통 미풍양속을 되살려 예향의 도시, 충절의 도시란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서산시지가 15만 시민과 후손들이 서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간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서산시지(瑞山市誌)를 집대성하기까지 수고하신 이해준 교수님과 편집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서산지역 역사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8년 4월 일

서산시 의회의장 김 관 기

서산시 청사 전경





▲ 통합 서산시 발족



▲ 통합 서산시장 취임식



▲ 서산시의원 현지활동



▲ 서산군 의회 현지활동



▲ 통합 서산시 의회 발족



통합 서산시 의회 현지활동 ▶



▲ 장기 발전계획 발표회



민원실



▲ 새로 만든 서산시 외곽도로



▲ 영세민 방문상담



▲ 초대 서산시의회 개회식



▲ 서산 군의회 회의 모습



▲ 서산시의원 현지활동



▲ 서산군 의회 현지활동



▲ 통합 서산시 의회 발족



통합 서산시 의회 현지활동 ▶



▲ 1995. 6. 27 지방 자치선거 벽보



▲ 1995. 6. 27 서산시 의회의원 선거 연설회

서산시지 편찬위원 및 집필위원

● 서산시지 편찬위원회

김기홍 (시장, 위원장)
 김관기 (시의회의장)
 신서균 (부시장, 부위원장)
 우상훈 (시의회부의장)
 홍성배 (문화공보담당관)
 이해준 (공주대 교수)
 김현구 (서산문화원장)
 김기풍 (서산향토사가)
 이은우 (국편지방사료조사위원, 전천안시
 립중앙도서관장)
 신상찬 (국편지방사료조사위원)

● 집필책임자 및 집필자

제1책 서산의 지리
 이문종 (집필책임자 :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이은우 (국편지방사료조사위원, 전천안
 시립중앙도서관장)
 정환영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최원희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홍춘표 (공주대학교 화학과 교수)
 강현규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제2책 서산의 역사

이해준 (집필책임자 :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남석 (공주대 박물관장)
 유원재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문수진 (신구전문대 교수)
 지수걸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제3책 서산의 정치와 행정

이준원 (집필책임자 : 공주대학교 지방행
 정학과 교수)
 이덕연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4책 서산의 산업과 경제

이문종 (집필책임자 : 공주대학교 지리학
 과 교수)
 이철성 (건양대학교 교수)

제5책 서산의 민속문화

구중희 (집필책임자 : 공주대학교 국어교
 육과 교수)
 김삼기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양종승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유병환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강현규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형우 (공주대학교 강사)

제6책 서산의 현대문화

이은우 (국편지방사료조사위원, 전천안
 시립중앙도서관장)
 문권혁 (서산 향토문화연구회장)
 신상찬 (서산향토사가)
 오윤희 (한서대학교 교수)

제7책 서산의 문화유적

이남석 (집필책임자 : 공주대학교 박물관장)
 이해준 (공주대학교 사학과교수)
 서정석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이 훈 (공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원창 (충남매장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이현숙 (충남매장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제8책 서산의 자량

윤용혁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규익 (송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구중희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김현구 (서산문화원장)
 이해준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종윤 (서산시 문화관광계장)
 김용래 (서산시 문화재계장)

● 윤문 및 교열위원

김현구 (서산문화원장)
 김기풍 (서산향토사가)
 이은우 (국편지방사료조사위원, 전천안시
 립중앙도서관장)
 문권혁 (서산향토문화 연구회장)
 신상찬 (국편지방사료 조사위원)

목 차

제1절 서산시의 행정

1. 서산시의 행정체제	18
1) 지방행정체제의 역사적 변천 ... 18	2) 서산시의 행정구역
2) 서산시의 행정구역	27
2. 서산시의 행정조직 및 인력	33
1) 행정기구의 변천	33
2) 역대 서산군수 및 서산시장	38
3) 위원회	40
4) 서산시의 인사기관	43
5) 서산시 공무원의 변화 추이	44
6) 서산시 공무원 현황	49
7) 인사관리	56
3. 서산시의 재정관리	59
1) 재정제도	59
2) 서산시의 재정규모와 지방세	65
3) 일반회계 현황	66
4) 특별회계 현황	69
4. 서산시의 정책관리	71
1) 자치시대 이전의 시정방향과 주요사업	71
2) 자치시대의 서산시·군 정책방향과 주요사업	80
5. 서산시의 실·국·소별 행정	90
1) 각 담당관실	91
2) 총무국	95
3) 사회산업국	105
4) 건설도시국	115
5) 직속기구	122
6. 읍·면·동행정	137
1) 대산읍	137
2) 인지면	141
3) 부석면	145
4) 팔봉면	148
5) 지곡면	152
6) 성연면	155
7) 음암면	158
8) 운산면	162
9) 해미면	167
10) 교북면	172
11) 부춘동	176
12) 동문동	178
13) 활성동	181
14) 수석동	183
15) 석남동	185
16) 오산동	188

제2절 서산시 의회

1. 서산시 의회의 연혁	194

1) 서산지역 읍·면의회	194	2) 서산시·군의회	196
3) 통합 서산시의회	197		
2. 서산시의회의 원구성	198		
1) 의장·부의장	199	2) 상임위원회	203
3) 특별위원회	206	4) 사무국	210
3. 서산시 의회의 의정활동	211		
1)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211		
2) 초대 서산시·군의회 및 통합 서산시 의회의 의정활동	214		
3) 제2대 서산시 의회	219		

제3절 서산시의 법원 및 검찰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22
1) 연혁	222
2) 관할 구역	223
3) 조직 및 업무분담현황	223
4) 각종 사건현황	225
5) 역대지원장	227
6) 조정위원현황	228
7)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 현황	230
2. 대전지방법검찰청 서산지청	231
1) 연혁	231
2) 관할구역	234
3) 조직 및 시설현황	235
4) 업무처리현황	235
5) 역대지청장현황	237
6) 범죄예방자원봉사 서산지역협회의 위원명단	239

제4절 서산시의 특별행정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1. 특별행정기관	246
1) 서산교육청	246
2) 서산경찰서	248
3)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55
4) 서산소방서 및 의용소방대	257
5) 서산우체국	262
6) 법무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산출장소	266
7) 충청남도 농업통계사무소 서산출장소	268
8) 국립농산물검사소 충청남도지소 서산출장소	268
9) 기상청산하 서산기상대	269
2. 기타 공공기관	270
1) 서산시농업협동조합	270
2) 서산수산업협동조합	277
3) 서산축산업협동조합	278
4) 서산임업협동조합	279
5) 서산원예농업협동조합	279
6) 서산농지개량조합	281

7) 서산시 의료보험조합	282	8) 서산양잠농업협동조합	283
9) 서산상공회의소	283		
10)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한우개량부	284		
11) 서산문화원	285	12) 지역 언론사	287
13) 한국전력공사 서산지점	287	14) 한국통신 서산전화국	288

제5절 서산시의 정치와 선거

1. 대통령 및 부통령선거	292
1) 초대 대통령 및 1·2대 부통령직접선거	292
2)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직접선거	292
3)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부통령직접선거	294
4)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직접선거	294
5) 제4대 대통령간접선거	295
6) 제5대 대통령직접선거	295
7) 제6대 대통령직접선거	296
8) 제6대 대통령직접선거	297
9) 제8대 대통령간접선거	298
10) 제9대 대통령간접선거	300
11) 제10대 대통령간접선거	301
12) 제11대 대통령간접선거	302
13) 제12대 대통령간접선거	303
14) 제13대 대통령직접선거	304
15) 제14대 대통령직접선거	305
2. 서산시의 국회의원선거	307
1) 제헌국회의원선거	307
2) 제2대 국회의원선거	310
3) 제3대 국회의원(민의원)선거	312
4) 제4대 국회의원(민의원)선거	314
5) 제5대 국회의원선거	316
6) 제6대 국회의원선거	319
7) 제7대 국회의원선거	321
8) 제8대 국회의원선거	323
9) 제9대 국회의원선거	324
10) 제10대 국회의원선거	326
11) 제11대 국회의원선거	328
12) 제12대 국회의원선거	329
13) 제13대 국회의원선거	331
14) 제14대 국회의원선거	333
15) 제15대 국회의원선거	335
3. 지방자치단체선거	337
1) 도지사 선거	337
2) 도의회 의원선거	340
3) 초대 민선시장 선거	349
4) 서산시·군의회 선거	350
5) 읍·면장 선거	357
6) 읍·면의회 의원선거	358

제1절 서산시의 행정

1. 서산시의 행정체제

- 1) 지방행정체제의 역사적 변천
- 2) 서산시의 행정구역

2. 서산시의 조직 및 인력

- 1) 행정기구의 변천
- 2) 역대 서산군수 및 서산시장
- 3) 위원회
- 4) 서산시의 인사기관
- 5) 서산시 공무원의 변화 추이
- 6) 서산시 공무원 현황
- 7) 인사관리

3. 서산시의 재정관리

- 1) 재정제도
- 2) 서산시의 재정규모와 지방세
- 3) 일반회계 현황
- 4) 특별회계 현황

4. 서산시의 정책관리

- 1) 자치시대 이전의 시정방향과 주요 사업
- 2) 자치시대의 서산시·군 정책방향과 주요사업

5. 서산시의 실·국·소별 행정

- 1) 각 담당관실
- 2) 총무국
- 3) 사회산업국
- 4) 건설도시국
- 5) 직속기구

6. 읍·면·동행정

1) 대산읍	2) 인지면
3) 부석면	4) 팔봉면
5) 지곡면	6) 성연면
7) 음암면	8) 운산면
9) 해미면	10) 고북면
11) 부춘동	12) 동문동
13) 활성동	14) 수석동
15) 석남동	16) 오산동

제1절 서산시의 행정

1. 서산시의 행정체제

1) 지방행정제도의 변천과 서산시

우리 나라의 지방행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간에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가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지방행정이 누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첫째시기는 건국초기 국가체제가 안정되지 못했던 시기로 이상과 규범적 입장에서 형성된 제도와 현실이 급격한 괴리를 가져오던 시기이다. 건국당시로서는 완벽한 민주주의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을 갖고 있었겠지만 정치·행정적 현실은 이러한 이상과는 차이가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민주적 질서에 대한 함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방행정도 민주적 질서를 구현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던 시기로 제1·2공화국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시기는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체제가 구축되어 지방자치가 실종된 시기이다. 이른바 경제개발을 국가정책의 가장 우선과제로 삼던 군사정권에서는 각 지방이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으며,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일사분란한 명령체계를 구축하려 했다. 제3·4·5공화국시기의 지방행정체제는 경제개발과 경제안정을 위한 중앙집권적 시기로 지방자치의 실종시기라 할 수 있다.

셋째시기는 민주화시기라 할 수 있는데, 군사정권하에서 억압된 민주화욕구는 6.29선언을 통해 급속한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를 정점으로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물론 상당한 진통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

(1) 지방자치의 불안한 출발(1948-1961)

① 지방자치법의 제정

미군정에 의해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한이 1949년 5월 17일이었기 때문에, 1948년에 출범한 제1공화국의 국회는 지방자치법안을 1949년 3월 9일에 의결하여, 행정부에 넘겼다. 그러나 이승만대통령은 국내외 정세와 치안을 이유로 실시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대립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7월 4일에 지방자치법이 의결되어 법률 제32호로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도, 시·읍·면으로 한다.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두며, 불신임의결권과 해산권을 각각 갖는다.
- 선거권은 만21세,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은 만25세로 하고, 4년임기의 명예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간선으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도에는 군을 두고,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며, 시·읍·면에는 동·리를 둔다.
- 군수와 구청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동·리장은 주민이 선거한다.

그러나 이 법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던 이승만대통령에 의해 시행도 되기 전인 동년 12월 15일에 제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시기의 서산시는 미군정시기의 행정체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② 제1차 개정과 지방선거

제1차 개정은 지방자치법이 제정된지 불과 5개월만에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국회프락치사건 등으로 인해 강력했던 초기 제헌국회의 힘이 매우 약화되었던 시기로, 대부분 행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

제1차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특별시와 도는 조례로 별칙을 규정할 수 있다.
- 특별시와 도의 선거구를 조정
- 각급 지방의원의 정수를 조정
- 부지사제를 폐지
- 도지사가 시·읍·면장의 파면을 탄핵재판소에 소추할 수 있음
- 시·읍·면조합을 구성할 수 있음

- 특별시와 도의 의결사항은 내무부장관, 시·읍·면의 의결사항은 도지사의 승인 사항으로 한다.
-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읍·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목적은 사실상 법의 내용에 있었다기 보다는 제75조에 규정되어 있던 실시시기에 대한 규정의 개정에 있었다. 즉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대통령령으로 늦어도 선거일 70일 전에 공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통령은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1차 개정이 이루어지고,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에도 치안사정이나 민도의 미성숙 등을 들어 지방의원선거를 미루다가, 6.25전쟁 중인 1952년 2월 갑자기 시·읍·면의원선거는 4월 25일에, 도의원선거는 5월 10일에 실시하겠다고 공고하였다.

1952년 4월25일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지방의회선거에서, 시의원 378명, 읍의원 1,115명, 면의원 16,051명이 선출되었으며, 각 시·읍·면의회는 동년 5월 5일과 6일에 걸쳐 시·읍·면장을 선출하였다. 서산시에서도 당시 서산읍의회 의원으로 한백희를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인지면의회를 비롯한 17개 면의 면의원을 선출하였다.

③ 제2차개정과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지방의회가 전시에 전격적으로 구성된 것은 대통령직선제를 관철하기 위한 이승만대통령의 정치적 전략이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지방행정이 강력한 지방의회 중심으로 운영되자 지방의회를 약화시켜 중앙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지방자치법에 대해 1956년 2월 13일에 제2차 개정을 여론과 야당 및 지방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 국회의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처리하였다.

제2차 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시·읍·면장과 동·리장의 선거는 주민이 직접한다.
- 시·읍·면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제도, 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제도를 폐지
- 시·읍·면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지방의회 의원수를 1할 감축
- 지방의회 회의일수를 특별시·도는 90일 이내, 시·읍·면은 50일 이내로 제한

이상과 같은 개정의 배경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의 목적이 있었다. 대통령직

선제개헌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상당한 공헌을 하였지만, 시·읍·면장의 선거권과 불신임의결권 등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을 장악함으로써 중앙통제를 제약한다고 생각한 이승만대통령은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과도한 시·읍·면장의 교체로 인한 정치적 불안보다는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친여적 인사로 시·읍·면장을 선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불신임의결권과 해산권을 상호 제한함으로써 시·읍·면장의 빈번한 교체를 막을 수 있고, 회의일수를 제한하고 임기를 단축시킴으로써 통제가 수월해 질 것으로 보았다.

④ 제3차개정과 기득권시비

제3차개정은 제2차개정이 이루어진 5개월 뒤인 1956년 7월 8일에 여론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속에 이루어졌다. 제3차개정의 주요골자는 제2차개정시 삽입한 부칙 제4항의 임기만료에 관한 사항이었다. 즉 새로운 개정법의 시행과 함께 현재의 시·읍·면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가 선거일 전일에 만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1956년 2월 12일 이전에 선출된 자의 임기는 그 당시의 임기로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규정인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규정을 삽입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제2차개정을 통해 이승만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려던 목적이 5월 15일에 실시된 정·부통령선거결과 오히려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승만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하락과 야당출신 부통령의 당선으로 자유당정권은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치뤄지고, 그 결과 시·읍·면의회와 시·읍·면장이 야당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민의원선거가 치뤄진다면 그 결과도 역시 명약관화한 것이었다. 따라서 친여적 인사들로 구성된 현재의 지방의원과 시·읍·면장의 기득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이들의 지지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민의원선거에서도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국의 26개 시 중에서 20개의 시가, 76개의 읍중에서 46개 읍, 1,379개 면 중에서 835개 면이 기득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므로 1956년 8월 8일에 실시된 지방선거는 6개 시, 30개 읍, 544개 면에서만 실시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정권은 이러한 기득권에 만족하지 않고 최대한 친여적 인사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불법적·탈법적 수단이 동원되었다. 선거가 끝난후 내무부가 공식집계한 결과를 보면, 시·읍·면의원의 사망 및 사퇴자가 3,477명이었고, 시·읍·면장의 사망·사퇴자는 126명이나 되었다. 예를 들면 전남의 시·읍·면장 및 시·읍·면의원 선거구 729개의 입후보자 2,785명 중 649명이 무투표 당선하였다.

⑤ 제4차개정과 중앙통제체제의 강화

제4차 개정은 행정부가 극비리에 준비한 개정안을 1958년 12월 11일에 상정한 후,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폐기를 가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야당을 속이기 위한 술책이었고, 폐기를 가결한 바로 다음날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보안법과 함께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제4차 개정의 주요골자는 주로 중앙통제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특별시장·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동·리 장은 면장이 임명한다.
- 지방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지방의회가 법정일수를 초과하여 개회되는 경우 감독관청이 폐회를 명령할 수 있다.
- 지방의회가 폐회중인 때는 분과위원회를 열지 못한다.

1956년 8월에 기득권을 인정받았던 시·읍·면장을 비롯한 시·읍·면의원의 선거를 치루면서 자유당정권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1958년 5월에 치룬 민의원선거에서 야당은 도시지역에서 대약진을 보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자유당정권은 지방행정을 장악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들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됨으로써 개정이 시도되었다. 특히 1959년에 실시하여야 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급기야 시·읍·면장을 임명제로 바꾸었으며, 또한 임기를 3년으로 할 경우 정·부통령선거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4년으로 연장하게 된 것이다.

⑥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와 제5차 개정

4.19혁명을 통해 이승만정권이 붕괴한 뒤, 과도정부에 의해 개정된 제2공화국헌법에서는 중앙정부의 내각책임제와 함께 시·읍·면장의 직선제를 헌법을 통해 천명하였다.

제5차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임기4년의 특별시장·도지사, 시·읍·면장은 주민이 직선한다.
- 임기2년의 동·리장은 주민이 직선한다.
- 서울특별시장의 선거는 기명투표한다.
- 선거권은 만20세로 한다.
- 피선거권은 시·읍·면장은 만25세, 특별시장·도지사는 만30세로 한다.
- 군수(당연직 의장)와 군내 읍·면의회 의장으로 구성되는 군참사회회의는 매월 첫째

월요일에 열려 군내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이러한 개정의 가장 핵심은 직선제에 있었다. 민주당정권 내에서도 특별시장과 도지사의 임명제를 놓고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직선제쪽으로 가닥을 잡아 1960년 10월 22일에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 12월 12일에 특별시와 도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12월 19일에 시·읍·면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시 부정선거가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특히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자유당세력들이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진출하기도 했는데, 면의원의 경우 민주당과 신민당을 합하여도 2,751명에 불과했지만 무소속의원은 12,578명이나 되었다.

(3) 지방자치의 중단(1961-1987)

① 혁명정부의 지방행정

1960년 12월에 구성된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도 하기 전에 박정희소장이 주도한 5.16쿠데타로 인해 민주당정권이 붕괴되고 군사정권이 수립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제4호를 발하여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5월20일에는 내각과 서울시장을, 5월24일에는 도지사와 주요시장을 준장에서 중령에 이르는 군인들로 교체하였다.

이러한 임시조치 이후에 1961년 9월 1일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자치단체를 읍·면에서 시·군으로 한다.
-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정지된 지방의회와 기능을 특별시·도의 경우 내무부장관이 하고, 시·군의 경우 도지사가 한다.

이로써 어림사리 실시된 지방자치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약 30년간에 걸쳐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② 제3공화국의 지방행정제도

1962년의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

의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로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1961년 9월 1일에 공포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개정하지 않아 결국 군사정부의 지방행정체제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는 실시되지 않았다.

③ 유신헌법과 지방행정제도

1972년 12월 27일에 공포된 유신헌법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해 극도로 제한적인 규정을 두었다. 즉 헌법에 명문으로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의 실시를 포기하였음은 물론 지방자치에 대한 거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이 당시의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지방행정은 중앙행정의 충실한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④ 제5공화국에서의 지방행정제도

10.26사태에 이어 집권한 제5공화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신군부에 의해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에서도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유신헌법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상당히 유연하게 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를 실시하려는 의도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1960년의 군사정권이 들어선 후 지방자치는 실시되지 못했고, 시기에 따라서는 거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행정체제는 대략 임명제 도지사과 그 밑에 임명제 시장·군수로 이어지는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행정체제가 지속되었다. 서산시도 이러한 행정체제 속에서 놓여 있었다.

(4) 자치시대의 도래(1987-현재)

① 지방자치의 준비

6.10항쟁을 통해 이끌어낸 6.29선언의 내용에 지방자치의 부활을 공약하였고, 이어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법률유보사항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1988년 4월에 지방자치법 제7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7차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자치구로 한다.
- 선거권자의 연령은 만20세로 하고,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지방의원 만25세, 기초자치단체장 만30세, 광역자치단체장 만35세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임하되,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 시·군·자치구의회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도의회는 시·군·자치구의회 구성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성하도록 한다.
- 지방자치법과 별도로 지방선거법을 제정한다.
-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조사권으로 한정
- 서울특별시에 대한 특례인정

이는 1961년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이 법에 의하면 적어도 1989년 4월 30일 이전에 시·군·자치구의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기초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2년내에 광역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노태우대통령은 끝내 법정기일 내에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

그후 1989년 12월 30일에 여·야합의로 제8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1990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광역의회를 구성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정되었다.

-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군·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 시·도의회의 연간 개최일수는 100일 이내, 시·군·자치구의 개최일수는 60일 이내로 한다.
-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인정

이상과 같은 제8차 개정이 가능했던 것은 여소야대정국이 전개되면서 5공청산 및 수서비리문제 등으로 처하게 된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역시 지방자치가 바로 실시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1990년의 이른바 3당합당으로 거대 여당이 된 민자당이 지방선거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1990년 12월 31일에 제9차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1년씩 늦춰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1992년 6월 30일 안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개정하였다.

② 지방의원의 선거와 지방의회의 구성

1991년 3월 26일의 기초의원선거와 6월에 실시된 광역의회 의원선거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행정체제에 큰 변화를 예고하기에는 충분했다. 실로 험난한 우여곡절을 거쳐 1960년 12월에 실시된 지방의원선거 이후 약 30여년만에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이며,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서막을 연 것이다.

이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인 1989년도에 서산시와 서산군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각 서산군의회와 서산시의회가 구성되었다.

1991년 5월 23일에는 제10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10차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의회 의원에게 회기중에 일비를 지급한다.
- 정부는 지방의원을 체포·구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의회의 정기회는 시·도는 11월 20일, 시·군·자치구는 11월 25일로 한다.
- 정기회의 회기는 시·도의 경우 35일, 시·군·구는 30일로 한다.
- 본회의가 폐회 중에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시·도의회 사무국을 사무처로, 시·군·구의회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격상
- 예산편성안의 제출은 회계연도 개시 35일 전까지, 의결은 시·도의 경우 15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

이상과 같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6월 20일에는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광역의원은 정당소속이 가능했는데, 서울특별시, 직할시, 각도의 의원은 민주당이 65.1%, 신민당이 19.1%, 그리고 무소속이 13.9%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반쪽자치가 가능해 졌다. 즉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구성되었지만, 지방행정의 집행기관인 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직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대한 정치적 갈등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③ 자치단체장의 선거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

1991년 상반기에 지방의회를 구성한 노태우대통령은 1년 이내에 실시해야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대해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구실을 찾기에 급급해 하다가, 급기야 1992년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1년에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큰 선거를 4차례나 실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구실을 들어 연기를 선언했다. 그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1992년 6월 30일의 법정기일을 넘겨버렸다.

그러나 1992년 12월에 있는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후보는 1995년 상반기 이전에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공약하였고, 1994년 3월 16일에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두루 적용할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소위 통합선거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법의 부칙에 1995년 6월 27일에 광역·기초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선거실시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임박해지면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끝내 강행됨으로써 드디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이다.

1995년 6월의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여러차례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있었다. 우선 1994년 3월 16일의 제12차 개정에서는 도·농통합시의 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기존의 군지역과 시지역을 주민투표의 형식을 빌어 통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서산군과 서산시가 통합하여 통합서산시가 되었다.

또한 1994년 12월 20일에 있는 제13차 개정에서는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광역시 내에도 군을 둘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는 규정을 두기도 했다.

1995년 1월의 제14차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두는 경우 5급 이상인 경우는 당해 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인 경우는 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한국의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개관해 보았다. 현재와 같은 지방행정체제가 구축되기 까지는 매우 험난한 정치적 갈등과정을 거쳐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건국초기에는 지방행정을 자치제로 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규범에 충실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었으며, 군사정권에서는 경제개발의 기치하에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체제가 구축되었었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현재 지방행정체제가 도입된 것이다. 이는 지방행정의 축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이 지방행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성공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얻어낸 현재의 지방자치체제는 자칫 과거로 회귀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서산시의 행정구역

행정구역은 행정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정치·행정적 의미뿐만 아니라 역

사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구역의 설정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지역공동체의식 등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서산시의 행정구역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행정구역의 변화

구 분	1965				1975				1985				1995			
	리 (개)	반 (개)	면적 (km ²)	인구 (명)	리 (개)	반 (개)	면적 (km ²)	인구 (명)	리 (개)	반 (개)	면적 (km ²)	인구 (명)	리 (개)	반 (개)	면적 (km ²)	인구 (명)
계	205	1,692	981.66	266,531	206	1,828	1,003.80	266,269	205	1,905	1,065.41	242,494	125	1,242	636.60	140,331
서산읍	12	148	38.35	29,331	14	202	50.87	37,530	14	228	52.95	45,058	-	-	-	-
태안면 (읍)	13	152	62.14	20,614	13	154	63.32	22,388	13	165	70.44	28,559	-	-	-	-
안면면 (읍)	11	171	94.94	24,592	10	199		27,427	10	233	115.65	23,759	-	-	-	-
인지면	11	82	38.67	12,722	10	73	26.53	9,537	10	71	32.74	7,600	20	71	33.48	5,988
부석면	13	106	57.15	12,901	14	110	53.47	15,434	14	105	58.55	12,792	26	105	59.24	9,675
팔봉면	9	57	48.26	10,131	9	57	50.91	9,183	9	57	51.42	7,403	22	57	51.41	5,472
지곡면	9	65	46.62	10,063	9	58	48.62	9,418	9	64	52.92	7,549	21	64	57.95	5,881
대산면	10	99	80.26	14,568	10	100	79.36	14,694	10	103	80.98	11,989	29	103	103.86	16,731
상연면	9	55	44.04	8,742	9	58	41.99	7,683	9	58	42.54	6,103	21	58	42.67	4,275
음암면	11	107	49.21	15,655	10	104	45.57	12,671	10	111	44.13	10,066	27	111	43.98	8,337
운산면	18	105	58.86	16,564	19	125	81.69	14,872	19	117	82.16	11,046	29	117	82.73	8,134
해미면	22	125	59.28	17,262	22	124	59.91	16,339	22	122	60.92	13,225	27	104	61.25	9,761
고북면	14	98	51.02	16,631	14	104	51.70	14,984	13	94	45.55	12,357	29	78	47.10	8,117
남면	9	56	37.62	9,738	9	65	38.95	10,083	9	78	42.71	8,796	-	-	-	-
근흥면	9	74	51.29	13,092	9	86	53.41	12,911	9	87	51.76	10,519	-	-	-	-
소원면	9	73	59.11	12,173	9	81	65.45	13,331	9	85	69.01	11,784	-	-	-	-
원북면	9	72	58.61	11,079	15	87	63.69	11,807	11	84	70.80	9,266	-	-	-	-
이북면	7	47	46.23	7,978	5	41	39.20	6,017	5	43	40.04	4,632	-	-	-	-
부춘동	-	-	-	-	-	-	-	-	-	-	-	-	2	72	9.45	11,364
동문동	-	-	-	-	-	-	-	-	-	-	-	-	3(1)	96	8.27	16,682
활성동	-	-	-	-	-	-	-	-	-	-	-	-	1(1)	64	0.50	9,669
수석동	-	-	-	-	-	-	-	-	-	-	-	-	2	49	8.81	8,375
석남동	-	-	-	-	-	-	-	-	-	-	-	-	4	60	15.63	9,659
오산동	-	-	-	-	-	-	-	-	-	-	-	-	3	24	10.27	2,211

1895년 5월에 전국의 지방행정제도를 개편하면서 서산군·태안군·해미현의 3개 군현을 모두 군으로 개칭함으로써 3개군으로 운영되다가 18년 후인 1914년 일

제강점기에 서산·태안·해미군을 통합하여 서산군으로 발족하였다. 이때의 서산군 행정구역이 1989년까지 큰 변화없이 계속되었으며, 1989년에 태안군과 서산시·군이 분리되어 다시 3개 시·군시대가 되었다. 그러다가 1995년 도농통합시로서 과거의 서산군과 서산시가 합하여져 현재의 서산시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1948년 이후 서산시의 행정구역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서산시·군과 태안군이 합쳐져 있던 서산군시기(1914-1989), 둘째는 3개 시·군분리시기(1989-1994), 셋째는 서산시·군 통합시기(1995-현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서산군시대

1914년의 지방행정개편으로 서산·태안·해미의 3개군이 서산군으로 통합된 이래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대략적인 서산군의 행정구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 시기에 있었던 행정구역의 변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957. 11. 20 정미면과 대호지면이 당진군으로 이속
- 1973. 7. 1 당진군 정미면 여미리가 서산군 운산면으로 편입
- 1973. 7. 7 태안면이 태안읍으로 승격
- 1980. 12. 1 안면면이 안면읍으로 승격
- 1983. 3. 15 고북면 대사리가 홍성군 갈산면으로 이속

1914년 20개 면으로 출발한 서산군은 1942년 서산면이 서산읍으로 승격하여 1읍19면체제가 해방이후 미군정은 물론 대한민국정부 출범이후로도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1957년 정미면과 대호지면을 당진군에 편입시킴으로써 1읍17면체제가 1973년까지 이어졌으며, 태안면의 읍승격으로 1973년 부터는 2읍16면체제가 되었다. 이어서 1980년에는 안면면이 안면읍으로 승격됨으로써 3읍 15면체제가 되었고, 이 체제가 1989년까지 지속되었다.

이상과 같이 2개면이 당진군에 편입되고, 2개면이 읍으로 승격되기는 했지만 행정구역의 대략적인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충남에서 3개 읍을 둔 가장 규모가 큰 군이었다.

(2) 서산시·군 분리시대(1989-1994)

1989년 1월 1일에는 서산시의 행정구역상 일대 변화가 있었다. 서산군에서 태안읍·안면읍·남면·근흥면·소원면·원북면·이원면을 분할하여 태안군으로 되었으며, 서산읍은 부춘동·동문동·활성동·수석동·석남동·오산동 등 6개동을 둔 서산시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서산군은 인지면·부석면·팔봉면·지곡면·대산

면·성연면·음암면·운산면·해미면·고북면 등 10개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 후 1991년 12월 1일에 대산면이 대산읍으로 승격된 후 1995년 시·군통합 때까지 지속되었다.

(3) 서산시통합시대(1995-현재)

서산군과 서산시의 통합은 1994년 지방자치법 제13차 개정에 의해서이다.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를 눈앞에 둔 김영삼대통령은 갑작스럽게 도농통합형도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시·군을 가능한 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통합은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므로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민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내무부가 제시한 도농통합형조시의 장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
- 광역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유리함.
-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
-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으며, 역사적 동질성을 회복시킬 수 있음.
- 소외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편익을 제공할 수 있음.



〈사진〉 통합서산시 발족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내부부가 우려하고 있는 단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가 어려움.
-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너무 커짐.
-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농촌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음.
- 도시지역의 혐오시설만 농촌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음.

이러한 장·단점이 예상되므로 중앙정부로서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주민의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했는데 1994년 43개 군과 49개 시를 통합대상 시·군으로 선정하여 공청회를 실시한 후 여론조사식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주민갈등을 빚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1995년 1월 1일자로 도농통합시를 발족시켰으며, 2차로 5개지역이 추가되어 모두 40개의 도농통합시가 발족한 것이다.

서산시에서도 5월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즉 서산시·군의 39,030세대가 참여, 36,991세대가 찬성하여 94.8%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찬성하는 정도에는 서산시와 서산군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서산군민이 서산시민 보다 찬성에 소극적이었다. 서산군민은 72.9%가 찬성한 반면 서산시민들은 92.3%가 찬성하고 있어 찬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서산시·군의 통합서산시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결과

구 분		계	서 산 군	서 산 시
세 대 수		39,030	23,048	15,982
의견서 회수		36,991 (94.8%)	21,940 (95.2%)	15,051 (94.2%)
유효	계	36,415	21,567	14,848
	찬 성	29,429 (80.8%)	15,717 (72.9%)	13,712 (92.3%)
	반 대	6,986 (19.2%)	5,850 (27.1%)	1,136 (7.7%)
무 효		576	373	203
불 참		2,039 (5.2%)	1,108 (4.8%)	931 (5.8%)

이러한 결과에는 서산시와 서산군 사이에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산시의회와 서산군의회가 결의한 서산시·군 통합과 관련한 서산시·군의회

의견서에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 서산군의회는 1994년 5월 9일자 의견서에서 찬성의견을 개진하면서 교육·문화 등의 동질성과 시·군민의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것이 오히려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서산시의 발족으로 인한 문제점도 예견하고 있는데, 서산군의회에서 적시한 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시·군이 분리됨으로써 각자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으로 인해 주인의식이 사라질 소지가 다분함.
- 쓰레기매립장, 공원묘지, 분뇨처리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이 군지역으로 들어올 것에 대한 우려
- 주민세, 수수료, 중학교의무교육의 혜택,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적용 대상 등 현재의 주민부담사항을 현재와 동일하게 한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음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이기주의가 발생하여 상당기간 주민화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일반 군민들은 행후 추진방향과 계획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의아해 하는 반응이 많음.

한편 서산시의 입장에서는 역사적 전통과 문화성이 같은 공동체의식이 있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보완적인 개발로 도시와 농촌간에 균형적 발전을 기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역시 우려하는 바를 표명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교부세·양여금·보조금 등 통합시에 특별한 예산지원을 확대해 줄 것과 잉여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승진적체해소, 그리고 특수행정수요지역(예컨대 대산공단)에 출장소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산시 보다 서산군이 통합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는 점은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도시지역의 혐오시설이 농촌지역에 설치될 것이라는 우려와 도시지역에 포함됨으로써 부담하게 될 각종 세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우려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도시지역은 자체 내의 각종 시설을 도시근교로 이전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찬성정도가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통합시의 시명을 둘러싼 논란은 거의 없었다. 아마 군명과 시명이 동일했기 때문에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의회에서도 시·군명이 모두 서산이므로 구태여 다른 이름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서산군의회에서도 역사적으로 사용해 온 고유지명이요,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시명을 둘러싼 갈등은 없었다.

2. 서산시의 행정조직 및 인력

본 절에서는 서산시 조직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서산시의 행정조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기구, 보조기구, 직속기구, 하부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보좌기구로는 각 담당관실이 이에 해당될 것이며, 보조기구로는 시청 내의 국·과·계조직이 해당되며, 직속기구로는 보건소·농촌지도소·출장소·사업소조직들이 해당된다. 또한 하부기구로는 각 읍·면·동이 해당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편의상 절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행정기구의 변천

서산시청 조직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 보면, 1965년에 군수 아래에 1실3과, 1보건소, 1지도소 18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던 조직이, 1970년도에는 2실 6과, 1보건소·지도소, 18읍면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75년도에는 부군수 제도의 신설과 기획기능의 강화에 힘입어 군수·부군수와 그 아래에 2실7과 1보건소, 1지도소, 18읍면으로 군청조직이 강화되었다. 1980년도에는 1실 10과 1보건소 1지도소 18읍면으로, 그리고 1985년도에는 1개 출장소가 증설되는 정도로 조직성장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1989년의 서산시·군분리로 인해 행정조직이 매우 비대화되었다. 서산시는 시장·부시장 이하 2실 11과 6동으로, 서산군은 군수·부군수 이하 2실 12과 1보건소 1지도소 1사업소, 10면으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행정조직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비대화된 것이다. 이렇게 비대화된 행정조직은 1995년 통합서산시의 발족과 함께 거의 그대로 이어졌는데, 1997년 현재 시장·부시장과 함께 3국 4담당관 20과 2직속기관 1출장소 6사업소 16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서산시 조직변천

연도	기구	실·과	계	비고
1965	군수	공보실		
	1실3과	내무과	행정·기획·예산·사회·병무·토목계	
	1보건소	재무과	부과·징수·경리·이재·지적계	
	1지도소	산업과	농정·농산·특작·양정·축정·잡업·산림·개간·수산계	
	1읍17면	보건소	3개 공의진료소	
		농촌지도소	7개지소	
1970	군수	감사실		
		공보실		
		내무과	행정·기획·병사·사회계	
		2실6과	부과·징수·경리·이재·지적계	
		재무과	농정·농산·보호·조림계	
		농림과	어정·생산계	
		수산과	관리·토목·농지개발계	
		1지도소	양정·잡업·축정계	
		1읍17면	식산과	
		보건소	6개지소	
		농촌지도소	7개지소	

〈표〉 서산시 조직변천 (계속)

연도	기 구	실·과	계	비 고
1975	군수·부군수 1관2실7과 1보건소 1지도소 2읍16면	부군수실	새마을·개발·기획예산·감사계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행정·통계·병사·복지·부녀아동계	
		재무과	세정·경리·지적·평가계	
		농산과	산업행정·특작·농사계	
		산림과	식수·보호계	
		식산과	양정·축산·잡업계	
		수산과	어로·증식계	
		건설과	관리·토목·농지계	
		보건소	17지소	
		농촌지도소	18지소	
1980	군수·부군수 1실10과 1보건소 1지도소 2읍16면	문화공보실		
		내무과	행정·기획예산·감사·병사·통계계	
		새마을과	새마을·개발·주택계	
		재무과	세정·경리·지적·평가·세외수입계	
		사회과	복지·위생·부녀아동계	
		식산과	양정·축정·잡업계	
		농산과	산업행정·농사·특작계	
		산림과	식수·보호계	
		수산과	어로·증식계	
		건설과	관리·토목·농지·지역계획계	
		민방위과	민방위·훈련계	
		보건소	17지소	
		농촌지도소	18지소	
1985	군수·부군수 1실10과 1보건소 1지도소 1출장소 3읍15면	문화공보실	공보·문화관광계	
		내무과	민원봉사실·행정·사무통계·기획·예산·감사계	
		새마을과	새마을·국토미화·개발계	
		재무과	세정·경리·지적·평가계	
		사회과	복지·위생·부녀아동계	
		식산과	양정·축정·상공운수계	
		농산과	산업행정·농사·잡특계	
		산림과	식수·보호계	
		수산과	어로·증식계	
		건설과	관리·토목·농지·주택·공원·수도계	
		민방위과	민방위·훈련·병사계	
		보건소	17지소	
		농촌지도소	18지소	
		출장소	대안출장소	
1990 (시)	시장·부시장 2실11과 6동	기획감사실	기획·예산·감사계	
		문화공보실	공보·문화관광계	
		총무과	사무·시정·통계계	
		새마을과	새마을·개발·전전생활계	
		재무과	부과·징수·재산세·세외수입·지적계	
		회계과	경리·용도·관재계	
		시민과	민원·호적·병무계	
		사회과	사회·환경보호·보건·위생·의료보장·청소·가정복지계	
		산업과	양정·농산·농지·지역경제·축정·운수계	
		건설과	관리·토목·하수계	
		도시과	도시·도시개발·건축·녹지·토지관리계	
		수도과	업무·시설계	
		민방위과	민방위·교육훈련계	

〈표〉 서산시 조직변천 (계속)

연도	기 구	실·과	계	비 고
1990 (군)	군수·부군수 2실12과 1보건소 1지도소 1사업소 10면	기획실	기획·예산·통계계	
		문화공보실	공보·문화관광계	
		내무과	행정·서무·감사·통신계	
		새마을과	새마을·개발·체육청소년계	
		재무과	세정·경리·세무조사·평가계	
		지적과	지정·지적계	
		사회과	사회·환경보호·의료보장·위생·가정·복지계	
		농산과	농어촌개발·농사·잠업특작계	
		식산과	양정·공업·지역경제계	
		축산과	축산·초지사료계	
		산림과	식수·보호계	
		수산과	어로·증식·어업지도계	
		건설과	관리·지도단속·공업개발·주택·농지조성·토목계	
		민방위과	민방위·교육훈련·병사계	
		보건소	보건행정·예방의학·가족보건·모자보건계, 10지소	
		농촌지도소	지도기획실·교육훈련계 등 11계	
		사업소	식포지구개발지원사업소	

〈표〉 서산시 조직현황

연도	기 구	실·과	계	비 고
1997	시장·부시장 3국2소 4담당관20과 1출장소 6사업소 1읍9면6동	기획담당관	기획·예산·법무통계·의회	
		공보담당관	공보·문화관광·문화재계	
		감사담당관	감사·조사계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경영개발·정책평가계	
		총무국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산업국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축산과	
		건설도시국	해양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지도보건소	교통행정과	
			지적과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보건사업과	
			외무과	
		대산출장소	관리·환경계	
		사업소	문화회관, 상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환경사업소, 해미읍성관리사무소	

(1) 행정조직의 규모와 변화

서산시의 행정조직은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지난 30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1965년 기준으로 4개 실·과에 불과하던 조직이 현재에는 본청조직만도 무려 24개 실·과로 성장하였으며, 19개에 불과하던 계도 82개로 급성장하였다.

<표> 조직구조의 변화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	1997
시장·군수*	1	1	2	2	2	4	2
국 장	-	-	-	-	-	-	3
실·과	4	8	10	11	11	27	24
계	19	21	26	32	36	87	82
읍면동	18	18	18	18	18	16	16
기타**	2	2	2	2	3	3	9

* 부시장·부군수 포함

** 기타는 보건소, 지도소, 사업소, 출장소 등

*** ()안은 서산시·군의 수치를 단순 합계한 것임

또한 보건소나 지도소조직은 차치하고라도 각종 사업소까지 합하면 시청조직의 성장은 대단히 거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태안군이 분리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읍면동조직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지난 30년간의 변화는 성장일변도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995년 시·군 통폐합조치에 따라 시장·군수, 실·과 및 계의 수가 줄어들었지만 사실상 4급 서기관직인 局이 신설되었고, 별정직으로 보해지던 읍·면·동장을 일반행정직 5급으로 보하였으며, 각종 사업소조직이 증가함으로써 조직이 감축되기 보다는 오히려 조직이 성장한 측면이 있다.

(2) 시대별 조직성장의 특징

서산시행정조직이 성장한 이면에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성장해 온 과정이 축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50년대와 60년대 초에 국가가 체제를 제대로 갖추기 이전에는 행정은 최소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이때의 행정조직 역시 미분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방행정조직은 매우 급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행정의 기획기능과 산업기능이 강조되면서 이에 관련된 조직들이 매우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70년대에 산업과에 속했던 각 계들이 농림·수

산·건설·식산과로 승격하는 것이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75년도의 경우 수습행정관제도와 함께 그아래에 새마을·개발·기획예산·감사기능을 묶어 둔 것이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80년대에는 복지국가건설을 국정지표로 내걸면서 복지분야의 조직들이 성장하게 되었다. 사회과를 두어 복지·위생·부녀아동계를 설치한 것을 시발점으로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의료보장·가정복지계 등이 추가되었고, 현재에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90년대에 와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환경과 문화관련 기능들이다. 환경문제는 70년대 말에도 자연보호와 관련하여 새마을과나 산림과 등에서 다루기는 했지만 별진전이 없다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환경보호계가 설치되었다가 현재는 환경보호과로 승격되었고, 환경사업소도 설치되었다. 문화관련기능도 마찬가지로 70년대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아주 미미하게 다루어졌지만, 80년대에는 문화공보실과 사회과의 일부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별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90년대에 이르러 문화공보실·새마을과·사회과 등에서 나누어 담당하였으며, 현재에는 공보담당관실·사회진흥과와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등 각 사업소체제로 확장되었다.

민선자치 이후 가장 두드러진 조직적 특징은 경영행정과 국제교류에 관한 조직기구들이다. 서산시의 경우도 정책개발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이러한 기능을 분담시키고 있다.

(3) 행정계층의 고도화

지방행정조직의 수평적 분화와 함께 진행된 것은 계층의 고도화현상이다. 지방행정조직은 기본적으로 시장·군수·실·과장-계장으로 이어지는 피라밋형 계층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1965년도의 서산군조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군수아래에 공보실장을 비롯하여 동급인 3개과장, 보건소장, 지도소장, 그리고 읍면장들이 있었고, 그 아래에 각 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직형태는 가장 전형적인 행정조직의 모습으로 현재까지도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1965년도와 비교한다면 현재의 조직형태는 더욱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계층구조가 더욱 고도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시장-부시장-국장-실·과장-계장으로 이어지면서 2개 계층(부시장, 국장)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4) 서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직

서산시의 행정조직 중 다른 지역의 행정조직과 구분되는 특징을 찾는다면 개간사업과 수산업에 관련된 행정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1965년도 행정조직에서도 보듯이 개간계와 수산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1975년도의 행정조직에서는 수산계가 수산과로 승격되어 어정계와 생산계를 두고 있다. 1980년도에는 어로계와 증식

계를, 1990년도에는 어로계·증식계·어업지도계를 두고 있다.

한편 최근들어 다른 시·군에서도 환경관련 조직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지만, 서산의 경우 대산공단 등 임해공업지역으로 산업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환경관련조직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본청에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가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산출장소의 주요업무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집약되고 있다. 아마 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조직의 성장과 강화현상이 지속되리라 생각된다.

2) 역대 서산군수 및 서산시장

(1) 서산군수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통합서산시가 출범한 1995년까지 총33명의 서산군수가 역임하였다. 초대 가정노 군수를 시작으로 이수원 군수를 마지막으로 서산군수시

〈표〉 역대 서산군수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재임기간	전임직위	전출직위
1	가정노	47. 5.14	48.10.31	1년 6개월	예산군수	공주군수
2	김현구	48.10.31	49. 4. 1	6개월	태안여중교장	서산중학교장
3	박유진	49. 4. 1	50. 5.15	1년 1개월	도경수사과장	홍성군수
4	박주철	50. 5.15	53.12. 9	3년 7개월	홍성군수	충대서부과장
5	조성대	53.12. 9	54. 9. 7	9개월	도청정지과	도청농무과장
6	박홍양	54. 9. 7	56. 7.16	1년 10개월	도청토지개발과장	부여군수
7	강순태	56. 7.16	59. 1.17	2년 6개월	부여군수	논산군수
8	김형중	59. 1.24	60. 5.13	1년 4개월	논산군수	공주군수
9	김수영	60. 5.19	60.11.12	6개월	도공무원교육원	공주군수
10	조인원	61. 1.17	61. 7.16	6개월	중앙농사원	해면
11	지상준	61. 7.16	62. 7.24	1년 1개월	당진군수	해면
12	박재복	62. 7.24	64. 3.26	1년 8개월	도농사원	천원군수
13	김보성	64. 3.26	65. 9.13	1년 6개월	천원군수	교육위관리국장
14	이승규	65. 9.13	70. 3. 3	4년 6개월	아산군수	예산군수
15	설일진	70. 3. 3	71. 8.23	1년 5개월	연기군수	서천군수
16	김용구	71. 8.23	73. 5. 7	1년 9개월	도청농림국장	천안시장
17	송희섭	73. 5. 7	75. 9. 1	2년 4개월	보령군수	도농정국장
18	이준규	75. 9. 1	76. 3.19	6개월	공주군수	퇴직
19	박창희	76. 3.19	77. 2. 5	11개월	대덕군수	논산군수
20	이관현	77. 2.25	79. 7. 5	2년 5개월	천원군수	홍성군수
21	조천식	79. 7. 5	80. 7.16	1년	서천군수	퇴직
22	홍선기	80. 7.25	81. 6.13	10개월	아산군수	퇴직
23	박찬무	81. 7. 5	81. 7.23	1년	대덕군수	도청보사국장
24	박영목	82. 7.24	83. 4.13	9개월	대덕군수	내무부연수원입교
25	김정주	83. 4.14	84. 7.13	1년 3개월	내무부연수원	도청전출
26	임봉순	84. 7.13	86. 3. 8	1년 8개월	금산군수	논산군수
27	공병선	86. 3. 8	88. 2.27	2년	보령군수	홍성군수
28	이호중	88. 2.28	88. 6.10	4개월	아산군수	농정국장
29	강원조	88. 6.22	88.12.31	6개월	보령군수	대덕구청장
30	박용화	89. 1. 1	91. 1.13	2년	서구청장	천안부시장
31	구장희	91. 1.14	91.12.22	1년	당진군수	명예퇴직
32	임규환	91.12.23	93. 3.28	1년 3개월	도청총무과장	당진군수
33	이수원	93. 3.29	94.12.31	1년 9개월	도청지방과장	서천군수

대는 막을 내렸다. 가장 오래 재직한 군수는 33대 이승규 군수로 4년 6개월간 재직하였으며, 최단명 군수는 4개월간 재직한 이호종 군수이다.

(2) 서산시장

1989년 서산군과 서산시가 분리된 이후 현재까지 8명의 시장이 재직하였으며, 재직중에 있다. 그러나 초대 조종완 시장에서 제6대 김홍태 시장까지는 서산시·군이 분리되었던 시기의 시장이며, 박상돈 시장은 통합서산시의 초대시장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재직중인 김기홍시장은 민선시장으로서의 초대인 셈이다. 그동안 관선시장으로서 최장수 시장은 1년 5개월간 재직한 손인완시장이며, 최단명 시장은 민선시장체제의 출범과 함께 물러난 박상돈 시장으로 6개월간 근무하였다.

〈표〉 역대 서산시장(통합전 서산시장)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재임기간	전임직위	전출직위
1	조종완	89. 1. 1	90. 2.25	1년 1개월	대전시 부시장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2	윤형영	90. 2.26	90.12.19	10개월	보령시장	사망
3	이정우	90.12.20	91. 8. 2	8개월	계룡출장소장	보령시장
4	조철연	91. 8. 3	92. 7. 3	11개월	대천시장	아산시장
5	손인완	92. 7. 4	94. 1. 2	1년 5개월	아산시장	도기획관리실장
6	김홍태	94. 1. 3	94.12.31	6개월	계룡출장소장	보령시장

○ 통합서산시장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재임기간	전임직위	전출직위
1	박상돈	95. 1. 1	95. 6.30	6개월	보령시장	도의회사무처장



〈사진〉

민선시장 취임식

○ 민선시장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재임기간	비고
1	김기홍	95. 7. 1	현재	임기 3년	

3) 위원회

(1) 개관

서산시의 각종 위원회는 읍·면·동에 설치된 위원회를 제외하고도 31개에 이른다. 이 중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17개이며, 14개 위원회는 서산시 자체의 조례 및 규칙에 의거하여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시청의 각 소관별 관련업무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시정기획, 사회복지분야, 이해관계상 공정성을 기해야 할 업무 등에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시청 소관별 위원회 수 및 설치근거

구분	위원회수	설치근거			위원장		
		법령	조례·규칙	훈령·지침	시장	부시장	기타
계	31	17	14	-	9	18	4
기획담당관실	4	2	2	-	1	3	-
감사담당관실	2	1	1	-	-	1	1
문화공보담당관실	2	-	2	-	-	2	-
총무과	1	-	1	-	-	1	-
세무과	1	-	1	-	-	1	-
시민과	1	-	1	-	-	1	-
민방위재난관리과	3	3	-	-	2	1	-
사회과	3	2	1	-	-	3	-
가정복지과	3	1	2	-	-	2	1
지역경제과	1	-	1	-	1	-	-
산업과	2	2	-	-	2	-	-
축산과	1	1	-	-	-	1	-
건설과	2	-	2	-	2	-	-
도시과	1	1	-	-	1	-	-
건축과	1	1	-	-	-	1	-
지적과	2	2	-	-	-	1	1
농촌지도소	1	1	-	-	-	-	1

이중 건축 및 지적분야와 같이 전국적으로 행정의 통일을 기해야 할 사항, 사회복지분야와 같이 행정의 형평성이 강조되는 분야, 민방위 및 재난관리분야 등 지방

자치단체의 수준을 넘어서 운영되어야 할 분야 등은 주로 법령에 의해 위원회가 구성되는 반면, 시정기획·문화공보·세금·민원분야 등 주민들과 직접 접촉해야 할 분야는 주로 조례 및 규칙에 의거해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보다는 부시장인 더 많이 담당하고 있다. 시장이 9개의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부시장은 18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시장은 민방위재난관리업무와 물가 및 농업부문에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하는 반면 부시장은 기획·총무·복지·건축분야의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다.

(2) 각 위원회의 활동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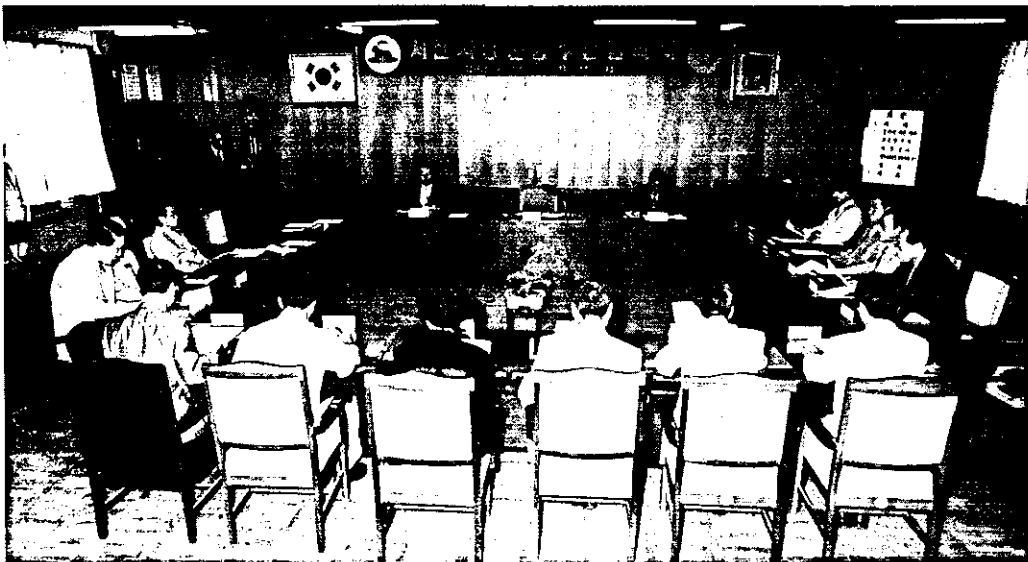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각종 위원회의 활동실적은 대부분 저조한 실정이다. 서산시에서도 역시 위원회의 활동이 그렇게 활발한 편은 못된다.

지난 96년도에 각종 위원회의 실적을 살펴 보면, 31개 위원회 중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9개에 달하며, 1-5회 개최된 위원회는 16개이고, 11회 이상 개최되어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한 위원회는 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96년도 각종 위원회의 개최실적

(단위 : 개)

구 분	계회	0회	1-5회	6-10회	11회이상
법 령	17	2	12	-	3
조례·규칙	14	7	4	1	2
계	31	9	16	1	5



〈사진〉 시청 위원회 개최

특히 법령에 의거한 위원회가 대부분 개최실적을 갖고 있는 반면 조례 및 규칙에 의거한 위원회들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지방자치 실시 후 위원회의 성격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마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민주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는 구성해 놓았지만, 아직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합의제식 행정에 익숙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추정된다.

〈표〉 서산시위원회 현황

구분	위 원 회 명	위원장	설 치 근 거	주 요 기 능	횟수	96주요 운영내용	소관
1	서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장 (9)	지방자치법제10조의2	조례, 규칙 심의	5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 개조례안등 37건심의	기획
2	서산시의회의원 상해등보상심의회	부시장 (6)	지방자치법제32조의2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심의	-		기획
3	서산시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부시장 (14)	서산시지방재정계획 심의 위 원 회 조 례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획
4	시정조정위원회	부시장 (8)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 조 례	시정정책수립등 주요 사항 심의	31	광장유료주차장위·수탁 적임자선정등 71건처리	기획
5	서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판사 (5)	공 직 자 윤 리 법	공직자재산등록사항 심사·결정	2	재산등록신고사항심사· 결정	감사
6	관용심사위원회	부시장 (5)	서산시관용심사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행정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은 관용	-		감사
7	향토유적보호 위원회	부시장 (6)	서 산 시 조 례	향토유적의 지정 및 조존	-		문공
8	조형물심의위원회	부시장 (13)	서 산 시 조 례	조형물 심의	-		문공
9	서산시인사위원회	부시장 (7)	서 산 시 조 례	서산시공무원의 승 진,전보,징계 등의 심의	7	서산시공무원의 승진,전 보,징계 등의 심의	총무
10	지방세심의위원회	부시장 (20)	서산시세조례제14조	지방세이의신청심의, 과세시가표준액결정, 기타 세정자문	-		세무
11	민원조정위원회	부시장 (13)	민원조정위원회운영 조 례	실·과에서협의를가 이루 여지지않은사항 협의	-		시민
12	서산시민방위 협의회	시장 (9)	민방위기본법제6조	민방위계획,민방위에 관한기관단체업무조 정	1	96서산시민방위계획심의	민재
13	서산시안전대책 위원회	시장 (29)	재난관리법제9조	재난관리주요정책협의	2	긴급구조구난 시범훈련 참관및종합재난관리에방 및 수습체계 협의	민재
14	서산시안전대책 실무위원회	부시장 (28)	재난관리법시행령 제13조	지역재난관리정책심의 조정	1	재난관리의종합적인예방 과 수습체계 협의	민재
15	생활보호위원회	부시장 (10)	생 활 보 호 법	보호대상자의결정,피 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변경 중지	48	보호대상자의 결정,피보 자에대한보호의변경중지	사회
16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심사위원회	부시장 (6)	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 기금설치및운영조례	기금의관리운용 등	52	기금의 용자대상자 결정 심의	사회

〈표〉 서산시위원회 현황 (계속)

구분	위원회명	위원장	설치근거	주요기능	횟수	96주요 운영내용	소관
17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부시장 (4)	의료보호법	보호기간연장승인등의 의료보호 주요사항	-	보호기간연장승인, 다른 진료지구진료승인	사회
18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9)	서산시노인복지기금 조성및 운용에 관한 조	노인교실, 충효교실, 백일장 등 노인복지 사업	1	기금지원사업기본계획,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관련사항	가정
19	서산시보육위원회	부시장 (11)	영유아법 제4조	보육시설의 설치및 운 영에 관한사항	1	보육시설신축선정기준 결정, 신축대상 선정	가정
20	모자복지기금운영위원회	부시장 (8)	서산시모자복지기금 조성및 운용에 관한 조	유자대상자 심의	2	기금의 관리및 운용에 관 한사항, 지원대상자 선정 에 관한사항	가정
21	물가대책위원회	시장 (19)	서 산 시 조 례	불가관련규정의제· 개정, 물가안정시책	4	상·하수도사용료, 공업 용수사용료, 도시가스요 금, 교통요금, 주차요금등	지경
22	농지관리위원회	시장 (330)	농지법 제46조	농지전용및취득심사	45	농지전용 및 취득위 권 802건심사	산업
23	농어촌발전심의회	시장 (35)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제52조	농림사업계획의심의	20	87개 단위사업심사	산업
24	초지조성심의위원회	부시장 (12)	조치법 제14조	초지조성, 관리, 전용 심의	-		축산
25	서산시도로굴착 관련사업조정 위원회	시장 (25)	서산시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설치 조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및년차계획 수립	2	도로굴착관련시설의유 지관리에 관한사항	건설
26	재해대책위원회	시장 (28)	서산시재해대책위 원회 운영조례	재해대책및재해보상 협의	-		건설
27	서산시도시계획 위원회	시장 (17)	도시계획법제75조	도시계획에관한자문	2	도시계획시설자문, 도시 기본계획자문	도시
28	서산시지방건축 위원회	부시장 (12)	건축법 제4조	건축계획(미판)심의	5	건축계획(민판)심의	건축
29	서산시토지평가 위원회	부시장 (11)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시행 령 제14조	개별공시지가심의및 의결	4	지가심의 및 의결	지적
30	서산시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서산지 원장 (9)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 제9조	공유토지분할개시결 정및 조서의결	4	분할개시결정 10, 분 할, 조서의결 3필지	지적
31	서산시농업산학 협동심의회	농촌지 도소장 (19)	대통령령제14773호	지역농업기술개발및 보급	3	농촌지도사업심의·평 가, 지역농업발전방안 협의	지도

4) 서산시의 인사기관

서산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하여 서산시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갖고 있다. 다만 부시장의 경우 첫기에 한해서 서산시장의 제청을 받아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사무국 소속직원의 경우 서산시의 회 의장의 제청을 받아 서산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서산시의 인사관리는 서

산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총무과 인사계가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1) 서산시청 총무과 인사계

인사계의 주요업무는 지방공무원임용권자인 서산시장의 명을 받아 인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의 임면, 기구 및 인력조정, 공무원보수 및 급여 연금사무,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공무원근무평정 및 경력평정, 승진후보자명부작성, 공무원의 각종 시험관리를 담당한다. 다만 교육훈련과 사기양양에 대해서는 총무과 내의 시정계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2) 서산시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은 임기 2년으로 5인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촉하는 위원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가운데에서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은 7인으로 구성할 경우 3인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4인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맡으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총원계획을 사정·심의하고 각종 임용시험을 실시하며,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징계의결, 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이에 의거하여 서산시에서는 조례로서 1995년 1월 1일자로 위원 7인으로 구성되는 서산시인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5) 서산시 공무원의 변화 추이

(1) 공무원 규모의 변화

서산시 공무원의 인력규모와 구조의 변화추이를 보면, 지난 30여년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다른 시·군에서도 전반적으로 공무원인력의 규모가 상당히 성장하였지만, 서산시의 경우 1965년도에 385명에 불과하던 공무원의 수가 1996년도에는 정원기준으로 볼 때, 약 2.7배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

다. 또한 공무원1인당 주민인구수를 보더라도 1965년에 693명에 불과하던 것이 1996년에는 140명으로 줄어 들었다.

〈표〉 서산시 공무원 규모 변화

구 분	'65	'70	'75	'80	'85	'90	'95	'96
공 무 원 수	385	483	561	697	858	875	1,067	1,019
총 인 구	266,834	270,826	266,269	257,097	242,494	140,305	140,331	142,151
공무원1인당 인구	693	561	475	369	283	160	132	140

공무원 규모의 증가는 각 시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60년대와 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의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생각되며, 80년대와 90년대에는 복지정책의 실시로 인한 공무원수의 증가로 볼 수 있다. 95년보다 96년의 공무원수가 감소한 것은 95년의 시·군통폐합으로 약간의 인력감축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살펴 보면, 65년도에 공무원 1명당 693명이었다가 70년대에는 500명수준, 80년대에는 300명 수준으로 격감하였으며, 최근에는 100명 대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행정서비스의 농도가 짙어졌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공무원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도 있다.

(2) 기관별 정원의 변화

서산시 행정조직의 각 부서별 인원을 살펴 보면, 시청의 경우 65년도에 불과 62명이던 것이 97년에는 무려 427명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나서 서산시의 행정역할이 시청중심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속기관의 공무원 수도 65년도에 57명이던 것이 현재에는 230명에 이르고 있어서 본청만큼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서산시 기관별 정원 변화

구 분	'65	'70	'75	'80	'85	'90	'95	'97
시본청 (지방의회포함)	62 (16.1%)	93 (19.2%)	101 (18.0%)	170 (24.4%)	207 (24.1%)	445 (50.8%)	557 (52.2%)	427 (42.4%)
직속 기관	계	57 (14.8%)	79 (16.4%)	78 (13.9%)	90 (12.9%)	127 (14.8%)	116 (13.3%)	187 (17.5%)
	지 도 소	49	67	65	78	83	55	50
	보 건 소	8	12	13	12	44	43	105
	기 타	0	0	0	0	0	18	75
읍 면 동	266 (69.1%)	311 (64.4%)	382 (68.1%)	437 (62.7%)	524 (61.1%)	314 (35.9%)	323 (30.3%)	350 (34.8%)
계	385	483	561	697	858	875	1,067	1,007

특히 농촌지도소의 경우는 새마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70년대와 80년대에는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들어 다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보건소와 사업소의 경우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읍·면·동의 경우는 65년 266명에서 85년에는 527명까지 성장하였으나 현재에는 350명에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청인력의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과거의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의 비중이 시청행정을 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하부기관인 읍·면·동 사이의 인력배분을 보면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65년도에는 시청이 16.1%, 직속기관이 14.8%인데 비해 읍·면·동은 69.1%정도의 인력배분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인력배분추세는 약간의 가감은 있었지만 80년대 초반까지 지켜지다가, 80년대 들어서면서 시청의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통통신의 발달에 힘입은 바 크지만 농촌인구의 감소와도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어쨌든 90년대를 들어서면서 부터는 시청기능의 강화추세가 가속화되어 급기야 50% 이상의 인력이 시청에서 근무하는 인력배분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시청과 읍·면·동 사이의 인력배분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청 직속기관, 즉 농촌지도소·보건소·각종 사업소·출장소 등의 기관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65년도에 농촌지도소의 인력증강에 힘입어 약 15%수준이던 것이 최근에 이르러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료복지서비스의 확산에 힘입어 보건소인력이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과 지방자치의 실시이후 각종 경영행정을 위한 사업소의 설치에 힘입은 바 크다.

(3) 국가직과 지방직의 구성변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의 국가직과 지방직의 신분상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직급에서 국가직이 상급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군수의 경우 국가직 서기관이었던 것에 비해, 같은 4급이지만 지방직서기관은 부군수로 보해졌다.

〈표〉 서산시 공무원의 국가직, 지방직

구 분	'65	'70	'75	'80	'85	'90	'95	'96
국가직	80 (20.8%)	99 (20.5%)	-	108 (15.5%)	111 (12.9%)	87 (9.9%)	44 (4.2%)	1 (0.1%)
지방직	305 (79.2%)	384 (79.5%)	-	589 (84.5%)	747 (87.1%)	788 (90.1%)	1,023 (95.8%)	1,098 (99.9%)
계	385	483	580	697	858	875	1,067	1,019

60·70년대만 해도 국가직이 20%남짓을 점하고 있던 것이 8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여 현재에는 부시장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직으로 보해지고 있다. 더구나 차기 집행부에서는 부시장도 지방직으로 보해질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 서산시의 경우 100% 지방직공무원으로 충원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60년대와 70년대에 국가직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산업화정책이나 새마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를 통한 강력한 정책추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는 복지 및 환경문제와 같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할 사업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역량도 과거와 비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면서 지방공무원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완전히 지방공무원으로 충원되고 있다.

(4)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의 구성변화

지방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은 1-9급까지의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1-9급까지의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하고, 지도직은 구분하여 기술하였으며, 지도직으로 구분되기 이전

(표) 서산시 공무원의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구 분		'65	'70	'75	'80	'85	'90	'95	'96
계		385	483	561	697	858	875	1,067	1,007
경력직	소 계	345	443	516	596	694	808	1,023	962
	일반직	344	442	510	590	672	603	767	743
	지도직	(49)	(67)	(63)	(76)	(79)	55	46	44
	특정직	0	0	0	0	9	17	0	0
	기능직	1	1	6	6	13	133	210	184
특 수 경력직	소 계	40	40	45	101	162	67	44	45
	정무직	0	0	0	0	0	0	0	1
	별정직	18	18	19	19	25	24	42	44
	전문직	0	0	0	0	0	0	0	0
	고용직	22	22	26	82	137	43	2	0

* ()의 수치는 일반직에 포함되었으나 지도직만을 별도로 추출한 것임.

에는 1-9급의 편제 내에서 운용되었으므로 일반직에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또한 특정직은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다. 서산시의 경우 경력직공무원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중 일반직 공무원이 대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정무직공무원은 민선서산시장 1명이 이에 해당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선출직으로서 주민의 대표에게 직급을 규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별정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이 없으며, 보수지급의 기준으로서 '상당' 계급을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별정직 5급상당' 등으로 표기한다. 별정직은 주로 비서 및 비서관, 사회복지전문요원, 보건진료원 등이 이에 해당되며, 지방정부의 조례 및 규칙으로서 임용되는 별정직으로는 지방의회 전문위원, 농기계교관, 위생감시원, 문화재관리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산시의 경우 과거에는 읍·면·동장과 보건소의 요원들이 별정직의 대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감소할 추세에 있다. 이는 과거 읍·면·동장들이 '별정직 5급 상당'에 해당되었으나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일반직 5급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고 있어서, 각 별정직의 감소는 기정사실화 되었다.

한편 고용직 공무원은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거의 충원되지 않다가 80년대 들어서 대폭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기능직으로 흡수되면서 고용직은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서산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능직의 정원은 184명이며, 현원은 이보다 더 많은 반면 고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5) 일반직의 직급별 변화

1급에서 9급까지의 일반직 공무원들의 구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이 <표>에서는 90년도 자료 이전에는 지도직도 포함된 수치이며, 1-9급까

<표> 서산시 일반직의 직급별 구성

구 분	'65	'70	'75	'80	'85	'90	'95	'96
3 급	-	-	-	-	-	1	1	-
4 급	1	1	1	3	3	4	5	7
5 급	5	10	10	15	17	32	52	52
6 급	27	55	61	149	158	153	187	178
7 급	123	126	125	153	199	170	255	255
8 급	67	100	146	114	193	162	215	210
9 급	121	150	167	156	102	30	52	41
계	344	442	510	590	672	603	767	743

지 구분되기 이전의 직급은 1-9급으로 환산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서산시공무원의 직급은 상위직급의 급격한 성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4급 서기관급의 경우 65년도에 군수 1자리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에는 7자리나 되며, 3급 부이사관직급은 과거 관선서산시장의 경우이다. 또한 5급 사무관직급은 65년도에 불과 5자리에 불과하던 것이 75년도에는 10자리였다가 85년도에는 17자리, 그리고 현재에는 무려 52자리나 되었다. 마찬가지로 6급 자리도 65년도에는 불과 27자리에 불과하였으나 현재에는 178자리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7급과 8급자리는 상위직급에 비해 성장이 완만한 실정인데, 2-3배의 증가를 보여 주고 있으며, 9급은 오히려 현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상위직의 현격한 증가와 하위직의 상대적 감소 및 완만한 증가는 서산시 인력구조가 바뀌고 있음을 말해 준다. 즉 지방행정의 실질적 중견관리자인 계장급(6급) 이상의 비율이 65년도에는 9.6%이던 것이 75년도에는 14.1%, 85년도에는 26.5%로 상승하다가 현재에는 31.9%까지 상승함으로써 서산시공무원의 인력구조상 약 32%가 관리자의 지위에 있다.

(6) 직렬별 변화

65년도와 비교해 볼 때 직렬수에 있어서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대략 65년도 서산시공무원들의 직렬수는 15개 내외였으나 현재에는 30여개에 육박하고 있어서 행정분야가 전문화되어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전산·기계·통신·사서·전기·화공·환경 등과 관련된 직렬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행정환경은 1차산업과 보건 및 의료에 집중되어 있으나 현재에는 행정환경이 더욱 복잡해 지면서 새로운 분야의 직렬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직이 관리자로의 승진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아직도 전문직렬보다는 행정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의 전문화가 요원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표〉 서산시 공무원의 직렬별 구성

구 분	계	일 반 직																				기 타							
		행 정	세 무	전 산	사 서	기 계	전 기	화 공	농 업	임 업	축 산	수 의	약 무	간 호	의 료	보 건	환 경	수 산	시 설	토 목	건 축	지 적	통 신	정 무	별 정	기 능	고 용	지 도	
65	385	96	92	-	-	-	-	-	79	8	2	1	1	-	3	-	3	-	3	-	4	1	2	-	-	18	1	22	49
97	1,007	379	53	5	5	3	4	3	55	10	6	2	2	-	15	16	51	17	11	1	64	17	13	2	1	44	184	-	44

6) 서산시 공무원 현황

(1) 기관별·직급별 현황

서산시 공무원의 정원은 모두 1,007명이지만, 현재인원은 989명이다. 이중 부시장 1명만이 유일하게 국가직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관별로 보면, 본청에 4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국에 17명, 농촌지도소에 47명, 보건소에 104명, 대산출장소에 7명, 각 사업소에 61명, 그리고 각 읍·면·동에 331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급별 정·현원상황을 보면, 상위직급일수록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하위직으로 갈수록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기능직의 경우 시군통합당시 정원이 감축되어 현원보다 더 많이 배치되어 있다.

〈표〉 서산시 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현황('98년 현재)

구 분	합 계		일 반 직												기 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정무직		별정직		기능직		지도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합 계	1,007 (1)	989 (1)	734 (1)	711 (1)	66 (1)	52 (1)	51	174	174	256	253	208	165	38	62	273	278	1	1	44	41	184	195	44	41
본 청	411 (1)	422 (1)	311 (1)	312 (1)	44 (1)	25 (1)	25	84	86	117	107	76	65	5	25	100	110	1	1	10	8	89	101		
의 회 사 무 국	16	17	10	10	1	1	2	2	3	3	3	2	1	2		6	7					6	7		
보 건 소	105	104	81	80	1	1	3	2	7	7	26	33	35	28	9	9	24	24		16	16	8	8		
농 촌 지 도 소	50	47														50	47			1	1	5	5	44	41
대 산 출 장 소	8	7	7	6			1	1	2	2	2	1	2	1		1	1	1				1	1		
사 업 소	67	61	40	38			4	4	11	11	14	8	11	9		6	27	23		2	1	25	22		
읍면동	350	331	285	265			17	17	67	65	94	102	83	60	24	21	65	66		15	15	50	51		

(2) 연령별 현황

연령분포를 보면 20대가 약 28%, 30대가 약 38%, 40대가 약 23%, 50대 이상이 약 11%정도를 점하고 있어서, 20대와 3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주축을 이루고 있어서 조직의 노령화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30대가 약 38%를 점하고 있어 20대보다는 30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

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은 30대들이 계속 재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정한 정원하에서 새로운 세대들의 공무원진출은 상대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직의 노령화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대부분 7급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는 30대들간의 인사경쟁이 심각해질 것이며, 아울러 20대들도 승진적체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표〉 서산시 공무원의 연령별 분포

구 분	계	20이하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합 계	989	1	45	237	203	178	122	110	54	36	3
일 반 직	소 계	706	1	37	169	141	138	90	79	32	18
	3급										
	4급	6						1	1	3	1
	5급	46			1		1	6	11	11	5
	6급	174				1	54	48	19	19	9
	7급	253		1	47	83	76	31	1	1	1
	8급	165		23	92	41	5	4			
	9급	62	1	13	29	16	2	1			
정 무 직		1								1	
지도직	지도관	3								3	
	지도사	38		1	8	4	6	2	8	2	6
별 정 직	소 계	46		1	15	13	3	4	3	4	
	5급상당	5							1	4	
	6급상당	16			3	6	2	2	1		
	7급상당	21			11	5	1	2	1		
	8급상당	4		1	1	2			1		
기 능 직	소 계	195		6	45	45	31	26	20	17	4
	6등급										
	7등급	6					1		3	2	
	8등급	21			1		4	3	4	7	2
	9등급	61			6	14	9	15	7	7	2
	10등급	107		6	38	31	17	8	6	1	

(3) 학력별 현황

서산시 공무원들의 학력을 보면, 대졸 이상이 약14%정도이고, 전문대졸이 약 18%, 고졸이 58%, 중졸이하가 약10%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대졸 이상이 32%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력은 높은 편이지만, 직급간 학력의 분포는 여러 가

지를 생각하게 한다.

우선 하위직급일수록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대학의 진학이 수월해져서 사회전반적으로 대졸인력이 증가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대졸자들이 안정된 공무원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쨌든 하위직에 고급인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앞으로 공직사회도 고학력시대가 도래함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오히려 상위직급에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인력이 배치됨으로 해서 상·하위직급자 간에 갈등의 유발요인이 될 수도 있다.

〈표〉 서산시 공무원의 학력별 현황

구 분		계	대 학 원		대 학		전 문 대		고졸	중졸	국졸	기타
			졸업	재학	졸업	재학	졸업	재학				
합 계		989	4	1	127	1	181	-	577	59	39	-
일 반 직	소 계	706	4	1	100	-	142	-	435	20	4	-
	3급	-	-	-	-	-	-	-	-	-	-	-
	4급	6	1	-	2	-	-	-	3	-	-	-
	5급	46	2	1	1	-	2	-	38	1	1	-
	6급	174	-	-	8	-	14	-	140	10	2	-
	7급	253	-	-	36	-	51	-	157	8	1	-
	8급	165	-	-	28	-	51	-	85	1	-	-
	9급	62	1	-	25	-	24	-	12	-	-	-
정 무 직		1	-	-	1	-	-	-	-	-	-	-
지도직	지도관	3	-	-	2	-	-	-	1	-	-	-
	지도사	38	-	-	13	-	6	-	19	-	-	-
별 정 직	소 계	46	-	-	8	-	21	-	17	-	-	-
	5급상당	5	-	-	-	-	-	-	5	-	-	-
	6급상당	16	-	-	1	-	12	-	3	-	-	-
	7급상당	21	-	-	7	-	8	-	6	-	-	-
	8급상당	4	-	-	-	-	1	-	3	-	-	-
기 능 직	소 계	195	-	-	3	1	12	-	105	39	35	-
	6등급	-	-	-	-	-	-	-	-	-	-	-
	7등급	6	-	-	-	-	-	-	-	2	4	-
	8등급	21	-	-	-	-	-	-	6	9	6	-
	9등급	61	-	-	1	-	3	-	29	15	13	-
	10등급	107	-	-	2	1	9	-	70	13	12	-

(4) 근속년수별 현황

서산시 공무원의 근속년수를 보면, 5년 이하 근무자가 약 25%정도이고, 6년이상 10년 이하 근속자가 34%정도인데 반해 11년이상 15년 이하 근속자는 단 8%

에 불과하다. 그러나 16년이상 20년 이하 근속자는 15%정도, 그리고 21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는 18%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10년 이하 근속자가 전체 서산시 공무원의 60%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11년 이상 20년 이하 근속자는 24%정도이다. 물론 조직구조상 장기근속자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11년이상 15년 이하 근속자가 7%에 불과한 반면 16년 이상 20년 이하 근속자가 16%인점과는 매우 대조되는 일이며, 이는 조직구조상 허리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승진 등에 있어서 매우 갈등이 심해질 것이므로 주목할만한 일이다.

또한 별정직과 기능직도 장기근속자가 적고 대부분 10년 이하 근무자인데, 별정직의 경우 향후 인사적체가 매우 심각해지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만한 일이다. 특히 이들은 다른 직과의 교류가 적기 때문에 동일직급간 경쟁이 격화되어, 사기저하가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서산시 공무원의 근속년수별 현황

구 분	계	1년미만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합 계	989	12	237	332	71	152	108	63	14	-	-
일 반 직	소 계	706	7	157	213	53	124	94	55	3	-
	3급	-	-	-	-	-	-	-	-	-	-
	4급	6	-	-	-	-	-	4	2	-	-
	5급	46	-	1	-	2	2	16	25	-	-
	6급	174	-	10	139	67	67	72	26	1	-
	7급	253	-	97	68	55	55	6	-	-	-
	8급	165	-	49	6	-	-	-	-	-	-
	9급	62	7	1	-	-	-	-	-	-	-
정 무 직	1	-	-	-	-	-	-	-	-	-	-
지도 직	지도관	3	-	-	-	-	-	-	3	-	-
	지도사	38	-	6	7	1	8	6	4	6	-
별 정 직	소 계	46	-	24	12	-	4	1	4	1	-
	5급상당	5	-	-	-	-	-	4	1	-	-
	6급상당	16	-	13	1	-	1	1	-	-	-
	7급상당	21	-	9	9	-	3	-	-	-	-
	8급상당	4	-	2	2	-	-	-	-	-	-
기 능 직	소 계	195	5	49	100	-	16	7	-	1	-
	6등급	-	-	-	-	17	-	-	-	-	-
	7등급	6	-	-	1	1	2	2	-	-	-
	8등급	21	-	1	7	3	6	4	-	-	-
	9등급	61	-	3	36	12	8	1	-	1	-
	10등급	107	5	45	56	1	-	-	-	-	-

(5) 직렬별 현황

산업화시대를 거치고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공무원의 직렬은 매우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산시 공무원들의 직렬을 보면, 일반직의 경우 행정직렬이 전체 서산시공무원의 약 38%로 가장 많고, 토목·농업·세무 등의 순서로 나타

〈표〉 서산시 공무원의 직렬별 현황

구 분	합 계	직							
		일		반		직			
		소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현 원	현 원	현 원	현 원	현 원	현 원	현 원	현 원	
합 계	1,007	711	6	51	174	253	165	62	
일 반 직	소 계	734	711	6	51	174	253	165	62
	행 정	379	372	4	37	116	126	89	-
	세 무	53	41	-	-	4	11	5	21
	전 산	5	5	-	-	1	-	-	4
	사 서	5	5	-	-	1	1	-	3
	기 계	3	3	-	-	-	-	2	1
	전 기	4	3	-	-	-	-	-	3
	화 공	3	3	-	-	-	1	-	2
	농 업	55	55	-	2	18	31	4	-
	임 업	10	10	-	1	3	3	2	1
	축 산	6	6	-	-	2	2	1	1
	수 의	2	2	-	1	-	1	-	-
	의 무	2	1	1	-	-	-	-	-
	약 무	-	-	-	-	-	-	-	-
	간 호	15	16	-	-	2	9	5	-
	의료기술	16	16	-	-	-	3	12	1
	보 건	51	51	-	2	5	22	14	8
	환 경	17	17	-	2	2	6	6	1
	수 산	11	11	-	1	4	4	2	-
	시 설	1	1	1	-	11	-	-	-
기 타	토 목	64	61	-	3	2	24	14	9
	건 축	17	17	-	1	2	3	5	6
	지 적	13	13	-	1	1	5	4	1
	통 신	2	2	-	-	-	1	-	-
	소 계	273	-	-	-	-	-	-	-
	정 무	1	-	-	-	-	-	-	-
	별 정	44	-	-	-	-	-	-	-
	기 능	184	-	-	-	-	-	-	-
	지 도	44	-	-	-	-	-	-	-

나고 있다.

직렬별 분류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5급 이상 상위직은 대부분을 일반행정직렬이며, 6급 계장급도 일반행정직렬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전문직렬들의 사기가 저하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저하 등 행정전문화에 역행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다.

(6) 여성공무원 현황

현대사회에서 여성인력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여성공무원의 비중도 해가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서산시의 경우 전체 공무원 중 약 21%가량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하위직급에 머무르고 있다. 5급 과장급 이상자는 4급인 보건소장과 별정 5급상당을 제외하고는 단 한명도 없으며, 6급도 일반직은 불과 10명이고, 6급 상당의 별정직이 14명인 것이 고작이다.

〈표〉 서산시 여성 공무원 현황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국	농촌지도소	보건소	대산출장소	사업소	읍	면	동
합계	205	54	3	5	86	0	10	6	26	15
일반직	소계	134	24	0	0	68	0	4	4	21
	3급	0	-	-	-	-	-	-	-	-
	4급	1	-	-	-	1	-	-	-	-
	5급	0	-	-	-	-	-	-	-	-
	6급	10	3	-	-	4	-	-	3	-
	7급	42	5	-	-	31	-	1	2	3
	8급	61	13	-	-	25	-	4	11	8
	9급	20	3	-	-	7	-	3	5	2
정무직	0	-	-	-	-	-	-	-	-	-
지도직	지도관	0	-	-	-	-	-	-	-	-
	지도사	4	-	-	4	-	-	-	-	-
별정직	소계	25	2	0	0	16	0	1	0	4
	5급상당	1	1	-	-	-	-	-	-	-
	6급상당	14	1	-	-	13	-	-	-	-
	7급상당	10	-	-	-	3	-	1	4	2
	8급상당	0	-	-	-	-	-	-	-	-
기능직	소계	42	28	1	1	2	0	5	2	1
	6등급	0	-	-	-	-	-	-	-	-
	7등급	0	-	-	-	-	-	-	-	-
	8등급	0	-	-	-	-	-	-	-	-
	9등급	10	7	-	-	1	-	2	-	-
	10등급	32	21	1	1	1	-	3	2	1

그리고 근무지도 시 본청이기 보다는 보건소(86명), 읍·면·동(47명)에 주로 근무하며, 시 본청에는 불과 54명밖에 없다. 이렇게 일반행정분야의 여성공무원이 주로 읍·면·동에 많이 분포하는 것은 민원창구에 많이 배치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7) 출신지별 현황

서산시 공무원의 출신지별 분류를 살펴보면, 서산시출신이 약 75이상으로 가장 많고, 태안군·당진군·예산군·홍성군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태안군이 서산시와 통합되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약 82%가 서산·태안출신이고 인접한 당진군 및 홍성군까지 합하면 86%정도가 인근 시·군출신이다.

〈표〉 출신지역별 현황

구 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대천	태도	
합 계	989	4	7	12	4	751	13	5	4	6	7	3	14	22	66	24	15	32	
일 반 직	소계	706	4	6	9	2	532	8	5	3	5	7	3	13	17	45	18	11	
	3급	0	-	-	-	-	-	-	-	-	-	-	-	-	-	-	-	-	
	4급	6	-	-	-	-	4	-	-	-	-	-	-	-	1	-	-	1	
	5급	46	1	1	1	-	33	-	-	-	-	-	-	2	2	1	1	-	
	6급	174	-	-	-	-	140	-	-	-	-	-	3	2	13	6	1	2	
	7급	253	-	-	2	2	200	-	1	2	1	2	1	7	7	13	6	2	7
	8급	165	2	4	3	-	125	3	1	-	-	2	-	2	2	11	2	3	5
	9급	62	1	1	-	-	30	3	3	-	2	2	-	1	4	5	3	4	3
정 무 직	1	-	-	-	-	1	-	-	-	-	-	-	-	-	-	-	-	-	
지 도 직	지도관	3	-	-	-	-	3	-	-	-	-	-	-	-	-	-	-	-	-
	지도사	38	-	-	-	-	28	1	-	-	-	-	-	-	2	2	2	3	-
별 정 직	소계	46	0	0	1	2	23	2	0	1	0	0	0	2	4	1	1	9	-
	5급상당	5	-	-	-	-	5	-	-	-	-	-	-	-	-	-	-	-	-
	6급상당	16	-	-	1	-	6	-	1	-	-	-	-	1	3	-	1	3	-
	7급상당	21	-	-	-	2	8	2	-	-	-	-	-	1	1	1	-	6	-
	8급상당	4	-	-	-	-	4	-	-	-	-	-	-	-	-	-	-	-	-
기 능 직	소계	195	0	1	2	0	164	2	0	0	1	0	0	1	3	15	3	1	2
	6등급	0	-	-	-	-	-	-	-	-	-	-	-	-	-	-	-	-	-
	7등급	6	-	-	1	-	4	-	-	-	-	-	-	-	-	-	-	-	1
	8등급	21	-	-	-	-	19	-	-	-	-	-	-	1	-	1	-	-	-
	9등급	61	-	-	-	-	49	2	-	-	-	-	1	1	7	-	1	-	-
	10등급	107	-	1	1	-	92	-	-	-	1	-	-	1	8	2	-	1	-

7) 인사관리

(1) 신규채용

서산시의 신규채용실적으로 보면 90년도에 81명을 비롯하여 91년도에 96명으로 증가하다가 93년부터 급감하여 97년에는 39명수준으로 까지 낮아졌다. 90년부터 92년까지 많은 공무원을 채용하게 된 것은 서산시·군으로의 분리에 따른 공무원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며, 93년부터 채용수가 급감한 것은 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동결한데 따른 파급효과라 생각된다.

채용방식에 있어서 92년도를 전후하여 특채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나 최근들어 다시 공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표〉 신규 채용현황

구 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계	81	96	86	34	17	20	46
공 채	64	76	41	18	10	14	31
특 채	17	20	45	16	7	6	15

(2) 승진 및 전보

승진과 전보는 별도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승진은 직급의 수직적 이동을 의미하며, 전보는 동일 직급간 수평적 이동을 의미하지만 사실상 동일 직급간에도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보도 일종의 승진과 같은 효과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한사람이 승진하면 연쇄적으로 전보를 통해 실질적인 승진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90년 이후 승진상황을 보면, 91년도의 경우 시·군분리에 따라 대폭적인 승진이 있었고, 96년과 97년에는 시·군통합으로 인해 승진인사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급별로 보면 시·군분리시기와 시군통합시기에 상위직 인사가 많았다. 이는 조직의 대폭적 개편이 있는 경우 상위직의 인사이동이 많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특

〈표〉 직급별 승진현황

구 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계	67	140	98	92	135	147	49
4급	-	2	-	4	3	5	-
5급	10	16	11	4	11	12	8
6급	19	36	11	13	12	24	3
7급	30	31	26	10	65	39	27
8급	8	55	50	61	44	67	11

히 시군통합에 따라 국장제도가 도입되면서 95년도에는 4급으로의 승진자가 많았다.

반면 하위직의 승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하위직의 경우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바로 승진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보자의 수도 승진과 비교적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승진에 따른 후속인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서산시의 전보자 수를 보면, 90년도와 91년도에는 시·군분리에 따라 전보의 수가 많아졌으며, 94년 시군통합을 목전에 둔 시기와 시군이 통합된 95년도에 매우 활발하게 전보가 이루어졌고, 96년도에는 통폐합에 따라 승진소요가 적었기 때문에 전보를 통해 인사불만을 해소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민선시장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직급별 전보상황을 보면 민선시장체제가 구축되면서 상위직의 전보가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하위직의 전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국·과장급이 정치적 영향력권에 들어서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표〉 직급별 전보현황

구 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계	113	137	93	105	141	147	118	84
4급	-	3	1	1	5	3	5	1
5급	8	18	7	12	6	21	14	16
6급	43	44	31	45	61	41	37	23
7급	31	45	17	18	24	38	27	24
8급	25	25	28	22	42	37	31	17
9급	6	2	9	7	3	7	4	3

(3) 퇴직

서산시의 퇴직자상황을 보면, 적게는 16명에서 많게는 37명까지 대략 30명 전후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략 인력의 자연감소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시·군이 분리된 시기를 전후하여 89년과 90년에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95년 시·군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의 퇴출현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직급별로 보면, 90년도 시·군분리직후와 시·군통합직후에 6급의 퇴직이 증가하는 현상은 주목할만 한 현상이다. 이는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이 적체되는 현상을 암시하는 동시에 조직의 통폐합에서 6급(계장직)이 가장 변동이 심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한다. 또한 최근들어 하위직급의 퇴직이 낮아진 것은 무엇보다도 안정적 직장을 희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직급별 퇴직현황

구 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계	30	37	31	29	22	16	26
시	8	16	11	12	6	5	26
군	22	21	20	17	16	11	-
4급	1	1	1	-	1	-	-
5급	1	2	1	-	4	1	7
6급	3	10	-	7	1	3	2
7급	2	-	3	-	-	-	-
8급	3	2	2	1	3	2	1
9급	2	8	8	9	3	1	5
별정직	0	-	1	3	6	4	4
기능직	9	4	13	9	4	5	7
교용직	9	9	2	-	-	-	-

한편 퇴직사유를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의원면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년퇴직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은 강제퇴직 사유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최근들어 당연퇴직이 늘고 있음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표〉 퇴직 사유현황

구 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계	30	37	31	29	22	16	26
정년	2	8	1	7	8	5	3
의원면직	16	13	27	20	14	8	12
파면	-	-	1	-	-	-	-
사망	4	-	-	1	-	1	-
당연퇴직	-	-	1	-	-	2	2
직권면직	-	-	-	-	-	-	-
명예퇴직	-	-	1	1	-	-	1

3. 서산시의 재정관리

1) 재정제도

(1) 재정기구

서산시의 지방재정기구는 서산시의회와 시청 내의 기획담당관실, 세무과, 회계과가 담당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확정, 예비비지출의 승인, 지방채발행, 결산의 승인, 계속비사업의 승인, 차입금과 출자, 계약체결, 공유재산의관리계획, 천재 등에 따른 지방세감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의 지정과 고시 등에 있어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시청내의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기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해 기획계와 예산계가 같은 부서에 편제되어 있는데, 이중 예산계가 서산시의 예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세무과는 세입과 관련된 제반업무, 예컨대 지방세의 부과·징수·조사업무와 세외수입 등에 대한 일을 처리하고, 회계과는 계약·지출사무와 구매 및 시유재산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 예산절차

①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매 전년도 9월 10일까지 각 실·과 및 사업소에 지침을 시달하면, 각 산하기관은 9월 30일까지 예산편성요구를 한다. 이를 받아 심사한 후 적어도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인 11월 21일까지는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예산편성기본지침,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채무부담행위설명서, 명시이월비설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예산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의장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 까지는 이를 의결하여야 하며, 의결된 사항은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예산집행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입·세출,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사무기구,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하는데,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한다.

또한 본청 담당관,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제1관서와 기타 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구를 받아 기획담당관은 세출예산을 경리관별 재배정하고 이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계검사 및 결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을 폐쇄한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대해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결산검사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3) 지방정부 예산의 종류

①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모든 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각종 업무수행에 관련된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특별회계보다 훨씬 큰 것이 일반적이며, 특별회계와는 달리 일반회계는 행정서비스로 인한 혜택과 예산지출을 연결하여 주는 사용료의 징수같은 것은 없다.

② 특별회계

지방정부에서 특별회계는 혜택을 받은 사용자가 일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 그것으로 재정지출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앙정부의 특별회계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의 운영을 위한 경우가 많고, 수입의 대부분은 사업운영을 통해 얻은 사업수입이며, 사업의 혜택을 입은 사용자가 지

불하는 요금에 의해 조성된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서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는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재원의 분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조달·관리하는 자금의 연원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체재원은 재정수입의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의존재원은 재정수입의 결정권이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에 있는 경우로 재원확보가 법정화되어 있는 지방교부세를 비롯하여 중앙정부 및 상급자치단체가 상당한 자율권을 갖고 액수를 조정할 수 있는 각종 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하도록 한정시킨 재원인 지방양여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표〉 지방재원의 구조

지 방 재 원	자 체 재 원	지방세
		세외수입
	의 존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① 지방세

1997년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15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군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다.

도세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마권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가 이에 해당된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공장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또한 면허세는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과징되는 세금이며, 마권세는 승마투표권의 발매로 얻은 수입에 대해 과징하는 세금이다. 공동시설

세는 소방시설물·오물처리시설·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그 시설물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지역개발세는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지역적 특수부존자원을 지방세원으로 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세금으로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컨테이너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표〉 지방세 구조

지 방 세	도 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시 · 군세	보 통 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목 적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시 · 군세 중 보통세는 7종으로 주민세는 시 · 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 또는 법인, 그리고 소득세 · 법인세 ·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과징하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건축물 · 중기 · 선박 ·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징하는 세금이며, 자동차세는 시 · 군 내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대물세로서 자동차가 가지는 재산가치 · 수익성 및 사치성에 대한 과세인 동시에 도로손상부담금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자에게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며, 도축세는 소 · 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의 제조자 · 수입판매업자 · 외국으로 부터의 반입 및 반출한 담배를 대상으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종합토지세는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징하는 세금이다.

한편 시 · 군세 중 목적세인 것은 3종으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토지 ·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공동시설세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를 한 장소, 즉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②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각종 의존수입을 제외한 수입으로 일반회계수입과 특별회계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수입에서도 경상수입과 임시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일반회계의 경상수입을 보면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이에 해당되며, 임시수입으로는 기부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특별회계수입은 특별회계를 통해 얻어진 사업수입이 이에 해당된다.

③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원배분의 문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 등을 해소하여 공공서비스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국세수입의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자금을 말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으로 비율을 법정화하고 있는데 보통교부세액이 내국세액의 12.1%로 하고, 보통교부세액의 10%를 특별교부세액으로 하여 총 내국세액의 13.27%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④ 국고보조금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쓸 곳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가 있는 사무의 경비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는 분담금 형태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을 경우 지원해 주는 교부금 형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여 육성·조장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의 보조금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⑤ 지방양여금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가 징수한 특정 세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에 양여하여 특정 사업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 전액, 전화세의 전액, 농특세의 19/1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며, 대상사업으로는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일반 지역개발사업 등에 한정하고 있다.

2) 서산시의 재정규모와 지방세

(1) 재정규모

서산시의 재정규모를 보면, 1965년에는 일반회계 1억1,200만원 수준이다가, 10년 후인 1975년에는 일반회계 12억 1,500만원과 특별회계 1억 8,6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 100만원 수준으로 약 10배이상 성장하였다. 또한 1985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95억 9,000만원으로 성장하였고, 1995년에는 1,496억 2,300만원 수준으로 괄목할 성장을 하였다.

특히 특별회계의 성장은 매우 주목되는 부분인데,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이르러서는 특별회계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서산시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도 이후 20% 안쪽에서 머무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와 함께 서산시의 수익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앞으로 특별회계부문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1인당 재정규모를 살펴 보면, 1965년도에 불과 420원이던 것이 75년도에는 5천원 수준, 85년도에는 8만원 수준이다가 90년대 들어서면서 급성장하여 96년에는 1백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표〉 서산시의 재정규모(예산기준)

'97년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65	70	75	80	85	90	95	현 재
일반회계	112	415	1,215	5,985	15,874	35,287	127,286	162,252
비율(%)	100.0	98.4	86.7	90.9	81.0	83.5	85.0	82%
특별회계	-	7	186	600	3,716	6,954	22,337	36,191
비율(%)	0	1.6	13.3	9.1	19.0	16.5	15.0	18%
계	112	432	1,401	6,585	19,590	42,241	149,623	198,443
총인구(명)	266,834	270,826	266,269	257,097	242,494	140,305	142,331	149,785
1인당 재정규모	420원	1,595원	5,261원	25,613원	80,784원	301,076원	1,051,232원	1,324,852원

(2) 지방세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를 비롯한 16개 세목으로 구분되며, 서산시의 경우 홍성세무서 관할에 있다. 서산시의 국세규모는 1995년 결산기준으로 볼 때 142억 9,500만원수준이며, 이

는 국세청을 통해 국고로 관리된다.

〈표〉 세목별 지방세 징수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91		92		93		94		95	
총 계		29,826	100%	24,200	100%	29,003	100%	30,178	100%	37,335	100%
보통세	취 득 세	11,588	38.9	5,536	22.9	5,102	17.6	4,834	16.0	6,400	17.1
	등 록 세	6,181	20.7	4,413	18.2	8,015	27.6	6,849	21.5	8,009	21.5
	면 허 세	116	0.4	156	0.6	191	0.7	242	0.8	319	0.9
	주 민 세	732	2.5	262	1.1	1,358	4.7	2,132	7.1	2,768	7.4
	재 산 세	539	1.8	829	3.4	957	3.3	1,110	3.7	1,124	3.0
	자 동 차 세	1,380	4.6	1,959	8.1	2,476	8.5	3,217	10.7	4,051	10.9
	농 지 세	55	0.2	101	0.4	45	0.2	109	0.4	140	0.4
	종합토지세	1,501	5.0	2,299	9.5	2,777	9.6	3,451	11.4	3,985	10.7
	담배판매세	6,137	20.6	5,306	21.9	5,526	19.0	5,494	18.2	6,986	18.7
	도 축 세	55	0.2	43	0.2	67	0.2	13	0.0	89	0.2
목적세	도시계획세	303	1.0	843	3.5	1,025	3.5	1,210	4.0	1,365	3.7
	공동시설세	193	0.6	384	1.6	455	1.6	575	1.9	551	1.5
	사업소세	639	2.1	720	3.0	736	2.5	758	2.5	916	2.5
과 년 도 수 입		405	1.4	349	1.0	278	1.0	542	1.8	632	1.7

한편 서산시의 지방세규모는 91년 이후 94년까지 약 300억원 내외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95년에는 370억원이 넘어서고 있다. 지방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을 살펴보면, 91년도에는 취득세가 38.9%를 차지한데 이어 등록세·담배판매세가 약 20%정도를 차지하여 지방세의 골격을 이루었다. 그러나 92년도에는 취득세의 비중이 떨어지면서 취득세·담배판매세·등록세의 순서이다가, 1993년도 이후로는 등록세·담배판매세·취득세의 순서로 비중이 바뀌었다.

또한 등록세·담배판매세·취득세의 순위가 바뀌기는 했지만 이들 3가지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91년도에 80%를 상회한데 비해 95년도에는 60%를 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최근의 지방세 증가는 기타 다른 세목들의 비약적인 세수증가에 힘입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자동차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나, 서산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과 함께 종합토지세의 비중이 증가된 현상, 사업소세가 비중은 작지만 전국 평균 1.9%정도의 비중인데 비해 2.5%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전국의 농지세가 급감하고 있는 반면 서산지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산지역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일반회계 현황

(1) 세입예산

서산시의 세입예산은 65년도에 불과 1억 1,200만원수준이었으나 1995년에는 1,273억 8,600만원으로 무려 12배정도가 성장하여 재정팽창이 상당한 규모로 이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물론 서산시만 재정규모가 증가한 것은 아니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팽창이 이루어졌겠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난 30년간의 세입예산 증가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있다.

우선 살펴보아야 할 점은 세입예산의 구성비중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65년도에는 지방세가 가장 중요한 세입원이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낮았다. 이 수치만을 보면 매우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수한 자치단체처럼 보일지 모르나 기실 영세한 재정규모를 염두에 둔다면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방치한 것이나 다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등 본격적인 지역사회개발운동이 전개되면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즉 65년도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3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70년도와 75년도의 경우 세입예산의 60-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개발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강화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은 다시 50%대로 떨어지면서 자체재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는 서산시가 자체재원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특히 세외수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지방세와 달리 서산시 자체적으로 각종 수입을 증대하려는 노력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서산시 세입예산의 변화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65	70	75	80	85	95	97. 말 현재
계	112	425	1,125	5,985	15,874	127,286	162,25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 방 세	54	90	285	1,263	2,580	21,050	25,508
	48.6	21.1	23.5	21.1	16.3	16.5	15.7
세 외 수 입	22	35	101	1,157	2,926	32,304	25,361
	19.9	8.3	8.3	19.4	18.4	25.4	15.6
지방교부세	8	172	379	1,553	4,603	34,068	49,762
	6.9	40.6	31.2	25.9	29.0	26.8	30.7
지방양여금	-	-	-	-	-	8,080	13,187
	-	-	-	-	-	6.3	8.1
국도비보조금	28	127	450	2,012	5,765	31,784	48,433
	24.6	30.0	37.0	33.6	36.3	25.0	29.8

* 과년도 수입은 지방세에 포함 ** 지정재원은 세외수입에 포함

결국 세입예산의 구조변화를 살펴보면, 재원의 다변화와 중앙정부 의존률의 감소를 통해 건전한 재정 속에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정자립의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서산시로서는 좀 더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3) 세출예산

그동안 서산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 놓여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업을 벌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이나마 주어진 세입예산을 통해 서산시 독자적인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나갔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출예산분석을 통해 서산시가 추구해 온 행정활동의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출예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반행정비의 비중변화이다. 60년대에 서산시

〈표〉 서산시 세출예산의 변화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65	70	75	80	85	90	95
계	112	425	1,215	5,985	15,874	35,287	127,28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의 회 비	0	0	0	0			842
	0	0	0	0			0.7
일반행정비	47	147	429	2,153			29,801
	42.1	34.5	35.4	36.0			23.4
사회복지비	14	44	105	1,029			13,464
	12.3	10.3	8.6	17.2			10.6
산업경제비	31	142	274	1,189			33,069
	27.3	33.4	22.5	19.8			25.9
지역개발비	14	67	303	928			39,963
	12.6	15.6	25.0	15.5			31.4
문화체육비	2	19	71	310			4,079
	2.1	4.5	5.8	5.2			3.2
민 방 위 비	1	3	6	77			619
	1.1	0.8	0.5	1.3			0.5
지 원 및 기타경비	3	3	27	299			5,449
	2.5	0.8	2.2	5.0			4.3

* 제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항목을 조정하였는바, 일반행정비 중 의회비·공보비를 빼고 계산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공익사업비로, 문화체육비는 공보비로, 민방위비는 소방비로 대체하였음.

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일반행정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반행정비의 비중이 거의 반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서산시의 활동이 일반행정에서 각 분야별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두 부문은 70년대 산업화정책에 따라 비중이 커지다가, 80년대 약간 주춤하지만, 90년대 들어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자치시대의 지역개발수요에 힘입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비의 비중은 70년대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80년대 복지국가건설의 기치아래 추진된 복지정책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다가, 90년대 들어 다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문화체육비 역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복지 및 문화부문에 대한 서산시의 정책은 아직 초보적 단계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 부문에 대한 정책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세출부문에서의 당면과제라 생각된다.

4) 특별회계 현황

(1) 특별회계의 수와 구성

서산시 특별회계의 수는 65년에는 하나도 없었지만, 70년도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농가대여양곡사업특별회계, 시범농촌조성사업특별회계 등 3개로 늘어났다가 현재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14개의 특별회계가 있어서, 특별회계의 수는 매우 많아졌다.

특별회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70년도에는 상수도·양곡·시범농촌조성사업과 75년도의 상수도·주택·주택개량·새마을소득금고사업 등 주로 농업부문과 지역개발분야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사업과 소득증대사업분야에 특별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복지부문과 기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현재에는 공영개발사업·농공단지사업·주차장사업 등 수익성있는 지방정부의 각종 사업을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실상 특별회계는 지방정부의 재정자금은 창구가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기업적 성격의 공공서비스나 특별한 재원과 서비스를 연계시켜야 할 경우는 특별회계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선자치시대에 각종 수익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앞으로 특별회계의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이름뿐인 특별회계의 난립으로 재정정보가 왜곡되거나 관리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표〉 특별회계의 변화추이

구 분	수	특 별 회 계 명	비 고
65	0		
70	3	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 농가대여양곡특별회계 3. 시범농촌조성사업특별회계	
75	4	1.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2. 주택관리특별회계 3. 농어촌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 4.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80	5	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 주택사업특별회계 3. 의료보호특별회계 4.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5. 공유임야특별회계	
85			
90			
95	13	1. 공기업특별회계 2. 주택사업특별회계 3. 의료보호특별회계 4. 새마을소득사업관리특별회계 5.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7. 주차장특별회계 8. 공영개발특별회계 9. 수석농공단지특별회계 10. 농어촌발전특별회계 11. 성연농공지구특별회계 1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 고북농공단지특별회계	

(2) 특별회계 규모

특별회계의 규모는 특별회계의 수만큼이나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70년도에 불과 700만원 수준이던 특별회계규모가 80년도에는 6억원규모로, 90년에는 70억원 규모로 성장하여 현재에는 230억원 규모로 성장을 하였다. 물론 전체 재정에서 차

〈표〉 특별회계 세입·세출상황 변화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65	0	0
70	7	7
75	186	186
80	600	600
85	3,176	3,716
90	6,954	6,954
95	22,337	22,337
96	21,036	21,036

지하는 비중은 15-20%정도이지만, 전반적으로 대단히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특별회계실적을 보면, 70년대 초에는 양곡사업의 비중이 높다가, 후반에 이르면서 새마을운동과 연계된 농촌주택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75년도의 특별회계실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주택관리특별회계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수도특별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비중이 커지는 양상이다. 한편 90년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수익사업을 전개하면서 공기업·공영개발사업·각종 농공단지사업·주차장사업 등 수익성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의 종목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4. 서산시의 정책관리

1) 자치시대 이전의 시정방향과 주요사업

70·80년대는 물론 90년대 초까지도 지방의회는 물론 시장·군수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선출되기 이전까지와 지방의회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 현재까지를 나누어 살펴 보려한다. 70년대와 80년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료가 미비되어 당시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90년대의 자료는 시정보고자료를 활용하였다.

(1) 70년대의 주요사업

① 1974년도 주요사업

충남일보(74. 1. 19)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송희섭(宋喜燮) 서산군수는 74년도 군정구호를 '내가 먼저 앞장서자'라는 구호아래 예산규모 총 10억 7,200만원으로 27만여명의 대가족을 이끌어 나갈 계획에 있었다. 또한 근면과 절약총화와 단결로써 알찬 서산으로 탈바꿈시켜나갈 송희섭군수는 새해 군정목표 역시 ① 총화단결 ② 소득증대 ③ 책임완수란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작년보다 50%나 증액된 예산규모로 ① 새마을운동 소득화 ② 농산물 생산증대 ③ 농가의 소득개발 ④ 치산치수사업확대 ⑤ 말단행정강화 ⑥ 군민체위 향상 등 6개항을 새해 역점방향으로 설정한 송군수는 6개방향아래 대체적으로 ① 군민총화운동 ② 새마을운동 ③ 식량증산사업 ④ 치산녹화사업 ⑤ 건설사업 ⑥ 취약지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에 있다.

74년도 6대 역점사업으로서 첫째 새마을사업은 국·군·도비 1억 5천만원과 자체부담 10억 6,440만원 등 총 12억 1,920만원으로 기초마을 58개소 자주마을 157개소 자립마을 38개소 총 253개 마을을 대상 새마을 가꾸기 1,712건을 연내에 매듭질 방침이다.

둘째로 군민 총화운동으로 군청산하 520여명의 전공무원이 하의상통으로 민의 창달을 기하고 상의하달로 말단 행정 침투를 강화하는 한편 체육대회와 경로정신고취, 건전가요보급운동·이웃돕기 운동·군민대화의 날을 통하여 군민총화를 다져나갈 계획에 있다.

셋째, 식량증산사업으로서는 2,137만원으로 농용석회 3,700톤을 공급시켜 객토 1,352정과 심경 5,094정에 대한 산성화 토질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관내 충수도면적 17,886정보에서 1,700정보에 달하는 면적을 통일벼 재배면적으로 확대시켜 반당 366.8kg 생산, 목표량 65,804톤의 통일벼를 생산하기로 했다.

넷째, 치산녹화사업으로서는 4,045만 4천원의 예산을 투입, 710정보에 달하는 야산에 밤나무와 연료림을 비롯 온사시나무·오동나무·가로수 등 2,170,700본을 식재하는 한편 2,025,000원을 들여 새마을양묘장 27개소를 설치 75,000본의 양묘를 생산하기로 했다.

다섯째, 건설사업으로서는 국도 502km와 지방도 115km·군도 179km의 도로를 정비보수 하는 한편 333만원을 들여 5개소의 도로개설과 3개소의 교량을 가설하기로 했다.

여섯째 취락지 개발사업으로서는 5,584만원을 투입시켜 근흥면신진도서지역 오지노선 3천m를 개설하고 취락지도로 개설 2km와 거아도·신진도 섬마을에 2백m의 방파제를 신축하기로 했다.

② 1977년의 주요사업

충남일보(77. 1. 11)에 보도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27만 군민이 합심협력하여 76년 군정을 알차게 매듭진 서산(군수 박창희)은 새해에는 푸르고 윤택한 새 서산건설을 위해 총화로 유신과업완수 새마을로 소득증대 성실한 지역개발에 군정방침을 두고 의욕적인 군정을 펴나갈 계획이다.

서산군의 예산규모는 일반 특별회계등 총 27억 3천만원으로 새마을 사업 증산시책사업, 국가시책연구사업, 지방숙원사업 해결에 군민의 총화된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새마을 운동은 생산기반 시설을 비롯하여 14개 사업에 1,714건의 가꾸기 사업과 88개의 승자마을을 육성할 계획이며 76년부터 가열점화시킨 전군 공원화 운동을 전개 500동의 지붕도색, 260동의 불량주택 개량 200동의 지붕개량사업과 95ha의 노변 절개지 보수사업으로 새 서산건설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식량의 대증산을 위해 지난해 7,100ha보다 2,900ha 가 많은 10,000ha의 통일계통 확대 재배와 3억 7,500만원을 투입 7개지구 수리사업 3개 지구의 농업용수개발사업 200ha의 집단개간 500ha의 개간사업을 촉진, 구릉지 생산화로 획기적인 식량증산시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또한 18개소의 거점 전략단지를 조성하여 농민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미곡 1,000kg 돌파단지를 조성, 500호의 농가를 참여시킬 것이며 단위면적의 고소득화 촉진을 위해 6개소의 시범포설치와 증산용역단 상설운영으로 시한영농과 영농의 성력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공무원의 공동의식과 우애증진을 위해 복지조립사업으로 800본의 밤나무를 심을 계획이며 3.5ha에 달하는 관광시범 목야지 진입로 조성사업, 10ha의 새마을 목장을 조성 50두의 한우도 입식키로 했다.

③ 1978년의 주요사업

대전일보(78. 1. 13)에 보도된 7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27만 군민이 총화단결과 협동정신으로 77군정을 알차게 매듭진 서산군은 78새해에도 이관현(李寬鉉)군수의 힘찬 전진이란 군정구호 아래 성실한 총화봉사 활동한 소득증대·과감한 지역개발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근간으로 모든 행정은 군민총화에 두며 서정쇄신은 안보적 차원에서 행정풍토 쇄신은 우리의 신조로 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펴나갈 계획이다. 새해 예산규모는 총 36억원으로 새마을 지속화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숙원 및 열망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새마을 사업은 마을권 주거권 협동권으로 나누어 3,000여건의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식량의 대증산을 위해 다수확 신품종을 작년 총답면적의 60%에서 3,600ha가 늘어난 15,200ha를 80%이상 확대 재배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항구적 한해대책 사업으로 소규모 수리시설을 확대 개발하는 한편 320ha를 구릉지 생산화로 식량증산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전도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미·운산지역을 선도 관광지로 정하고 문화재의 보존 공원으로 및 하천변 조성 취락구조개선 사업 등을 주축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연보호를 위한 각종 시설들을 설치하고 이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보건향상을 시범지역을 설정하여 질병퇴치운동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80년대 농가소득 250만원을 조기 달성키 위해 마늘 생강을 포함한 고소득작물 재배를 적극권장하여 새 소득 전통새우기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방침이다.

낙농사업으로 200두의 젖소를 일식키위해 170ha의 초지를 이미 조성했으며 굴투석 양식 및 주요 패류를 50ha의 수산증식 사업도 추진하며 공원 공설묘지를 조성 농지내 무연분묘는 이장농지의 활용을 극대화하며 아울러 승조사상을 고취할 것이며 특히 정석모지사의 특별배려로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

상한 황도의 연육공사를 실시 천고의 숙원을 해결할 계획이며 서산 시가지 도로 확장 공사를 비롯 안흥·태안 지역의 상수도 시설 등 내실있는 군정을 알차게 펴나갈 방침이다.

④ 1979년의 주요사업

대전일보(79. 1. 26)에 보도된 79년도 서산군의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78군정을 27만군민의 총화된 의지와 단결로 알차게 마무리진 서산군은 79년 [풍요하고 인정이 넘치는 서산건설]을 위해 '이관현' 서산군수는 군정구호를 [힘찬전진]으로 내세우고 ① 성실한 총화봉사 ② 월등한 소득증대 ③ 과감한 지역개발을 군정의 소신으로 삼고 모든행정을 군민총화전진에 초점을두며, 서정쇄신과 행정풍토 쇄신을 보다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알차게 실천하기위해서 7백여 산하공무원은 27만 군민을 위해서만 시종일관하는 자세를 강력히 시달렸다.

서산군의 새해예산규모는 총51억원으로서 전년대비 21%의 예산증가로 일반회계 46억원과 특별회계 5억원으로 그 중 일반 회계의 49%인 22억원이 새마을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및 식량증산, 소득증대를위한 투자사업비이다. 단위별 큰 사업으로는 태안,해미면의 상수도사업에 3억1천만원, 주택개량사업에 2,200만원이 투자되며 의료보호기금으로 7,900만원이 투자된다.

새해의 10대 중점 시책사업으로 총력안보, 새마을운동, 자연보호, 사회복지, 식량증산, 소득증대사업, 수산개발, 치산녹화 지역개발, 전통문화 개발을 선정하였으며 총화안보와 서정쇄신 정착화를 위한 반상회 운영내실화, 공무원 및 이장 반장의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새마을운동을 자연보호운동과 연결하여 자연 속에 조화되는 농촌 주택개량과 소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정신 환경 행동의 3대 질서운동 토착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복지 부분은 서민생활보호와 원호대상자, 노인, 어린이 보호에 힘쓰고 식량증산은 안보적 차원에서 퍼 다수확신품종을 전면적의 80%인 200ha이상 확대재배하고, 항구적 한해대책사업과 경지정리 농토개간등 다각적인 식량증산시책에 10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평년작 127%인 95만 3천섬의 식량을 증산할 계획이다.

또 특수시책사업으로 호조의 전망이 밝은 잠업,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늘과 생강, 인삼, 원예 작물을 여건에 알맞게 새소득갓기 운동과 염전 염수지에 대하(큰새우)를 위탁 양식시킬 계획이며 콩 증산운동, 벼10농가 증산회운영과 모든 시책을 파급 전파할 종합 새마을 교육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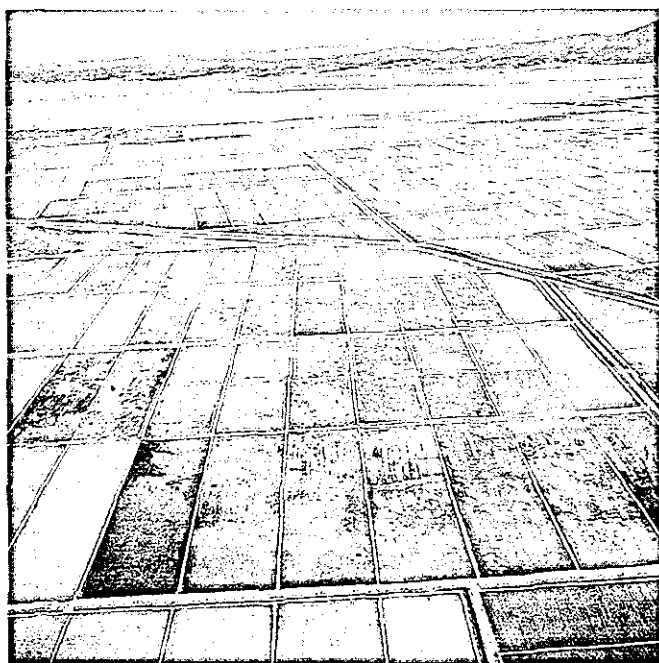
수산개발사업은 4만t의 어획고를 올려 그중 1만달리는 수출하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각종 수산 양식사업을 조성하고 조림, 사방 및 조림지 사후관리와

수목원을 조성 산림행정의 근본으로 삼는 치산녹화에 2억2천만원을 투자하고 15점의 문화재보수와 지방 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개발하는데 1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부모에 효도하는 충·효 사상을 근본으로 뜨거운 향토애와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상부상조의 미풍양속등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 한편 6.25전란에 희생된 민간 애국인사의 영혼을 위안하고 유가족의 반공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군민공원에 위령탑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알찬 계획은 풍요로운 80년대 복지사회 건설의 선진지 서산건설을 위한 힘찬 전진으로 매진 할 것이다.

(2) 1980년대의 주요활동

① 1980년의 주요사업

대전일보(80. 1. 8)에 보도된 80년도 서산군의 사업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천식 서산군수는 알찬 서산건설의 구호아래 올해 일반회계 61억 5천 2백만원 등 총 65억 6천 1백만원으로 ① 총화협동 ② 균형개발 ③ 주민복지를 3대 군정 목표로 삼고 주민위주의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쇄신과 행정풍토쇄신도 보다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것이며 산하 700명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존재한다는 신념하에서 일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사진〉 AB지구

새마을사업은 330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과 3개 마을의 취락구조를 개선하고 마을권 사업과 협동원사업은 계속 지원하고 1억 5천만원을 1도읍에 집중투자하여 소규모가꾸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이외에 20개소의 오지낙도개발과 2개 읍면의 취락지 대책사업 4개국도변정화사업도 병행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한다.

식량의 대증산을 위해 전면적의 70%에 해당하는 14,012ha에 신품종재배를 계속 추진하며 영농의 과학화를 위해 34,280명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연보호운동은 관광문화재보호사업과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서해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5개 해수욕장과 해미·운산 등 문화재 주위의 경관을 정화하여 전도공원화 사업의 확산효과를 거둬와 동시에 관광객을 유치토록 한다.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점차 호조의 전망을 보이고 있는 잠업과 원예 등 고소득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유통구조개선에도 노력한다. 수산진흥에 있어서도 주요 패류의 양식과 해태양식의 적극 보급·지도선기관 대체·어선양육장 시설·다목적 공동어선건조 등으로 어획고의 적극적 제고와 수출 증대로 어민보호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으로 서산읍 도로 확장, 태안·해미 상수도 시설, 당진선 복개공사를 추진하고 주민의 보건향상과 오지도서민, 의료 시혜의 폭을 넓히고 농어촌의 위생적 간이 급수시설을 위해 취락구조 개선 마을 및 수지 불량 지역에 우선 24개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만리포 해수욕장 급수시설도 금년에 완공하므로써 관광객의 편리를 도모한다. 또 군상징인 결명자차를 90개마을에 확대 보급하여 차제조 및 재배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군 상징운동으로 전부락 배구대회를 전개 및 권장하여 군민 총화와 체위향상의 효과를 거양한다.

② 1982년의 주요사업

대전일보(82. 1. 18)에 보도된 82년도 서산군의 사업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센 총화 복된 서산 건설'이란 기치아래 힘찬 전진을 계속하는 서산군은 희망찬 82년을 맞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구석구석이 활기차게 밝아질 전망이다.

군정방향은 새 시대 공직 이념확립과 복지사회건설의 기반구축을 위해 9백여 산하 공무원이 지혜와 역량을 총집결하여야 할 해라고 강조한 박찬무 서산군수는 이를 위한 역점 시책으로 ① 희망적 봉사행정구현, ②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③ 소득증대 ④ 균형적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의 편성에도 투자의 중점을 주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오지 낙후지 개발등으로 투자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고루 균점되도록 하는 등 개발의 여지가 많은 웅군 서산을 조화롭고

쾌적하여 수준 높은 환경으로 조성하고 정부의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맞추어 지역주민을 위한 농촌도시 생활권으로 개발한다는 개발의지가 담겨있다.

창조적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공무원정신 교육강화 여론행정강화를 위해선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여 대화기능을 확대하고 전공무원을 시책, 홍보 요원화 반사회 운영의 활성화 이동민원 관서제 실시로 관과 민을 밀착시켜 실질 봉사행정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의 획기적이며 몰량 중심을 지양하고 지역여건에 부합되며 주민의 공동 희망에 따라 사업을 선정시 행할것이며 이러한 목표 아래 군은 이미 123건의 가꾸기 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지난 4일 전부터 일제히 조기 발주되었으며 이 결과 마을환경 개선은 물론 약 6억에 달하는 사업비가 조기살포되어 취로인구확대에 따른 지역경기부양에도 커다란 몫을 차지할 것이다.

소득증대는 식량증산에 우선을 두고 미곡생산목표를 64만 5천 섬으로 정하고 다수확품종의 확대보급과 농토배양사업·병충해 방제사업·농지확대 및 용수개발에 역점을 두는한 편부존자원이 풍부한 연안어업기능을 확대 어민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개발을 위해 올해 23,200m의 오지도로 개설로 낙후지 주민편익과 소외감을 해소하여 군민 대단합 분위기 조성의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당진선과 만리포선 포장 사업을 마무리짓고 서산읍 소도읍가꾸기, 태안읍시가지 포장 등으로 도시화 추세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처하여 도시기반을 조성하며 지역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등 지역적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방침이다.

천혜의 풍치를 이루고 있는 해안국립공원을 연결시켜 임해 휴양관광지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며 공해없고 인심좋은 서해의 낙토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박군수의 강한 집념으로 2천년대로 향한 종합개발 의지이다.

③ 1988년의 주요사업

대전일보에 보도된 88년도 서산군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병선 서산군수는 지난해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른 많은 여건변화와 각종 재난 등 지역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위민봉사행정과 군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군정의 성장발전을 이룩해 금년에도 민·관이 서로 믿고 동참하는 군민화합과 위민봉사 행정을 바탕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본격적인 서해안 개발시대를 맞이하여 서산군은 대산임해공업단지 조성 및 대호지구 AB지구 등 대단위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고장으로 유동인구 등 앞으로 지역적인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배후도시 건설과 서산읍 시승격을 대비한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비롯하여 하수구 시설 등 각종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며, 대규모 사업과 연계되어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서산군을 찾을 것을 예상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 사업과 연계시켜 관광객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민자유치 등을 병행하여 천혜의 보고인 서산 해안국립공원의 본격적인 개발, 대호지구·AB지구 등 대단위 개발사업지구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루 혜택을 받는 복지 농어촌 건설을 위해 그동안 추진되지 못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하는 한편 농촌 기계화로 복지농촌을 앞당기기 위하여 경지정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모든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금년 한해도 서해안 시대를 맞아 2천년대를 지향하는 웅비하는 서산건설의 기반을 굳게 다져나갈 방침이다.

(3) 90년대의 주요사업

① 1990년도 서산시·군의 주요사업

지난 해에는 K-Z지구 사업 성공적 수행과 대산항로보상집단 민원 타결, AB지구 농약 피해보상 타결, 공원공설묘지 철폐요구 집단민원 해결, 군민체전과 병행하여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성대한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도민체전에서도 13위에서 8위로 부상하여 군세를 과시하였으며, 유망중소기업 12개 업체를 입주 완료하였다.

가. 서산 '뿌리' 정신의 계승 발양

'뿌리' 정신 실천 덕목을 선정해 향토학교를 운영해 주민과 학생들에게 교육 실시, 향토 사료실을 개설하고 서산전통문화발양등 자랑스런 전통 문화 발굴 선양, 새마을 정신을 재무장하고 고향 아름답게 꾸미기등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나. 자치 행정 능력의 배양

주민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군민의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군민화합 기반을 조성하며, 공무원의 기업정신 연수를 확대하여 소명의식 투철한 공직인으로 육성하고, 택지조성등 수익적 공영 개발을 확대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힘쓴다. 또한 "군민의 소리"함을 설치 운영하여 안전 저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 안정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 공직 도덕성·명예 수호

청렴하고 공명정대한 새로운 공직관을 정립하여 정직·책임·신뢰행정을 구현하며, 대가족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주택 공무원 APT 건립등 공직자의 자긍심을 진작시킬 계획이다.

라. 청정·쾌적한 환경 관리

선도조직 활성화와 위법 부당 행위 근절을 통하여 준법 질서 사회 구현, 대중위생업소 중점관리와 보건 예방활동 전개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충효사상 고양과 청소년의 선도 활동을 강화해 건전 사회기풍을 진작시킨다.

마. 공업화와 지역경제력 제고

상수도기본계획과 서산-대산간 4차선 도로 확장등 배후도시 성장 기반 확충, 농공단지 조성과 환경영향평가등 지방산업의 건실한 육성, 마을환경 개선사업과 군도포장사업 실시등 주민 편의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한서대학교 설립추진 후원과 대산공단지역 공업고등학교 유치등 민간 편의 사업의 지원에 역점을 둔다.

② 1991년 서산시·군의 정책방향과 주요사업

도로포장율을 비롯 상·하수도 보급율, 주택 보급율 등에서 현저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장려상 수상 및 활발한 장학사업 추진으로 2개 장학재단이 설립하는등 바람직한 시민기풍의 진작에 힘썼다.

가. 국법질서확립과 지역안정

공용 주차장 시설확충과 쓰레기 및 공해오염요인추방운동 전개 및 항. 포구 정화운동을 펼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활동과 안전 저해요소 예방과 소방활동 능력 확충사업, 군민의 권익보호행정 구현과 서산 “뿌리정신”을 발양하여 군민화합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나. 지방자치기반구축과 신뢰행정구현

지역개발의 공영화, 지방재정 수요 확보등 자주재원확충과 생산적 의회 운영 유도등 완벽한 자치행정을 구현하여 지방자치역량을 제고하고, 권위주의 청산으로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하며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양양함으로써 정직·책임·신뢰 행정구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다. 건전한 사회복지 육성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와 영세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주고 생활 안정기금을 지원,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공기의 보전, 소음·진동 방지등 청정·쾌적한 환경관리에 노력하며, 노인건강 진단과 경로효친사상 고양 및 모범청소년 발굴표창등을 실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킬 계획이다.

라. 농어촌 활력 회복

농어민 후계자 양성기금 조성과 농지매입기금 지원등 농어촌 부흥 인재육성, 특화작목 개발과 인공 사료육 농가 육성에 기술을 보급해 전략농업 발굴 육성사업을 펼칠 것이며, 경지정리, 농기계 이용을 제고, 축산진흥, 수산 개발등 안정 소득기반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수경재배시범, 포장용기 개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소득을 제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선과 농어촌 가로등 설치등 농어촌 환경 개선에도 힘 쓸 계획이다.

마. 지역개발 역량 확보

대산공단 배후도시 촉진과 해미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등 개발수용 도시기반조성, 음암,도당,지곡,화천등 택지조성 마무리등 공영개발 확대, 성연 및 고북 특별농공단지 완료등 농공단지의 확대와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실시해 공업화를 추진하고, 구인창구 운영 등을 통하여 공단인력 수급 대책을 세우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며, 동시에 유출을 방지하도록 할 것이며, 소규모 숙원사업과 오지개발 사업 등을 벌여 주민의 편의사업을 확대하고 한서대학교 개교를 촉진하고 공업계 전문인력육성학교신설등 지역개발 촉진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바. 지방문화창달과 관광개발

향토역사관실 운영과 문화강좌를 실시해 향토 문화예술 활동기반 조성, 서산벚가릿대놀이와 향토민속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전통 민속 예술 발굴 선양, 체육진흥 후원회 구성과 학교체육 육성을 통해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해 군민체육의 진흥, 해미임해관광개발과 AB지구 염수호 개발등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2) 자치시대의 서산시·군 정책방향과 주요사업

(1) 민선시장체제 출범 이전의 주요활동

① 1992년 서산시·군 정책방향과 주요사업

14대 총선·대선의 공명선거 실현과 AB지구 관행어민 보상심의 착수등 지역안정 기반구축과 마늘, 생강 가공공장 유치와 대도시에 농산물 직판장 11개소 설치등 농어촌 활력화 사업으로 농민 실질소득 증대 및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안전선생 탄신기념 도내학생미술대회 개최와 도민체전 상위입상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제고하였다.

가. 국·도정 과제의 성실한 실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0년대를 이끄는 국민운동으로 승화하며, 공정한 선거관리는 물론이고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고 시민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며, 불편·부당요인 사전해소와 다양한 대화기회를 마련하여 대화시정을 확산하고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분열을 예방하여 지역 화합과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나. 알찬 지방자치 역량의 배양

공직자 전산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일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발전 행정역군으로 육성하고, 지역 유선 방송망을 활용하여 주요 시책과 공지사향등 대한 시정 홍보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에게 파고드는 시책전개에 주력한다. 또한 의원들의 각종 연수기회 확대와 능동적인 자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에 접수된 민원의 성실한 처리를 통하여 바람직한 의회 관계 정립에 힘쓰며, 내고장 담배애용 운동 등을 전개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완벽한 국공유 재산관리를 실시하여 자주 재정 기반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다.

다. 바람직한 선진 시민상 정립

서산시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기 위한 “서산시지”발간을 추진하고 서산인의 향토애가 서려있는 뿌리깊은 장소인 양유정을 개발하는 등 우리 것 가꾸기 운동 추진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주부대학의 활성화, 충효교실의 확대운영과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생활기풍을 조성하고, 저소득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불우이웃 돌보기 운동을 전개하여 훈훈한 도시 조성과 문화타운 조성, 건전놀이 발표대회 개최 및 시범 레포츠 단지조성등 살아 숨쉬는 문화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라. 지역 현안 과제 해소

취수 및 정수능력 증강과 과학적인 누수탐지를 실시해 공급능력을 향상시키고 철저한 수원관리 등 물문제 해소에 노력하고, 서산·대산간 4차선 국도를 개설, 교통 안전 시설 확충과 장애요인을 정비하여 교통난 완화와 가정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와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실시하여 완벽한 쓰레기 처리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마. 미래 지향적인 도시개발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와 광역 행정 협의회 운영 등을 실시해 서북권역의 배후기능을 육성하고, 농로 100% 포장 5개년 계획 추진과 유통구조 사업비 지원등 농가 소득원을 개발하여 지역기반의 내실 있는 확충에 힘쓰며, 방역활동 강화와 시민 건강 교실을 운영해 건강한 도시보장과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등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 도시 재정비계획 완료와 장기발전계획 수립등 발전계획의 가시적 추진에 힘쓴다.

② 1993년도 서산시·군의 주요사업

지난 해에는 공직자 의식개혁을 통해 제도 관행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 행정 쇄신기획단 운영과 민원 1회 방문 처리로 위민행정에 진력하였으며, 도·군민 체육대회를 통한 군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의 새로운 모습을 창출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전문기관에서 공해피해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지도2계를 현지에 설치하여 공해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대산 3사 주변 공해 피해 대책 마련하였다. 또한 군의회의 팔목할 만한 의정활동과 함께 최우수상 1분야와 우수상 4분야등 으뜸 군정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가. 지역안정과 군민화합 기반 구축

집단민원의 근원적 해결과 양대 선거로 분산된 민심의 재결집과 화합·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여 새정부 출범에 따른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문제의 자체해결 기능 강화와 대화계층의 다변화와 내실화를 기해 절대 지역 안정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나. 진정한 민주자치 행정의 실현

정기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공직자 새정신운동을 전개하며, 지역현안에 공동대처, 의회결정 사항의 성실한 집행등 원할 한 의회운영을 지원하며,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위민행정을 구현하여 높은 봉사행정을 추구한다. 또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개발의 공영화를 실시하여 자주 재원의 확충에 힘쓴다.

다. 살기 좋은 선진 농어촌 육성

영농 기계화 촉진과 선진 농업현장 견학을 통하여 농어촌 정예인력 양성, 불량주택 개량과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하는등 농촌 생활 환경 개선, 무공해 오이재배 등 소득원의 적극적 개발과 대도시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우리농산물 애용운동을 전개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라. 2000년대를 지향하는 조화로운 지역개발

토지와 부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방안을 설정하고 2000년대 농어촌 발전비전을 제시, 농어촌 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확립하며, 토지구획정리 사업 착공과 상·하수도 시설공사를 실시 대산 신도시 개발 추진사업, 도서·오지 개발사업과 주민 편의 숙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조화로운 지역개발과 내고장 으뜸가꾸기 관련 생산업체 유치와 부실업체 정리등 공업화 추진사업을 추구할 계획이다.

마. 쾌적한 삶의 공간조성과 복지사회 구현

공해배출업소 특별관리와 쓰레기감량과 환경기반 시설의 획기적 개선,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대산 석유화학단지 특별관리하여 상존 하는 민원 발생 요인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무의촌 자매결연 진료 및 오지주민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등의료시혜의 확대와 노인복지 수준 향상 추진 등의 복지 시혜의 내실화, 청소년 어울림 마당 활성화와 여성들의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을 인도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부녀복지 증진, 간이급수 시설의 정기 수질 검사와 오염시설의 개. 보수를 실시하여 농어촌 식수의 수질개선과 완벽한 방역사업을 실시한다.

바.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흥

향토 민속사료실운영과 문화유적지관리 등을 실시하여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 발전하고, 동네체육 시설 사업추진과 면단위 복지 회관에 생활체육시설 지원을 실시하여 생활체육 진흥에 주력한다.

③ 1994년도 서산시·군의 정책방향과 주요사업

가. 깨끗한 군정실현과 참 봉사행정 구현

갈등·반목 요소를 해소하고 순리와 상식이 존중되는 관행을 정립해 지역안정의

기반을 조성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중점 처리해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다채로운 화합행사를 개최해 주민화합운동을 전개하며, 민편의 주의의 민원처리와 거듭나는 공직자 의식개혁을 통해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함으로써 책임·신뢰 행정의 구현과 지방재정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을 실시해 성숙한 자치의식의 함양을 도모하고, 행정에 대한 관심과 군민의 참여로 생활개혁 10대과제 실천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나. 지역경제의 활력증진과 성장기반 구축

생필품수급 및 가격동향 관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해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중소기업 육성 지원강화와 노·사화합과 임금안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 저축증대 운동 추진과 가정·직장·기업체의 절약목표를 설정해 근검절약의 생활화 추진, 입주업체 추가 모집과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해 공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기찬 지역개발사업

서해안개발의 중핵으로서의 발전방향 제시와 지역특성을 살리는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과 운산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해 지역발전 기반시책 사업을 추진하며, 특수지역의 중점개발과 주민 편익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숙원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다.

라. 돌아오고 싶은 복지농어촌 건설

농민자녀의 학자금 지원과 농촌 인재의 체계적 양성을 통해 농촌을 이끌어갈 주도세력 육성, 농기계종합관리시스템 시설과 시설하우스의 오이재배를 실시해 농정종합시범사업 추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마늘·생강등 유망작목을 적극개발, 지원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 부엌 및 욕실등 주거 환경 개선과 농업기계화를 추진하여 활기찬 농촌생활 기반조성, 한우약소마을 시범육성과 양식어장 개발등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보전관리

대산근린공원 개발과 가로화단을 조성해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과, 합성세제 덜 쓰기와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실시하여 맑은 물 보전운동 전개, 소형소각로 설치와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방지, 재해우려지역 정비와 신재해대책에 의거 신속한 재해대책 행정체제를 확립, 재

난대비 강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바. 어려운 계층의 알뜰한 보호

자녀 학자금 지원과 생업 자금을 융자해 생계지원 및 자립기반조성사업, 오지지역 무료진료와 전염병 예방을 강화하는 등 의료시혜를 확대하여 군민건강 관리증진, 노령수당과 교통비지급을 실시, 활기찬 노후 생활보장과 불우아동에게 학비지원 등 소외계층의 안정적 보호, 청소년의 건전오락 보급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건강한 사회구현에 노력할 계획이다.

사. 향토문화의 발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서산문화제 개최와 간월도 굴 부르기 군왕제 행사 등을 실시하여 향토 문화 진흥, 읍·면민 체육대회 개최와 동호인 중심의 체육을 활성화하여 군민 생활 체육의 보급에 주력할 예정이다.

(2) 민선시장체제 출범 이후의 주요활동

① 1995년도 서산시의 정책방향과 주요사업

지난 해까지의 주요성과를 보면, 시 심볼마크·서체 등을 개발하여 서산시 개성화(C. I. P)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지방부채중 고율자금 차환조치(41억원 절감)등 지방자치에 걸맞는 경영행정을 추진하였고, 지위·연공승진보다는 시민봉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조성해 공무원 신가치운동도 전개하였다. 또한 자치시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최우수상 2개분야, 우수상 1개분야, 장려상 3개분야) 수상한 바 있다.

민선시장시대를 맞이하여 서산시정을 펼치기 위한 기본구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완전 자치시대의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 시민의 불편사항을 추적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시민생활의 쾌적도 향상
-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사업 적극 발굴추진 경쟁력제고를 통한 자주재정 실현 기반 조성
- 생산자(공무원)편의가 아닌 소비자(시민)중심의 행정사고를 정착시켜 자치행정 마케팅 추진

가. 세계화를 향한 “변화와 개혁”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통해 공무원 신가치 운동을 전개해 행정불신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며,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채로운 화합행사의 개최와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시 만들기"사업을 실시해 새로운 화합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경상비 절감을 위한 절약운동과 지방채 규모축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 건설한 자주재정의 기틀을 마련 하고, 의원들의 연수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자료 및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대의회관계를 발전적으로 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실시될 지방4대선거에 있어서 잡음 없고, 후유증 없는 선거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나. 지역부가가치의 극대화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마늘·어리굴젓등 지역특산물을 생산기술의 고도화를 실시해 일류상품화를 추진하며, "규모의 농업"보다 "농산물 고부가가치"를 유도해 농업경영 방식의 혁신을 유도한다. 또한 관내 농협과 대도시 동간 자매결연, 직판장을 개설해 농·특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과 대산공단단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해 대산 공단 입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의 해미 I. C공사등 총 14건의 공사를 실시해 도·농사회 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 밝은 사회 조성

청소년들에게 방학중 전통예절교실을 운영해 현대 산업사회에 걸맞는 도덕성 창출에 노력하고, 좋은 영화보기운동 전개와 가족단위 시민 장기자랑등 시민 건전문화 정착에 힘 쓸 계획이다. 또한 노인자원봉사 기회 확대와 모자가정에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해 소외계층의 보호에 힘 쓸 계획이다.

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보존

상수원 보호구역의 완벽한 관리와 가정용 지하수의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공급과 쓰레기 종량제 감시위원회를(시민 10-20명으로) 구성·운영해 깨끗한 환경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마. 문화예술과 관광진흥

안전탄신기념 미술사생대회 개최와 문화재 보수를 실시해 서산문화의 우수성 발굴 홍보에 노력할 계획이며, 간월도지역 관광지 개발계획 추진검토와 타당성 조사 및 서산3대관광지를 개발·홍보할 계획이다.

② 1996년도 서산시의 정책방향과 주요사업

본격적인 민선자치시정을 펼친 해로서 종합사회복지관과 도서관 대산 분관의 개

관을 통해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였으며, 정책기구 설치등 자치시정에 걸맞는 조직개편등 정책개발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대산지방해운항만청 유치, 성연농공단지확장, 현대정공유치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반조성에도 최선을 다했으며, 도민체전에서는 2위를 차지해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한 몫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풍년농사로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시정에 있어서도 시책 추진 우수분야에서 수상하기도 하였다.

가. 세계화를 향한 자치행정 구현

세계화를 향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서산시에서는 종합 관찰제 정례화로 방치된 행정사각지대 해소와 민원상담관을 고정 배치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부채를 줄이고, 신규채무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우수제안제도를 확대해 건설한 자주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사무자동화 시범 사무실을 설치하고 공무원들의 해외 배낭연수를 확대해 엘리트 공무원을 육성할 계획이며, 일본 천리市에 이어, 중국 진황도시와 결연을 추진해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산·학·관 연계를 통해 관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시민의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한다.



〈사진〉 장기발전계획 발표회

나. 부가가치 높은 농·어촌 육성

농촌 지도인력 기술습득 해외연수를 실시 농민의 현장애로 타개와 기술보급을 강화하고, 양질의 특산물 홍보 및 판촉을 통해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특산물의 초일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감나무 마을 조성과 화훼단지를 조성해 소득증대 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다. 활기찬 지역개발 가속화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도시 및 농어촌의 권역별개발 등을 총망라한 조감도를 작성, 시건설 종합개발계획을 구상하고, 향후 20년(1997 - 2016)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공간을 재편성하여 광역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보행자 무단횡단 및 장애인·노약자 보호를 위한 시범보차도 설치등 도시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7개소 11.3km에 이르는 농·어촌 도로화·포장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다.

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환경보존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장기적인 환경보전계획을 확립하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 위생 매립장을 시설해 환경 오염의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종량제 봉투세일 및 그린-패트룰제를 운영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도모하고, 노후관개량 및 간이상수도 개·보수와 무료 수질검사 통보제를 실시해 고급 식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 어려운 계층의 복지 시책

소외계층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 및 모자복지기금 조성 운영과 모자가정 기술교육을 실시해 저소득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영세노인 무료 의치수술과 질병 모니터(130명)운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서산출신인 안견 선생의 예술혼 고취(안견미술대전)와 해미읍성의 복원을 통한 지방 문화예술의 활성화사업, 간월도 철새도래지 개발과 운산용현계곡 개발을 실시, 짜임새 있는 관광지 개발을 추구하고, 종합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직장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해 체계적인 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예술인 초대전 개최와 정기적인 '문학의 밤' 운영(주 1회)을 실시해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③ 1997년도 서산시의 정책방향과 주요사업

가. 21세기를 향한 자치시정 구현

21세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민선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자치시정의 구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불편 신고업무제를 운영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시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부문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일소하고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의 기업체 연수를 실시해 유능한 공무원의 육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여러 도시들과의 교류를 통한 자치행정의 세계화를 추진하며, 안으로는 고향 바로 알기 운동을 전개해 서산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어촌 활력화 시책전개

서산시의 주요 산업인 농·어업의 진흥과 식량자급자족의 대원칙하에 활력있는 농·어촌건설을 위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농업 실천을 위한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단감나무 마을 조성과 농산물 공판장을 건립해 소득 기반사업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다. 경쟁력 강화와 지역개발

지방자치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 정보센터 운영과 취업 정보지를 발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며, 6쪽 마늘등 지역 특산물 100품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가이드북을 제작해 지역 특산물의 일류상품화와 홍보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3.2km에 이르는 노후 상수도관의 개량과 14개소의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70동의 농·어촌 불량주택을 개량해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6개소의 하천정비사업을 펼쳐 농·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최근 심각해 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월호 철새공원 조성과 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해 쾌적한 환경보존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오염 자동감시망을 설치 운영해 공해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물을 재활용하려는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단지와 대중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환경 오염원의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마.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일반주민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모범가정 발굴 표창, 가훈전시회, 가족등산대회등 가정 바로 세우기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저소득층의 자녀학비·학자금, 생활안정기금융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무의탁노인등에게 가정방문 간호를 실시해 의료 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대학, 수요강좌 등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의식변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언어치료, 수화교육 등 특수교육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바. 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한 문화·예술사업으로 민속놀이 경연대회, 민속예술제, 백제문화제 행사에 참여하여 전통 민속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유선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효과 높은 시정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체육센터 등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해 지방 체육의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소홀했던 회관공간의 화랑화와 기획 전시 및 초대전을 개최해 문화행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5. 서산시의 실·국·소별 행정

1) 각 담당관실

보좌기구는 실 또는 담당관으로 호칭되며, 실의 설치기준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하며, 담당관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서산시에서도 기획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정책개발담당관실을 두고 있다.

(1) 기획담당관실



〈사진〉 토론회

① 개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과 예산, 법무업무, 통계업무, 그리고 지방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획계·예산계·법무통계계·의회계를 두고 있다.

② 업무

가. 기획계

기획계에서는 시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장·중·단기 기획수립 및 조정, 대통령·국무총리·도지사 및 시장 지시사항 처리, 광역행정 협의회 운영,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국제간 협의 교류·협력증대, 해외교포와의 유대, 자매도시 관련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예산계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예산배정 및 통제, 예비비 관리, 지방채·기채·일시차입 및 채무부담 행위, 자체결산 심사, 중기재정 계획 수립, 지방행정 동원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주요투자사업 종합계획 수립과 기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다. 법무통계계

법무통계계는 법무사무와 통계사무라는 비교적 이질적인 사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자치법규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소송총괄 및 소송수행공무원에 대한 지도, 자치법규집 발간, 주민등록 인구통계, 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 심사, 주택 및 인구 총조사, 주민소득 추계 및 광공업 통계조사, 행정지도 발간, 기초사업체 조사와 기타 법무·통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라. 의회계

의회계에서는 시의회 질문·답변서 작성, 시의회의 행정감사 및 조사준비 총괄, 시의회 회의결과 관리, 시의회 운영 지원 및 협조업무와 그밖에 시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폭 넓게 다루고 있다.

③ 주요활동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전문용역업체에게 홍보자료의 제작을 의뢰할 계획이며, 국제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1991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의 천리시와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1984년에 체결한 벨기에의 휴시, 1968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독일의 휴스톤시와 다시 관계를 설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진황도시와는 새롭게 결연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북미지역의 도시와도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책임봉사행정을 구현하고 각 실·과별로 연구하며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목표관리행정사업을 추진하며, 경상비의 감축관리를 통한 건전재정의 운영, 치밀한 소송업무, 법규운용능력의 제고, 무료법률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서산시의회와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2) 문화공보담당관실

① 개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의 홍보와 함께 문화재관리 및 관광용 홍보도 겸하고 있으며, 공보계·문화관광계·문화재계 등 3개 계를 두고 있다.

② 업무

가. 공보계

공보계에서는 공보계획 수립, 언론자료의 수집 및 정보수집·분석, 시정계몽 및 선전, 공보매체의 보급·육성, 시사 편찬, 반공단체 관리, 시정기록, 사진촬영, 홍보물 발간배부 및 관리, 유선방송, 앰프 및 필립관리, 각종 공고 및 고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보도자료 제공, 시 상징물 제정관련 사항, 전시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나. 문화관광계

문화관광계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종교에 관한 사항, 출판 관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 도서관 건축 및 운영, 전시 문화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공연장 설치 및 공연장 지도·감독, 관광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다. 문화재계

문화재계에서는 문화재 보호 관리, 향교 및 사찰관리, 안전기념관 관리, 국가·지방·비지정 문화재 보수계획 수립 및 추진, 문화유적 발굴조사 지도·감독, 각종 제례행사에 관한 업무와 기타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③ 주요활동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효과 높은 시정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사전기획홍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보도자료제공창구를 단일화하고, 지역언론과의 유대를 강화, 유선방송 매체의 건전한 육성, 홍보요원을 정비하여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부문에 있어서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과 전통민속놀이의 발굴 및 보존, 민속시범학교의 운영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미술대전의 개최와 도내 문화예술행상에의 적극적 참여, 서산시지의 발간, 해미읍성과 보현사지의 정비·복원과 문화재 보수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3) 감사담당관실

① 개요

감사담당관실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조사하고 감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감사계와 조사계를 두고 있다.

② 업무

가. 감사계

감사계에서는 시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요구사항 처리, 비위 예방대책 수립,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요구와 소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나. 조사계

조사계에서는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비위관련 첩보 및 민원처리, 민원처리 상황검열,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특명사항 조사 처리, 진정민원 처리, 특별감사(기강감사) 실시, 건설공사 감리상황의 현지조사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③ 주요활동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체 감사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회계·세무·공사 등 공직비위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며, 감사요원의 전문성 제고, 감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감사자세의 정립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도 강화하여 무사안일 행태를 일소할 계획이며, '처벌하는 감사'에서 '예방지도 감사'로의 전환과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풍토의 조성 및 생산성의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며, 감사원의 정기종합감사에 대한 대비는 물론 부조리신고센터의 설치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감사제도의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정책개발담당관실

① 개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지방자치에 따른 새로운 정책개발과 경영행정의 성공적 수행, 그리고 시정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를 통해 좀 더 바람직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 정책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설치되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는 정책개발계·경영개발계·정책평가계 등 3개 계를 두고 있다.

② 업무

가. 정책개발계

정책개발계에서는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시장 공약사항 관리, 행정

쇄신 및 생활개혁 등의 업무주관, 행정자료실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경영개발계

경영개발계에서는 공기업 경영종합계획 조정, 경영수익사업 및 직영기업 지원·육성, 민·관 공동투자사업 개발, 경영개발 관련 업무와 기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항을 폭넓게 담당하고 있다.

다. 정책평가계

정책평가계에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과 심의·분석, 시정 주요시책 추진진사항 및 특기사항 확인 평가, 중요사업의 진도분석, 시장 지시사항 처리결과 분석 및 조치업무와 기타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③ 주요활동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참신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아이디어 개발 및 과제연구토론회의 정기적 개최, 시책개발 제안제도의 운영, 우수자치단체의 견학, 정책모니터제 등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영행정의 실현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초청강연, 자원발굴 제안제도, 우수사업장 현지견학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또한 갈산동에 235억원 규모의 종합운동장시설공사 설계용역, 용현계곡과 간월도지구의 관광단지개발 기본계획의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석남지구 대비조성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시정종합평가제를 운영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2) 총무국

총무국에서는 시행정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총무국 산하에는 6개 과가 소속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크게 3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첫째는 가장 일반적인 행정관리 업무로 주로 총무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다. 조직 및 인사관리, 통신·정보전산, 읍·면·동의 관리 등의 업무가 이들의 담당이다.

둘째 기능은 주로 시청의 재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세무과를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회계과에서는 경리, 계약 및 시청의 재산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셋째는 지역주민과 관련된 민원기능으로 사회진흥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주로 지역개발과 생활체육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민과에서는 시민의 민원처리와 여론동향 파악에 주력하



〈사진〉 민원실

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동원 및 교육과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충무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특수시책으로서 시청 현관에서부터 공무원이 민원인을 안내하는 민원안내근무제를 도입하고, 시청 현장을 시민이 직접확인하는 시민확인제를 운영하고, 공무원들이 사회 각분야의 생활현장에서 체험하는 연수방식과 기업체에 위탁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납세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난관리에 있어서 안전 상설기동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1) 충무과

① 개요

충무과는 시청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서무·시정·인사·통신·정보전산계 등 5개 계로 구성되어 있다.

② 업무

가. 서무계

서무계는 국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청내 행사 및 회의조정, 문서관리, 보안업무, 직원의 후생관리, 청내 복무단속, 직장 민방위 및 예비군업무, 비상사 대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기할만한 사항은 타 실·과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는 서무계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시정계

시정계는 주로 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광범위하게 처리한다. 즉 서산시를 에워싸고 있는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지역주민 및 지역 사회단체, 시청 내부조직과 읍·면·동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우선 서산시 산하 읍·면·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행정조정 및 통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및 하부조직관리, 비상대책 조직관리업무, 공무원사기양양, 행정관리개선, 직원교양 및 공무원교육, 읍·면·동 행정환경 개선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되는 업무들이다. 또한 중요시 되는 업무가 지역정치와 관련된 일로서 주민여론 수집·분석, 지역안정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운영·지도, 적십자업무, 상훈, 선거 및 국민투표, 행정예고제, 장관지시사항 처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 인사계

인사계는 인사관리업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시정계와 함께 일부 조직과 관련된 업무도 다룬다. 인사계의 주된 업무로서는 공무원의 임면, 공무원의 보수·급여·연금사무, 근무성적평정, 인사위원회운영, 공무원의 각종 시험관리 등은 가장 전형적인 인사관련 업무들이다. 또한 기구 및 인력조정,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등도 다루고 있다.

라. 통신계

통신계에서는 종합정보통신망 및 국가 초고속 통신망 추진 운영과 함께 전화교환업무, 행정방송시설 및 장비운영·유지관리, 각종 통신회선 및 통신시설장비 관리, 통신실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마. 정보전산계

정보전산계는 최근 정보화추세에 따른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추진, 행정전산망운영 및 개선계획수립, 행정전산화업무 지도·감독, 데이터 통신망 유지관리, 전산화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③ 주요활동

총무과에서는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 근절, 공명선거 분위기의 확산과 선거업무의 지원을 통해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정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흠이나 시민의 불편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하는 시정종합관찰제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행정의 허례허식의 제거·회의시간 30분이내 제한·공무원 책상저축 10%더하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지방행정에 있어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시세확장을 위해 '내고장 주민등록갯기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주민전자카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기구와 인력의 연차적 해소, 정원 내에서 행정수요에 부합되는 조직관리, 2단계조직개편 등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구축하기 위해 사무자동화5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의소리 전화 등 대화의 장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산·정보교육, 외국어교육, 해외전문넓히기, 전문강사초빙교육, 소양교육 등을 실시할 것이며, 1억여원을 들여 Internet Web Server를 구축하고 전산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할 계획에 있다.

(2) 사회진흥과

① 개요

사회진흥과는 지역사회개발과 관련된 사회진흥계, 개발계, 생활체육계 등 3개 계로 구성되어 있다.

② 업무

가. 사회진흥계

사회진흥계는 사회진흥과의 주무계로서 과 소관업무에 대한 종합적 기획·조정과 과내의 예산경리와 물품관리를 담당하며, 주로 새마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즉 새마을사업의 종합적 추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새마을 민간단체 운영, 새마을운동의추진·홍보·기록·보존, 새마을지도자의 육성, 새마을가꾸기 사업, 새마을금고운영에 대한 육성·지도·감독, 바르게살기 업무의 지도 등을 담당한다.

나. 개발계

개발계에서는 도시계획을 제외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취약지불량환경 정비, 옥외광고물정비 및 관리, 도서개발, 국토공원화사업의추진, 지역내 노변정비사업, 지역내 유희공간 녹화사업, 보안 등 설치문제 등을 다루며, 특히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다. 생활체육계

생활체육계에서는 대략 청소년 관련업무와 생활체육업무로 분류할 수 있다. 청소년 육성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담당하고, 청소년육성을 위한 지방위원회와 읍·면·동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전용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단체의 지도관리 및 감독, 청소년지도자의 육성, 청소년행사의 기획, 청소년 진로 및 생활상담, 비행청소년 선도보호 등의 업무와 직장체육활동의 지원과 체육시설의 신고 등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③ 주요활동

사회진흥과에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불편해소사업 등 65건 35억원 규모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의시범마을·범죄없는 마을·도의 새마을교육, 미풍양속계승운동 등을 전개해 마갈 계획이다. 한편 팔봉면·지곡면 등 9억여원을 들여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억원 규모의 도서종합개발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체육분야에서는 종합운동장 농어민문화센터의 건립을 추진중이며, 시민체육대회의 개최와 도민체전예의 참가 등을 통해 지방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3) 세무과

① 개요

세무과는 시의 재정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부과계, 징수계, 재산세계, 세외수입계, 조사평가계 등 5개 계를 두고 있다.

② 업무

가. 부과계

부과계는 세무과의 주무계로서 과의소관업무에 대한 종합기획·조정업무와 과내의 예산경리 및 물품과리를 책임지고 있다. 또한 부과계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처리, 재산세·종합토지세·소방시설세 및 도시계획세를 제외한 도세 및 시세부과조정 및 고지업무, 세무관련 공부열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 농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조사 등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나. 징수계

징수계의 주요업무는 부과계에서 부과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다. 징수계에서 담당하는 일은 지방세 및 국세 위탁의 징수와 고지서작성·송달·납세홍보·독려, 세입징수, 세입일계표 및 현계표의 처리, 도·시세 조정금의 이월처리, 가산금관련 업무, 압류재산의 처리, 과오납·납기한의 연장·채납처분 등에 관련된 업무, 징수금 망실사고정리 및 결손처분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재산세계

재산세·종합토지세의 세원을 관리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소방시설세 및 도시계획세를 부과 하며, 그밖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또한 해당세목에 관한 세부적인 관리와 함께 공부열람의 업무를 담당한다.

라. 세외수입계

세외수입계에서는 세금 이외의 수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즉 세외수입의 종합적 기획은 물론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대장관리, 수입증지 및 인증지의 취급관리, 자금관리,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리, 세외수입원의 조사, 지방교부세 수입결의, 보조금 및 교부금의 수입결의, 세외수입 관련 공부열람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마. 조사평가계

조사평가계에서는 세원을 조사발굴하고 이에 대한 평가업무를 담당한다. 즉 세원조사계획의수립, 세원발굴 및 사후조사에 관한 사항, 토지등급의 결정 및 수정, 법인대장 및 세원조사공부의 정리, 부동산가격의 통제, 세무조사 추정분 지방세에 대한 부과조정 및 고지업무, 부동산 및 상각재산의 과세표준액 조사·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주요활동

자주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자진납세제도와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의 설정,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징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비현실적인 사용료·수수료 등을 현실화하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세외수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지방세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과 세원포착에 진력할 생각이다.

(4) 회계과

① 개요

회계과에서는 제지출사무 등 경리와 물품조달 및 계약, 영선관리와 관재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경리계·용도계·관재계 등 3개 계가 있다.

② 업무

가. 경리계

경리계에서는 회계과에 속한 행정의 종합기획과 조정업무를 하며, 주로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업무는 물론 국·도비 전도자금 및 시비의 관리, 본청공무원의 봉급계산,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출납검사, 시금고의 감독, 제지출의 발의, 회계직공무원의 직인관리, 시비의 출납·보관, 결산서의 적성업무 등을 처리한다.

나. 용도계

용도계에서는 물품의 구입·수선·제조·임차계약 및 물품의 관리·처분, 공사용역 도급계약, 물품관리, 행정장비 및 제물조사에 관한 사항, 입찰의 계약하자 보증금징수 반환 결의, 공사금·물품대·운반비·입찰공고료 및 공사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공사의 착수 및 준공계 처리, 관용차량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 관재계

관재계에서는 국·공유재산 및 시유재산의 사용료·임대료 등의 조정·부과 및 관리를 담당하며, 특히 시유재산의 취득·처분·평가 등의 업무와 관리의무가 있는 국·도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청사관리 및 기타시설물의 유지·관리, 소방관리계획 및 소방기구관리 영선사무, 시발주 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③ 주요활동

회계과에서는 예정가격 추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산화해 공개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산시 관내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현청사 내에 약 29억원 규모의 동별관을 증축하고, 청사 답당을 투시형으로 설치하며, 구청사와 교환한 경찰서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활용가치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청사의 도장공사를 비롯한 보수공사를 계획 중이며, 아울러 서산시의 시유재산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전산화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5) 시민과

① 개요

시민과에서는 전반적인 민원사무와 함께 호적사무, 민원제도개선업무를 담당하며, 민원봉사계, 호적계, 생활민원계 등 3개 계를 두고 있다.

② 업무

가. 민원봉사계

민원봉사계에서는 주민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민원행정의 제도 개선 및 지도, 즉결·유기한 민원의 접수·배부·통제, 전화·우편·중계민원의 접수 처리, 직소민원의 접수·배부·통제, 민원관계 제증명의 교부, 민원업무의 감독 및 교육, 과내 예산·경리 및 물품관리, 민원사무의 통계작성, 봉사행정의 계획 및 지도, 민원사무의 접수수료 징수, 여권업무의 처리, 민원실 전용 공인의 관리 등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나. 호적계

호적계에서는 호적부의 정리 및 관리, 제적부의 보전·관리, 출생·사망·혼인·이혼·전적·호주상속·입(복)적·분가 및 각종 정정 신고의 처리, 수형인명표 파산자 명부 관리, 호적등·초본 교부, 호적부 및 제적부의 열람,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다. 생활민원계

생활민원계에서는 복합민원 서류의 접수·배부 및 통제, 민원1회 방문 처리제도의 운영,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생활민원 및 시민 불편사항 신고센터 설치·운영, 시민 불편사항 접수·배부 및 통제, 특별민원의 접수·배부 및 통제, 이동 민원실의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주요활동

민원행정실명제와 FAX민원처리를 철저히 해 질 높은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착오에 대해 관내에서는 5,000원 타 시군에서는 10,000원을 보상하는 행정착오 보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과장 뿐만 아니라 계장급 공무원들이 요일별로 당번을 정해 민원인을 안내하는 간부공무원민원안내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호적신

고처리통보제를 실시하며, 호적색인부 전산화 작업, 알기 쉬운 호적책자의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민·관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민원중계 및 민원봉사의 집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며,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6) 민방위재난관리과

① 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에 관한 종합적 관리와 함께 민방위 및 병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방위계·재난관리계·안전지도계·병무계 등 4개 계를 두고 있다.

② 업무

가. 민방위계

민방위계에서는 민방위 계획수립 및 운영, 비상대책 업무(주민이동 비상대비 지방조직업무제외), 민방위 협의회 운영, 응급조치 명령 및 이에 관한 사항, 전시 근로동원에 관한 사항, 민방위대 동원령 하달, 민방위대 조직 편성, 주민신고, 방법비상벨 설치 유지·관리, 관내 직장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장의 지휘·감독, 민방위 교육 및 홍보,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및 계획 홍보, 민방위대 동원자원 파악, 주민 통제 및 수송, 민방공 경보실 운영 및 등화·음향관계 훈련, 민방위대 교육장비 유지·관리,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상급수 대피시설)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나. 재난관리계

재난관리계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지역단위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집행, 시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 파악 및 재난단계·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운영,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구난 기관간 협조 지원체제 구축, 피해시설의 복구 및 등화·음향 관계훈련, 소방 업무에 관한 사항, 화생방 업무 및 훈련에 관한 사항, 화생방 및 재난관리 장비 수급계획 및 유지·관리, 대산공단지지역 가스사고 발생대비 주민안전대책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 안전지도계

안전지도계는 지역안전관련계획 종합수립 시행,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량, 터널등 공공시

설물 및 기타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지하도, 지하철 등의 지하시설물, 궤도·삭도 및 유희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및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 지도에 관한 사항, 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관리 및 지도, 도시가스, 항만, 화학물질, 원자력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라. 병무계

병무계는 주로 징병검사, 징·소집 자원관리 및 집행, 제1국민역 편입신고 및 관리, 예비군 자원관리, 병력동원 소집 및 집행, 병무사범 단속에 관한 사항, 예비역 및 보충자원 관리, 제1·2국민역 관리, 생년월일 정정에 관한 의견서 교부, 각종 병적관리 및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주요활동

시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훈련을 실시하며, 수준 높은 민방위교육이 되도록 전문성과 자질을 겸비한 강사를 초빙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인력자원을 점검하고, 현실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신고망을 구축하며, 주민신고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각종 행사와 주민신고원들에 대한 포상 등의 사기진작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 없는 서산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며, 재난 발생시 행동요령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병력동원자에 대한 신상카드 작성등 병력동원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3)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에서는 사회복지업무, 지역경제 및 산업관련 업무, 환경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산업국 산하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등 8개 과가 있다.

(1) 사회과

① 개요

사회과는 보건복지관련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사회과에는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 위생지도계 등 4개 계가 있다.



〈사진〉 영세민 방문상담

② 업무

가. 사회계

사회계에서는 국의 주무과 주무계이므로 국소관 업무의 종합기획·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서는 복지사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상조은행 운영, 영세민 융자금 관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관리, 보훈 업무, 행려자 처리, 긴급구호양곡 지급,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주로 담당한다.

나. 의료보장계

의료보장계에서는 주민의료보호 업무처리, 지역의료보험조합 사업재산상황의 검사·감독, 지역의료보험료 징수 독려 지원, 기타 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 및 협조지원, 진료비 지급 의료수가 사정의뢰, 행려환자 처리, 의료보호 대상자 조사책정 등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복지기능을 담당한다.

다. 위생계

위생계에서는 식품 및 환경위생의 종합계획 조정,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의 인·허가 사항처리,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제품검사,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유홍음

식점·단란주점·일반음식점·식품제조·가공업소·식육점·다방 및 제과점등)과 함께 기타 위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라. 위생지도계

위생지도계에서는 공중위생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처리한다.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및 조정, 공중위생영업소 인·허가 사항처리, 공중위생영업소 지도·감독(여관 및 여인숙·호텔·목욕업·이미용업·전자유기장·세탁업·기타위생 관리용역업 및 위생용품 제조등)업무와 기타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주요활동

최저생계비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생활용품비 및 해산보호비의 추가지원과 학비지원의 확대 등 저소득층 보호에 주력하고 있으며, 성금을 모금하여 상조은행을 운영하며, 5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총령각 주변정비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간담회의 개최·현충일 행사·모범보훈대상자 표창 등 보훈이념의 함양에 노력하고 있으며, 1,500여명에 달하는 재활인들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도 역시 추진중에 있다.

의료보호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대상자의 선정을 엄정히 하고, 약 2,000가구 4,600여명의 대상자에 대해 16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건강 위해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관내 140개소에 달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도·소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2,800여소에 달하는 위생업소에 대해 자율지도·위생교육·지도단속 등을 통해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나아가 1,500여업소에 대해 음식점별 대표메뉴갯기운동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을 펼쳐 좋은 식단제의 조기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2) 환경보호과

① 개요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 및 공해오염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해양오염방지, 재활용사업 등을 광범위하게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에 환경관리계·환경지도계·해양오염방지계·미화계·재활용계 등 5개 계를 두고 있다.

② 업무

가. 환경관리계

환경관리계는 과소관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과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시행, 농공단지입주업체 환경성검토 및 환경관련법 협회,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 등의 제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자연환경보전 및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업무,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환경측정망 설치 운영,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업무, 환경개선 특별회계, 소음·진동 규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배출시설(대기·폐수·소음·진동)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사항 처리,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유독물 관련등록 및 변경등록등 신청사항,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나. 환경지도계

환경지도계에서는 각종 지도 단속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배출시설 및 신고대상 배출업소 지도·단속,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단속, 생활소음, 생활악취 발생업소 지도·단속, 유독물 관련 등록업소 지도·단속, 자동차배출가스, 자동차 소음 지도·단속, 특정 공사장 및 폭약사용업소 지도·단속,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단속,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단속,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지도·단속,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신고 및 지도·단속업무와 기타 환경오염행위에 관련된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미화계

미화계에서는 주로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및 수립,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 생활폐기물수거지역내 쓰레기 처리 및 장비, 인력관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지도·감독, 쓰레기종량제 관련업무,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 지도·단속,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 및 지도·단속, 분뇨관련영업허가,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등록 및 지도·감독, 공중화장실 관리, 분뇨처리시설 설치 운영, 지정 폐기물(특정 폐기물) 배출자 신고·단속업무가 여기에 속한다.

라. 재활용계

재활용계에서는 재활용업무 기본계획수립·수행, 재활용선별창고 지도·감독,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재활용품 수집 운반처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③ 주요활동

2007년을 목표연도로 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한서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

여 추진중에 있으며, 수질과 토양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환경오염측정만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오염불배출업소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과 오수·분뇨정화조에 대한 철저한 점검,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단속강화와 함께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번)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산공단의 3사 28개 출구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자동감시망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기본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감시와 단속도 역시 강화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6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1일 63톤을 처리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대동에 사업비 35억원, 1일 처리요량 150㎥ 규모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단순한 쓰레기처리 수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3) 가정복지과

① 개요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동·여성·노인문제 등 복지문제와 가정의례·생활개선문제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계와 여성복지계 등 2개 계를 두고 있다.

② 업무

가. 가정복지계

가정복지계는 매우 광범위한 복지문제와 가정생활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아동복지시설)지원, 운영의 지도·감독, 아동복지 증진, 아동 국내입양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공동묘지 설치 및 관리, 납골당, 화장장 설치 및 관리, 노인복지 업무, 노인취업알선 및 고령화 사회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여성복지계

여성복지계에서는 여성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성단체 조직 및 육성, 요보호자 선도 및 보호, 생활개선 지도, 여성지위 향상, 여성교양 지도, 부녀자 직업보도, 윤락여성 선도보호, 부녀지도 협의회 운영에 대한 업무와 기타 부녀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③ 주요활동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38세대 65명의 소년소녀가장돕기사업, 134세대 425명의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사업, 14세대 17명의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사업, 158세대 158명에 이르는 무의탁노인돕기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경로당지원사업·노인교실운영·노인회지원·게이트볼대회 등 노인여가생활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38개소에 달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예식장·장의예식장·결혼상담소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례문화정착에 노력하고, 공원묘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동시에 경영관리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10년이 지난 무연유골에 대해서도 집단이장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여성능력개발 및 의식변화교육의 실시·여성전문인과의 간담회·여성공직참여 제고 목표제운영·제2회 여성주간행사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거부부합동결혼식·모범가정 발굴 표창·가족간 대화모임운영·김치만들기대회 등 가정바로세우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지역경제과

① 개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기능 중 주로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역경제과에는 지역경제계·중소기업계·공업계·가스안전계 등 4개 계가 설치되어 있다.

② 업무

가. 지역경제계

지역경제계는 과의 주무계로서 과소관 업무의 종합기획·조정과 상공업 진흥, 시장 유지·관리, 과학기술의 진흥, 물가안정대책 및 생활필수품 수급·조절, 제조담배 소매업의 지정, 승인, 신고수리 및 취소, 상공 동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노사안정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충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타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계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창업사업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실태조사, 공산품 품질관리, 수출실적 조사 및 보고

에 관한 사항, 도량형기 관리(계량기 관리), 특정열 시공업체 지도·육성과 그밖에 중소기업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다. 공업계

공업계에서는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광공업 및 염색단지 지도·육성, 공장설립 및 등록, 전기용품 안전관리, 공업단지 조성 및 유치, 상공 동원계획 수립 및 실시 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라. 가스안전계

가스안전계는 가스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가스안전 관리계획 수립, 가스업체 안전점검, 사후관리,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 허가 및 변경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관련업무, 가스 시설 시공자 등록업무, 시공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가스안전관리 제도·홍보, 고압가스 수급에 관한 사항, 유류 수급에 관한 사항,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업무와 함께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 방지조치 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③ 주요활동

물가안정을 위해 분야별 물가동향 보고회의 개최·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유급 물가 모니터의 운영·소비자절약 관련 홍보물의 제작배포·물가안정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노사화합과 안정 기반구축을 위해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의 조기완공에 주력하며 노·사·정체육대회개최, 모범근로자 표창 등 근로자의 사기진작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곡면에 현대정공(주)이 조성중인 서산산업단지와 현대우주항공(주)이 성연면에 조성중인 항공우주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며,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행정처리의 간소화·중소기업자금 적기지원·중소기업 인력수급지원·중소기업 제품판로 확대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관내 에너지수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한국가스공사가 추진중인 천연 가스공급망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생활연료시설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스판매·저장업소에 대한 안전지도·점검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위생교육시 안전교육도 병행할 계획에 있으며, 주요소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5) 산업과

① 개요

산업과에서는 주로 농업과 관련된 업무가 집중되어 있으며, 농정기획계·농산계·양정계·유통특작계·원예계 등 5개 계가 설치되어 있다.

② 업무

가. 농정기획계

농정기획계에서는 과소관 업무의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내용으로는 농업금융 알선, 농가부업, 농가경영, 농업근대화 촉진, 농지소유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업무,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종합조정,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나. 농산계

농산계에서는 농업생산의 종합계획, 식량증산 계획의 추진, 자급비료증산 및 지력증진, 농업기상 및 농산물 재해대책, 경지이용도 향상, 농산물 병해충 방제 및 예찰, 비료·농약·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절, 농약 및 비료단속, 종자갱신 및 경종법 개선, 수출입 식물지정, 한해대책업무 총괄, 농작물 한수해 대책, 농업용기계·기구의 관리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양정계

양정계에서는 곡가조절·농가대여 및 정부대여곡 업무, 양곡수납 및 매입, 양곡수송 및 도착, 양곡가공 지령 및 청산, 양곡소비절약 및 식생활 개선, 양곡부산물 및 양곡사고 처리, 정부양곡 관리, 양곡판매업 및 양곡도정업 허가, 쥐잡기 사업, 정부양곡·가공공장업자 및 판매업자 지도·감독, 양곡특별회계 세입세출 경리, 농림수산동원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농산분야)을 관장한다.

라. 유통특작계

유통특작계에서는 농수산물의 유통과 특작물에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담당한다. 농산물 유통정보 관리, 농산물유통 체계 및 가격조사, 농산물 규격 출하지도, 농산물 유통 및 가격관리, 농산물 집하장 및 공판장 지도·관리, 농산물가공 및 공판장 업무,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직거래 업무, 전통식품 육성, 잠업진흥지도 및 유통제반 관리, 인삼재배 및 유통, 각종 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특작 생산 유통(버섯, 특용작물), 유지작물 생산 및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

당한다.

마. 원예계

원예계에서는 시설원예 재배 및 관리, 채소, 종묘 지도·단속, 채소류 재배 지도·육성, 과수, 채소, 화훼 주산단지 조성 및 관리, 채소류 생산계획 및 계획, 과수 생산계획 및 추진, 화훼 생산계획 및 추진,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 채소, 과수, 화훼재배 대책, 1시 1명품 특산단지 조성사업, 원예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을 담당한다.

③ 주요활동

농어촌 정예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과 전업농가육성사업을 추진중이며,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 민박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공판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규격출하사업·버섯생산유통사업·농특산물저온저장고 건립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에 2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성장유망작목단지를 조성하고, 16억원 규모를 투입하여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과 10억원 규모의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며, 인삼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인삼재배시설의 현대화사업·우량묘삼생산지원사업·인삼전용농기계지원·인삼식재자금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6) 축산과

① 개요

축산과에서는 축산과 이에 수반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에 축산계와 초지사료계를 두고 있다.

② 업무

가. 축산계

축산계에서는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가축시장 및 환특회계처리, 가축자금 융자 및 관리, 중·소가축 개량증식,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축산물 작업장 및 공수의 지도·감독, 농림수산 동원계획 수립(축산분야),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축산분뇨처리시설 이용관리,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초지사료계

초지사료계에서는 초지조성 및 관리, 사료수급 대책, 대가축 개량증식, 우유수급 및 가격안정, 조사료 생산, 원유 위생관리, 축산 관측사업 등을 관장한다.

③ 주요활동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37억원을 들여 축산기반시설 등 11종에 이르는 세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돼지콜레라 방역 등 가축방역사업을 실시하고, 매우 심각한 축산 분뇨처리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담리작사료작 물재배사업 등 조사료 생산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톱밥자동발효시설지원·트렌치 싸이로시설사업 등 부존사료자원이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한우고급육생산단지조성사업·한우공동사육마을조성사업 등 한우사육기반확충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7) 수산과

① 개요

수산과에서는 수산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어로계·증식계·어업지도계 등 3개 계를 두고 있다.

② 업무

가. 어로계

어로계에서는 수산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수산업법에 관한 금융통제 실시, 수산물 유통 및 수출·장려, 어업허가 처분 및 관리, 수산단체 지도·감독, 어선의 설계·건조·도입·등록·검사 및 장비개량, 농림수산 동원계획 수립(수산분야), 도간 어업 분장지도 조정, 허가 및 신고 어업조정(보상업무 조정), 수산자재 공급, 어항의 유지·관리 및 어항내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 수산물 제조·가공처리 시설관리, 어로장비 및 시설유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나. 증식계

증식계에서는 수산물 증식장려, 내수면 및 천해 간사지 개발, 어업면허 처분 분쟁사항 조정(보상업무 조정), 내수면 어업 분장지도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 어업지도계

어업지도계에서는 어업의 지도·단속, 어촌지도 및 수산기술자 훈련, 수산시설

피해조사, 사업시설 확장에 따른 연안오염 수산피해 대책수립 등이 주요업무이다.

라. 해양오염방지계

해양오염방지계에서는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 해양오염 사전지도단속, 해양오염 방제작업, 해양시설 지도 점검, 해양오염방제장비 및 기기관리, 해양감시 지도선 및 선원관리 감독, 해양오염예방 및 적조예찰, 오·폐수 해양유입 감시 및 감독, 오염원 무단방류 및 투기행위 단속, 해양오염 배출업소 지도·감독, 해양오염 방지선 유지·관리, 해양오염 예방 및 정화대책, 해양오염 피해보상 업무추진, 하천 및 호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연안(해역)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③ 주요활동

어업기반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연내에 창리선착장연장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96년에 용역조사를 완료한 낭장망어업폐업보상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창리항과 벌말항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연내에 굴간이수하식 양식사업을 전개하며, 삼길포를 비롯한 3개지역에 고막종패이식살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수면어업을 개발하기 위해 치어구입비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에 있다. 한편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어업단속과 어민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불법어업추방운동을 전개하며, 우범항포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8) 산림과

① 개요

산림과에서는 산림자원의 식수와 보호, 도시녹화사업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취급하며, 이에 따라 식수계·보호계·녹지계를 두고 있다.

② 업무

가. 식수계

식수계에서는 조림사업, 산림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 육림사업, 보안림 관리, 보전 임지관리, 산림과 관련된 주요업무 심사·분석, 임업기술 개발, 산촌개발, 독립자 및 임업휴계자 육성, 임업자금 융자 및 산림통제, 타법에 의한 산림형질 변경 협의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나. 보호계

보호계에서는 산림보호 및 산림사범 처리, 농림수산분야 목재 동원계획 수립, 산불방지 및 산지정화, 임도시설, 산림병충해 방제,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관제, 영림계획·벌채(굴취), 무육간벌, 임산물 가공업체 관리, 임업 진흥지역 개발, 휴양림 관리, 불법 건조물 관리, 임야매매증명 발급 관계업무, 임산부산물 생산, 극인 및 생산 확인표 발급,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 녹지계

녹지계에서는 가로수 조성·관리, 도시 녹화 및 공원관리, 시설녹지 조성, 조경사업, 양묘, 수목원 조성, 산사태 및 사방사업, 보호수 관리, 푸른숲 선도원 육성, 공유임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주요활동

경제수조림과 대묘조림사업을 전개하며, 조림지풀베기 활동 등 육림사업을 위해 5억여원을 투입하고, 솔잎혹파리방제활동·예찰조사원 배치 등 산림방제사업과 총연장 9km의 임도시설 및 임도보수사업도 실시할 것이며,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대책본부의 설치·운영, 산림취약지 입산금지, 산불감시초소의 운영과 가종 산불예방·진화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다.

한편 야생조수를 보호하기 위해 서식환경조성사업과 천수만철새공원조성사업, 조수보호원배치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임내정리사업·공한지조경수식재사업·등산로개설사업 등 도시공원 및 목지관리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운산·고북면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1차 감나무마을조성사업을 올해에는 전 시지역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며, 논·밭두렁 소각의 날을 정해 병충해예방과 산불예방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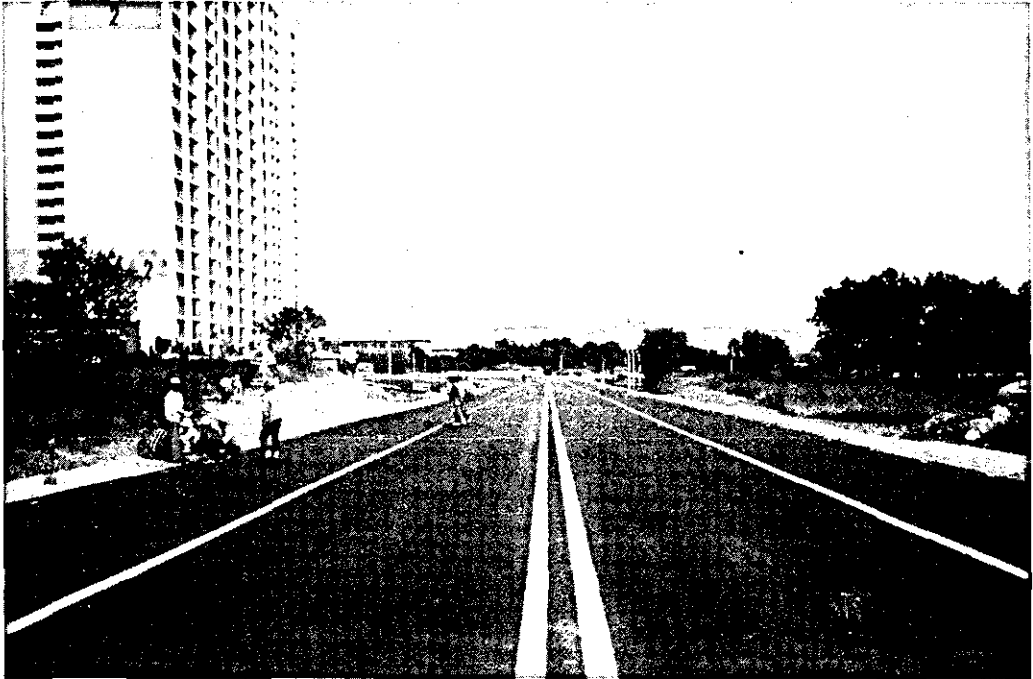
4)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에서는 건설·교통·도시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며, 산하에 건설·도시·건축·수도·교통행정·지적과 등 6개 과가 설치되어 있다.

(1) 건설과

① 개요

건설과에서는 각종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사무와 지도·감독사무, 그리고 도로와 관련된 사무, 지하수개발 및 농지조성사업, 자연재해방지업무 등과 관련하여,



〈사진〉 도시계획 및 재개발

관리계 · 도로계 · 농지계 · 방재계 등 4개 계를 두고 있다.

② 업무

가. 관리계

관리계에서는 국소관 업무의 종합기획 · 조정과 하천도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 허가 및 단속, 건설기계관리 및 변동사항 조사관리, 해사채취 수급계획 및 허가사항, 건설공사의 자재관리, 토지수용, 과내 예산경리 및 물품관리, 가로 지장물 및 노점상 단속, 건설 동원계획 수립 실시에 관한 사항, 국토이용계획(도시구역외 지역), 군사시설의 토지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굴착 및 복구 지도 · 감독, 국 · 공유재산 관리(건설부소관) 및 용도 폐지, 공유수면 매립허가 진달, 지하수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나. 도로계

도로계에서는 군도 · 시도의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농어촌도로의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접도구역 관리, 군도 · 시도 · 농어촌도로의 유지 · 보수, 교량유지관리(시의 국도 · 시도 · 군도 · 농어촌도로)업무를 담당한다.

다. 농지계

농지계에서는 각종 농지개발조사의 집행감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추진, 농업용수 개발, 농업기반 정비 사업추진, 관정 양수기 관리·지도, 정주권 개발에 관한 사무, 국유재산관리 및 용도 폐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라. 방재계

방재계에서는 풍·수·설해 대책, 이재민 수용건물 지정·관리, 재해대책 본부 구성·운영, 지역방재 종합계획 수립·시행,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업무와 기타 재해 및 하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재해대책협의회 구성 운영, 수방자재 비축·관리, 수방단 조직·운영, 공작물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주요활동

도로정비양여금사업으로 군도정비 2.3km, 농어촌도로정비 10.7km 등 47억원 규모의 도로정비사업을 연내에 완공할 계획이며,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서 차선도색·포장공사·표지판설치 등의 세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화곡지구·애정지구 등 6개소 총면적 534ha에 대해 131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농지기반시설사업으로 대형관정개발사업·노후방조제보수 등 4건에 대해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하천정비사업으로는 연정천을 비롯하여 6개하천 4,760m에 대해 15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우기 전에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따른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화계획을 수립하고, 10개소에 이르는 국도 및 시도의 개설·확장·포장사업에 75억원을 투입하여 연내에 완공할 예정이다.

(2) 도시과

① 개요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계와 도시개발계를 두고 있다.

② 업무

가. 도시계획계

도시계획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선 명시 측량, 국토이용관리(도시지역내), 도시계획 입안, 위임된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인가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행위 허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도시개발계

도시개발계에서는 도시개발사업 관리의 총괄 조정,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집행, 토지 구획정리, 보안등·가로등 관리, 도시 시설물 시공유지·관리(도시지역내)에 관한 업무와 기타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③ 주요활동

동문동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하여 5개소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을 20억원의 도비지원으로 실시하고, 활성동사무소진입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한 11건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15억 5,400만원의 자체재원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3) 건축과

① 개요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의 관리와 주택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산하에 건축계와 주택계를 두고 있다.

② 업무

가. 건축계

건축계에서는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세부추진, 건축사 업무관리,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처리, 불법건축물 단속, 건축관련 질의 진정 처리,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관련 통계, 읍·면·동 건축행정 지도·감독, 건축물 대장 관리 및 정비, 건축신고 설계실 운영, 시발주 건축공사중을 지정받은 공사감독 등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한다.

나. 주택계

주택계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자 관리, 주택건설 추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수해주택에 관련된 업무, 주택자재 생산업체 관리 및 품질검사 추진, 주택건설 사업 계획의 사전 결정,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공사 정비, 국민주택 기금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공동주택 관리, 과태료 부과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시발주건축공사중 지정받은 공사

감독, 표준설계도서 관리,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주요활동

서산시 동문동 138번지 일원 24,562평의 토지에 대해 총사업비 57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단독·공동주택 328호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7억원을 투입하여 170동의 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80동의 빈집을 철거하고, 22동의 빈집은 재활용하는 농·어촌빈집정비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4) 수도과

① 개요

수도과에서는 상·하수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에 업무계·급수계·공무계·하수계 등 4개 계를 두고 있다.

② 업무

가. 업무계

업무계에서는 상·하수도과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처리한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도자금 출납,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재산관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의 심사,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지방채 발행, 공사계약, 상·하수도의 통계 작성, 보조금 및 교부금등 수입정리, 상·하수 사용검침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상수도 대행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 수도계량기 유지·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나. 급수계

급수계에서는 상수도 급수에 관한 사항, 급수공사 기자재 검사, 급수시설공사 시행승인 및 지도·감독, 저수조 관리, 급·배수관 누수방지 및 수선에 관한 사항, 간이상수도 급수(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 공무계

공무계에서는 상수도 사업 종합계획, 각종 사업장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시설공사의 자재 기계기구의 검사,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상수도용 지하수 개발 시설관리, 도수관 유지·관리, 광역상수도 관련사업 시행 및 지도·감독, 상수도 확장에

관한 기본 통계조사, 간이상수도 신설공사, 전용 상수도 인가, 상수원 보호구역내 행위 허가업무를 담당한다.

라. 하수계

하수계에서는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시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교환업무, 시설하수도의 유지·관리, 하수도시설 및 개발공사의 시행, 시설유수지 배수펌프장,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 하수도 대행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주요활동

2007년 완공목표로 일 70,000 m^3 규모의 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어송리2구 등 3개소의 간이상수도사업과 해미하수도 등 4개소의 하수도 등의 사업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98년말을 완공예정으로 하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95년도에 착공하였으며 음암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요청할 계획이다.

(5) 교통행정과

① 개요

교통행정과는 시 관내의 차량 및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산하에 교통행정계·교통지도계·차량등록계가 있다.

② 업무

가. 교통행정계

교통행정계에서는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궤도사업 및 창고업에 관한 사무, 운수사업 조합의 지도·감독,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 및 처분,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인가·허가, 자동차 운송업체 및 사업자 지도·감독, 정류장·정유소 지도·감독, 자동차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사무, 수송동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차량등록업무, 교통량 조사 및 물도량 조사, 자동차운송 알선사업 면허·인가,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마을버스·공영버스 포함),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의 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나. 교통지도계

교통지도계에서는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추진, 교통안전 관리자에 관한 업무(선·해임교육), 주차(노상·노외)관리에 관한 사항,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불법 운행차량 지도·단속, 사업용 차량 일제점검, 사업용 차량 질서위반에 관한 단속, 교통불편신고에 관한 사항(권고 엽서제 추진), 사업용차량 사고 보고에 관한 사무, 운수연수원 및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무, 사업용차량 면허취소, 유료주차장(노상·노외) 인·허가에 관한 사항, 법규 위반사항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주·정차질서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차량등록계

차량등록계에서는 자동차 관리사업의 종합기획, 자동차 관리사업 조합(협회) 지도·감독, 자동차 관리사업(정비·매매·폐차)허가 및 지도·감독, 자동차 정유장 인·허가, 면허 및 지도·감독, 자동차 검사 및 전산화 업무 지도·감독, 자동차 등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자동차 정비관리자 지도·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주요활동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보등설치·교통표지판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보수를 위해 2억7,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등록차량이 약 30,000여대로 늘어나면서 주·정차문제가 극심할 것에 대비해 주·정차계도와 민영주차장 시설을 장려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주·정차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계속검사기간의 망각에 따른 시민들의 과태료처분을 사전에 막기 위해 검사 15일전에 예고해 주는 자동차계속검사에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6) 지적과

① 개요

지적과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산하에 토지관리계·부동산관리계·지적관리계·지적전산계 등 5개 계를 두고 있다.

② 업무

가. 토지관리계

토지관리계에서는 외국인 토지관리 업무,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표준지관리, 지가의 결정 및 공고·열람,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택지 소유 상한제 운영, 지가조사 점검반 편성운영, 지가정보 관련기관 제공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나. 부동산관리계

부동산관리계에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고업무, 토지거래 사후관리 업무, 유휴지 조사 업무, 매매계약서 검인 업무,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 단속,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사항, 건축물대장 보관 관리,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건축물 변경·말소 정정내용 대장 정리,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 추진, 지적도면에 건축물 등록 관리,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축탁 및 등기필 소유권 정리업무와 기타 건축물대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다. 지적관리계

지적관리계에서는 지적업무 기획 조정, 지적측량 검사,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지적관계 소송 수행, 지적삼각점 및 도근점 관리, 지적측량장비 운영 및 비품관리, 주소등록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관리, 지적복구 및 불부합지 정리, 지적에 관한 진정·질의 및 탄원서 처리에 관한 업무와 기타 지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라. 지적전산계

지적전산과는 지적업무 전산자료 관리 및 운영, 지적전산 운영, 지적민원(창구 즉결 유기한) 처리, 등기필 부분 정리, 토지이동지 전산 처리, 법인등록번호 부여 관리, 토지표시변경 등기축탁 업무, 도시계획확인원 증명, 지적통계 관리, 등록번호 비등재 조사·관리, 세무관련 과세자료 및 지적전산자료 제공, 지적전산 장비 운영·관리업무와 기타 지적전산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주요활동

96년부터 진행중인 97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며,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상이한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5) 직속기구

시장 산하에는 직속기구로서 농촌지도소, 보건소, 출장소, 그리고 각종 사업소를



〈사진〉 농촌지도활동

두고 있다. 현재 직속기관은 서산농촌지도소, 서산보건소, 대산출장소, 서산문화회관, 서산상수도사업소, 서산시립도서관, 서산종합사회복지관, 서산환경사업소, 해미읍성관리사무소 등이 있다.

(1) 서산시농촌지도소

① 개요

1957년 5월 서산농사교도소로 출범하여, 1962년 4월 1일 서산군농촌지도소로 개칭되었으며, 1975년 각 읍·면에 18개의 지소를 설치하였다. 1989년에는 대안군농촌지도소가 분리되었으며, 동년 4월 1일 각 읍·면의 지소를 폐지하고 서산군농촌지도소로 통합하였다. 대신 1991년 10개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설치하였으며, 1995년 시·군통합에 따라 서산시농촌지도소로 개칭되었다.

② 조직 및 인력

조직은 농촌지도소장 아래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2개과가 있으며, 사회지도과에는 지도기획계(5명)·인력육성계(5명)·생활개선계(4명)가 있으며, 기술보급과에는 경영상담계(3명)·식량작물계(3명)·경제작물계(3명)·축산계(2명)·기술개발계(4명)가 있다. 총 근무인력은 농촌지도관 3명과 농촌지도사 37명과 생활

지도사 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 등 총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역대 농촌지도소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역대 농촌지도소장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1	유태호	57. 6. 20	60. 5. 30	6	권혁세	81. 1. 19	86. 6. 30
2	유병원	62. 4. 1	71.10.30	7	문재운	86. 7. 1	90. 7. 31
3	임록상	71.11. 1	73. 3. 4	8	이기수	90. 8. 1	92.12.31
4	정승현	73. 3. 5	74. 4. 19	9	박대규	93. 1. 1	94. 1. 3
5	유병원	74. 4. 20	81. 1. 28	10	김연오	94. 1. 14	현재

③ 주요활동

쌀의 안전재배와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술보급을 위해 벼 우량종자 보급·쌀생산 종합시범단지 설치·각종 시범포 설치와 600kg이상을 생산하는 쌀전업농 육성사업 등의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지채소·시설채소·과수·화훼 등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한 경제작물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배양 생강묘 증식·마늘 주아 재배 증식포 설치·시설화훼 무인연무방제 및 구근 지중난방시범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과수무인방제시범을 보이기 위해 주산지역 평야지에 과원 1ha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며, 토양관리의 합리화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합검정실을 운용하며, 밭토양 정밀검정 5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1개소 1ha에 대해 토양 환경개선 시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저비용 고품질 축산물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생력화시범 등 3개 시범소를 설치하고, 농민들의 경영능력 및 시장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경영상담실의 운영과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인원 11,000명에 대해 농업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연 1,200여대에 대해 수리조를 편성하고 부품을 확보하는 등 농기계순회수리사업을 추진하며, 4-H회원에서 농촌지도자에 이르는 전문농업인의 단계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4-H회원에 대해서는 농촌후계기초조직 및 민주시민의 양성을 기하며, 꽃길 및 꽃동산 조성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며, 농업인후계자와 전업농에 대해서는 작목별 생산자조직·쌀 전업농교육·산업기능요원 육성등의 세부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농촌지도자회에 대해서는 품목별 농촌지도자회조직·환경보전형 농업운동추진·해외농업기술연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생활기술보급을 위해 기능강좌전문반 운영·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매주 및 전통장류제품 생산·노인일감갖기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농촌생활환경시범촌 육성·농촌주거환경개선·생활환경시범마을조성



〈사진〉 보건소 활동

등 활기있는 농촌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1년까지 전 지도사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지도공무원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322개 마을을 분담하여 현장지도에 힘쓰고,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하며,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는 등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기술농업정보를 신속하게 확산하며, 명산품홍보전시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2) 서산시보건소

① 개요

서산시보건소는 1952년 읍내리에 건평 25평규모의 진료소로 출발하여 1963년 1월 1일자로 서산군보건소로 승격되었으며, 1965년 서산군교육청 2층으로 이전하였다가 1966년에는 동문동에 150평규모의 청사를 신축하였고, 1982년도에는 현재의 위치인 석림동에 310평규모로 신축이전하였다. 1995년에는 통합서산시의 발족과 함께 서산시보건소로 개칭되었다.

② 조직 및 인력

조직은 보건과와 의무과로 구분되며, 보건과에는 보건행정계·방역계·의약계·생활보건계가 있고, 의무과에는 방문간호계·진료계·검사계가 있으며, 10개의 보

건진소와 16개서의 보건진료소가 있다. 인력상황을 보면, 총정원은 105명이며 현원은 103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보건소 인력현황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별정직
정 원	105	1	3	7	32	29	9	8	16
현 원	103	1	2	7	33	28	8	8	16

역대보건소장은 초대 장일영소장을 시작으로 현재에도 장일영소장이 재직하고 있다.

〈표〉 역대 보건소장

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1	장일영	74.10. 7	83. 6. 2	4	장일영	85. 7. 1	94.12.30
2	한태희	83. 6. 3	83. 7.20	5	김윤태	95. 1. 1	96. 1.16
3	권희영	83. 7.21	85. 5.16	6	장일영	96. 1.17	현재

③ 주요활동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사업과 보균자찾기·방역소독·음용수 관리 등 방역사업과 나환자 정착농원의 자립기반조성사업, 성병을 비롯한 만성전염병관리사업, 결핵예방접종과 주민X선이동검진 등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뢰받는 의약품토를 조성하기 위해 89개소의 의료업소와 106개의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로 점검하고 건전한 의·약사회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피임수술·인공임신중절예방·성병의 예방 등 가족계획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임부와 영유아의 등록 및 건강진단·임신신고 및 모자보건 수첩발급·각종 예방접종 등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며, 35세 이상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서비스와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가정간호사업의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 중 오·벽지노인이나 독신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중 544명을 우선 대상으로 질병진료와 보건교육을 통한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무의탁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려 하며, 40세이상 60세이하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보건소장이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90명정도를 대상으로 8종의 암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치과분야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65세 노인중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16명에게 의치수술을 예정하고 있다. 지역주민에 대한 구강보건교육·각급 학교에서 불소용액양치지도·치아 홈메우기·구강보건의 날 행사 등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보건소 민원대기실 내에 자동혈압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365일 건강측정코너를 운영할 계획이며, 물리치료400명·치과진료131명 정도를 계획인원으로 잡아 서림복지원에 출장진료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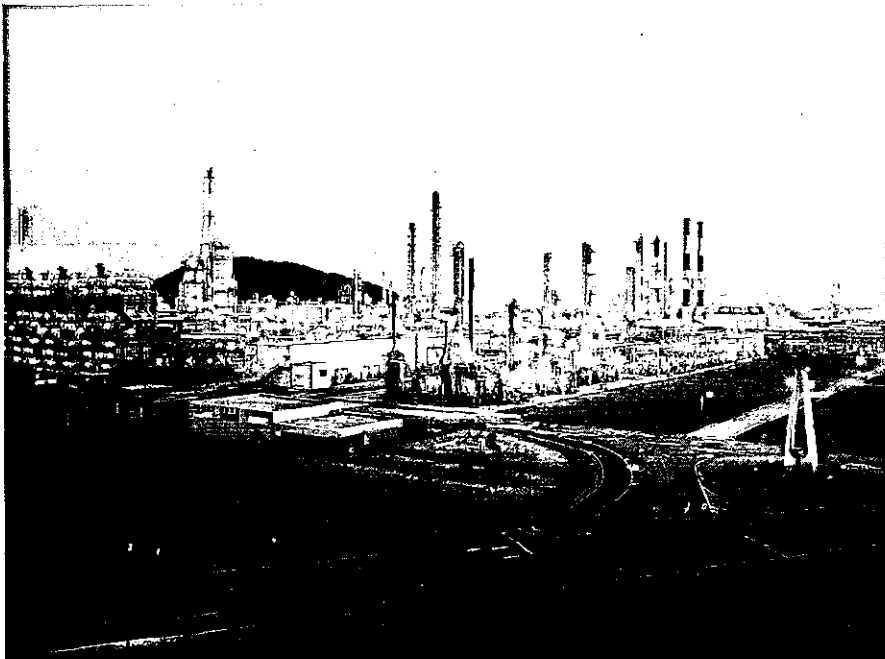
(3) 대산출장소

① 개요

대산출장소는 1995년 1월 1일에 설치되었으며, 설치당시에 총무·관광개발·환경관리·화생방·지역개발·폐기물처리계 등 6개계를 두었다. 그러나 1995년 5월 27일에 기구를 축소하여 폐기물관리계를 폐지하여 5개 계로 구성되었다가, 1996년 7월 1일부로 더욱 축소되어 관리계와 환경계만 남게 되었다.

② 조직 및 인력

초대 소장은 김지영(95. 1. 1 - 95. 3. 7), 제2대 박병길(95. 5. 9 - 95. 9. 5), 제3대 남규중(95. 9. 6 - 96. 12. 31)소장이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한만갑 소장이 97년 1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다. 현재의 인력사항을 보면, 소장 5급 1명을 비롯하여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진〉
대산공단

〈표〉 대산 출장소 인력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정 원	8	1	2	2	2	-	1
현 원	7	1	2	1	1	1	1

③ 주요활동

주요 업무는 대산지역 내의 석유화학공단 조성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폭됨에 따라 대산을 및 지곡면지역 내의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사전예방활동, 환경오염관리대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안전지구 주민 이주대책을 추진했으며, 유독물유출사고에 대비한 수습체계를 확립하였고, 5개마을 252농가와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유도해 냈다. 97년에는 배출시설점검 및 폐수분석·청정연료대체지도·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토양오염측정장비 및 해양오염방제장비 구입 등 대산공단특별관리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명예환경감시요원을 위촉하는 등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매월 1회씩 자체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환경안전진단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삼길포오수방지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삼길포어장 주변의 생태계보호에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대산의 3개사 및 13개 업체 등 환경오염유발업체간 결연을 맺어 고가시설의 공동설치 등 실효성있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4) 문화회관

① 개요

서산문화회관은 1985년에 착공하여 1990년 1월에 완공하였으며, 동년 1월6일에 개관하였다. 1991년 5월 1일자로 관리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1994년 8월 무대를 확장하였고(110평규모) 동년 12월에 현관로비를 확장하였으며, 1995년에 직제를 보강하였다.

건립사업비는 문예진흥기금 6억 5,000만원과 도비 4억 7,700만원, 시비 22억 8,6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지하1층, 지상4층 총면적 1,090평에 이른다. 주요시설로는 공연장718석, 소공연장 150석, 전시실 및 기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② 조직 및 인력

조직은 관리계와 운영계로 구분된다. 관리계에서는 문화회관의 전반적인 관리와 함께 기획공연등을 책임지고 있으며, 운영계에서는 전기·음향기기 등의 시설관리

를 책임지고 있다. 인력상황을 살펴보면, 총 정원은 5급 1명, 6급 2명을 비롯하여 11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원은 9명이다. 역대 관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역대 문화회관 관장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1	김호영	91. 4. 22	92. 6. 12	5	문철주	96. 3. 13	96.12.31
2	나상록	92. 6. 13	94. 8. 20	6	김인환	97. 1. 1	97. 6. 30
3	최진각	94. 8. 21	95. 3. 10	7	방효성	97. 7. 1	현재
4	노상근	95. 5. 9	96. 3. 12				

③ 주요활동

우선 안전위주의 시설관리에 초점을 두고 노후시설교체·전기안전공사추진·무대보 보강공사 등의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3,200만원을 들여 회관주변의 산책로정비·보안등 설치 등 주변환경 조성에 힘 쓸 예정이며, 수준 높은 무대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공연시설문을 대폭 보강할 예정이다.

한편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해 연4회 음악회·뮤지컬·마당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연 10회 목표로 조각·그림·서예 등 전시회와 연6회 이상 영화상영을 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단체관람을 유도



〈사진〉 문화회관 공연모습

하고 범시민 좋은 영화보기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30개소에 전시되어 있지만 53개소로 전시공간수를 확대하여 회관공간의 화랑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매주 화·목요일에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주부 및 직장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매주 토요일에는 중·고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용영화와 영상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영상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5) 상수도사업소

① 개요

서산시 상수도사업소의 연원은 1969년 예천배수지 공사에서 시작되며, 이어 1981년에 수석정수장과 유계취수장 사업인가 후, 수석정수장은 1985년에 급수인구 33,400명 9,600㎥/일 규모로 준공하였다. 그후 1989년, 1992년,

1977년에 각각 3차에 걸쳐 증설하였다. 또한 유계정수장도 1984년도에 준공된 후 1989년, 1992년, 1997년에 각각 3차에 걸쳐 증설하였다.

② 조직 및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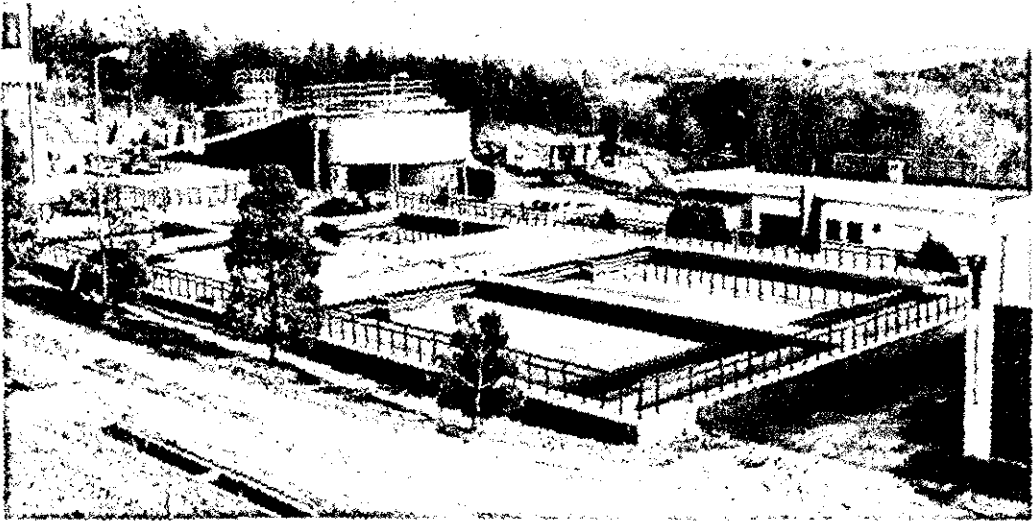
역대 소장을 보면, 초대 박영호(95. 1. 1 - 5. 20), 제2대 이강주(95. 5. 21 - 11. 22), 제3대 남대호(95. 11. 23 - 96. 3. 12) 소장이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노상근 소장이 재직하고 있다. 조직은 소장 이하 관리계와 시험계가 있으며, 사업장으로는 수석정수장·유계취수장·예천배수지가 있으며, 실험실 1개소가 있다. 근무인력을 보면, 소장 5급 1명과 6급 2명, 7급 1명은 행정직이고, 화공환경직 7급 1명, 기계직 8급 1명과 전기·토목직 9급 각각 1명 등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상수도사업소 인력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정원(명)	12	1	2	4	-	-	5
정원(명)	12	1	2	2	1	2	4

③ 주요활동

3개면 14개리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구역내 표지판의 설치·보호구역내 각종 신고 및 허가행위에 대한 사전안내·보호구역주민과의 유대강화·어렵행위에 대한 경고엽서제 등 세부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으며, 수량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연내에 정수시설 증설공사를 완료하고 취수모터 펌프를 증강하여 취·정수 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며, 더 좋은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



〈사진〉 상수도 취·정수장

해 자정초면적을 확대하여 자정능력을 제고하며, 축산폐수발생시설에 대해 특별 관리하고, 폐수유입구 및 주요지점 7개소를 정하여 수시로 점검하려고 한다.

또한 정수장내 모든 사고는 5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능력 향상과 예방대책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 유량측정기를 수선하고, 조정밸브의 교체·정수장 약품관리자 자격증 취득추진·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응급조치체제 구축 등 세부대책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경영행정의 시각에서 상수도 시설을 운용하기 위해 장기근속직원을 상수도 전문가로 육성하고, 각종 수리공구를 보강하며, 주요 경험사례를 기록으로 유지하여, 기술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염소농도안정화장치로 수질민원을 완화하고, 음용수 수질검사를 내실화하며 부적합자에 대한 상담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6) 시립도서관

① 개요

시립도서관은 1993년 건립계획을 수립한 후, 1994년 6월 28일 현대건설이 건축공사를 맡아 시에 기증하였다. 건물은 1995년 10월 17일에 준공되었으며, 동년 11월 27일에 개관하였다.

② 조직 및 인력

시립도서관의 조직은 관장 이하 사무장과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현재 장서는 5만여권에 이르며, 이에 대한 열람 및 대출 등을 관리하기 위해 도서관 내부적으로는 종합자료실, 참고자료실, 모자·아동열람실, 이동도서관, 행정·향토자료실, 전자자료실, 어학실, 수서실, 강당, 세미나실 및 향토문화교실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시립도서관 도서현황

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51,883	3,017	1,694	760	5,944	2,601	3,232	1,652	1,188	27,766	4,029

초대 이강주 관장('95. 11. 24 - '97. 2. 17)에 이어 현재 정문종 관장이 재직하고 있으며, 직원은 5급 관장을 포함하여 행정직 6명, 사서직 4명, 전기직 1명 등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시립도서관 인력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10등
계	2	1	2	3	2	6	급
행 정	0	1	2	2	1		6
사 서	6	-	-	1	-	3	-
전 기	4	-	-	-	-	1	-
기 능	1	-	-	-	-	1	-
기 능	7	-	-	-	1	2	4
청 경	2	-	-	-	-	-	2

③ 주요활동

최신 도서자료의 적기확보를 위해 도서를 분기별 분할구입하고,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구입하여 독서인구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도서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희망도서함을 설치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도서의 비치도 아울러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서적 10,000권을 금년 중에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관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도서대출의 확대 실시·도서관내 각종 편의시설의 확충·독서경진대회 실시 등 도서관 이용주민의 확충에 노력하고, 대산분관의 경우 지역 3사 및 부녀회 마을문고 등 독서모임 구성을 유도하며, 각종 세미나·공개강좌 등 기능의 다각화와 청소년 및 주부중심의 문화사업을 전개해 도서관 기능의 다양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영상자료를 비치하고 상영을 정례화함으로써 시청각실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주 4회정도를 대단위아파트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도



〈사진〉 도서열람

서관을 운영함으로써 행정수요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며, 행정자료실과 어린이독서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확장하기 위해 토지매입과 가옥철거를 연내에는 타결짓도록 하고, 장마철 이전에 대산분관의 환경조성사업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비치장서는 5만여권에 이르지만 더욱 내실있는 도서를 비치할 예정이다.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91개국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외국 관방안내도 및 문화재서적을 수집하고, 그동안 195개 기관을 방문하여 수집한 3,642권의 서적 이외에도 141개 기관을 더 방문하여 전국의 시·군지와 통계연보, 향토지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7) 종합사회복지관

① 개요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 7월 24일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1994년 9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995년 10월 19일에 완공하였다. 동년 10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1995년 12월 5일에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공포하였고, 동년 12월 28일에 개관하였다.



〈사진〉 복지관 교육

② 조직 및 인력

조직은 관장 이하 서무계·복지1계·복지2계가 있다. 서무계에서는 복지관업무의 기획·조정과 일반사무를 처리하고, 복지1계에서는 가정복지와 아동복지를 담당하며, 복지2계에서는 지역·노인·장애인·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의 인력을 살펴보면, 관장 5급 1명을 비롯하여 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기능직 3명, 별정직 1명 등 총 14명 정원에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개관당시의 초대 관장은 조정순관장으로 '95년 12월 28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장순문관장이 '97년 7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다.

③ 주요활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1층과 지상 3층의 총면적 2,114㎡로 그동안 각종 기능반과 취미반을 1,583명이 수료하였으며, 459명이 현재 교육중이다. 이에 더하여 복지관이 시외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미용·홈패션 등 6개과목의 기능교실을 운영하고, 가정원에·꽃꽂이 등 5과목의 취미교실도 아울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관 2층에 전문강담요원과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가정문제·청소년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며, 복지관 1층에는 52명수용규모의 보육실과 어린이 놀이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여성일자리아선창구를 개설하여 1명의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586컴퓨터 20대를 설치하여 청소년컴퓨터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조기특수교육실 2실을 운영하여 언어·인지발달 지체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00석 규모의 무료예식장 운영·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노인건강교실 운영·수화교실 운영 등 명실상부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8) 환경사업소

①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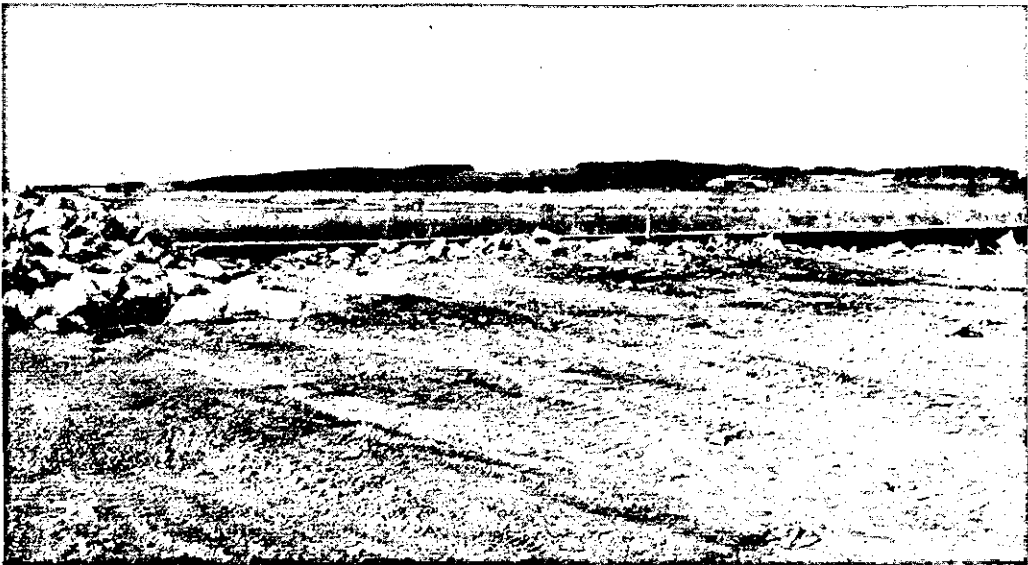
각종 쓰레기배출량의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자로 서산시 양대동 771번지에 사업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② 조직 및 인력

초대 박종성 소장이 개소와 함께 취임하여 96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최영균 소장이 근무하고 있다. 인력은 6급 소장 1명을 비롯하여 7급 1명과 환경직 8급 1명, 기능직 4명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③ 주요활동

현재 서산시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약 60톤으로 이중 58.8톤은 매립하고, 1.2톤은 재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업무는 쓰레기매립과 관련된 제반업무와 침



〈사진〉 쓰레기처리장

출수처리장 및 실험실의 운영, 덤프트럭 및 불도저 운행, 재활용품 선별·처리 및 판매 등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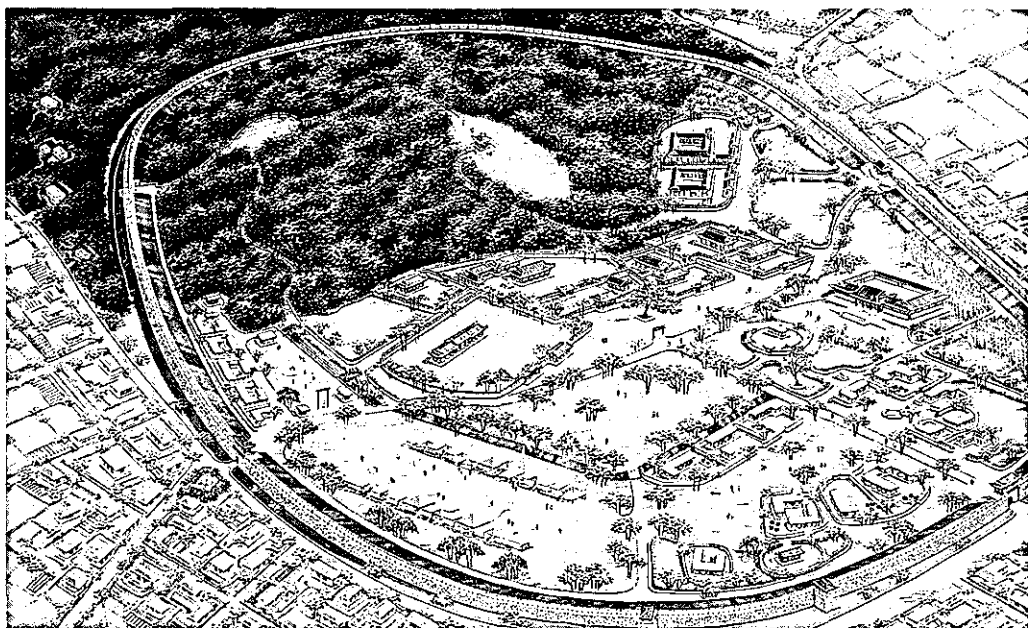
1일 60톤에 이르는 방대한 쓰레기를 매립하고, 침천수의 위생적 처리와 재활용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생매립장공사, 침출수처리장, 재활용품선별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위생매립장은 29,230평에 270,558톤을 1992-2010까지 18년간 매립할 수 있는 규모로 33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여 '97년 7월로 1·2차 매립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3단계공사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처리장과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6평에 주당 11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쾌적한 위생매립장을 조성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매립지에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매립장 내 유희농경지(약 10,000평)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9) 해미읍성관리사무소

① 개요

해미읍성관리사무소는 1996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초대 한용상 소장이 취임하여 97년 3월 5일까지 근무하였고, 현재는 임홍순소장이 근무하고 있다.



〈사진〉 해미읍성 복원사업

② 조직 및 인력

현재 인력은 소장 이하 8급 행정직 1명, 기능직 2명과 사무보조원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읍성관리 및 행사유치에 관한 사항, 내방객 안내 및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다.

③ 주요활동

해미읍성은 1963년 1월 사적 제11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진남문, 동헌, 관아문, 망루를 비롯하여 총 1,800m 높이 5m에 달하는 성곽 등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시에서는 15억원을 투자하여 보수하였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로 향후 2006년까지 130억원을 투자하여 관아건물 및 성내 기존건물을 보수할 계획이다.

6. 읍 · 면 · 동행정

1) 대산읍

(1) 개황

대산읍은 1896년 일도면과 이도면으로 분칭되었다가 1910년 합병으로 인하여 일도면과 이도면의 2개면으로 설치되었던 바 1914년 3월 16일 충청남도령에 의하여 이도면중 지곡면 환성리·대성리 등 3개리를 제외하고 일도면과 이도면을 합병하여 대산면으로 개칭되었다가, 1991년 12월 1일 대산읍으로 승격되었다.

대산읍의 지세는 서산시의 최북단에 위치(서산시청에서 서북서쪽으로 22km지점으로 위도상 동경 126도 20분 - 28분, 북위 36도 54분 - 37도 02분)하고 있는 반도로서 남으로는 지곡면이 접속하고 동북면은 황해만에 접하며, 해안의 출입이 많아 다수의 소도가 산재되어있다. 현재 읍사무소의 위치는 대산읍 대산리97-4에 위치하고 있다.

사회 · 경제적 환경을 보면, 임야4,821 답1,996ha등 총 8,840ha의 면적과 6,514가구 20,017명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전형적인 농어촌 경제기반을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 임해공업단지의 조성과 함께 2·3차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유치원 5개교와 초 · 중등학교 6교 등 11개교에 2,800여명의 학생과 130여명의 교직원들로 교육기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은행지점 2개소와 신용 · 마을금고 3개소, 농·수·축협 3개소, 우체국 2개소 등 10개소의 금융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삼성종합화학(주)와 현대석유화학(주) 등 5개사가 임해공업단지에 입주해 있으며 7,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사진〉 대산읍사무소

(2) 행정구역 및 행정기구

① 행정구역

본읍은 대산리, 대로리 등 10개의 법정리에 30개의 행정리가 있고 112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7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법정리	행정리	반수	인구(명)	면적(km ²)
10	30	112	20,017	103.9
대산리	6	15	5,056	9.3
대로리	3	13	2,707	14.7
웅도리	1	4	190	1.9
오지리	2	12	729	9.2
기은리	2	8	3,412	8.1
독곶리	2	8	1,098	7.5
대죽리	3	8	765	12.4
화곡리	3	12	2,150	12.2
운산리	5	13	1,162	19.2
영탑리	3	19	2,748	9.4

② 행정기구와 인력

행정기구는 읍장·부읍장 이하 총무계(6명), 진흥계(2명), 재무계(5명), 사회계(6명), 호병계(5명), 산업계(6명), 도시계(8명), 건설계(3명) 등 8개 계에 총 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원기준 읍장 5급 1명을 비롯하여 6급 8명, 별정직 1명 등 총 45명을 정원으로 한다.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기 타
정원(명)	45	2	8	11	13	2	9	
정원(명)	43	2	8	11	9	3	9	1

③ 역대 읍(면)장

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역 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1	김봉환	44.12.30	-	10	백승익	83. 3. 5	84. 3. 9
2	김봉환	-	-	11	신상찬	84. 3.10	86. 6.30
3	김봉환	-	60.12.29	12	김형탁	86. 7. 1	87. 6.30
4	김정봉	60.12.30	61. 7.12	13	홍옥표	87. 7. 1	91.11.30
5	김동호	61. 7.13	75.12.30	초대읍장	홍옥표	91.12. 1	93. 6.27
6	한숙우	75.12.31	77.11.28	2	최진원	93. 6.28	95. 3. 7
7	김동호	77.11.29	80. 7.13	3	김지영	95. 3. 8	97. 6.30
8	이용하	80. 8.14	81.12. 1	4	서삼동	97. 7. 1	현재
9	민형관	81.12. 2	83. 3. 4				

④ 위원회

대산읍에는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대산읍방위협의회의 등 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첫째, 대산읍 방위협의회의는 읍장을 위원장으로 13인의 위원으로 95년 1월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전시 및 평시 작전지원 체제를 주요기능으로 한다. 둘째, 대산읍 농지관리위원회는 읍장을 위원장으로 30인의 위원으로 96년에 농지법 제40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농지전용 심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셋째, 대산읍 민방위위원회는 읍장을 위원장으로 5인의 위원으로 95년 1월에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지역민방위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3) 주요활동

대산읍 대죽리에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일 2,500톤의 용수를 취수하여 185동에 공급하는 상수도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태풍시 선박의 안전정박으로 어민 피해 보호와 조업시간의 연장으로 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 하며 선박의 입·출항시 어민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대산읍 오지2리(고창개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에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하여 26척의 선박이 수해를 볼수있도록 오지리 선착장 사업을 추진중이다.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차량에 대해 현재의 주·정차 시설로는 부족하여 도로 1면의 고정 지정운행을 양면으로 (격주 윤번제로)활용하고자 하며, 소년소녀가장의 주택과 무의탁 노인, 장애 가정, 모자가정등 극빈자 가정에 대해서 각종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와 결연을 유도하고 대상가구에 대해서 욕구와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을 유도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의 운영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연환경을 보면, 서산시청으로부터 4km떨어진 서남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부는 팔봉면과 접하고 동으로는 갈산동, 서에는 부석면 강수리와 접하고 있으며 남부에는 도비산을 경계로하여 부석면과 접하고 동남부 일부는 천수만에 접하고 있다. 지세는 북에 비룡산과 서에는 토성산 남으로는 도비산이 자리잡고 있는 관계로 농경지가 매우 협소하다. 하지만 풍전저수지와 둔당저수지 등의 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영농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동남부의 AB지구의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곡창지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토지종별현황

(단위:㎡)

구분 리별	총 계	전	답	임 야	대	기 타
대산 1리	1,288,093	64,710	173,182	862,694	187,507	
" 2리	979,054	173,579	247,935	519,672	37,868	
" 3리	1,424,382	290,505	228,254	871,079	34,544	
" 4리	931,301	248,852	186,447	465,126	30,876	
" 5리	3,173,842	232,819	252,814	1,328,932	28,868	1,330,409
" 6리	1,499,826	89,092	215,142	1,097,976	97,616	
대로 1리	5,576,589	418,797	956,010	3,781,505	26,802	393,475
" 2리	3,989,565	218,565	638,588	2,462,490	37,760	632,162
" 3리	5,165,923	187,439	828,929	1,318,799	24,835	2,805,921
웅 도 리	1,924,587	187,155	124,248	1,176,204	12,813	424,167

(4) 토지종별현황(계속)

(단위 : m²)

구분 리별	총 계	전	답	임 야	대	기 타
오지 1리	4,132,519	223,142	538,514	2,174,886	21,777	1,174,200
" 2리	5,031,275	261,029	415,828	1,676,206	34,752	2,643,460
기은 1리	5,126,580	404,639	514,167	2,068,811	51,386	2,087,577
" 2리	2,975,162	274,812	463,739	1,486,618	23,843	726,150
독곳 1리	4,798,052	387,043	499,183	3,142,824	25,810	743,192
" 2리	2,697,167	358,349	417,274	1,036,368	36,777	848,399
대죽 1리	4,759,381	293,580	586,126	2,480,342	21,827	1,377,506
" 2리	4,187,180	197,765	438,514	1,712,735	18,860	1,819,306
" 3리	3,484,570	172,563	301,654	1,012,732	18,860	1,978,761
화곡 1리	2,988,049	432,497	416,613	787,442	23,818	1,327,679
" 2리	4,456,202	433,473	565,457	3,424,478	32,794	
" 3리	4,724,389		1,040,120	3,265,966	61,562	356,741
운산 1리	2,653,172	231,098	1,278,100	787,442	22,868	333,664
" 2리	4,453,209	265,142	1,581,242	1,564,595	19,893	1,022,337
" 3리	4,781,989	262,877	1,875,705	2,175,878	22,851	444,678
" 4리	3,137,016	214,287	1,824,994	909,426	27,835	160,474
" 5리	4,174,086	213,216	1,746,696	1,968,604	26,818	218,752
영탑 1리	6,453,063	495,986	1,371,739	2,622,163	43,703	1,919,472
" 2리	2,894,141	252,121	532,051	1,457,680	41,785	610,504
" 3리	29,930				29,930	

2) 인지면

(1) 개황

인지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정면(둔당리, 야당리, 모월리, 산동리, 애정리)과 노지면(화수리, 차리, 성리, 갈산리) 및 군내 풍전리를 통합하여 인지면이라 개칭하고 서기 1926년 10월에는 둔당리 53-4번지에 위치한 면청사를 현재 위치에 이전하였으며,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갈산리가 서산읍으로 편입되었다. 1991년 8월 27일 둔당리 255-1에 240평에 2층의 건물을 최신형으로 완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진〉 인지면사무소

(2) 행정구역 및 행정기구

① 행정구역

인지면에는 둔당리와 야당리 등 10개의 법정리와 71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09가구와 5,445명의 거주인구가 있으며, 타 면에 비하여 꾸준한 인구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 정 리	행 정 리	반 수	인구(명)	면적(km ²)
10	20	71	5,445	32.9km ²
둔 당 리	2	7	963	2.5
야 당 리	2	10	732	2.5
모 월 리	3	7	611	4.0
산 동 리	2	6	442	4.4
애 정 리	2	5	575	3.0
남 정 리	2	7	327	3.2
화 수 리	2	8	580	3.5
차 리	2	9	458	4.0
성 리	2	8	494	4.0
풍 전 리	1	4	258	1.8

② 행정기구와 인력

행정기구는 면장·부면장 이하 총무계(10명), 재무계(3명), 호병계(3명), 산업계(4명) 등 4개 계에 총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원기준 면장 5급 1명을 비롯하여 6급 5명, 별정직 1명 등 총 21명을 정원으로 한다.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정원(명)	21	1	5	5	4	1	4	1
현원(명)	20	1	5	6	2		5	1

③ 역대 면장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역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1	안만복	46.12.20	47. 3. 26	11	정리호	73. 4. 25	81.12. 1
2	박용석	47. 3. 31	50.10. 5	12	양병수	81.12. 2	82.12. 2
3	조원춘	50.11. 4	56. 2. 10	13	이종기	82.12. 3	84. 3. 2
4	박병현	56. 4. 7	57. 6. 30	14	박수규	84. 3. 12	89. 6. 30
5	장철진	57. 7. 16	58. 8. 12	15	김동원	89. 7. 1	90. 9. 10
6	윤진구	58. 8. 27	60.12.26	16	서광석	90. 9. 12	92. 4. 12
7	유병하	60.12.27	61. 6. 5	17	조철호	92. 4. 13	94. 6. 29
8	유병갑	61. 6. 6	69. 2. 29	18	성운용	94. 6. 30	95.12.21
9	안중수	59. 6. 20	73. 4. 24	19	최병원	95.12.22	97.12.21
10					정상덕	97.12.22	현재

④ 위원회

인지면의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인지면방위협의회와 인지면농지관리위원회, 그리고 인지면민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인지면 방위협의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24인의 위원으로 95년 1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전시 및 평시작전지원 체제확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둘째, 인지면 농지관리위원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26인의 위원으로 95년 1월 농지법 제4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농지전용 심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셋째, 인지면 민방위협의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6인의 위원으로 95년 1월 민방위 기본법 제6조 의거 구성되었으며 지역민방위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3) 주요활동

애정·남정지구애(89ha) 17여억원을 투입하여 경지정리지역 누락, 연정천 편입

여부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지구별 기반정리사업 및 구조물 사업 등을 완벽 시공토록 감독강화와 현장 사무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적기 이양으로 생산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한 정주권개발과 도로 확·포장 사업에 12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7필지의 토지를 편입하여 길이 1775m와 넓이 10m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착공(96. 9. 20)하여 소재지권 중심지 형성과 도로망 확충 등으로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여건을 형성하고 배후 지역간을 연결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유통체제를 확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원묘지 조성이후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발생하며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여 혐오시설에 대하여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교 공원묘지 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하며 공원화 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이주희망자에 대하여는 이주비를 지원(주택자금 지원)하여 주었다.

(4) 토지종별현황

(단위 : ha)

구분 리별	계	전	답	임 야	대	기 타
계	3,544	585	1,082	1,082	82	372
둔당 1리	138.6	31	50	34	4.6	19
" 2리	133.8	32	42	34.8	5	20
야당 1리	177	25	104	21.8	4.2	22
" 2리	175.9	28	101	22.4	4.5	20
모월 1리	126.4	35	52	19.3	3.1	17
" 2리	123.2	30	54	21.2	3	15
" 3리	94.5	7	44	22.3	3.2	18
산동 1리	207.2	27	57	101.7	4.5	17
" 2리	214.6	29	53	110.2	4.4	18
애정 1리	183.8	39	53	68.5	4.3	19
" 2리	178.1	32	51	70.4	4.7	20
남정 1리	173.3	30	49	72.8	3.5	18
" 2리	162.3	26	40	75.9	3.4	17
화수 1리	176.5	32	50	71.3	4.2	19
" 2리	184	29	56	73.5	4.5	21
차 1리	249.9	31	48	151.6	4.3	18

(4) 토지종별현황(계속)

(단위 : ha)

구분 리별	계	전	답	임 야	대	기 타
차 2리	253.6	31	48	152.1	4.5	18
성 1리	216.9	35	45	113.9	4	19
" 2리	219.2	39	43	115.7	4.5	17
풍 전 리	155.2	17	45	69.6	3.6	20

3) 부석면

(1) 개황

부석면은 본래 마산면과 화면면의 관할지역이었던 것을 1914년에 화면면 간월도리를 안면면에 이속시키는 외에 두개면을 통폐합하고, 그 명칭을 부석면으로 개칭하였으며 1973년 7월 1일에는 다시 안면면 간월도리가 부석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치는 서산시청으로부터 12km거리에 있으며 동쪽은 해미, 고북 남쪽은 태안군 안면읍 서쪽은 태안군 남면과 접하고 있는 반도지형이며, 면 중앙에는 도비산이



〈사진〉 부석면사무소

(352m)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산맥이 남쪽으로 뻗어내려 그 기복이 심하여 평야가 형성되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전답이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

관내에는 서산경찰서 부석파출소와 부석농업협동조합과 부남우체국과 부석초등학교 등 5개교의 교육기관과 보건지소 등 4개소의 의료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다.

(2) 행정구역 및 행정기구

① 행정구역

부석면은 14개의 법정리와 26개의 행정리 105반의 반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2515세대의 가구와 8,550명의 상주인구가 있다.

법 정 리	행 정 리	반 수	인구(명)	면적(km ²)
14	26	105	8,550	59.4
가 사 리	6	13	1,138	7.7
강 수 리	3	9	505	3.8
송 시 리	3	8	538	3.7
월 계 리	3	11	506	4.8
갈 마 리	3	7	465	2.6
취 평 리	3	10	1,283	7.0
대 두 리	3	7	417	3.3
지 산 리	6	10	777	8.2
봉 락 리	3	6	567	4.1
칠 전 리	1	5	373	3.2
강 당 리	3	9	598	5.1
마 룡 리	1	4	475	2.3
창 리	1	4	564	2.9
간월도리	1	2	350	0.7

② 행정기구와 인력

행정기구는 면장·부면장 이하 총무계(5명), 재무계(3명), 호병계(4명), 복지계(4명), 산업개발계(6명) 등 5개 계에 총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원기준 면장 5급 1명을 비롯하여 6급 6명, 별정직 1명 등 총 25명을 정원으로 한다.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별 정
정원(명)	25	1	6	7	3	3	3	1
현원(명)	24	1	6	8	2	3	3	1

③ 역대 면장

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역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1	이종신	45. 8. 28	52. 5. 15	10	박주석	73. 7. 2	74.10. 8
2	이종신	52. 5. 16	56. 7. 12	11	이강호	74.10. 9	82.12. 2
3	이종신	56. 7. 13	60.12.17	12	박상일	82.12. 3	83. 3. 5
4	강현구	60.12.18	61. 6. 18	13	서광석	83. 3. 6	86. 7. 2
5	유제권	61. 7. 8	62. 4. 12	14	이성우	86. 7. 3	88.12.31
6	임복준	62. 4. 13	63. 5. 5	15	서광석	89. 1. 1	90. 9. 10
7	한숙우	63. 5. 6	64. 9. 10	16	김동원	90. 9. 10	94. 6. 30
8	윤태건	64. 9. 11	66. 7. 10	17	유제훈	94. 7. 1	95.12.22
9	유병하	66.10. 6	73. 7. 1	18	성운용	95.12.23	현재

④ 위원회

부석면에는 4개 위원회가 있는데, 부석면 농지관리위원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27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농지법 제46조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며 농지전용심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부석면민방위협의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6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며 전시 및 평시 작전지원체제확립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부석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17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3월 서산시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며 복지회관 운영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면정자문위원회는 안종남회장과 29명으로 구성하여 면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자문을 구하는 역할을 한다.

(3) 주요활동

부석면 강수1구에 5천여만원을 투입하여 마을회관을 신축할 계획이며, 월계1구에 5천여만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건물을 신축하고 부석면 갈마2구의 1개소에 2억원을 투입하여 송갈선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중이며 마을 안길 포장공사등 총 60여억원을 투입하여 면의 숙원사업들을 추진중에 있다.

특수시책으로는 농용 폐자재인 비닐 및 농약병, 폐지가 농경지 및 인가 주위에 방치되는 등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시장제를 운영하여 수거의 극대화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무분별한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려 한다.

또한 현안사업으로 공동묘지에 무단점유자가 발생하여 상당량의 면적을(0.1ha) 점유하고 있기에 각서를 징취하고 농작물 식부금지 및 훼손행위 금지를 홍보하고 공개 입주를 알선 및 유도하여 상당량의 토지를 환원 조치시켰으며, 무분별한 상토채취로 산림이 훼손되고 영농인구의 고령화와 불량 상토 사용으로 입고병 등 병충

해 발생이 증가하여 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6개 마을에 2700 t (15 t 덤프 180차)의 상토를 공급하였다.

(4) 토지종별현황

(단위 : m²)

구분 리별	계	전	답	임 야	대	기 타
가 사 리	7,571,721	1,621,824	1,853,476	3,549,360	75,950	471,111
강 수 리	3,998,684	524,480	1,075,434	1,921,626	83,687	393,457
송 시 리	3,670,072	1,024,159	840,196	1,488,418	75,403	241,896
월 계 리	4,952,141	710,254	1,052,487	2,771,200	75,410	342,790
갈 마 리	2,750,181	847,741	732,238	881,698	58,737	229,767
취 평 리	3,789,471	611,576	850,374	1,859,400	126,680	341,441
대 두 리	3,357,124	508,724	791,990	1,751,810	59,598	245,002
지 산 리	8,483,768	1,128,635	2,301,780	4,466,213	125,089	462,051
봉 락 리	4,210,777	968,550	862,286	1,947,314	76,276	356,351
철 전 리	3,166,769	571,182	690,590	1,616,792	62,566	225,639
강 당 리	4,772,275	945,427	1,349,206	2,083,985	64,415	329,242
마 룡 리	5,254,953	662,480	1,027,211	3,233,005	25,571	306,686
창 리	3,210,308	322,149	484,300	2,060,535	55,770	287,554
간월도리	885,434	190,727	68,817	438,171	10,925	176,794

4) 팔봉면

(1) 개황

팔봉면은 본래 문현면과 영풍창면의 2개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때에 문현면 연화리를 지곡면에 이속시킨 후 통합되어 그 명칭이 팔봉면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형 및 지세를 보면, 서산시청으로부터 약 12km지점인 서북부에 위치하여 동쪽은 성연면, 인지면, 서쪽은 해면을 격하여 태안군의 이원면과 원북면, 남쪽은 부석면, 태안군, 북쪽은 지곡면에 접하고 있으며 동부에는 316m의 팔봉산이 돌출하여 그 산맥이 산재됨으로써 대체로 산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2) 행정구역 및 행정기구



〈사진〉 팔봉면사무소

① 행정구역

팔봉면은 9개의 법정리와 22개의 행정리, 57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22가구에 4,799명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법 정 리	행 정 리	반 수	인구(명)	면적(km ²)
9	22	57	4,799	51.9
금 학 리	3	7	506	8.2
양 길 리	3	9	507	6.2
대 황 리	2	8	368	4.0
흑 석 리	2	5	223	5.0
고 파 도 리	1	1	93	0.9
호 리	3	4	599	6.1
덕 송 리	2	7	498	4.3
어 송 리	3	10	1,058	11.4
진 장 리	3	6	947	5.2

② 행정기구와 인력

행정기구는 면장·부면장 이하 총무계(10명), 재무계(3명), 호병계(3명), 산업계(3명) 등 4개 계에 총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원기준 면장 5급 1명을 비롯하여 6급 5명, 별정직 1명 등 총 20명을 정원으로 한다.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별 정
정원(명)	20	1	5	7	2	1	3	1
현원(명)	19	1	5	6	2	1	3	1

③ 역대 면장

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역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1	임기호	47. 4. 8	52. 2. 13	13	한숙우	74.10. 6	75.12.30
2	조철원	52. 2. 14	52. 5. 5	14	정완길	75.12.31	77.11.26
3	양승필	52. 5. 6	56. 8. 7	15	박수규	77.11.27	81.11. 1
4	양승필	56. 8. 8	59. 8. 11	16	이용하	81.11. 2	82. 7. 12
5	양태석	59. 8. 12	60.12. 1	17	이규진	82. 7. 13	86. 7. 1
6	안종수	61. 1. 5	61. 5. 15	18	신용균	86. 7. 2	91.12.20
7	박용호	61. 6. 6	61. 7. 11	19	류수동	91.12.21	93. 6. 28
8	이강호	61. 7. 12	62. 4. 5	20	성운용	93. 6. 29	94. 6. 30
9	구자윤	62. 4. 6	63. 5. 2	21	김정상	94. 7. 1	95.12.22
10	김교철	63. 5. 3	71. 9. 12	22	이영무	95.12.23	96. 9. 3
11	이규진	65.11. 8	65.10.10	23	이필하	96. 9. 4	현재
12	박상순	71. 9. 13	74.10. 5				

④ 위원회

팔봉면의 각종 위원회 상황을 보면, 팔봉면 방위협의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9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전시 및 평시 작전지원체제확립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팔봉면농지관리위원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23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농지법 제4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농지전용 심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또한 팔봉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9인을 구성위원으로 90년 서산시 조례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복지회관운영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팔봉면 민방위협의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6인을 구성위원으로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지역민방위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3) 주요활동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국도 32호선으로 밀집되는 교통량을 분산유도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서해안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과 원활한 물류운송을 위하여 팔봉면 어송리-태안읍 도내리에(3.4km 2차선)이르는 구간을 34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중이며, 오지개발사업의 지원계획에 의하여 관내 낙후지역의 도로를 확·포장하여며 농로 및 마을 안길 정비로 농촌 소득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0여억원을 투입하여 팔봉면 양길2리와 어송1리 등 13건의 지구에 7km에 이르는 도로를 정비하여 오지지역의 농·축산물의 수송력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물류비용의 절감과 오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감해소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준용하천으로 제방의 하층구조가 취약하며 유입수량에 비하여 하폭이 협소하고 제방높이가 낮아 하천내 토사적치로 폭우시 범람, 제방유실의 우려가 있어 7억4천여만원을 투자하여 4.5km에 이르는 제방의 석축 및 돌망태 하상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수시책으로는 팔봉면의 중심지에 있는 팔봉산을 지역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내고장의 명산임을 인식하고 이에 팔봉산을 해안국립공원과 연계 개발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5km에 이르는 등산로를 개설하고 2개의 편의시설을 개설하고 안내판과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관광명소로 가꾸고자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전통문화의 골간을 이루어온 인,의,예,지정신과 내고장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특성을 파악,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00부의 향토지를 발간하여 향토문화를 재조명하고 지역발전의 근간으로 삼으며 애향심의 열을 구현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팔봉면의 30km에 이르는 해안선에 10개소의 방조제를 보유하고 있으나 재래식 인력축조로 조잡하며 지반침하등 붕괴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방조제 제고기준 미달로 해일이나 만조시 붕괴위험이 있고 배수갑문의 노후화로 해수유입의 피해가 발생하여 6여억원의 사업비(미확보)를 투자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공사비를 확보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부설방조제의 붕괴를 방지할 계획이다.

(4) 토지종별현황

(단위: m²)

구분 리별	계	전	답	임 야	대	기 타
계	51,394,233	7,208,819	7,667,733	31,837,549	668,711	4,001,421
금 학 리	8,229,390	1,356,438	670,882	5,823,326	118,772	259,972
양 기 리	6,207,284	765,667	1,105,176	3,887,786	111,082	337,573
대 황 리	3,951,806	743,565	623,527	2,177,115	58,439	349,160
흑 석 리	5,000,800	526,075	552,527	2,982,933	49,827	889,438
고파도리	946,854	130,208	53,715	635,836	8,887	118,208
호 리	6,074,221	521,947	720,075	4,587,400	54,208	190,591
덕 송 리	4,288,640	749,150	756,882	2,353,118	46,828	382,662
어 송 리	11,403,034	967,632	1,877,232	7,327,921	131,564	1,098,685
진 장 리	5,292,204	1,448,137	1,307,717	2,062,114	89,104	385,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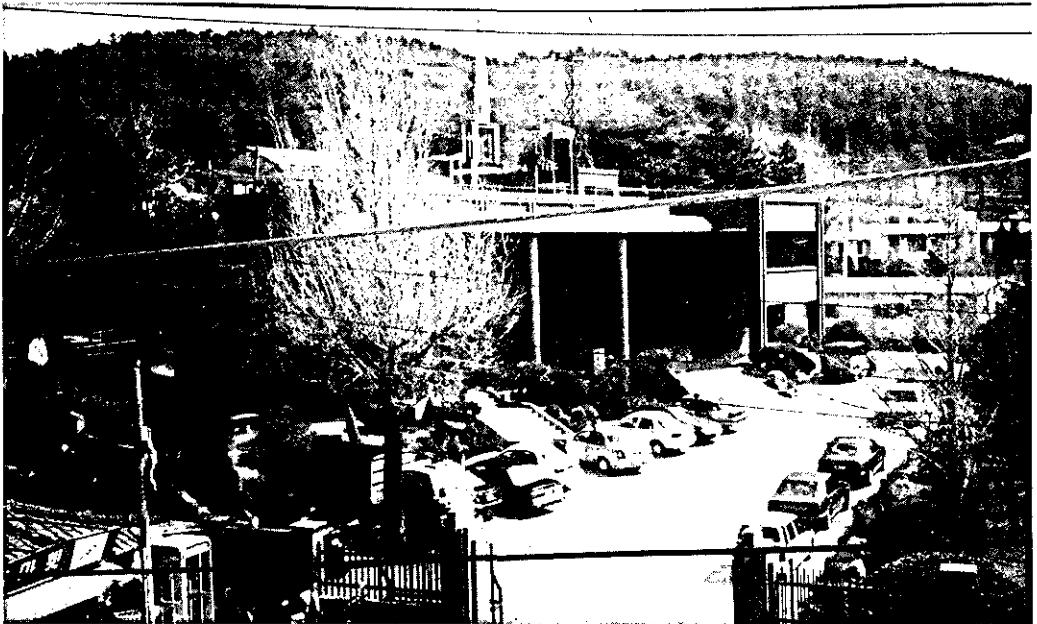
5) 지곡면

(1) 개황

본 면은 지곡면과 문현면 연화리와 일부와 대산면 환성리를 합하고 웅도리를 대산면에 편입시키면서 이루어졌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형 및 지세를 보면, 서산시청에서 11.5km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대산읍, 남쪽으로는 성연면과 팔봉면, 그리고 동서로는 각각 바다에 접해 있는 반도의 지형이었으나 동쪽은 대호만이 막히어 육지가 되고, 부춘산에서 분기된 지맥이 뚫어내려 그 영향으로 중심부는 산지를 이루고 있으며, 화천리에는 청룡보를 비롯하여 곳곳에 저수지가 설치되어 영농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고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3개교 등 5개교의 학교시설과 보건소 1개소 진료소 1개소 등 2개소의 의료시설과 파출소와 우체국, 서산농촌지도소 농민상담소 등의 기관들이 있으며 화천리에 안건기념관과 산성리에 부성사와 대요리에 진충사등 문화 유적지도 위치해 있다.



〈사진〉 지곡면사무소

(2) 행정구역 및 행정기구

① 행정구역

본 면은 9개의 법정리와 21개의 행정리, 64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1,568가구에 5,363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다.

법 정 리	행 정 리	반 수	인구(명)	면적(km ²)
9	21	64	5,317	57.1
화 천 리	3	9	1,014	7.7
산 성 리	2	7	471	4.2
장 현 리	2	6	353	3.9
연 화 리	1	3	281	5.0
중 왕 리	2	5	601	5.4
도 성 리	3	10	602	6.6
대 요 리	2	8	641	7.3
환 성 리	3	9	819	6.8
무 장 리	3	7	533	10.2

② 행정기구와 인력

행정기구는 면장·부면장 이하 총무계(11명), 재무계(2명), 호병계(3명), 산업계(4명) 등 4개 계에 총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원기준 면장 5급 1명을 비롯하여 6급 5명, 별정직 1명 등 총 21명을 정원으로 한다.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별 정
정원(명)	21	1	5	6	4	1	3	1
현원(명)	20	1	5	7	2	1	3	1

③ 역대 면장

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역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1	유석태	45.11.11	50. 2. 9	12	김동호	73.12.31	77.11.25
2	이원우	50. 2.10	-	13	민형관	77.11.28	81.12. 1
3	이원우	-	-	14	김종연	81.12. 2	82.12. 1
4	이원우	-	-	15	조한식	82.12. 1	86. 7. 1
5	이원우	-	60.11.30	16	이장용	86. 7. 2	86.12.15
6	정준익	61. 1. 4	61. 1. 5	17	최진원	86.12.24	90. 9.10
7	김기태	61. 7.10	62. 1.22	18	조철호	90. 9.11	92. 4.12
8	이관영	62. 1.23	64. 9.10	19	이성권	92. 4.13	93. 6.18
9	한숙우	64. 9.11	68.10.10	20	이영무	93. 6.28	95.12.21
10	이흥영	68.10.15	70.10. 5	21	최종학	95.12.22	97. 6.30
11	민형관	71.10. 6	72.12.26	22	윤군상	97. 7. 1	현재

④ 위원회

지곡면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지곡면 방위협의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12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전시 및 평시 작전지원체제 확립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지곡면 농지관리위원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22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농지법 제4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농지전용심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또한 지곡면 민방위협의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7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지역민방위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3) 주요활동

202개소의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현재 40개소의 보안등을 수리 점검하였으며 여타의 보안등은 이상발생시 수리조치할 것이며, 면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보자에게 주택보호비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769명의 노인들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3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화천 2리에 상수도 관정을 굴착하였고 8개소에 이르는 수해지역에 장비등을 지원하여 수해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하반기중에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45톤의 성과를 올렸다.

한편 화천 2리와 무장 2·3리 오사리에 118만여평의 면적에 2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립금속 및 자동차 기타장비 제조업의 공장을 위치하는등 지방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5회이상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97년 6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97년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자동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4) 토지종별현황

(단위:ha)

구분 리별	계	전	답	임 야	대	기 타
계	5,926	649	1,022	3,347	53	855
화 천 리	774	97	107	468	9	93
산 성 리	424	75	86	180	7	76
장 현 리	387	55	72	195	4	61
연 화 리	497	51	107	264	2	73
중 왕 리	535	52	114	231	4	134
도 성 리	660	54	111	390	4	101
대 요 리	731	64	147	381	8	131
환 성 리	676	119	155	484	8	110
무 장 리	1,024	82	123	754	7	76

6) 성연면

(1) 개황

성연면은 1914년 8월 20일에 등음암면 문거리 일부를 합쳐서(충남고시 52호)에 의하여 성연면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형 및 지세를 보면, 서산시청에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은 북단에 가야산맥이 위치하여 당진군의 정미면과 대호지면 등의 일부와 접하고 있으며 남부는 음암면과 서산시와 접하고 있으며 서부는 지곡면과 서산시일부와 접해있으며 면중심지를 관통하는 지방도와 도처에 시도가 중단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하천은 본 면의 중심부를 단류하는 성연천을 위시하여 대소천이 도처에 산류하고 있어 하천연변 경지가 이용되고 있다.

본 면에는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와 성연우체국 등 관공서와 성연초등학교 등 3개교의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약 225천평에 달하는 우주항공산업단지를 유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향후 우주항공시대의 첨단기지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성연면사무소

(2) 행정구역 및 행정기구

① 행정구역

본 면은 9개의 법정리와 20개의 행정리, 58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74가구와 3,940명의 주민들이 상주하고 있다.

법정리	행정리	반수	인구(명)	면적(km ²)
9	21	58	3,893	42.7
일람리	3	7	569	6.9
고남리	3	5	434	6.1
오사리	3	7	521	5.4
왕정리	1	5	338	3.1
평리	2	5	514	2.4
갈현리	2	6	312	3.8
명천리	3	11	549	5.7
예덕리	3	7	408	6.0
해성리	1	5	248	3.3

② 행정기구와 인력

행정기구는 면장·부면장 이하 총무계(10명), 재무계(2명), 호병계(3명), 산업계(4명) 등 4개 계에 총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원기준 면장 5급 1명을 비롯하여 6급 5명, 별정직 1명 등 총 21명을 정원으로 한다.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정원(명)	21	1	5	5	5	1	3	1
현원(명)	19	1	5	3	6	1	3	

③ 역대 면장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역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1	최병을	-	45. 9. 3	8	이승영	75.12.31	77.11.25
2	최진환	45. 9. 4	47. 5. 3	9	한숙우	77.11.26	81.12. 1
3	노선만	47. 5. 4	48. 2.20	10	박수규	81.12. 2	84. 4.30
4	정선모	48. 2.21	54. 4.18	11	최영화	84. 5. 1	92. 4.12
5	황노원	54. 4.17	61. 6.14	12	서광석	92. 4.13	93. 6.27
6	최동구	61. 6.15	72. 7.20	13	정순기	93. 6.28	96.12.23
7	박상일	72. 9. 4	75.12.30	14	김연경	96.12.24	현재

④ 위원회

성연면의 위원회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성연면 방위협의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17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전시 및 평시 작전지원체제 확립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성연면 농지관리위원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21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농지법 제4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농지전용심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성연면 민방위협의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6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지역민방위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3) 주요활동

성연면 평1리에 90가구와 1개 학교 및 각급 기관단체(3기관)에서 이용하는 물탱크와 본선 수도관이 노후화(16년 경과)되어 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3년에 대형관정을 설치하고 96년에 농협창고앞의 100m에 이르는 수도관을 교체하여 깨끗하고 원활한 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의 편익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성연면 예덕 3리에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길이 5km, 노폭 4m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하여 해빙기 및 장마철에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농번기 농기계 이동 등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는 점 등을 해소하고 교통편의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향후 예덕리-해성리간 버스를 운행하여 순환도로로 이용하며 쓰레기 운반차량의 단거리운행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성연면 평리 271번지에 870평의 토지를 이용하여 2백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하상주차장을 설치하여 도로통행의 원활한 소통과 유흥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노숙차량이 없어 주민통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4) 토지종별현황

(단위: m²)

구분 리별	계	전	답	임 야	대	기 타
계	43,817,000	4,461,000	7,641,000	27,032,000	572,000	4,111,000
일람 1리	3,071,000	217,000	324,000	2,395,000	20,000	115,000
" 2리	2,130,000	252,000	299,000	1,433,000	30,000	116,000
" 3리	2,032,000	198,000	359,000	1,330,000	29,000	116,000
고남 1리	2,523,000	247,000	260,000	1,865,000	22,000	129,000
" 2리	2,391,000	255,000	237,000	1,694,000	20,000	185,000
" 3리	1,669,000	236,000	268,000	1,008,000	20,000	137,000

(4) 토지종별현황(계속)

(단위: m²)

구분 리별	계	전	답	임 야	대	기 타
오사 1리	2,334,000	183,000	188,000	1,801,000	22,000	140,000
" 2리	1,909,000	211,000	229,000	1,325,000	30,000	114,000
" 3리	1,411,000	168,000	408,000	720,000	19,000	96,000
왕 정 리	3,084,000	330,000	593,000	1,892,000	48,000	221,000
평 1리	1,352,000	183,000	317,000	621,000	58,000	173,000
" 2리	1,160,000	134,000	318,000	465,000	44,000	199,000
갈현 1리	1,690,000	218,000	329,000	972,000	27,000	144,000
" 2리	2,148,000	264,000	268,000	1,451,000	21,000	144,000
명천 1리	2,725,000	394,000	677,000	1,391,000	30,000	233,000
" 2리	1,620,000	223,000	339,000	886,000	19,000	153,000
" 3리	1,267,000	72,000	268,000	731,000	21,000	175,000
예덕 1리	1,640,000	177,000	288,000	952,000	19,000	204,000
" 2리	1,916,000	184,000	324,000	1,174,000	20,000	214,000
" 3리	2,464,000	107,000	688,000	1,186,000	22,000	461,000
해 성 리	3,281,000	208,000	660,000	1,740,000	31,000	642,000

7) 음암면

(1) 개황

음암면은 동음암면과 두치면, 동암면과 홍주군 온천면 성암리로 이루어져 모든 것을 동음암면 문기리 일부와 동암면 석천리 일부를 제외시킨 후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에 의해서 통폐합되어 음암면이라 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형 및 지세를 보면 서산시청에서 10km떨어진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부는 운산면, 서부는 서산시와 성연면 남부는 해미면 북부는 가야산맥의 안국산으로 당진군의 정미면과 접하고 있으며 가야산맥이 서쪽으로 뻗어내려 간대산, 퇴미산, 성왕산을 이루고 있으며 남행할수록 구릉과 저지대를 이루어 대부분이 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본 면에는 비교적 큰 하천이 세 갈래로 흐르고 있으며 교통은 국도와 지방도 시도등 3종의 경유하며 국도는 본 면의 중앙을 관통하여 삼교역에 이르고 지방도는 본 면의 남부와 동서를 횡단하여 홍성역에 이르고 시도는 서북으로 종단하여 당진에 이르고 있다.

본 면에는 서산경찰서 음암파출소와 음암우체국, 서산시 농촌지도소 음암지소 등 관공서와 음암초등학교와 동암초등학교 등 2개교의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사진〉 음암면사무소

(2) 행정구역 및 행정기구

① 행정구역

본 면은 10개리의 법정리와 28개의 행정리, 120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794세대에 9,232명의 주민이 상주하고 있다.

법 정 리	행 정 리	반 수	인구(명)	면적(km ²)
10	28	120	9,232	44.0
도 당 리	7	33	3,734	9.1
탑 곡 리	4	18	895	6.9
문 양 리	2	9	514	3.9
울 목 리	2	9	565	3.1
부 산 리	2	9	1,073	3.6
상 흥 리	3	9	652	5.3
신 장 리	2	10	599	4.7
유 계 리	2	9	483	2.9
성 암 리	3	4	186	1.4
부 장 리	3	10	531	3.1

② 행정기구와 인력

행정기구는 면장·부면장 이하 총무계(10명), 재무계(3명), 호병계(4명), 산업계(4명) 등 4개 계에 총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원기준 면장 5급 1명을

비롯하여 6급 5명, 별정직 1명 등 총 23명을 정원으로 한다.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별 정
정원(명)	23	1	5	6	7	0	3	1
현원(명)	23	1	5	7	4	2	3	1

③ 역대 면장

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역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1	윤주영	45.12.26	46.11.12	12	김낙영	71.10. 5	74.10. 6
2	강황식	46.11.12	51. 9. 1	13	이중기	74.10. 8	81.12. 2
3	조철원	51. 9.12	52. 1. 4	14	조명호	81.12. 2	82.12. 2
4	임기호	52. 1. 4	53.12.11	15	김낙영	82.12. 2	83. 3. 5
5	강황식	53.12.11	57.11. 1	16	김종연	83. 3. 5	86. 7. 2
6	김영환	57.11.27	60.12. 1	17	이성권	86. 7. 2	92. 4.13
7	김영환	60.12. 1	61. 6.26	18	최영화	92. 4.13	93. 6.27
8	최종호	61. 7. 8	64. 9.10	19	김정상	93. 6.28	94. 7. 1
9	김동진	64. 9.10	69. 3.31	20	조철호	94. 7. 1	95. 9.11
10	김영환	69. 3.31	69.12. 5	21	박명길	95. 9.11	97. 7. 1
11	이명렬	69.12. 5	71.10. 4	22	김인환	97. 7. 1	현재

④ 위원회

음암면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음암면 방위협의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17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전시 및 평시 작전지원체제 확립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음암면 농지관리위원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33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농지법 제4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농지전용심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또한 음암면 민방위협의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7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지역민방위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음암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34인을 구성위원으로 서산시 조례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복지회관 운영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3) 주요활동

2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7km에 이르는 농로 포장공사와 1건의 상수도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2억5천여만원

을 투자하여 1km에 이르는 본 면 상흥 1리에서 부산 2리에 이르는 농로를 포장하여 소재지에서 지방도 649호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에서 주민의 교통불편과 농산물 수송에서의 난점을 해소하며 아울러 소재지와의 교통불편으로 생활권이 서산시내권인 부산리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켜주며 국도 32호선 교통체증시 체증을 해소하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음압면 도당 4리에 위치한 가옥과 점포가 노면보다 낮아 강우시(우량 20mm이상)마다 침수피해로 민원이 발생하며 시장내의 표면 요철이 심하여 교통불편과 소재지 환경을 저해하며 주차난이 심하여 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5a에 포장공사를 실시하고 4천여만원을 투입하여 200m에 이르는 하수구를 시설하여 침수피해를 완전해소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문양 1리의 농로포장공사 등 8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9개지구의 본청사업과 도당 3리 농로포장공사 등 15개지구에 3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면공사 등의 조기발주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극대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수시책으로는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최고와 1등' 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자치행정을 실현하며 지방자치 시대의 진정한 공무원 자세를 체질화하여 참봉사행정을 구현하며 행정신뢰를 확보하여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애·경사 등 각종 행사시 낭비적인 식생활을 개선하여 겸소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며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에 앞장서고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과 함께 쓰레기 감량운동을 통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과소비 풍토척결로 가계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4) 토지종별현황

(단위:㎡)

구분 리별	계	전	답	임 야	대	기 타
계	43,981,290.9	9,152,649	10,150,522.4	18,123,365	982,912	5,561,842.
도 당 리	9,101,472.9	1,972,129	2,280,902.4	3,533,269	446,433	5,868,739.5
탑 곡 리	6,867,253	1,467,133	1,892,895	2,464,742	102,016	940,467
문 양 리	3,910,578	813,800	836,058	1,981,278	65,321	214,121
울 목 리	3,115,749	599,380	719,542	1,586,614	43,264	166,949
부 산 리	3,608,385	932,001	752,044	1,438,616	58,022	427,702
상 흥 리	5,256,964	627,271	653,125	1,739,402	64,922	2,172,244
신 장 리	4,710,509	1,313,212	1,124,934	1,912,213	65,326	294,824
유 계 리	2,889,755	511,794	481,686	1,596,482	66,132	233,661
성 압 리	1,409,745	247,693	630,925	422,356	28,561	80,210
부 장 리	3,110,880	668,236	788,411	1,448,393	42,915	162,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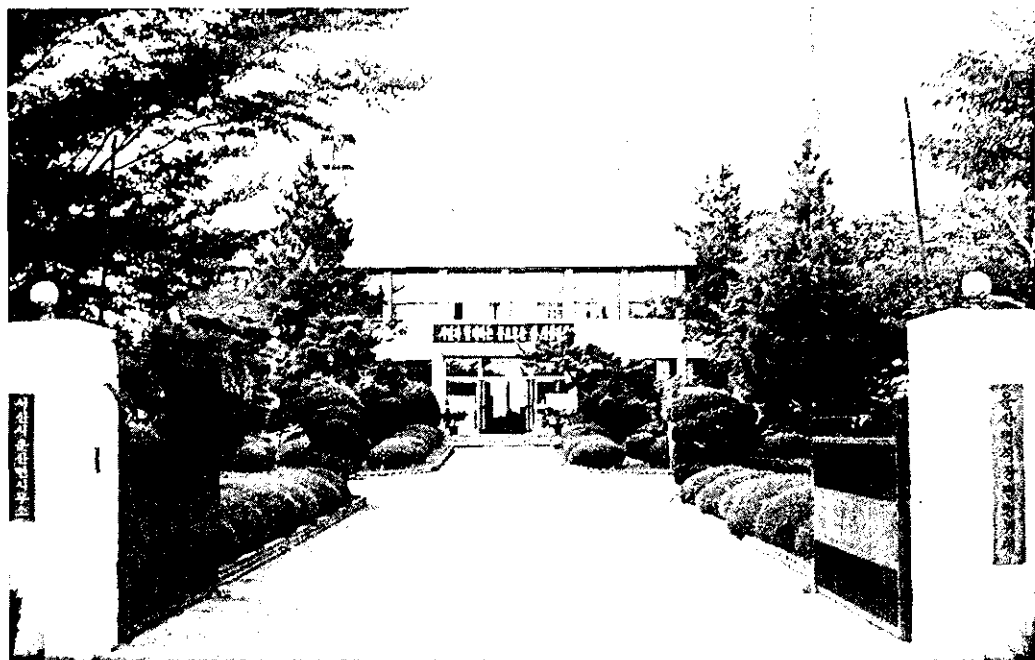
8) 운산면

(1) 개황

운산면은 이도면과 운천면, 부산면으로 이루어 졌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에 통폐합되어 홍성군 운천면 일부와 부산면 일부 해미면·이도면 일부를 합하여 이 지역을 형성하고 운천면의 '운'자와 부산면의 '산'를 따서 운산면이라 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형 및 지세를 보면, 서산시청에서 14km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당진군과 홍성군, 서쪽으로 음암면과 해미면, 남쪽으로 해미면과 홍성군, 그리고 북쪽으로 당진군과 접하고 있다. 본 면은 가야산맥이 서북으로 뻗어 내려 산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평야는 거의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나 군내에서는 비교적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토양이 비교적 비옥하여 산간농사에는 적합한 토양을 지니고 있다.

본 면에는 파출소와 소방서, 우체국, 농협, 농민상담소, 보건소, 신협, 농지개량조합 운산출장소등 8개의 관공서와 운산공업고등학교와 대철중학교, 운산초등학교 등 총6개의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마애삼존불등 국보 1개와 보물 6개 등 13개의 문화재가 있다.



〈사진〉 운산면사무소

(2) 행정구역 및 행정기구

① 행정구역

본 면은 19개의 법정리와 29개의 행정리, 117개의 반으로 구성되며 2,254가구와 7,408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다.

법정리	행정리	반수	인구(명)	면적(km ²)
19	29	117	7,408	81.6
신창리	1	5	439	7.4
용현리	2	6	417	14.7
태봉리	1	3	136	0.9
고풍리	1	5	270	5.2
원평리	1	7	254	8.0
와우리	2	6	217	3.3
팔중리	1	3	148	2.3
고산리	1	3	223	3.5
수평리	2	4	237	5.2
수당리	1	6	306	2.6
안호리	1	5	154	1.2
용장리	2	12	1,889	6.1
여미리	1	4	265	2.4
갈산리	3	10	667	4.6
가좌리	2	8	448	3.3
소중리	2	7	294	2.4
상성리	1	7	267	2.0
원별리	1	7	376	2.3
거성리	3	9	401	4.2

② 행정기구와 인력

행정기구는 면장·부면장 이하 총무계(13명), 재무계(4명), 호병계(4명), 산업계(4명) 등 4개 계에 총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원기준 면장 5급 1명을 비롯하여 6급 5명, 별정직 1명 등 총26명을 정원으로 한다.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정원(명)	26	1	5	7	5	2	5	1
현원(명)	25	1	5	7	3	3	5	1

③ 역대 면장

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역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1	유석규	45.10. 9	47.10. 9	13	김주호	63. 1.28	63.11. 5
2	유석진	47.11. 8	49. 1.28	14	김충배	64. 4. 9	66. 9.10
3	박창내	49. 2.27	50. 1.20	15	채규송	66.10. 9	76.12.30
4	심윤하	50. 7.10	50.10.20	16	민형관	76.12.31	77.11.28
5	박윤진	50.11. 5	51. 2.28	17	정완길	77.11.29	78. 5.25
6	채규상	52. 5. 6	53. 4.11	18	고한성	78. 5.26	81.12. 2
7	한택용	53. 4.15	54. 2. 9	19	정이호	81.12. 3	84. 3.10
8	황현국	54. 2.10	-	20	백승익	84. 3.11	92.12.23
9	황현국	-	61. 1. 5	21	정순기	92.12.24	93. 6.27
10	김장환	61. 1.10	61. 8.10	22	류수동	93. 6.28	96.12.19
11	이강호	61. 8.11	62. 4.10	23	류덕동	96.12.20	현재
12	구장희	62. 4.11	62.11.25				

③ 위원회

운산면의 위원회현황을 보면, 운산면 방위협의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25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전시 및 평시 작전지원체제 확립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운산면 농지관리위원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29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농지법 제4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농지전용심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또한 운산면 민방위협의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8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지역민방위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3) 주요활동

도시계획 확정 고시후 기반 조성없이 20년 경과로 개발이 침체되어 있고 차량통행의 급증과 협소한 도로 사정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농협옆 - 용장정미소에 이르는 구간을 토지매입비 11억원과 공사비 7억2천만원등 총 공사비 18억 2천여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도심지 중앙 간선도를 개통하여 침체된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며,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낮은 저수율과 관내에 있는 저수지의 저수율이 저조하여 적기모내기가 불투명하며, 농촌의 일손 부족과 생산의욕의 저하로 휴경농지가 증가할 것이며 충분한 강우가 없을시 적기모내기가 어려워 풍년농사가 우려되어 공동이용 조직단 활용과 유휴농지 대리경작 실시 및 논물가두기 운동과 저습지대 집단못자리 설치를 추진하며 농수용 관정개발을 조기에 추진하여 영농전 개

발유도 및 지원을 확대하여 풍년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5km에 달하는 용현계곡에는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아니라 국보84호와 보물 5점 등이 있어 성수기 뿐아니라 년중 60만의 인파가 몰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공익근무요원 8명을 고정배치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하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현장에서 판매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차량통제와 취사금지등 계곡내 질서를 유지하여 용현계곡의 수려한 경관을 자연그대로 보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특수시책으로는 운산면에 위치한 한우개량 사업소내에 벚꽃개화기가되면 지역의 관광명소로 부각되는데도 주차 시설 및 편익시설이 전무하여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주차장, 화장실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만개시기를 서산시보나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하며 개화기동안 미화원을 고정 배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 고장의 명소로 용현계곡과 개심사를 잇는 관광코스로 개발하며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특산물판매로 지역상품 소개와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농협 연쇄점 2층에 마을문고를 설치하여 정기 대여일정을 지정하고 반사회 등 모임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서 기증운동을 전개하여 시대에 맞는 각종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독서문화를 정착시키며 가정에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녀에게 교육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며 필요한 지식과 정서함양으로 주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건전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본 면의 9개리에 820필지가 서해안 고속도로에 편입이 되는 관계로 편입토지 내역과 도면을 주민들에게 공람을 실시하여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공무원 1인과 주민 6인을 보상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집단민원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시행청과 중재를 추진하며 현장사무소직원을 지역주민을 채용하도록 유도하여 고용증대 및 민원을 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운산면의 3개리 59필지에 국내 최초로 765KV의 초고압 송전설비를 200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변전소 및 송전선로 주변의 주민이 지가하락을 우려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전자파피해와 전자파방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미흡하며, 변전소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장비의 소음등으로 주민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여 시행청이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 불만감을 해소 하며 복리후생 및 편익사업등을 통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혜사업을 시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태봉리 산 1-15번지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을 95년 10월부터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이 여름철의 해충발생과 혐오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의 불만이 계속

되며 악취 및 시각공해방지등의 민원이 빈번하여 1기의 소각로와 용벽 및 담장을 개.보수하고 소각인부를 상주시키며 철저한 소독과 복토작업을 실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수해사업을 확대지원하며 주변정화수를 식재하여 불만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신창리 농로포장공사 등 14건의 면공사에 4여억원이 투입되어 공사 진행중이며 수평교 가설공사 등 16건의 본청공사가 15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공사진행중이다.

(4) 토지종별현황

(단위:㎡)

구분 리별	계	전	답	임 야	대	기 타
계	82,724,839	7,044,645	13,225,661	53,474,323	1,147,241	7,832,969
신 창 리	8,018,959	530,684	647,653	6,485,400	95,626	259,596
용 현 리	14,798,606	507,637	627,101	13,023,913	75,325	564,630
태 봉 리	1,010,893	202,100	374,121	356,147	34,674	43,851
고 풍 리	5,228,106	143,987	352,518	4,504,588	42,598	184,415
원 평 리	8,019,273	412,212	331,241	6,915,655	57,153	303,012
와 우 리	3,306,184	446,553	641,301	2,196,293	49,827	26,210
팔 중 리	2,382,179	350,239	421,526	1,529,104	33,211	48,099
고 산 리	3,582,741	319,266	432,310	2,596,705	50,368	184,092
수 평 리	5,199,411	361,105	310,010	3,753,512	40,120	734,664
수 당 리	2,580,394	368,114	320,634	1,787,604	35,900	68,142
안 호 리	1,196,710	160,132	364,102	531,725	28,950	111,801
용 장 리	6,116,903	380,221	1,163,631	1,899,490	140,161	2,533,400
여 미 리	2,441,731	518,103	493,451	1,328,414	52,498	49,265
갈 산 리	4,588,093	521,657	1,296,344	2,565,452	190,962	13,678
가 좌 리	3,342,806	612,601	1,143,161	1,071,523	50,898	464,623
소 중 리	2,430,632	453,011	1,111,246	805,317	45,937	15,121
상 성 리	2,010,576	209,408	1,015,456	529,111	34,677	221,924
원 별 리	2,300,126	205,107	1,067,612	314,843	34,667	677,897
거 성 리	4,116,516	342,508	1,112,243	1,279,527	53,689	1,328,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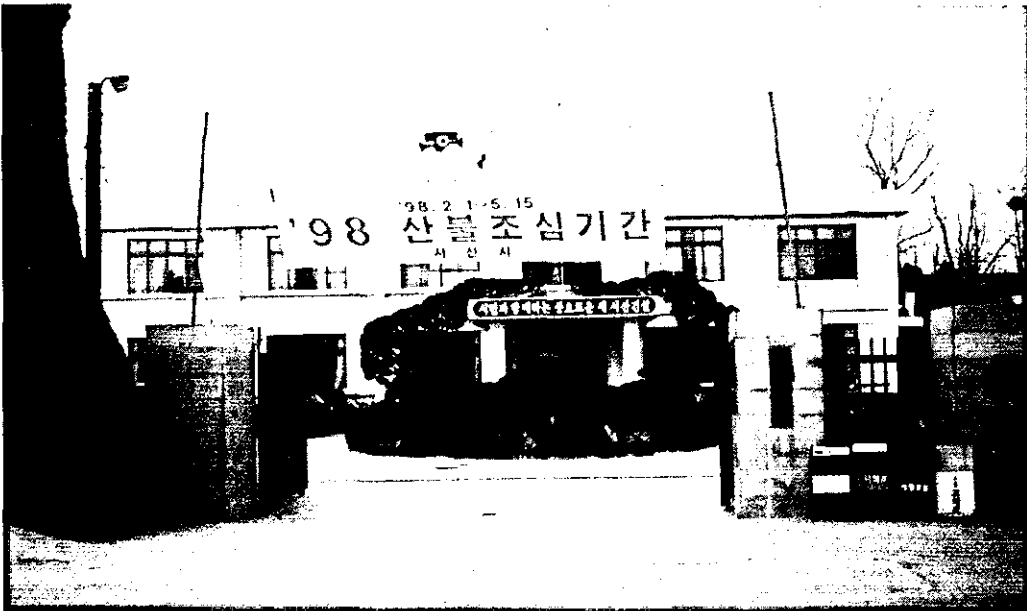
9) 해미면

(1) 개황

해미면은 본래 해미군의 소재지로 동면, 남면으로 구분되었으나 1914년 일제 강점기 통치수단으로 서산군, 태안군, 해미군을 서산군으로 통합할 때에 동암면 석천리 일부를 포함하여 지성면으로 개편하였다가 1917년 다시 지성면에서 해미면으로 개명하였으며 1995년 도농통합으로 서산시에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형 및 지세는 서산시청으로 부터 동남방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예산군, 남쪽은 홍성군, 서쪽으로는 서산시 읍암면, 북쪽으로는 운산면과 접하고 있으며, 높이 660m의 가야산을 등지고 있고 가야산 계곡을 발원하여 대곡천과 황락천이 읍내리에서 합류하여 서해로 흘러가는 8km의 하천이 있으나 천수만이 현대건설에서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바닷가 없는 면으로 변하였으며 홍성에서 들어오는 국도 29호와 예산에서 들어오는 45호 국도가 지나가고 운산으로 가는 지방도의 중심이며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의 I.C도로가 개설되는 등 서산의 동쪽 교통요충지로 발전하고 있다.

해미면에는 지정문화재인 (사적 제116호)해미읍성과 미지정문화재인 일락사와 해미향교, 천주교 순교탑등 유적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해미우체국, 해미농업협동조합, 서산농지개량조합 해미출장소, 한국통신해미분국, 초등학교 3, 중학교 1, 고등학교 1, 한서대학교 등 6개 교육기관과 의원 4, 약방 7



〈사진〉 해미면사무소

개소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공군제20전투비행단이 있어 군사적 요새지로 중요시 되는 교육, 군사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2) 행정구역 및 행정기구

① 행정구역

본 면은 22개의 법정리와 29개의 행정리, 109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301세대에 9,785명이 거주하나 한서대생, 공군제20전투비행단 군인등 상당한 유동인구가 거주하고 있어서 이보다는 많은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리	행정리	반수	인구(명)	면적(km ²)
20	29	104	9,785	60.9
읍내리	3	18	2,913	0.8
휴암리	1	3	379	1.2
대곡리	2	7	672	8.7
산수리	1	2	228	7.4
황락리	1	5	368	5.7
오학리	1	4	254	2.7
삼송리	2	9	440	6.0
관유리	1	4	229	1.0
홍천리	2	9	550	3.6
동암리	1	5	257	2.4
반양리	2	6	527	2.1
웅소성리	1	5	226	1.1
귀밀리	1	4	132	0.9
억대리	1	4	215	1.9
전천리	1	4	312	1.1
응평리	1	2	170	1.1
양림리	1	4	173	1.3
기지리	2	6	186	2.7
언암리	1	-	-	3.8
석포리	1	-	-	3.2
저성리	1	4	178	0.8
조산리	1	6	634	1.4

② 행정기구와 인력

행정기구는 면장·부면장 이하 총무계(7명), 재무계(4명), 호병계(4명), 산업계

발계(10명), 복지계(6명) 등 5개 계에 총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원기준 면장 5급 1명을 비롯하여 6급 6명, 별정직 1명 등 총32명을 정원으로 한다.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별 정
정원(명)	31	1	6	7	9	1	7	1
현원(명)	30	1	6	5	6	3	8	1

③ 역대 면장

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역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1	이종승	46.12.20	48.11.20	10	박상일	75.12.31	81.12. 3
2	김부길	48.11.21	51. 3.27	11	이강호	81.12. 4	82.12. 1
3	박윤진	51. 3.29	52. 1. 5	12	신용균	82.12. 2	86. 7. 2
4	정치호	52. 3. 6	52. 5. 6	13	유세열	86. 7. 3	86.12.23
5	김기인	52. 5. 7	59. 7. 8	14	이명열	86.12.24	90. 9. 9
6	서정숙	59. 7. 9	60.12.26	15	최진원	90. 9.10	92. 4.13
7	허 선	60.12.27	61. 6.28	16	허영일	92. 4.14	95. 3.15
8	김동완	61. 6.29	72. 3.17	17	서삼동	95. 3.16	97. 6.30
9	정완길	72. 3.18	75.12.30	18	박명길	97. 7. 1	현재

④ 위원회

해미면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해미면 방위협의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17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전시 및 평시 작전지원체제 확립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해미면 농지관리위원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28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농지법 제4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농지전용심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또한 해미면 민방위협의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17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지역민방위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3) 주요활동

2km에 이르는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공사와 소하천개수 공사, 기타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산물 운반 및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의 오랜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갈 것이며, 1천여평에 17억원을 투입하여 2층건물 2개동을 신축하여 상주인구 2만여명의 생필품을 공급하는 터전을 마련하고 시장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회복하며 해미읍성 앞 광장개설과 병행 실시하여 도시면모로 일신할 생각이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상토 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 농협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상토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적은 사업비로 전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생활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며, 만성적으로 하천주변에 농산부산물과 생활쓰레기를 불법투기가 성행하며 하상이 불규칙하고 요철이 심하여 미관을 저해하며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각종 잡목과 우거진 숲으로 유수소통을 저해하는등 생활환경정비, 수해예방 차원에서 하천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하상정리와 천변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하천주변의 유수소통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버려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곡인 쌀의 생산량이 최근 재배면적의 급격한 감소와 관리 소홀로 인하여 생산량이 감소하여 농민교육과 못자리 10%더하기운동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산기반구축과 단위 수량제고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면인구의 22%에 해당하는 2천여명이 사용하는 상수도의 보호구역관리를 주1회 이상 단속하고 원수와 지하수 음용가의 수질을 수시로 검사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를 공급하며 위생매립장 등을 시설하여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면서,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4.5% 이내에서 억제시키는 물가정책과 교통법규와 질서 잘지키는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교통정책, 맑은물 가꾸기, 쓰레기 줄이기, 푸른충남21 실천 등 환경정책을 전개하여 살기좋은 해미면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당면한 현안사항으로는 89년부터 비행장건설을 시작하여 소음과 야광등 설치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었으며 97년부터 비행기 발진시 소음공해가 심각하여 인근 지역 주민과 가축, 주택 등에 여러 가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기지1리 주민이 대책위원회를 구성(위원장 박영준)하여 야광으로 인한 농산물의 피해와 주민의 피해상황 등을 부대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중이며, 서해고속도로(당진-서천간 건설공사)공사로 인하여 토지의 보상가로는 농지 및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며 또한 공사기간중 공사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초래할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잦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973년 도시계획에 의한 광장지구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해미읍성에는 현재 사적답사를 위하여 년2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통이 혼잡하며 지저분한 주위 환경 때문에 지역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어 이에 구시장 재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도시면모를 일신하며 또한 공군기지의 배후도시가 될 해미 소재지의 도시기반 확충이 절실하여 읍성 앞 광장(853평)에 30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자 다각도로 추진중에 있으며, 홍천2리 마을안길포장공사 등 5건의 본청공사와 반양초등학교 앞 복개공사 등 12건의 면 공사등 총 17건의 사업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하였다.

(4) 토지종별현황

(단위: m²)

구분 리별	계	전	답	임 야	대	기 타
계	60,916,891	4,942,273	13,225,460	1,104,245	29,449,636	12,195,177
읍 내 리	803,484	96,217	45,807	199,362	142,999	319,099
휴 암 리	1,153,807	111,204	269,487	85,250	534,869	153,097
대 곡 리	8,710,285	544,250	537,533	84,296	7,168,231	375,975
산 수 리	7,376,509	124,185	358,640	15,231	6,471,257	407,096
황 락 리	5,713,566	226,269	477,552	42,315	4,841,421	126,009
오 학 리	2,704,754	314,200	412,483	48,246	1,883,729	46,096
삼 송 리	5,691,303	358,121	886,537	79,300	4,090,271	277,074
관 유 리	998,598	151,188	406,471	26,234	74,609	340,096
홍 천 리	3,639,536	345,266	1,985,549	14,312	710,391	584,018
동 암 리	2,436,046	314,207	513,497	60,260	1,358,865	189,217
반 양 리	2,112,290	417,240	858,511	74,286	576,135	186,118
웅소성리	1,118,124	225,208	228,563	71,264	509,906	83,183
귀 밀 리	909,227	115,236	575,519	66,282	50,094	102,096
억 대 리	1,880,895	234,212	714,495	20,258	24,844	887,086
전 천 리	1,038,765	257,242	497,525	29,747	41,156	213,095
웅 평 리	1,116,061	35,223	639,506	15,269	201,956	224,107
양 립 리	1,294,907	193,231	904,514	38,277	30,789	128,096
기 지 리	2,710,854	701,220	1,019,493	71,256	670,823	248,062
저 성 리	799,074	120,218	553,501	28,527	15,654	81,174
조 사 리	1,742,686	58,236	1,340,277	34,273	51,637	258,263
석 포 리	3,833,251					3,833,251
언 암 리	3,132,869					3,132,869

10) 고북면

(1) 개황

고북면은 본래 홍성군 고북면으로 되어있었으나 1914년 일제강점기에 서산군에 이속하였다 1995년 도농통합시 서산시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형 및 지세를 보면, 서산시청에서 17km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은 가야산의 지맥이 동북으로 길게 뻗어내려 일부 산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홍성군, 서쪽으로는 천수만, 북쪽으로는 해미면과 접하고 있으며 가야산에 근원을 둔 각하천들이 본 면을 통과하여 천수만에 이르고 있으며 교통은 홍성 서산을 통하는 지방도가 남북으로 횡단하여 항시 이로운 편이며 특히 본 면은 동부지방에서 들어오는 서산시의 관문이기도 하다.

관내에는 고북파출소와 고북우체국, 고북농협 등의 관공서와 삼육고등학교 1개교와 고북초등학교와 삼포초등학교 등 3개교의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사진〉 고북면사무소

(2) 행정구역 및 행정기관

① 행정구역

본 면은 13개의 법정리와 31개의 행정리, 105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736세대와 9,080명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법정리	행정리	반수	인구(명)	면적(km ²)
13	29	87	9,080	75.4
가 구 리	2	6	905	4.0
신 송 리	2	6	391	4.0
장 요 리	3	8	413	5.5
초 록 리	2	5	372	2.5
용 압 리	3	7	635	4.3
신 상 리	3	8	861	3.9
신 정 리	4	24	2,056	9.2
남 정 리	3	9	599	3.7
기 포 리	2	7	1,050	1.7
양 천 리	2	7	417	1.7
정 자 리	2	7	497	3.3
봉 생 리	2	6	425	3.3
사 기 리	1	5	459	26.6

② 행정기구와 인력

행정기구는 면장·부면장 이하 총무계(9명), 재무계(4명), 호병계(3명), 산업계(5명) 등 4개 계에 총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원기준 면장 5급 1명을 비롯하여 6급 5명, 별정직 1명 등 총24명을 정원으로 한다.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정원(명)	24	1	5	7	7	0	3	1
현원(명)	23	1	5	8	2	3	3	1

③ 역대 면장

역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역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1	조병익	47. 3.20	48. 8. 6	12	이남석	73. 4. 1	78. 5.26
2	김무길	48. 8. 6	48.11.12	13	양병수	78. 5.26	81.12. 2
3	김의배	48.11.12	53. 8.31	14	이종기	81.12. 2	82.12. 2
4	이환소	53. 9.25	57. 8. 8	15	양병수	82.12. 2	86. 6.30
5	김기성	57. 9.16	-	16	허영일	86. 7. 2	92. 4.13
6	김기성	-	-	17	최진원	92. 4.13	93. 6.24
7	김기성	-	61. 6.16	18	유재화	93. 6.28	94. 7. 1
8	최석우	61. 7. 8	62. 6.22	19	조부환	94. 7. 2	94.12.24
9	김기태	62. 6.22	66. 4.20	20	이관영	94.12.24	95.12.24
10	김중환	66. 4.20	68. 1. 5	21	김선구	95.12.24	현재
11	최석우	68. 1.12	73. 3.31	22			

④ 위원회

고북면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고북면 방위협의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25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전시 및 평시 작전지원체제 확립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고북면 농지관리위원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29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농지법 제4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농지전용심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또한 고북면 민방위협의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26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지역민방위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3) 주요활동

농로포장 및 마을회관, 경로당, 구판장 건립과 상.하수도 공사, 한.수해대책 등 총 35건의 공사에 3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조기해결 및 생활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며, 변화된 영농방식과 생활양식에 부합되도록 농촌의 마을환경 조성 및 자연과 조화된 농촌의 특성을 살린 마을로 개발하기 위하여 16건의 사업에 2억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정비를 하고 주민들의 정착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수 용출지역에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위생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1억7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펌프실 1조, 1공의 관정개발, 90톤용량의 배수지 탱크 설치, 7km에 이르는 배수관로 매설 등의 추진으로 94세대에 수해를 주어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며 해수 침출지역에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여 주민편익을 제고하며 오지농어촌지역의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120가구 280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거택보호비, 자녀학비 지원, 노령수당, 거택보호자 장제비 지원, 생업자금 융자 등 7건의 사업에 1억2천여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활능력을 제고하여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군 제 20전투 비행단내 아파트 입주로 인구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어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봉사실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대주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완벽한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스스로 계획하고 자립하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정예 농수산 인력 육성사업, 경종농업 지원사업,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원예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21개 사업에 18여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당면 업무사항으로는 봉생 1·2리와 사기리 등 67ha의 면적에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96. 10 - 97. 6., 9개월)하고 적기에 모내기가 추진될 수 있도록 농가 지도를 실시하는등 인력감소를 기계화 영농으로 전환하여 내실있는 농가소득증대와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선진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며 재래식 영농방식에서 탈피하여 생산의욕을 제고하는 일과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계층에게 정감어린 상담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그 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저소득 계층의 상담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을 확보하며 상담업무 및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다.

한편 97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가구1리 마을안길포장공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18건의 본청사업과 장요 2리 농로포장공사 및 쓰레기 매립장 정리복토 사업 등 17건의 면사업 등 총 34건의 사업에 6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공사들이 완료, 진행중이다.

(4) 토지종별현황

(단위: ha)

구분 리별	계	전	답	임 야	대	기 타
계	7,368	754	1,331	1,833	176	3,274
가 구 리	395	69	107	145	69	5
신 송 리	400	43	110	210	15	22
장 요 리	553	50	65	400	11	27
초 록 리	252	46	18	170	6	12
용 압 리	430	35	48	270	7	70
신 상 리	387	70	240	48	14	15
신 정 리	919	73	251	248	13	334
남 정 리	374	72	183	64	13	42
기 포 리	170	61	67	4	9	29
양 천 리	166	38	78	3	6	41
정 자 리	333	90	61	128	3	51
봉 생 리	325	42	45	40	7	191
사 기 리	2,664	65	58	103	3	2,435

11) 부춘동

(1) 개황

부춘동은 서산군이 1989년 1월 1일 서산시로 승격(법률 제 4050호)되면서 읍내동과 갈산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형 및 지세를 보면, 충남도청에서 136km떨어진 서북서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춘산을 중심으로 동쪽은 동문동, 활성동 북쪽은 성연면, 팔봉면 서쪽은 석남동과 인접하고 있으며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집중되어 있고 해안국립공원과 대산 임해공업단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택지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따른 대단위 주택이 건립되고 있는 지역이다.



〈사진〉 부춘동사무소

또한 관내에 서산시청, 서산경찰서, 서산시교육청,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서산시문화회관, 서산시립도서관 등의 공공기관과 문화원, 예충서산시지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상공회의소, JC 등의 사회단체, 서산시 농협시지부, 농업협동조합, 충청은행, 한일은행, 서령새마을 금고 등의 금융기관 및 부춘 초·중학교 등 2개교의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2) 행정구역 및 행정기구

① 행정구역

본 동은 읍내동, 갈산동 등 2개의 법정동과 17개 통, 10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543세대 14,673명의 동민이 상주하고 있다.

법 정 동	통	반 수	인구(명)	면적(km ²)
2	17	109	14,673	9.6
읍 내 동	-	-	13,857	2.4
갈 산 동	-	-	817	7.2

② 행정기구

본동은 동장을 비롯해 총무계(12명)와 개발계(5명) 등 2개계에 17명의 공무원이 재직중이다.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별 정
정 원	17	1	3	4	3	4	1	1
현 원	17	1	3	6	4	1	1	1

③ 역대동장

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역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1	윤영복	89. 1. 1	92. 7. 8	3	안광래	94. 7. 1	97. 6. 30
2	신상찬	92. 7. 8	94. 7. 1	4	박영호	97. 7. 1	현재

④ 위원회

부춘동의 위원회 현황을 보면, 방위협의회는 동장을 위원장으로 15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전시 및 평시 작전지원 체계 확립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민방위협의회는 동장을 위원장으로 8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지역민방위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3) 주요활동

안면슈퍼뿔편 하수도공사와 부춘연립열 옹벽설치공사 등의 20건에 이르는 사업에 2억8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 상반기중에 완료하였으며, 중앙저수지옆에 총사업비 약25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760m와 너비 12.5m의 도로를 개설하여 의료원 사거리 외곽도로와 연계된 준 우회도로로써의 시내지역의 교통혼잡을

감소하는 효과와 낙후된 서부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여 서산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소방도로의 역할도 함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야관에서 통일교회 입구(500m)에 이르는 도로에 5억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도로를 개설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하수도 재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입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경감하며 소방도로의 역할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사업의 잔여구간은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며 동사업의 이의자들과는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여 당위성을 홍보하여 현장대화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4) 토지종별현황

(단위: ha)

구분 동별	계	전	답	임 야	대	기 타
계	953	90	122	579	66	96
읍 내 동	236	27	21	109	55	24
갈 산 동	717	63	101	470	11	72

12) 동문동

(1) 개황

동문동은 1989년 서산시 승격과 함께 법정동인 동문동 일부와 온석동, 잠흥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이 되었으며 '92년 서산시 조례 제256호 및 '94년 서산시조례 제336호로 통·반변경과 '95년 법률제4774호로 도·농복합형 서산시 설치와 '96년 서산시조례 제185호 통·반변경을 통하여 법정동 3,15통, 116반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치는 서산시청을 중심으로 볼 때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성연면과 경계를 이루며 성왕산 - 부춘산으로 연결되는 산맥의 정남쪽에 동남쪽은 수석동과 음암면에 서쪽은 부춘동에 접하고 있다. 온석동, 잠흥동은 수원이 풍부하고 기후풍토가 농사에 적합하여 근교농업이 발달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동문동지역은 각급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이 갖추어진 곳으로 향후 주거지역으로 큰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2) 행정구역 및 행정기구



〈사진〉 동문동사무소

① 행정구역

본동에는 3개의 법정동이 있으며, 총 15개의 통과 116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75세대 16,788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법 정 동	통	반 수	인구(명)	면 적(km ²)
3	15	116	16,788	8.3
동 문 동	-	-	15,257	2.6
잠 흥 동	-	-	540	2.8
온 식 동	-	-	991	2.9

② 행정기구

본동은 5급 동장을 비롯하여 6급 3명, 별정 1명 등 2개계에 총 18명의 공무원이 재직중이다.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별 정
정원(명)	18	1	3	4	6	2	1	1
현원(명)	18	1	3	4	6	2	1	1

③ 역대동장

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역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1	박동원	89. 1. 1	94. 6.30	3	김정상	95.12.22	현재
2	지윤모	94. 7. 1	95.12.21	4			

④ 위원회

동문동의 위원회 현황을 보면 동문동 방위협의회는 동장을 위원장으로 15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전시 및 평시 작전지원체제 확립 등을 주요기능으로 구성되었으며, 동문동 민방위협의회는 동장을 위원장으로 8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의거 지역민방위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구성되었으며, 동문동 동정자문위원회는 서산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에 의거 17명을 구성위원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의사 반영, 주민의 주인의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사항 심의를 주요기능으로 구성되었다.

(3) 주요활동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총연장 6km)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교통량 분산효과로 시내 교통난을 해소 하며, 상·하수도 복개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서산시 온석동 산 48-15번지의 14필지에 총62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서·태안지역의 음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가압장 설치공사가 '98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97년도 시행사업으로 동문2통 서령갈비앞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등 4건에 6억7천여만원이 투입되는 본청공사와 잠흥2통 예찰탑 농로포장과 동문동 도로 응급복구등 10건에 3억4천여만원이 투입되는 등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숙원사항 해결 및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잠흥동 지역에 총 38억여원을 투자 3,513평 부지에 건평 500평의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동문동 및 잠흥동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이 진행되어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며, 서산 도시기본계획재정비로 동문동 공원지역 및 온석동 자연녹지지역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향후 서산시 발전의 중심지역으로 큰 발전이 예상된다.

(4) 토지종별현황

(단위:km²)

구분 동별	계	전	답	임 야	대	기 타
계	8.27	1.81	2.32	2.44	0.60	1.10
동 문 동	2.59	0.53	0.36	0.60	0.43	0.67
온 석 동	2.75	0.52	0.76	1.34	0.07	0.06
잠 흥 동	2.93	0.76	1.20	0.50	0.10	0.37

13) 활성동

(1) 개황

본 동은 1989년 서산시 승격과 동시에 의거 법정동인 동문동의 일부를 구획하여 행정동이 되었으며 1995년 도·농통합시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서산초등학교의 1개교의 교육기관과 병원 2개소, 의원 31개소, 한의원 7개소, 약국 및 약방 31개소 등의 의약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사진〉 활성동사무소

(2) 행정구역 및 행정기구

① 행정구역

법 정 동	통	반 수	인구(명)	면적(km ²)
1	9	64	8,041	0.5

② 행정기구

본 동은 동장을 비롯하여 6급 3명 별정 1명 등 2개계에 17명의 공무원이 재직중이다.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별 정
정원(명)	17	1	3	4	5	2	1	1
현원(명)	17	1	2	7	3	2	1	1

③ 역대동장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역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1	이학태	89. 1. 1	94. 6.30	3	최진각	95. 3.11	96.12.31
2	박동원	94. 7. 1	95. 3.10	4	남규중	97. 1. 1	현재

④ 위원회

활성동의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활성동 방위협의회는 동장을 위원장으로 20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전시 및 평시 작전지원체제 확립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활성동 민방위협의회는 동장을 위원장으로 8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지역민방위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3) 주요활동

동사무소 진입로(길이 210m)개설과 동문62통 도시계획 도로개설(RLF 122m)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2건 138평)시 토지 보상비 과다로 사업비가 250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사업시행 2차 연도를 맞이하여 금년도(97년)에는 완공되어야 하는 실정이라서 부족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황이다. 또한 동문동 888-1번지 일대에 지상 8층, 지하 3층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3m 진입도로 확보 및 토지보상의 민원이 발생하며, 금년말 월주코아 준공이후 주변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그 일대의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예상되며, 현재 공사장내 지하수를 어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나 폐공후 급수가 중단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설방안이 조속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어시장내에 원할한 임시 급수등 전반적인 사향에 대하여는 상인 대표 및 월주측과 협의 조정을 유도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원사항을 보면, 삼일상가 - 구영창공업사 앞(440m)에 이르는 구간에 이르는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대상 15필지의 소유주민(석림 1통, 동문 62통)등이 위 구간의 4차선 도로는 서산시내로 진입하는 주요도로이나, 도로 확포장 및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며 도로 확포장 및 인도개설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 주민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해소를 위하여 사업을 다각적으로 시행하는 검토가 요구된다.

97년도 시행예정인 사업을 보면, 동사무소 진입로 개설 및 하수도 정비등 5건에 10여억원이 투입되는 본청공사와 유형하수도 복개공사 및 도로 소규모 시설물 응급보수 등 9건에 2여억원이 투입되는 본동공사 등 14건의 주민숙원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4) 토지종별현황

(단위: km^2)

구분 통별	계	전	답	임 야	대	기 타
계	0.497	0.0546			0.443	
동문51통	0.036				0.036	
동문52통	0.048				0.048	
동문53통	0.025				0.025	
동문61통	0.043	0.00086			0.043	
동문62통	0.059	0.0118			0.047	
동문63통	0.064				0.064	
동문71통	0.071	0.0071			0.064	
동문81통	0.102	0.0102			0.092	
동문82통	0.049	0.024			0.025	

14) 수석동

(1) 개황

수석동은 1989년 1월 서산시로 승격되면서 법정동인 석림동과 수석동을 합하여 행정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형 및 지세를 보면, 중심지를 흐르는 청지천을 경계로 도심지역인 석림동과 농촌지역인 수석동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함께 잠재된 개발



〈사진〉 수석동사무소

지역(시의 중심지)으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관내에는 서산기상대,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시의료보험조합, 한국전력서산지점, 서산인삼조합 등의 공공기관과 시 보건소, 서산의료원, 자모산부인과 등의 의료기관, 서산여고, 서산여중 등 2개교의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2) 행정구역 및 행정기구

① 행정구역

본 동은 1996년 11월 5일 서산시 조례 제185호에 의거 2개의 법정동(수석, 석림)과 16개의 통(수석 1-5통, 석림 1-11통)으로 구성되었으며 '97. 8. 7일 서산시 조례 제212호에 의거 수석6통의 신설로 법정리 2개와 행정리(수석 1 - 6통)(석림 1 - 11통)로 구성되었고 4,517세대에 14,340명의 주민이 상주하고 있다.

법 정 동	통	반 수	인구(명)	면적(km ²)
2	17	103	14,340	8.9
수석동	6	27	2,727	6.1
석림동	11	76	11,613	2.8

② 행정기구

본동은 동장을 비롯하여 6급 1명, 별정 1명 등 총15명의 공무원이 계 없이 재직하고 있다.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별 정
정원(명)	16	1	1	6	4	2	1	1
현원(명)	15	1	1	5	4	2	1	1

③ 역대동장

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역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1	류세열	89. 1. 1	92.12.31	3	류제훈	95.12.22	현재
2	최병원	93. 1. 1	95.12.22				

④ 위원회

수석동의 위원회 현황을 보면, 수석동 방위협의회는 동장을 위원장으로 17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전시 및 평시 작전지원체제 확립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수석동 민방위협의회는 동장을 위원장으로 4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지역 민방위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3) 주요활동

수석동5통에 위치한 동남 2차아파트의 건립이후 급격히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민간의 유대가 미흡하고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지고 행정침투력의 저조로 동정수행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통,반조정안을 확정하여 기존 수석 5통을 분통,분반의 2개통14반으로 분리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지역민간의 유대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농지취득 완화후 외지 토지소유자 증가로 부재지주 증가 및 영농조건 악화등으로 영농기피현상과 영농대행자 선정의 어려움등이 발생, 이에대하여 농지소유자에 대한 영농 지속을 독려하며 영농위탁회사에 위탁경작을 하며 휴경농지 인근농가, 전업농가, 부녀회 등에 대리경작을 유도하고 있다.

주요민원사항으로는 수석 2통에서 음암면 경계에 이르는 1.5km의 거리에 11여억원을 투입, 우기시 뚝의 붕괴로 농경지 매몰에 따른 하천복개와 관내도로의 협소에 따른 확·포장 요구 등 주민들의 요구내용을 수렴하여 하천 복개로 농경지 매몰 및 지하수 오염을 사전예방하고 도로 확·포장으로 차량을 분산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수시책으로는 782명의 거택 및 자활보호자들에게 생계보조와 주택환경개선지원, 무의탁 노인 이·미용, 간호서비스,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 재가 복지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실시와 저소득층자녀의 학습지도 실시등 자매결연 후원자의 지속적인 발굴로 결연을 확대하여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수석 2통의 독골 3천 소하천 정비사업 및 도로 및 소규모 시설물 보수공사등 총 11건의 공사에 59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실시 예정이다.

(4) 토지종별현황

(단위: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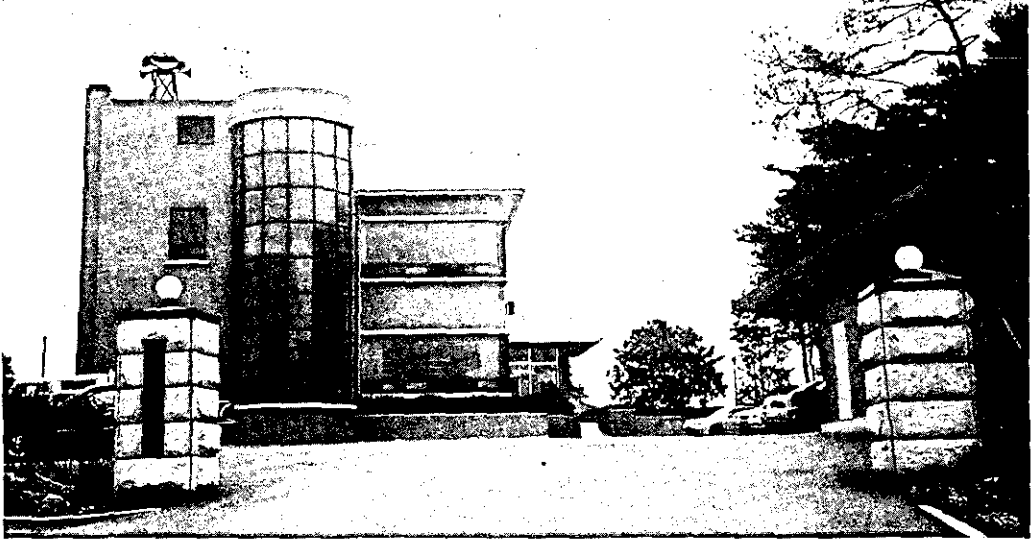
구분 동별	계	전	답	임 야	대	기 타
계	887.4	232.3	291.6	175.8	54.2	132.9
수 석 동	610.4	163.8	182.8	164.9	19.5	78.8
석 립 동	277.0	68.5	108.8	10.9	34.7	54.1

15) 석남동

(1) 개황

석남동은 1989년 서산시로 승격되면서 법정동인 석남동 및 양대동, 죽성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형 및 지세를 보면, 서산시청에서 2km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수석동과 서쪽으로는 인지면, 북쪽으로는 부춘동, 남동쪽으로는 오산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관내에는 서림·서령 등 2개교의 초등학교와 서산중학교등 3개교의 교육기관과 소방서 1개소, 서산농촌지도소 등의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다.



〈사진〉 석남동사무소

(2) 행정구역 및 행정기구

① 행정구역

본동은 4개의 법정동과 12개의 통, 78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946세대에 10,029명의 주민이 상주하고 있다.

법 정 동	통	반 수	인구(명)	면적(km ²)
4	12	78	10,029	1.8
석남동	3	25	2,921	0.3
예천동	2	11	1,538	0.5
죽성동	3	26	2,968	0.2
양대동	4	16	2,602	0.9

② 행정기구

본동은 동장 1명을 비롯하여 6급 1명, 별정 1명 등 총 15명의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다.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별 정
정원(명)	14	1	1	6	2	2	1	1
현원(명)	15	1	1	6	2	3	1	1

③ 역대동장

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역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1	지윤모	89. 1. 1	94. 6.30	3	최춘열	95. 4.13	현재
2	이학태	94. 7. 1	95. 3.29				

④ 위원회

석남동의 위원회 현황을 보면, 석남동 방위협의회는 동장을 위원장으로 7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전시 및 평시 작전지원체제 확립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석남동 민방위협의회는 동장을 위원장으로 6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지역 민방위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3) 주요활동

관내의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등 환경관련 시설물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보상심리가 팽배해 있고, 마을별 지원에 대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 되었다는 불만, 시설의 운영관리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완벽한 시공과 운영관리로 주민홍보 및 이해설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고 형평에 맞는 지원을 하며 마을별로 협의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처리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상당량의 지방세체납액(1억7천만원)이 있어 재정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고질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세금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자치재정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서산의 농산물을 중간 마진을 줄인 적절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위하여 농산물 직거래(신월7동 상설 장터)장터를 개설하며 민간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며 휴경지를 이용 주말농장을 개설하는 등의 산지농산물을 적절한 가격으로 도시 소비자에게 공급하며 서산특산품을 홍보하여 지역농가의 소득증가와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가 심각한 환경오염원으로 등장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 음식물 안남기기운동, 애경사시 식단줄이기운동을 전개하여 음식물 쓰레기

래기 매립에 의해 발생하는 악취 및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며 쓰레기량 감소로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및 쓰레기의 재활용화를 유도하며 과소비 억제로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97년 시행예정인 사업으로 석남동 공동묘지에 석남지구 대지조성사업 및 전통농기구 및 공예품 전시실 시설 등 16건의 사업에 24여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조기에 시행, 추진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4) 토지종별현황

(단위:km²)

구분 동별	계	전	답	임 야	대	기 타
계	18,063.9	2,580.9	8,222.0	1,633.1	680.4	4,947.5
석남 1통	1,795.7	206.5	550.9	32.6	263.6	742.1
" 2통	1,424.3	309.7	509.6	51.2	58.9	494.9
" 3통	0.0	-	-	-	0.0	-
예천 1통	1,706.1	438.7	814.0	91.2	61.2	301.0
" 2통	3,078.0	516.2	822.2	904.3	136.1	699.2
죽성 1통	1,535.4	258.0	764.6	64.0	38.2	410.6
" 2통	0.0	-	-	-	0.0	-
" 3통	0.0	-	-	-	0.0	-
양대 1통	1,597.8	232.3	731.7	81.6	40.8	511.4
" 2통	3,940.9	318.8	2,549.1	163.3	47.6	862.1
" 3통	2,985.7	300.7	1,479.9	244.9	34.0	926.2
" 4통	0.0	-	-	-	0.0	-

16) 오산동

(1) 개황

오산동은 1989년 서산시 승격으로 법정동인 오산동과 장동, 덕지천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이 되었다. 1992년 오남 2통을 오남 2,3통으로 분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형 및 지세를 보면, 서산시청에서 7km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도 2호선을 중심으로 주변에 형성되어 있으며, 해미 K-Z기지와 연결하여 새로운 항공산업 적지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관내에는 보건진료소 1개소와 새마을 금고 1개소,



〈사진〉 오산동사무소

초등학교 1개교 등의 유관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오산영농조합법인과 서산콩나물 공장 등 2곳의 기업체가 있다.

(2) 행정구역 및 행정기구

① 행정구역

오산동은 3개의 법정동과 6개 통, 2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13세대의 가구가 있으며 2,071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다.

법 정 동	통	반 수	인구(명)	면적(km ²)
3	6	24	2,071	11.2
오 남 동	3		1,254	4.5
장 동	2		556	4.2
덕지천동	1		261	2.5

② 행정기구

본 동은 5급 동장을 비롯하여 6급 1명 등 총 11명의 공무원이 재직중이다.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별 정
정원(명)	12	1	1	4	3	1	2	
현원(명)	10	1	1	4	2	1	1	

③ 역대동장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역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1	신상찬	89. 1. 1	92. 7. 8	3	박영호	95.12.23	97. 6.30
2	최종하	92. 7. 9	95.12.22	4	가건노	97. 7. 1	현재

④ 위원회

오산동의 위원회 현황을 보면, 오산동 방위협의회는 동장을 위원장으로 11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전시 및 평시 작전지원체제 확립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오산동 민방위협의회는 동장을 위원장으로 8인을 구성위원으로 95년 1월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지역 민방위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3) 주요활동

오산초등학교에서 대남천에 이르는 길이 1.6km, 폭 1.2m에 이르는 하천에 1억9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생활하수의 원활한 처리와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을 유인하고 상습침수 지역 해소로 영농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덕지천동 신장천 및 해미면 웅소성리에 상주하는 34세대 주민들이 신장천을 경계로 하여 주거지와 농경지가 분리되어 있으나, 직접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이 없어 2km에 이르는 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이 있어 이에 2억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량가설 및 농로 확·포장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3000명 미만의 동을 통·폐합 한다는 발표와 함께 주민들의 동요가 일어나고있어 인근동(수석,석남)의 3-4개동을 오산동에 편입하여 인구6천명이상 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택지개발등 시차원에서 인구증가의 대책을 마련하고 개발가능성이 커 통·폐합 후 몇 년 이내에 다시 분할이 불가피함을 중앙에 건의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무의탁노인 6가구에 대해 동사무소 직원이 2인 1조로 결연이 되어 매월 1회이상 방문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며 가정의 일손을 도와주며 생필품 구입 지원 및 타기관, 단체등과 결연을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이웃사랑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여 훈훈한 인간애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오남동 산24-1번지 일대(임야3천여평)에 1991년 3월 중순 부터 5천여마리의 철새(백로,왜가리)가 주변상황과 환경의 적합성 때문에 도래하고 있으나 농번기에 서식하기 때문에 농약중독의 위험과 인식의 차이로 서식환경을 파괴하는 주민

들, 철새들의 분비물로 수목이 고사되는 임야 소유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드러나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하여 부상 및 음독철새의 응급조치와 구급체제를 강화하고 임야소유자에게 조수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불만을 해소하며 조수 보호원을 배치하여 철새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7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보면, 오남3통 무림아파트내 마을회관 신축 및 도당천 보 설치공사등 5건의 사업에 6억원이 소요되는 본청 사업과 오남 2통 농로 포장 공사와 도로 및 소규모 시설물 응급보수 등 38건의 사업에 2억9천여만원이 투입되는 동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4) 토지종별현황

(단위: ha)

구분 통별	계	전	답	임 야	대	기 타
계	1,113	207	363	334	24	185
오 남 동	450	95	122	154	9	70
장 동	417	69	137	139	9	63
덕지천동	246	43	104	41	6	52

제2절 서산시의회

1. 서산시의회의 연혁

- 1) 서산지역 읍·면의회
- 2) 서산시·군의회

2. 서산시의회의 원구성

- 1) 의장·부의장
- 2) 상임위원회
- 3) 특별위원회
- 4) 사무국

3. 서산시의회의 의정활동

- 1)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 2) 초대 서산시·군의회 및 통합 서산시의회의 의정활동
- 3) 제2대 서산시의회



(집필자 : 이준원)

제2절 서산시의회

1. 서산시의회의 연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을 제정한 후 국내치안 및 한국전쟁 등을 이유로 미루어지다가 1952년 4월 25일 지방의원 총선거와 함께 시 발하였다. 이후 1956년 및 1960년의 3차에 걸친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제3·4·5공화국을 거치면서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다가 1991년 3월 26일에 이르러서야 현재와 같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의 지방의회는 시·읍·면을 기초자치단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서산시의회와는 그 성격이 다르나 지방의회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시·읍·면의회 시대와 시·군의회 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서산지역 읍·면의회

최초의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52년 4월 25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정부가 부산에 피난가 있던 시기에 실시되었다. 이렇게 전시에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승만대통령의 정치적 필요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국회 간선제를 통한 대통령의 재선에 자신감을 잃은 이승만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선거 제로의 헌법개정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자신의 입지를 지지·강화해 줄 세력의 구축이 절실한 입장이었다. 이에 지방의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다.

이때 기초자치단체는 시·읍·면이었으며, 도를 광역자치단체로 하여 시·읍·면의원과 도의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시·읍·면의원선거는 1952년 4월 25일에, 도의원선거는 동년 5월 10일에 실시하였다. 각급 선거는 당해 주민의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로 실시하였으며, 선거권은 지역내 주소를 가진 21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였고, 피선거권은 선거권이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 특정한 공직에 있는 사람을 제외시켰다. 선거구역은 행정구역으로 구분하되 인구비례에 따라 조

정하였으며, 한 선거구에서 여러사람을 선거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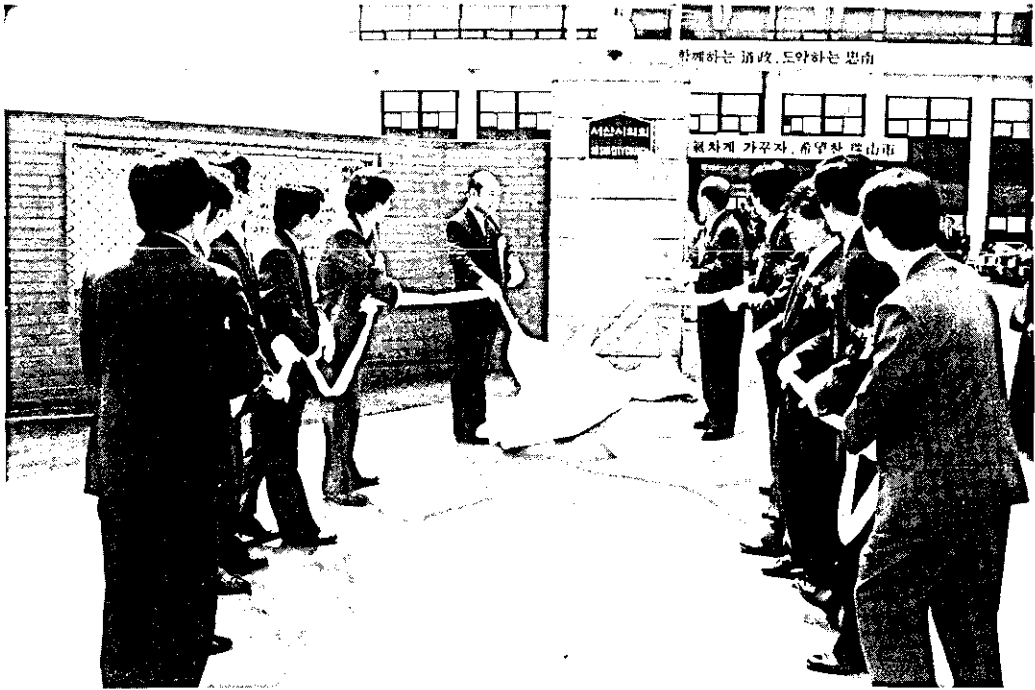
〈표〉 서산지역 읍·면의회 정원현황

지 역	초대 ('52-'56)	제2대 ('56-'60)	제3대 ('60-'61)	지 역	초대 ('52-'56)	제2대 ('56-'60)	제3대 ('60-'61)
서산읍	15명	13명	12명	고북면	12명	12명	12명
인지면	11명	11명	11명	안면면	14명	12명	12명
부석면	13명	12명	12명	남 면	11명	11명	11명
팔봉면	9명	11명	11명	태안면	16명	12명	12명
지곡면	11명	10명	11명	근흥면	12명	12명	12명
대산면	12명	12명	12명	소원면	11명	11명	10명
성연면	11명	11명	11명	원북면	12명	11명	11명
음암면	12명	11명	12명	이북면	12명	11명	11명
운산면	12명	12명	12명	계	218명	207명	207명
해미면	12명	12명	12명				

그 결과 서산지역에서는 서산읍의회를 비롯하여 17개 면의회가 구성되어 총 218명의 읍·면의원을 선출하였다. 상세한 읍·면의원의 명단은 후에 상술하기로 한다.

1956년 7월 8일에 여론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속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제3차 개정을 통해 제2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제3차 개정의 주요골자는 제2차개정시 삽입한 부칙 제4항의 임기만료에 관한 사항으로 새로운 개정법의 시행과 함께 1956년 2월 12일 이전에 선출된 자의 임기는 그 당시의 임기로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규정인 것이다. 이는 이승만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하락과 야당출신 부통령의 당선으로 자유당정권이 정치적위기에 몰리게 됨으로써 기존의 여당성향을 지닌 지방의원들에 대한 기득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쳐 1956년 8월 8일에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서산지역은 총 207명의 읍·면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이승만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자유당정권이 4.19혁명에 의해 퇴진하면서 출범한 제2공화국에서도 역시 기초자치단체는 시·읍·면이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와 도를 단위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 12월 12일에 특별시와 도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12월 19일에 시·읍·면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서산지역에서도 역시 207명의 읍·면의원이 선출되었다.



〈사진〉 서산시의회 현판식

2) 서산시·군의회

1990년 12월 31일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시·군의회의 구성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91년 3월 26일에 초대 서산시·군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 당시 의원정수는 서산시가 7명, 서산군이 10명이었으며, 1991년 4월 15일에 초대 서산시의회와 서산군의회가 개원하였다.

1991년 3월 26일 전국 기초의회 의원 총 선거 실시 이후 처음 개원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최초 집회공고를 소집일 5일전인 1991년 4월 9일 서산시장과 서산군수가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집회 일시는 1991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로 하였다. 다만, 개회식은 기관간의 형편을 고려하여 서산시는 오전 11시 30분에, 서산군은 오후 1시에 개회하였다.

처음 의회가 개원하였을 때는 서산시의회의 의석배정은 최초집회인 제1회 임시회의 원구성에서 동의 행정 구역 순서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였고, 원구성 이후에는 의원들의 합의에 따라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였다. 그러나 서산군의회는 최초 집회에서부터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의하여 의석을 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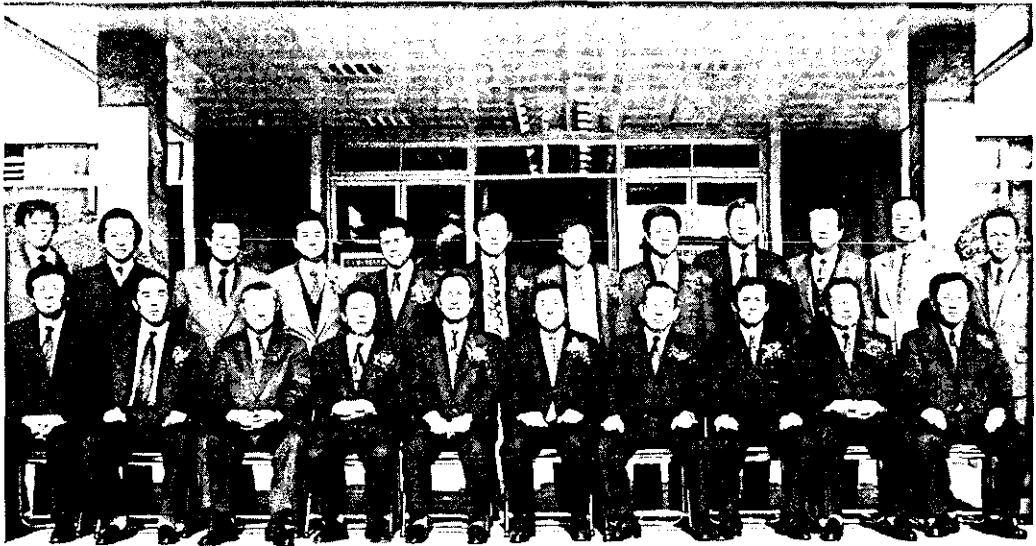
〈사진〉 서산군의회

3) 통합서산시의회

1995년 1월 1일부로 서산시와 서산군이 통합되면서 통합서산시의회로 발족하였는바, 17명의 의원을 정수로 하여 구성되었다. 법률 제4774호에 의하여 새로이 발족한 서산시(통합시)의회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장의 1995년 1월 1일 집회 공고를 하고, 1995년 1월 3일에 집회하여 개의하였다. 최초 집회에서는 읍·면·동의 행정구역 순서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였고, 원구성 이후에는 의원들의 합의에 따라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였다. 이어 동년 1월 5일에는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초대 지방의원의 임기가 원래 1995년 4월 14일로 만료하게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1994. 12. 20. 법률 제4789호)으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에 의원의 임기를 19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하지만 의장단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동법 제42조 제2항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현의장단의 임기가 1995년 4월 14일자로 만료되게 되므로 1995년 4월 14일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현의장단을 유임시키자는 이재병 의원의 동의에 전의원이 찬성하므로써 의원의 임기와 같이 1995년 6월 30일까지 유임되었다.

1995년 6월 27일에는 제2대 시의회의원 선거가 있었으며, 이때 16명의 의원을



〈사진〉 통합서산시의회

선출하여 1995년 7월 1일에 임기가 개시되었다. 1995년 7월 10일에는 김환옥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김재경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이어 실시된 부의장선거에서는 윤찬구의원이 9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이어 7월 11일에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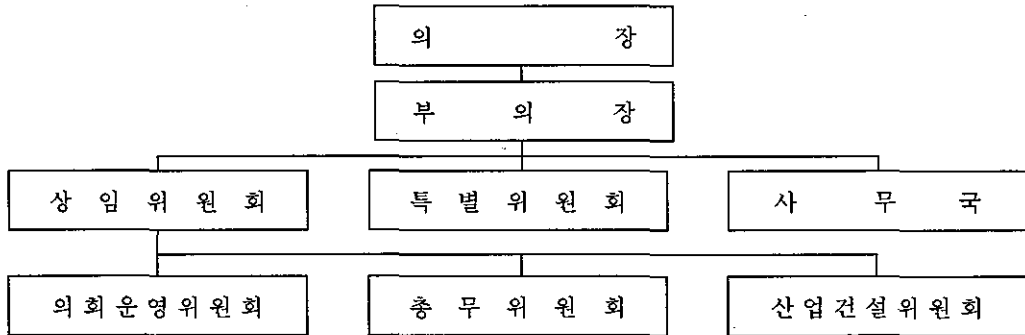
1997년 1월 9일에는 전반기 의장인 김재경의원의 진행으로 의장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6명 중 9명이 김관기의원을 지지함으로써 의장에 당선되었으며, 이어 실시된 부의장선거에서는 우상훈의원이 12표를 얻어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이어 1997년 1월 10일에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2. 서산시의회의 원구성

초대의회는 서산시가 6개 선거구에 7명의 의원, 서산군이 10개 선거구에 10명의 의원으로서 각각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가 운영되었으나 통합시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5명, 총무위원회 7명, 산업건설위원회 8명이다. 그리고 의회의 활

동을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서산시의회 기구표



1) 의장·부의장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1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역대 서산시·군 및 통합서산시의장과 부의장은 다음과 같다.

〈표〉 역대 서산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 명단

구 분	초 대					제 2 대	
	서 산 시		서 산 군		통 합 서 산 시	서 산 시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의 장	이재병	박영웅	김관기	김환옥	박찬교	김재경	김관기
부의장	손연복	손연복	김환옥	김진오	유규일, 정진국	윤찬구	우상훈

(1) 초대 서산시의회 의장·부의장

① 전반기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최연장인 이재병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초대 서산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안을 상정하였다. 최은우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 실시한 투표결과, 총 투표수 7매중 이재병 의원 5표, 박영웅 의원 2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산시 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재병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사진〉 초대 서산시의회 개회식

당선된 이재병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총 투표수 7매중 윤찬구 의원 2표, 조계창 의원 1표, 손연복 의원 4표로서 재석 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손연복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다.

② 후반기

서산시의회는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손연복 의원의 5인의 집회요구로 1993년 4월 14일 제20회 임시회를 집회하여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게 되었다. 이재병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선거는 정진국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 투표를 시작했다. 총투표수 7매중 윤찬구 의원 1표, 최은우 의원 1표, 박영웅 의원 1표, 손연복 의원 2표, 정진국 의원 1표로써 출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였다. 2차 투표 결과, 총 투표수 7매중 박영웅 의원 5표, 손연복 의원 2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은 박영웅 의원이 당선되었다.

계속 이어진 부의장선거에서는 총투표 7매중 4표를 얻은 손연복 의원이 각각 1표를 얻은 윤찬구 의원, 최은우 의원, 조계창 의원을 앞서 과반수를 득표함으로써 부의장에 재선되었다.

(2) 초대 서산군의회 의장·부의장

① 전반기

서산군은 최연장 의원인 이병섭 의원의 사회로 의장, 부의장 선거안을 상정하였다. 이상훈 의원과 유규일 의원을 감표 위원으로 지명하고 실시한 투표결과, 총 투표수 10매중 김판기 의원 5표, 이병섭 의원 4표, 무효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산군의회의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였다. 2차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0매중 김판기 의원 6표, 이병섭 의원 3표, 무효 1표로써 재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판기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이어 당선된 김판기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총 투표수 10매중 김환옥 의원 6표, 김재경 의원 3표, 무효 1표로써 재석 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김환옥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다.

② 후반기

서산군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서경원 의원외 4인의 집회 요구로 1993년 4월 15일 제17회 임시회를 집회하여 의장·부의장선거를 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 의원인 이병섭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는 이상훈 의원, 서경원 의원, 유규일 의원, 김판기 의원 등 4명이 불참하는 등 진통을 겪었으며, 김재경 의원, 박찬교 의원, 이창배 의원, 김환옥 의원, 김진오 의원, 이병섭 의원 등 6명이 참석하여 투표하였다. 1차 투표결과, 총 투표수 6매중 김환옥 의원이 6표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산군의회의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다. 이어 새로 당선된 김환옥 의장의 사회로 실시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진오 의원이 6표로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3) 초대 통합서산시의회 의장·부의장

법률 제4774호에 의하여 서산시와 서산군이 1995년 1월 1일 통합하게 됨에 따라 통합시의회의 원구성을 하게 되었다. 동년 1월 3일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의원인 이재병 의원이 임시의장으로서 의사봉을 잡았다. 감표위원은 이상훈 의원, 유규일 의원, 최은우 의원, 정진국 의원 등 4명으로 지명하고 실시한 투표결과, 총 투표수 17매중 박찬교 의원 11표, 박영웅 의원 2표, 이재병 의원 2표, 이병섭 의원 1표, 무효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산시의회의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찬교 의원이 통합서산시의회 의장에 당선되었다.

당선된 박찬교 의장의 사회로 계속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읍·면 지역출신 1명과 동 지역 출신 1명등 2명의 부의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먼저 읍·면 지역 출신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7매중 유규일 의원 12표, 이병섭 의원 2표, 무효 3표로써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유규일 의원이 통합 서산시의회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동지역 출신 부의장 선거에서는 1차 투표결과, 총투표수 17매중 정진국 의원 6표, 최은우 의원 4표, 조계창 의원 3표, 손연복 의원 2표로써 재석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했다. 2차 투표 결과도 총 투표수 17매중 조계창 의원 6표, 정진국 의원 6표, 최은우 의원 2표, 손연복 의원 2표, 윤찬구 의원 1표로써 재석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득표자인 조계창 의원과 정진국 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결선투표 결과, 총 투표수 17매중 정진국 의원 10표, 조계창 의원 4표, 무효 3표로써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수 득표자인 정진국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4) 제2대 서산시의회 의장·부의장

① 전반기

1995년 7월 10일에는 김환욱의원이 임시의장을 맡고, 이상훈·최광식·한정수·이희찬 의원이 감표위원을 맡아 의장을 선출하였다. 총 16명의 의원 중 동출신 6명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투표결과 10명 중 9명이 김재경 의원을 지지함으로써 김재경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다. 이어 김재경 의장의 사회로 부의장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윤찬구 의원 9표, 무효1표로 윤찬구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됨으로써 제2대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윤찬구 의원이 부의장 사퇴서를 제출하여 후에 사퇴동의건을 안건으로 회부하였으나 부결되었다.

② 후반기

제2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1997년 1월 9일에 실시되었다. 김재경 전반기 의장의 사회와 임덕재·최광식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한 가운데, 제1차 투표실시결과 16명의 전의원이 참여하여 김관기 의원 7표, 윤찬구 의원 6표, 무효 3표로 재석의원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2차투표를 실시하였지만, 역시 김관기 의원 8표, 윤찬구 의원 8표로 김관기 의원과 윤찬구 의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였다. 결선투표 결과 김관기 의원 9표, 윤찬구 의원 6표, 기권 1표로 김관기 의



〈사진〉 상임위원회

원이 의장에 당선되었다.

이어 실시된 부의장선거에서는 이상훈 의원이 12표, 문기원 의원이 3표, 윤찬구의원 1표로서 이상훈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어, 제2대 후반기 서산시의회의 의장단구성이 완료되었다.

2) 상임위원회

지방자치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군·자치구의 상임위원회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13인 이상의 지방의원이 있는 경우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13인 이상 30인 이내의 경우는 3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서산시의 경우는 통합서산시가 되면서 3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1) 상임위원회의 구성

서산시의회에서 설치한 3개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그리고 산업

건설위원회이다.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있으며,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임하고, 간사는 위원간에 호선한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표〉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및 위원명단

구분	상임위원회	정원	위원장	위 원
초대	의회운영위원회	5명	서경원	김관기, 김환옥, 박영웅, 서경원, 윤찬구
	총무위원회	7명	우상훈	김진오, 박영웅, 우상훈, 윤찬구, 이병섭, 이재병, 정진국
	산업건설위원회	9명	김재경	김관기, 김재경, 김환옥, 서경원, 손연복, 유규일, 이창배, 조계창, 최은우
제2대 (전)	의회운영위원회	5명	임덕재	김환옥, 박찬교, 윤찬구, 최광식, 임덕재
	총무위원회	7명	문기원	박영웅, 문기원, 정진국, 우상훈, 박찬교, 윤찬구, 한정수
	산업건설위원회	8명	구자길	김용환, 구자길, 임덕재, 김관기, 김환옥, 최광식, 김병환, 이회찬
제2대 (후)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회찬	김재경, 김환옥, 박영웅, 박찬교, 이회찬
	총무위원회	7명	김용환	김용환, 문기원, 박영웅, 박찬교, 우상훈, 최광식, 한정수
	산업건설위원회	8명	김병환	구자길, 김병환, 김재경, 김환옥, 윤찬구, 이회찬, 임덕재, 정진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의회운영위원회 5명, 총무위원회 7명, 산업·건설위원회 9명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의원정수의 조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의 정원을 1명 줄여 8명으로 하였다.

(2) 상임위원장의 선출

① 초대 통합서산시의회

상임위원장 선거는 1995년 1월 4일 서경원, 우상훈, 윤찬구, 최은우 의원 등 4명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 의회운영위원장선거부터 실시하였다. 손연복 의원이 불출석한 가운데 실시된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에서는 총 투표수 16매중 서경원 의원 13표, 윤찬구 의원 2표, 박영웅 의원 1표로써,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서경원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총무위원장 선거에서는 총 투표수 16매중 우상훈 의원 14표, 이병섭 의원 1표, 박영웅 의원 1표로써 재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우상훈 의원이 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계속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는 총 투표수 16매중 김재경 의원 7표, 최은우 의원 6표, 조계창 의원 3표로써 재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

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였다. 2차 투표에서는 이재병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총 투표수 15매중 김재경 의원 7표, 최은우 의원 3표, 조계창 의원 2표, 무효 1표로써 출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어 최고득표자인 김재경 의원과 차점자인 최은우 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였다. 결선 투표결과, 총 투표수 15매중 김재경 의원 10표, 최은우 의원 4표, 무효 1표로써 다수득표자인 김재경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② 제2대 전반기 서산시의회

1995년 7월 11일 의장의 사회와 이상훈, 한정수, 이희찬, 최광식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하여 상임위원장선거가 실시되었다.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임덕재 의원 13표, 윤찬구 의원 2표, 김환옥 의원 1표로 임덕재의원이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으며, 이어 실시된 총무위원장선거에서는 문기원 의원 13표, 정진국 의원 1표, 박영웅 의원 1표, 한정수 의원 1표로 문기원 의원이 당선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선거에서는 구자길 의원 11표, 김용환 의원 3표, 김관기 의원 1표, 김병환 의원 1표로 구자길 의원이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③ 제2대 후반기 서산시의회

1997년 1월 10일에 실시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선거는 임덕재·최광식의원을 감표위원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장·총무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순서로 실시되었다.

의회운영위원장선거 결과 16매중 이희찬의원 12표, 김환옥 의원 4표로 이희찬의원이 당선되었으며, 총무위원장선거에서는 최광식 의원 6표, 김용환 의원 6표, 한정수 의원 3표, 기권 1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제2차 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김용환 의원 8표, 최광식 의원 7표, 기권 1표로 역시 과반수득표자가 없어 김용환 의원과 최광식 의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김용환 의원 8표, 최광식 의원 7표, 기권 1표로 김용환 의원이 총무위원장에 당선되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장선거에서는 김병환 의원 10표, 임덕재 의원 4표, 김재경 의원 1표, 기권 1표로 김병환 의원이 당선되었다.

(3) 상임위원회별 업무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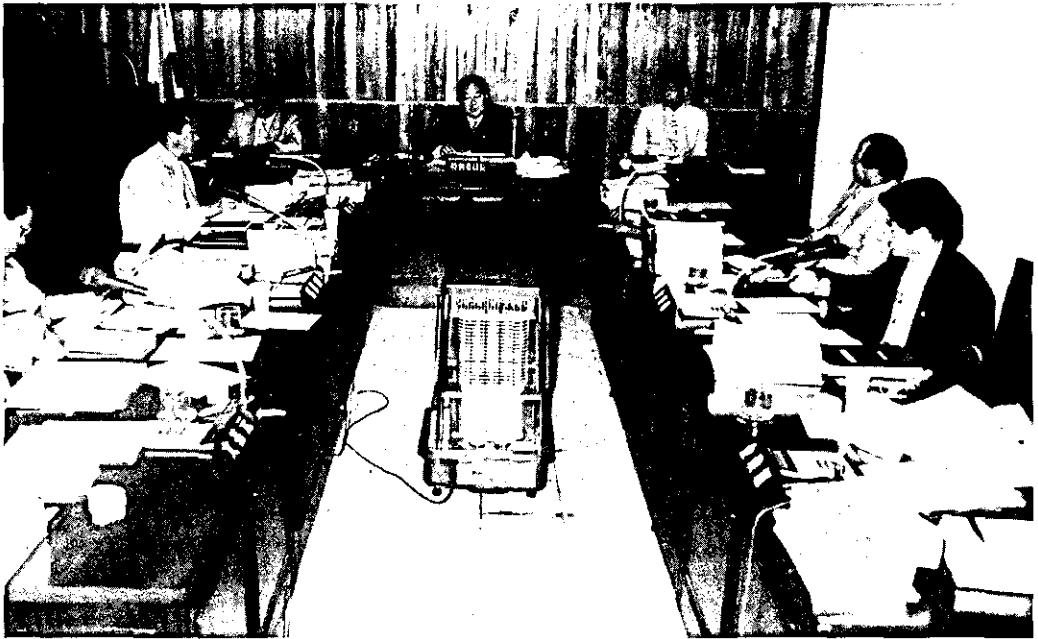
서산시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각각 업무를 분업하여 관장하고 있는데, 각 소관별 기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상임위원회별 업무분장

상임위원회	대 상 기 관(초대)	대상기관(제2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좌동
총무위원회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대산출장소, 문화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추가) 정책개발담당관실, 서산시립도서관 (삭제)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보호과, 산업과, 축산과, 해양수산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추가) 사회과, 가정복지과 (삭제) 청소과

3) 특별위원회

초대 서산시의회와 서산군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으므로 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갔다. 그러나 통합서산시의회가 구성되면서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초대 서산시의회, 초대 서산군의회, 초대 통합서산시의회, 제2대 서산시의회로 구분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사진〉 특별위원회 회의

(1) 초대 서산시의회 특별위원회

초대 서산시의회의 특별위원회를 보면 1991년부터 시·군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인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20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비교적 정례적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서산시 장기발전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특별위원회',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관한 민원대책특별위원회', '서산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서산지역발전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표〉 초대 서산시의회의 특별위원회 현황

연도	회기	위 원 회 명	위원장	간사	위 원	활동기간
1991	제3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교통통제구역설정)	손연복	최은우	정진국	6.13-9.20
	제3회 임시회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서산시 장기발전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 계획 특별위원회	손연복	최은우	윤찬구, 박영웅, 정진국	6.18-7.14
	제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안)	박영웅	윤찬구	정진국, 조계창, 최은우	9.15-9.17
	제5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무림아파트민원처리)	정진국	손연복	박영웅, 윤찬구	9.20-10.12
	제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은우	박영웅	윤찬구, 조계창, 정진국	12.3-12.11
1992	제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추경 및 '92당초예산)	윤찬구	정진국	박영웅, 조계창, 최은우	12.3-12.27
	제11회 임시회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관한 민원 대책특별위원회	미선출	미선출	손연복, 정진국, 최은우	활동기록없음
	제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2년 제1회 추경예산)	조계창	최은우	윤찬구, 박영웅, 정진국	7.1-7.6
	제1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찬구	정진국	박영웅, 조계창, 최은우	12.1-12.3
	제1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우	박영웅	윤찬구, 조계창, 정진국	11.26-12.21

〈표〉 초대 서산시의회의 특별위원회 현황 (계속)

연도	회기	위 원 회 명	위원장	간사	위 원	활동기간
1993	제19회 임시회	서산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진국	최은우	윤찬구, 박영웅, 조계창	4.9-4.29
	제21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서산시 무면허·무신고 어업보상)	손연복	윤찬구	최은우, 정진국	5.18-6.11
	제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정진국	윤찬구	조계창, 이재병, 손연복	8.11-8.14
	제25회 임시회	서산지역발전추진을 위한 특별 위원회	윤찬구	정진국	손연복, 조계창, 최은우	9.14-계속
	제2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손연복	최은우	윤찬구, 정진국, 조계창	12.1-12.3
	제2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국	윤찬구	이재병, 조계창, 최은우	11.30-12.21
1994	제30회 임시회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정진국	윤찬구	최은우	-
	제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윤찬구	최은우	이재병, 정진국, 조계창	7.11-7.18
	제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계창	정진국	이재병, 윤찬구, 최은우	11.3-12.19
	제3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재병	최은우	조계창, 윤찬구, 정진국	11.2-12.12

(2) 초대 서산군의회 특별위원회

서산군의회도 역시 예산결산관련 사항, 행정사무감사관련 사항, 조례심사 사항에 대해서는 서산시의회와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가 정례적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삼성내 토지불법형질변경관계 및 안질지구 조사특별위원회', '영가든및도로포장사업조사특별위원회'와 같은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도 구성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3) 통합서산시의회 특별위원회

초대 통합서산시의회의 특별위원회는 약 6개월에 걸친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던 관계로 활동이 저조하였다.

〈표〉 초대 서산군의회의 특별위원회 현황

연도	회기	위 원 회 명	위원장	간 사	위 원	활동기간
1991	제3회 임시회	삼성내 토지불법형질변경 관제 및 안질지구 조사특별위원회	미선임	미선임	이창배, 유규일, 박찬교, 우상훈	제4회 임시 회에서 활동 중지결의
	제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옥	김재경	이병섭, 김진오, 이창배	9.13-9.18
	제8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환옥	김진오	김지경, 박찬교, 서경원, 우상훈, 이병섭, 이창배	12.6-12.13
	제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교	우상훈	서경원, 이창배, 유규일	12.6-12.25
1992	제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오	유규일	김재경, 서경원, 이병섭	7.8-7.10
	제1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창배	박찬교	김재경, 김진오, 서경원, 우상훈, 유규일, 이병섭	11.27-12.4
	제1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경원	유규일	김재경, 우상훈, 이병섭	11.27-12.19
1993	제1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건축조례)	김재경	서경원	김진오, 우상훈, 이병섭	5.26-5.27
	제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3 제1회 추경예산안)	이병섭	박찬교	김관기, 김재경, 유규일, 이창배	7.9-7.11
	제20회 임시회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조사 특 별위원회	이창배	우상훈	김관기, 김재경, 박찬교	8.23-9.6
	제2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우상훈	박찬교	김재경, 김진오, 서경원, 유규일, 이창배, 이병섭	11.27-12.10
	제2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규일	이창배	김관기, 김재경, 서경원, 이병섭	11.29-12.20
1994	제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4 제1회 추경예산안)	김진오	우상훈	김관기, 박찬교	9.7-9.13
	제3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규일	서경원	김관기, 김재경, 김진오, 박찬교, 우상훈, 이병섭, 이창배	11.26-12.9
	제30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배	박찬교	김관기, 김재경, 김진오, 서경원, 우상훈, 유규일, 이병섭	12.2-12.20

〈표〉 초대 통합서산시의회의 특별위원회

구분	회기	위 원 회 명	위원장	간 사	위 원	활동기간
1995	제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	조계창	윤찬구	박영웅, 김진오, 이병섭, 김관기, 김환옥	3.30-4.3

(4) 제2대 서산시의회 특별위원회

제2대 서산시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은 1996년도에 구성되었던 부실공사조사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표〉 제2대 서산시의회의 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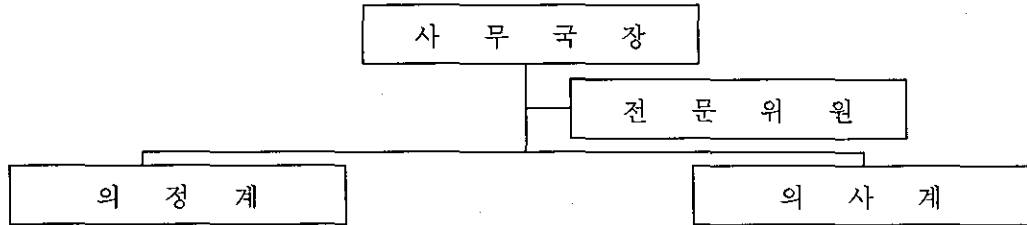
구분	회 기	위 원 회 명	위원장	간 사	위 원	활동기간
1995	제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추가경정예산)	김환옥	김용환	김병환, 박영웅, 최광식, 한정수	9.26-9.28
	제1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추경·본예산)	정진국	윤찬구	구자길, 김관기, 이희찬, 문기원, 임덕재, 우상훈	11.25-12.29
1996	제13회 임시회	부실공사조사특별위 원회	박영웅	한정수	정진국, 김환옥, 문기원, 김병환, 김용환	5.6-5.29
	제1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추가경정예산)	우상훈	이희찬	구자길, 김관기, 문기원, 윤찬구, 임덕재, 정진국	7.15-7.19
	제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회추경, 본예산)	박영웅	최광식	김병환, 김용환, 김환옥, 박찬교, 한정수	11.25-12.28
1997	제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추가경정예산)	박찬교	최광식	김병환, 김용환, 김환옥, 박영웅, 한정수	7.7-7.18

4) 사무국

초대 서산시·군의회의 개원당시에는 사무기구의 책임자 명칭을 간사로 하고 전문위원 1인에 의사계로만 구성되었으나, 이후 간사의 명칭을 의회사무과장으로 변경하였고, 통합시에서는 현재의 사무국 체제로 승격되었다. 초대 사무국장은 김광우국장으로 95년 1월 1일에 취임하여 동년 6월 15일까지 재직하였으며, 제2대 사무국장은 김배연국장으로 96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김정부국장이 97년 1월 1일부터 재직하고 있다.

의회사무국은 총정원 16명으로 사무국장 외에, 전문위원 3명, 의정계, 의사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장은 4급으로 보임하며, 전문위원들은 주로 5급으로 보임된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지위에 있다.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비 고
						9등급	10등급	
16	1	2	3	3	1	3	3	일용 4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전문위원은 의안을 심사하고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의정계는 의회의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자치법규의 정비, 의회의 홍보 및 재무회계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의사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및 의안의 접수·인수·배부 등 처리종합, 청원, 진정서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서산시의회의 의정활동

1)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이며 합의제적 최고 의사기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위로 부터 지방의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나 역할이 도출된다.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분류해 보면, (1)의사결정권 (2)행정감시권 (3)청원처리권 (4)자율권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의사결정권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권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최고대표기관으로서 행하는 모

든 결정사항에 관한 것이다. 관념적으로 지방의회는 주민이 뽑은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최고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권은 헌법 제117조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의거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징수
-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리
-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행정감시권

기관대립형 지방정부 구조에서 의회에 주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집행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이다. 비록 자치단체장을 선거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전형적인 행정통제방법으로서 행정조사권과 감사권을 들 수 있는데, 우리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감사권과 조사권을 구분하여 부여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하거나 특정 사안에 관하여 의원 1/3의 이상이 연서로 발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고, 행정조사와 감사에 관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게 하였다.

둘째, 동의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기도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지만, 주로 지방재정에 관련된 사항중 이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에 관한 국가의 사용료부담 면제,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시·군의 경비부담, 각 회계간의 재산이관시 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행정사무감사

셋째, 의견제출권은 어떤 중요사안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권한을 말한다. 대부분의 의견은 조례제정권이나 예산의결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 및 조사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의견을 들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관할 도의회의 의견을 들도록 하고 있으며, 시·군·자치구 간의 분쟁이 있어서 시·도지사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의 의견을 들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제출권은 결정기관에게 구속력은 없지만 대표기관으로서의 입장을 전하는 기능을 한다.

넷째, 보고 및 서류징취권으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은 일종의 행정감시를 위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행정정보가 부족한 지방의회가 행정감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보고와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보고, 의회의 요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보고, 청원처리의 보고, 기타 중요한 사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와 예산에 관한 설명서, 결산과 함께 제출하는 서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3) 청원권

청원수리권은 바로 선거구민에 대한 대표들의 직접적인 봉사이다. 즉 지방의원과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불편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일과 잘못된 행정에 의하여 빚어지는 고통을 해소시키는 한편, 심부름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

이다. 하지만 청원은 법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단순히 희망을 진술하는 행위이므로, 청원의 상대방은 이를 수리하여 타당하면 직무집행에 참고하지만 반드시 청원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은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하고(제65조), 지방의회는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이를 심사하며(제67조), 수리여부를 결정하며, 채택된 청원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다. 자치단체장은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도록(제68조)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않는다.

(4) 자율권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법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즉 외부기관의 간섭을 최대한 억제하고 스스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은 임시의회의 소집권, 개회·휴회·폐회와 회기의 결정, 의장·부의장 선출과 불신임 결의, 임시의장의 선출, 위원회의 구성, 의안발의권, 회의규칙의 제정, 의원의 사직허가, 의원의 자격심사권, 의원의 징계의결권,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의 결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 초대 서산시·군의회 및 통합서산시의회의 의정활동

(1) 초대 서산시의회

① 회기 운영현황

초대 서산시의회는 총 38회에 걸쳐 260일간 활동하였다. 그중 매년 정기회가 30일씩이고, 임시회가 34회에 걸쳐 135일간 개최되었다. 이중 본회의는 106일, 특별위원회가 81일이며, 사업현장답사, 현지의정활동이 74회에 이른다.

〈표〉 초대 서산시의회의 회기운영

구분	회기 및 회의 일수						회기 운영 현황		
	계		정 기 회		임 시 회		본회의	특 별 위원회	현지의정활동
	횟 수	회 기	횟 수	회 기	횟 수	회 기			
계	38	260	4	125	34	135	106	81	74
1991년	8	60	1	30	7	30	25	20	15
1992년	9	60	1	30	8	30	22	20	18
1993년	11	60	1	30	10	30	31	17	12
1994년	10	80	1	35	9	45	28	24	29



〈사진〉
초대의회 활동(서산시)

② 의안처리현황

초대 서산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면, 전체적으로 253건이 접수되어 252건이 처리되고, 1건이 미처리 되었다.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가결이 233건이며 부결 10건, 철회 9건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약 93%의 가결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안 가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초대 서산시의회의 의정활동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가 결		부 결	폐 기	철회	
				원 안	수 정				
계		253	252	203	30	10	-	9	1
예 산 안		12	12	3	9	-	-	-	-
결 산		4	4	4	-	-	-	-	-
조 례 안	소 계	124	123	97	11	9	-	6	1
	의원발의	16	16	15	1	-	-	-	-
	시장제출	108	107	82	10	9	-	6	1
재의안		2	2	2	-	-	-	-	-
동의(승인)안		43	43	34	6	1	-	2	-
건의안		15	15	13	1	-	-	1	-
결의안		7	7	7	-	-	-	-	-
기 타		46	46	46	3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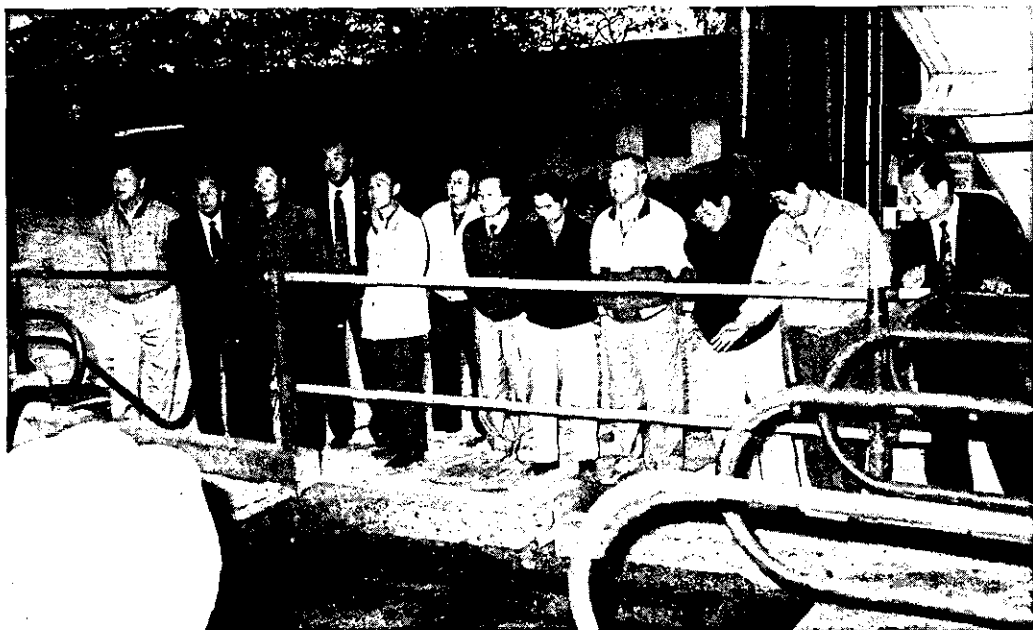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예산안의 경우 12건이 접수되어 12건 모두 가결되었다. 다만 3건만이 원안통과되고, 9건은 수정통과되어서, 그런대로 지방의회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결산에 있어서는 모두 원안통과되고 있다.

한편 조례안을 보면 124건이 접수되어 97건이 원안통과되고, 11건이 수정통과되었으며, 9건이 부결되었고, 6건이 철회되었다. 또한 시장이 제출한 1건의 조례안은 미처리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집행부가 지방의회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의 부결결과를 보면 지방의회도 나름대로 시장의 집행권에 통제를 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도 짐작할 수 있다. 기타 다른 권한에 있어서도 예산안이나 조례안의 처리과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초대 서산군의회

① 회기 운영현황

서산군의회는 30회에 걸쳐 260일간 개최하였다. 그중 정기회가 4회에 걸쳐 125일, 임시회가 26회에 걸쳐 135일 개최하였다. 그 중 본회의가 97일, 특별위원회가 70일, 현지의정활동이 93일에 이른다.



〈사진〉 초대 서산군 의회 활동(서산군)

〈표〉 초대 서산군의회의 회기운영

구분	회기 및 회의 일수						회기 운영 현황		
	계		정 기 회		임 시 회		본의회	특 별 위원회	현지의 정활동
	횟수	회기	횟수	회기	횟수	회기			
계	30	260	4	125	26	135	97	70	93
1991년	8	60	1	30	7	30	24	20	16
1992년	7	60	1	30	6	30	23	15	22
1993년	8	60	1	30	7	30	25	15	20
1994년	7	80	1	35	6	45	25	20	35

② 의안처리현황

초대 서산군의회의에서는 총 233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원안가결이 222건이며, 수정통과가 4건, 부결이 7건으로 서산시의회에 비해 대부분 원안가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예산안은 재정자원을 둘러싼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해 재정자원이 배분됨에도 불구하고 수정가결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의외의 사실이다. 또한 조례안의 제출에 있어서도 의원발의는 7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군수발의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표〉 초대 서산군의회의 의정활동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가 결		부 결	폐 기	철 회	
				원 안	수 정				
계		233	233	222	4	7	-	-	-
예 산 안		14	14	14	-	-	-	-	-
결 산		4	4	4	-	-	-	-	-
조 레 안	소 계	137	137	134	-	3	-	-	-
	의원발의	7	7	7	-	-	-	-	-
	시장제출	130	130	127	-	3	-	-	-
재 의 안		1	1	1	-	-	-	-	-
동의(승인)안		35	35	28	4	3	-	-	-
건의 의 안		9	9	9	-	-	-	-	-
기		11	11	10	-	1	-	-	-
타		22	22	22	-	-	-	-	-

(3) 통합서산시의회

① 회기운영 현황



〈사진〉 현재의회 활동(통합서산시)

통합서산시의회가 활동한 기간은 1995년 1월부터 6월 말일까지 6개월간 운영되었으며, 총 5회에 걸친 임시회가 소집되어 활동하였다. 총 회기는 28일로 본회의 10일, 상임위원회 12일, 현지의정활동 6일로 구성되어 있다.

〈표〉 초대 통합서산시의회의 회기운영

구 분	회기	본 회 의	위 원 회	현지의정활동	비 고
	일수				
합 계	28	10	12	6	-
제1회임시회	2	2	-	-	-
제2회임시회	15	4	6	5	-
제3회임시회	9	2	6	1	-
제4회임시회	1	1	-	-	-
제5회임시회	1	1	-	-	-

② 의안처리현황

초대 통합서산시의회에서는 6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141건을 접수하여 140건을 처리하였다. 그중 예산안 의결 1건, 조례안이 133건이며, 승인안 4건, 기타 3

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조례안은 의원발의가 6건에 불과한 반면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이 127건에 이르며, 이중 1건은 미처리이고 37건은 수정가결하였다.

〈표〉 초대 통합서산시의 의정활동 현황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가 결		부 결	폐 기	철 회	
				원 안	수 정				
계		141	140	97	38	1	-	4	1
예 산 안		1	1	-	1	-	-	-	-
결 산		-	-	-	-	-	-	-	-
조 례 안	소 계	133	132	90	37	1	-	4	1
	의원발의	6	6	6	-	-	-	-	-
	시장제출	127	126	84	37	1	-	4	1
재 의 안		-	-	-	-	-	-	-	-
동의(승인)안		4	4	4	-	-	-	-	-
건 의 안		-	-	-	-	-	-	-	-
결 의 안		-	-	-	-	-	-	-	-
기 타		3	3	3	-	-	-	-	-

3) 제2대 서산시의회

(1) 전반기 의정활동

① 회기 운영현황

제2대 전반기 서산시의회의 회기 및 회의 일수를 보면, 총 14회에 걸쳐 132일간 개최하였다. 그 중 정기회가 2회 69일이고, 임시회가 12회 63일이다. 그중 본회의는 64일, 상임위원회는 89일, 특별위원회는 15일이며, 현지의정활동은 15일이다.

〈표〉 제2대 서산시의회(전반기) 회기운영

구분	회기 및 회의 일수						회기 운영 현황			
	계		정 기 회		임 시 회		본회의	상 임 위원회	특 별 위원회	현지 활동
	횟수	회기	횟수	회기	횟수	회기				
계	14	132	2	69	12	63	64	89	15	15
1995년	5	52	1	35	4	17	21	42	8	6
1996년	9	80	1	34	8	46	43	47	7	9

② 의안처리현황

제2대 전반기 서산시의회가 접수한 안건은 총 132건이며, 그중 131건을 처리하였다. 미처리된 안건은 서산시건축조례개정안이다.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안이 8건 접수되어 4건은 원안처리, 4건은 수정처리되었고, 결산안은 2건 모두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조례안의 경우 의원발의는 불과 3건에 불과하며, 80건은 시장이 제출하여 1건 미처리를 제외하고는 79건 모두 의결되었다. 다만 7건은 수정가결되고 72건만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표〉 제2대 서산시의회(전반기) 의정활동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가 결		부 결	폐 기	철회	
				원 안	수 정				
계		132	131	120	11	-	-	-	1
예 산 안		8	8	4	4	-	-	-	-
결 산		2	4	2	-	-	-	-	-
조례안	소 계	83	83	75	7	-	-	-	-
	의원발의	3	3	3	-	-	-	-	-
	시장제출	80	79	72	7	-	-	-	1
의결(승인)안		18	18	18	-	-	-	-	-
건의안		4	4	4	-	-	-	-	-
기 타		17	17	17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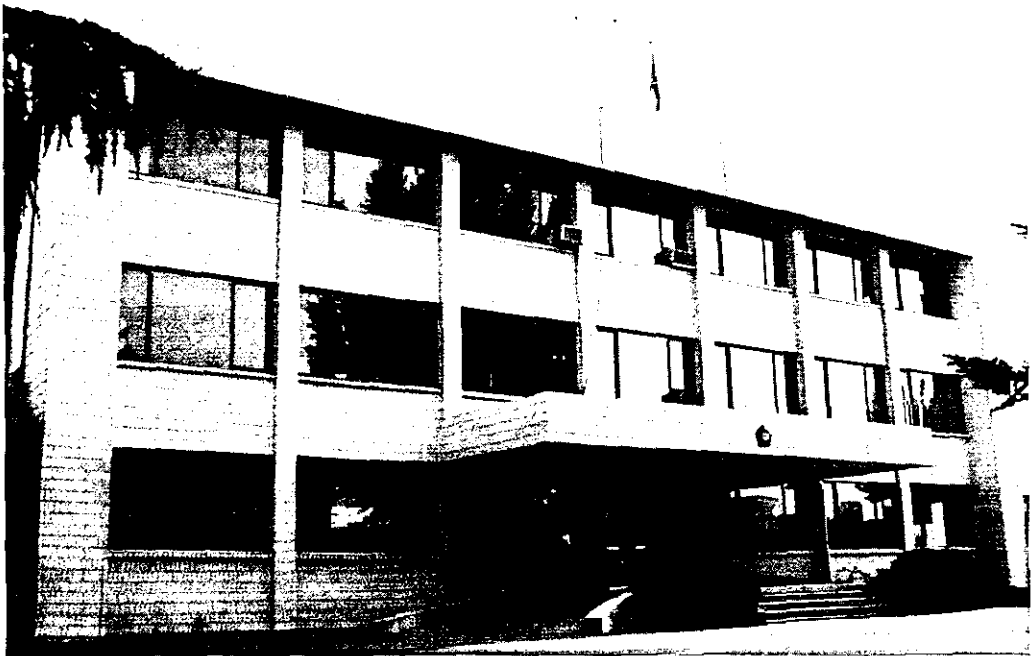
제3절 서산시의 법원 및 검찰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1) 연혁
- 2) 관할구역
- 3) 조직 및 업무분담현황
- 4) 각종 사건현황
- 5) 역대지원장
- 6) 조정위원현황
- 7)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 현황

2. 대전지방법검찰청 서산지청

- 1) 연혁
- 2) 관할구역
- 3) 조직 및 시설현황
- 4) 업무처리현황
- 5) 역대지청장현황
- 6) 범죄예방자원봉사 서산지역협의
회위원명단



(집필자 : 이덕연)

제3절 서산시의 법원 및 검찰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 연혁

우리나라의 근대적 사법제도는 갑오경장의 연장선속에서 1895년 3월 25일에 공포된 대한제국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 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이 전혀 분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함께 관장하는 사헌부, 형조, 한성부, 의금부 등이 중앙사법기관기능을 수행하였고, 지방은 관찰사 및 수령이 지방사법기관의 역할을 맡았다. 법원이나 재판소가 설치되지는 못했지만 오늘날의 법무부에 해당되는 중앙부서인 '형조'가 '법무아문'으로 개칭되고 사법과 경찰업무를 관장하고 고등법원 이하 지방재판소를 감독하도록 조직으로나마 편제된 것은 1894년 6월 28일이었다.

그 후 1894년 12월 16일 '법무아문권설 재판소설치에 관한 건'에 의해 '법무아문'에 예속되어 있던 의금부가 '법무아문권설 재판소'로 재편, 개칭되었다. 이 재판소는 지방관이 관장하는 재판을 제외한 일체의 재판을 관할하는 사법기관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재판소'라는 명칭의 사법기관이 설치되게 되었다.

'재판소구성법'에 따르면 1896년 8월 현재 충청남도의 홍주와 공주 2곳을 포함하여 전국에 24개소의 재판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다. 그 후 1899년 5월 30일 동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방재판소는 폐지되고 도단위로 재판소를 설치하도록 되었는데, 『충청남도 재판소』는 공주에 설치토록 하였다. 그러나 동법에 규정된 재판소는 법령상의 편제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개설된 재판소는 고등재판소와 한성재판소에 불과하였고, 지방재판소는 각 도의 감영에 합설되었다. 1906년 10월의 '각 개항장재판소, 각 지방재판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개정건'(법부령 제3호)에 따르면 공주에 『충청남도 재판소』를 설치하여 37개군을 관장하게 하였다. 여기에는 현재 서산지원의 관할구역인 서산군, 당진군, 해미군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8년 6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지원으로 편제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재 서산

지원의 연혁은 19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비록 실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미 한일합방 이전에 '재판소구성시행법'과 '재판소설치법'(법률 제8호, 10, 1907. 12. 31)에 의해 『공주 지방재판소 서산구재판소』로 조직편성되었고, 이는 칙령 제236호(1909. 10. 16)와 통감부령 제28호(1909. 10. 21)에 의해 하부조직의 편제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서산구 재판소』가 최초로 실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한일합방 이후 제령 제4호(1910. 10. 1)와 총독부령 제9호(1910. 10. 1)에 의해서였다. 그 후 1912년 4월 1일부터 제령 제4호(1912. 3. 18)와 총독부령 제26호(1912. 3. 19)에 의해 신설, 재편된 『공주지방법원의 서산지청』으로 1932년 2월 14일 까지 약 30년동안 운영되었다. 1932년 2월 15일 부터 약 5년간은 총독부령 제17호(1932. 2. 15)에 의해 등기사무관을 취급하다가 1938년 7월 1일부터 총독부령 제132, 133호(1938. 6. 25)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청』으로 재편되었다. 이는 해방이후 군정명령 제21호(1945. 11. 2)에 의해 계속 유지되었고, 그 후 1947년 1월 1일부터 1년 5개월간 군정청 사법부명령(1946. 12. 16)에 의한 『대전지방심리원』을 거쳐, 1948년 6월 1일부터의 군정법령 제192호(1948. 5. 4)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설치되고, 이 편제는 정부수립 이후 법원조직법(법률 제51호, 1949. 8. 15)에 의해 승계되어서 1986년 9월 1일부터 합의지원으로 승격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현재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2) 관할 구역

서산지원은 1개 읍과 9개 면 및 6개 동을 포함하고 있는 서산시(1995년 1월 1일 시군통합)와 2개 읍, 10개 면의 당진군 그리고 2개 읍과 6개면의 태안군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총 5개읍, 25개 면, 6개 동이다. 관할구역의 총면적은 1,895km²으로 전국의 1.7%, 충남의 22%이고, 구역내 인구는 1996년 12월 31일 현재 341,407명이다.

3) 조직 및 업무분담현황

1997년 7월 1일 현재 부장판사로 보임되는 지원장 1명과 군법원판사를 겸임하는 법관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법관과 서기관(사무과장) 1명, 사무관 2명, 주사 5명, 주사보 4명, 서기, 서기보 각각 7명 및 법정경위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등 총 35명의 일반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년 임기인 집행관은 1997년 5월 31일 현재 2명이 재임하고 있다.

〈표〉 법관의 업무분담상황

(97. 6. 1 현재)

재판부	법관	분담업무	상호대리
지원장	부장판사 조용연	사법행정사무지휘감독 민사조정사건(위원회) 제소전 화해사건 가사조정사건(위원회) 가사비송사건 호적비송사건	판사 이성구
민사합의부	재판장 판사 조용연 판사 김정옥 판사 신봉철	민사합의사건(1/9) 민사신청사건-합의(4/9) 민사비송사건-합의(4/9) 민사재심사건-합의	판사 이성구 판사 최정기
형사합의부	재판장 판사 조용연 판사 김정옥 판사 신봉철	형사합의사건 형사감호사건(1/2) 형사신청사건-합의(1/2) 형사재심사건-합의	판사 이성구 판사 최정기
가사합의부	재판장 판사 조용연 판사 김정옥 판사 신봉철	가사합의사건(1/2) 가사신청합의사건(1/2)	판사 이성구 판사 최정기
구속적부심	재판장 판사 조용연 판사 김정옥 판사 신봉철	구속적부심신청사건(1/2) 구속적부심신청사건(1/2)	영장발부판사제외
재정합의부	재판장 판사 조용연 판사 김정옥 판사 신봉철	재정합의결정사건(1/2) 재정합의결정사건(1/2)	판사 이성구 판사 최정기
제1단독	판사 이성구	민사단독사건(1/2) 형사단독사건(1/2) 형사신청사건-단독(1/2)	판사 최정기
제2단독	판사 최정기	민사단독사건(1/2) 형사단독사건(1/2) 형사신청사건-단독(1/2) 약식사건 기타 타법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단독 사건	판사 이성구

〈표〉 법관의 업무분담상황 (계속)

재판부	법관	분담업무	상호대리
제3단독	판사 김정옥	민사소액 지급명령 민사집행(1/2) 기타 집행 민상사비송사건	판사 신봉철
제4단독	판사 신봉철	가사단독 민가시신청단독 민사집행(1/2) 민형사공조사건 민형사증거보전사건	판사 김정옥
태안·당진군 법원	판사 이성구	당진 태안군법원 민사소액신청사건 지급명령사건 협의이혼사건 제소전화해사건 민사조정사건 즉결사건	판사 최정기
영장·협의 이혼·즉결	-	부장판사를 제외한 전 법관이 윤번제 로 담당	-

4) 각종 사건현황

최근의 사건접수현황은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액, 민사조정사건은 다소 감소한 데 반해서 합의 및 단독사건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사사건은 조정사건과 합의심사건이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약식사건이 소폭 증가한 반면에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은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호적비송사건이 격감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집행사건, 부동산등기사건, 협의이혼사건 및 공탁사건 등의 기타 사건의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다.

다음은 1995년 6월 1일부터 1996년 5월 31일 까지 1년간의 사건수와 1996년 6월 1일부터 1997년 5월 31일 까지의 사건수를 대비하여 정리한 것이다.

(1) 민사사건

① 본안사건

구분	사 건 수				기제	미제	증 감 율
	기 간	구 수	신 수	계			
합의	95.6.1-96.5.31	96	212	308	254	54	+19(+ 6%)
	96.6.1-97.5.31	54	273	327	215	112	
단독	95.6.1-96.5.31	307	839	1,146	764	382	+20(+1.7%)
	96.6.1-97.5.31	382	784	1,166	864	302	
소액	95.6.1-96.5.31	148	910	1,006	816	190	- 42(- 4%)
	96.6.1-97.5.31	190	774	964	868	96	

② 조정사건

구 분	접 수 기 간		증 감 율
	95. 6. 1 - 96. 5. 31	96. 6. 1 - 97. 5. 31	
서산지원	103	79	- 24 (- 23%)

(2) 형사사건

구분	사 건 수				기제	미제	증 감 율
	기 간	구 수	신 수	계			
합의	95.6.1-96.5.31	29	160	189	166	23	+62(-32.9%)
	96.6.1-97.5.31	23	104	127	102	25	
단독	95.6.1-96.5.31	257	1,441	1,698	1,411	287	-289(-18%)
	96.6.1-97.5.31	287	1,122	1,409	1,177	232	
약식	95.6.1-96.5.31	652	6,549	7,201	6,991	210	+ 366(+5%)
	96.6.1-97.5.31	210	7,357	7,567	6,937	630	

(3) 기타 사건

① 민사집행사건

구 분	접 수 기 간		증 감 율
	95. 6. 1 - 96. 5. 31	96. 6. 1 - 97. 5. 31	
민사집행	2,165	2,432	+ 267(+12.3%)
민사신청	3,279	3,625	+ 346(+10.5%)
계	5,444	6,057	+ 613(+11.2%)

② 부동산등기사건

구 분	접 수 기 간		증 감 율
	95. 6. 1 - 96. 5. 31	96. 6. 1 - 97. 5. 31	
서산지원	31,684	34,190	+ 2,506(+7.9%)

③ 호적사건

구 분	접 수 기 간		증 감 율
	95. 6. 1 - 96. 5. 31	96. 6. 1 - 97. 5. 31	
비 송	492	246	- 246(- 50.0%)
협의이혼	310	362	+ 52(+16.7%)

④ 공탁사건

구 분	접 수 기 간		증 감 율
	95. 6. 1 - 96. 5. 31	96. 6. 1 - 97. 5. 31	
서산지원	535	596	+ 61(+11.4%)

5) 역대지원장

해방 이후 1945년 이래 역대 서산지원장은 이운근(李雲根) 초대 지원장으로부터 현재 제 22대 조용연(趙勇衍)지원장이 재임하고 있다. 역대지원장의 임기는 1945년 12월 5일부터 1954년 1월 4일 까지 8년 1개월 동안 장기간 재임했던 이운근(李雲根) 초대 지원장과 4년 5개월을 근무한 제 2대 윤기노(尹綺老) 지원장, 4년 3개월을 근무했던 서철모(徐轍模) 제 8대지원장외에 대부분은 대략 1년내지 3년간 재임하였다. 다만 1986년 9월 1일 이후 합의지원으로 승격된 이후 현재까지는 최소한 2년 이상을 재임해 오고 있다.

〈표〉 역대 지원장명단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부 터	까 지	기 간	
초대	李雲根	1945. 12. 5	1954. 1. 4	8년 1개월	단독지원
제2대	尹綺老	1954. 1. 5	1959. 5. 22	4년 5개월	
제3대	朴 哲	1959. 5. 23	1960. 8. 3	1년 3개월	
제4대	尹紅萬	1960. 8. 4	1961. 8. 25	1년	
제5대	金種聲	1961. 8. 26	1962. 7. 16	11개월	
제6대	裴永俊	1962. 7. 17	1963. 10. 22	1년 3개월	
제7대	丘容完	1963. 10. 23	1965. 6. 30	1년 8개월	
제8대	徐轍模	1965. 7. 1	1969. 10. 9	4년 3개월	
제9대	金聖一	1969. 10. 10	1971. 3. 31	1년 5개월	
제10대	全忠煥	1971. 4. 1	1973. 3. 31	2년	
제11대	朴普武	1973. 4. 1	1975. 9. 30	2년 6개월	
제12대	朴元喆	1975. 10. 1	1978. 9. 17	3년	

〈표〉 역대 지원장명단(계속)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부 터	까 지	기 간	
제13대	金基千	1978. 9. 18	1980. 9. 9	2년	
제14대	尹汝憲	1980. 9. 10	1981. 8. 31	1년	
제15대	姜鍾堧	1981. 9. 1	1983. 8. 31	2년	
제16대	趙弘殷	1983. 9. 1	1984. 8. 31	1년	
제17대	魯元旭	1984. 9. 1	1987. 8. 31	3년	1986.9.1 합의지원 승격
제18대	朴松夏	1987. 9. 1	1990. 2. 28	2년 6개월	
제19대	梁東冠	1990. 3. 1	1992. 2. 20	2년	
제20대	尹炯漢	1992. 2. 21	1995. 2. 28	3년 1개월	
제21대	邊鎮長	1995. 3. 1	1997. 2. 26	2년	
제22대	趙勇衍	1997. 2. 27	현 재		

6) 조정위원현황

1998년 1월 31일 현재 서산지원에는 27명, 태안군법원에는 20명, 당진군법원에는 20명 총 70명의 지역인사가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각 관할 구역별 조정위원의 인적사항은 다음 별표와 같다.

(1) 서산지원(가나다 순)

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직 업
1	강춘식	1946.11. 5	서산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2	김경선	1938.12. 26	성모의원 원장
3	김기창	1932.11. 7	신진주유소 대표
4	김명기	1938.12. 30	대창주유소 대표
5	김명수	1963. 5. 6	김정신과의원 원장
6	김언석	1928. 6. 7	동양카독크 대표이사
7	김영선	1958. 8. 3	변호사
8	김혜숙	1933. 6. 7	삼일빌딩 대표
9	남현우	1961.11. 6	변호사
10	박병호	1934. 5. 24	법무사
11	박종성	1946. 7. 5	삼화식품 대표
12	박주운	1934. 8. 20	법무사
13	배선위	1942.10. 24	법무사

서산지원(가나다 순)(계속)

번호	성명	생년월일	직업
14	윤주옥	1933. 9. 20	안면농업협동조합 조합장
15	이보연	1940. 7. 27	이외과 원장
16	이종태	1956. 11. 15	변호사
17	장일영	1935. 5. 27	서산시 보건소장
18	전병구	1954. 4. 1	우리들외과의원 원장
19	정승열	1950. 9. 10	서산지원 사무과장
20	정창현	1950. 7. 5	서령버스 대표이사
21	조한구	1946. 1. 7	지곡고등학교 교장
22	진태구	1945. 11. 30	서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23	최길학	1951. 8. 12	서림건설(주) 대표이사
24	최은범	1947. 7. 1	당진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25	최황진	1942. 7. 25	주식회사 서산관광 대표이사
26	홍근유	1932. 5. 3	호서고등학교 교장
27	홍순백	1952. 5. 23	우인건축 사장

(2) 태안군 관내(가나다 순)

번호	성명	생년월일	직업
1	가기순	1941. 8. 8	제충원한약방 원장
2	가명노	1945. 11. 12	동양카독크 상무
3	김덕배	1936. 4. 2	김약국 대표
4	김동민	1936. 7. 21	태안의료보험조합 대표 이사
5	김석구	1940. 1. 9	홍농가든 대표
6	김세규	1930. 12. 1	상업
7	김순환	1939. 11. 25	태안군의회 의장
8	김은태	1950. 1. 4	은성시멘트 대표
9	박성준	1956. 8. 16	태안등기소장
10	박태산	1935. 10. 10	유류업
11	유익환	1952. 12. 17	군의회 의원
12	윤태순	1937. 11. 4	전면장
13	이진권	1927. 10. 6	피보약국 대표
14	이용희	1948. 4. 24	태안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15	장세춘	1954. 7. 28	서림건축사 소장

태안군 관내(가나다 순) (계속)

번호	성명	생년월일	직업
16	정송원	1949. 6. 1	전 여성단체 회장
17	조항설	1929.11. 25	전 군의회 의원
18	최원영	1960. 2. 10	변호사
19	한상국	1935. 9. 9	태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20	함정경	1941. 1. 19	근흥농협 조합장

(3) 당진군 관내(가나다 순)

번호	성명	생년월일	직업
1	김득환	1950. 6. 1	르카프대리점 대표
2	김수길	1945. 7. 8	의사
3	김재하	1936.11. 30	신성자동차학원 원장
4	박순신	1940.10. 15	서룡건설 대표
5	박용성	1934.10. 20	법무사
6	손용기	1942. 2. 9	태평화물 대표이사
7	오범수	1943. 1. 15	오리표싱크 대리점 대표
8	유제웅	1938. 3. 20	신평고등학교 교장
9	육이창	1943. 7. 7	호서건축설계 사무소장
10	이시영	1943. 9. 9	대림약국 약사
11	이중덕	1932.10. 19	농업
12	이홍근	1942. 5. 15	윤성학원 대표
13	이홍연	1943.12. 20	무지개사료 대리점 대표
14	임형락	1937. 2. 9	축산업
15	정정희	1952. 9. 25	당진여성단체협의회회장
16	최성진	1950. 9. 12	가사
17	최윤식	1929.10. 15	법무사
18	호병옥	1936. 9. 10	농촌지도자 회장
19	황규호	1947. 6. 16	농지개량조합 조합장
20	조도용	1952. 2. 21	당진등기소장

7)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 현황

1997년 5월 31일 현재 관할구역내에 변호사는 서산시에만 7명이 있고 당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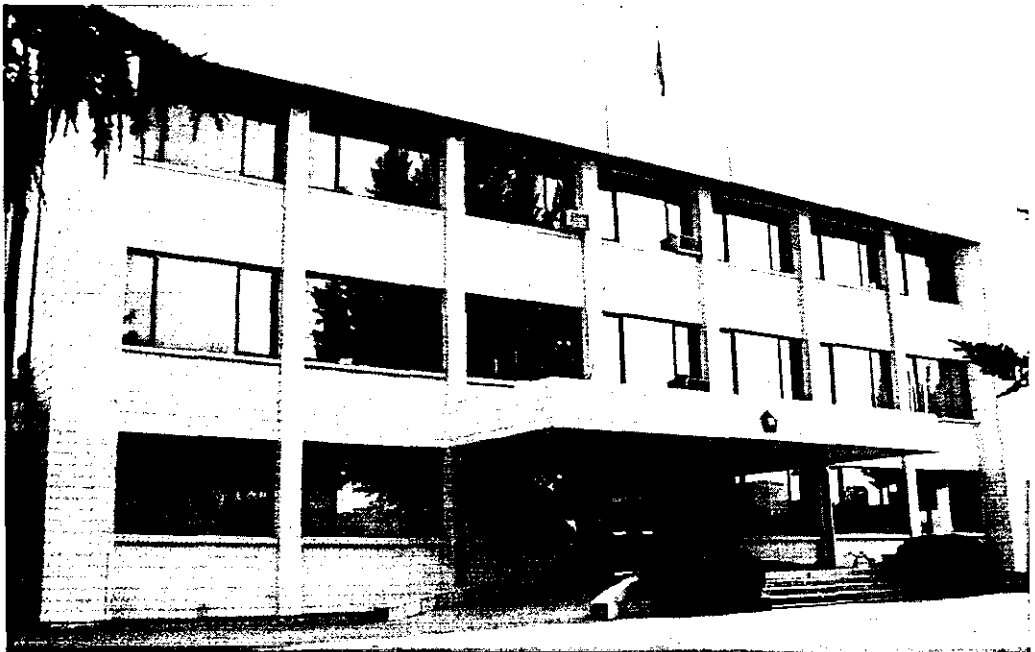
및 태안군법원지역에는 개업변호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법무사는 서산시에 10명, 당진군에 7명, 태안군에 3명 총 20명이 개업하고 있다.

2.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 연혁

(1) 해방 이전

1894년의 갑오경장 이전까지 우리 사법제도는 행정관이 재판관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기관과 함께 검찰기관이 전혀 분화되지 않은 전근대적인 것이었다. 일본의 강요에 의해 본격화된 개혁작업의 일환이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근대화의 시초는 1895년 3월 25일에 공포된 '재판소구성법'(대한제국 법률 제1호)이었다. 동법에서 검사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비록 고등재판소와 한성재판소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개설되지 아니 하였지만 동법은 1896년 8월까지 충청남도의 홍주와 공주재판소를 포함하여 전국에 24개의 재판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사진〉 검찰청

재판소의 통일된 조직체계는 1899년 5월 30일 법률 제 3호로 제정된 '재판소구성법개정법률'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동 개정법률에 따르면 고등재판소가 평리원(平理院)으로 개칭되었고, 재판소의 종류는 지방재판소, 한성 및 각 개항시장재판소, 순회재판소, 평리원 및 특별법원으로 구분되었다. 충청남도지방재판소는 공주에 설치하도록 되었다.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직체계를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명목상의 근대적 사법제도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후의 이른바 통감부시대(1905. 11 - 1910. 8)를 거치면서 일부 재정비되어서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서산지청의 관할구역인 서산군, 당진군, 해미군이 공주지방재판소의 관할에 포함되게 된 것이 1906년 10월이었고, 1909년 10월 현재 공주지방재판소 산하에 18개 구재판소 검사국(檢事局)이 편성되어 서산구재판소 검사국에서는 서산, 태안, 해미를, 먼천구재판소 검사국에서는 먼천, 당진, 덕산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의 사법제도는 대부분 통감부시대의 재판소령을 답습한 조선총독부재판부령에 의해 정해졌다. 이에 따르면 민사·형사재판과 비송사건 등 모든 사법업무를 총독부내에 설치한 사법부에 의해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즉 사법에 관한 최고감독권을 총독에게 귀속시켰다.

검찰제도는 각 재판소에 검사국을 병치하고 검사국은 재판소의 관할구역과 동일한 구역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고등법원과 공소원(控訴院)검사국에는 검사장을, 지방재판소 검사국에는 검사정(檢事正)을 또한 구재판소검사국에는 구재판소검사를 두어 각각 검사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하급검사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였다. 검사의 직무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관의 명령에 따른다는 검사동일체원칙에 해당되는 규정만을 두었다. 판사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경우에도 한국인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한국인인 경우에만 수사 및 공소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한 통감부시대의 한국인 판·검사차별대우는 그대로 지속되었다.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의 창설과 함께 공포·시행된 "조선총독부 재판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총독부령 제9호)은 통감부재판소령에서 103개로 정하였던 구재판소를 68개로 감축하였다. 동령에 따라 충청남북도의 지방재판소 검사국은 공주에 두고, 구재판소는 공주를 비롯한 10개지역에 설치하였다. 서산구재판소 검사국은 서산, 해미, 태안을, 먼천과 당진은 홍주구재판소 검사국이 관할하도록 하였다.

1912년에는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의 개정으로 종래 고등법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 등 4단계로 편제되어 있던 재판소조직이 고등법원, 복심법원(覆審法院) 및 지방법원의 3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검사국도 3단계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구재판소와 지방재판소 지부가 통·폐합되어 지방법원 지청 검사분국으로 개편되게 되었다. 그후 19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선총독부 지방법원 지청의 명칭, 위치 및 사무취급지역”에 의하여 공주지방법원 검사국 산하에 7개의 지방법원지청 검사분국이 설치되면서 종래 홍주구재판소 검사국에서 관할하던 당진지역이 공주지방법원 지청의 관할구역에 편입되었다. 현재의 서산지청의 관할구역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 바로 이때였다. 다만 당시 서산지청 검사분국에는 편제대로 검사가 임명되지는 아니하였다. 오늘날의 경찰서장에 해당되는 총독부 경부(警部)가 오전에는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검사사무취급(檢事事務取扱)으로서 검찰업무를 대행하는 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서산지청이 대전지방검찰청의 관할하에 편제되게 된 것은 충청남북도의 지방법원소재지가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겨진 1938년 7월 1일이었다. 이때부터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은 대전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명칭과 위치가 변경되고, 서산지청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청 검사분국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일제 말기인 1944년 말 현재 1개의 고등법원 검사국, 3개의 복심법원 검사국, 11개의 지방법원 검사국, 48개의 지방법원지청 검사분국이 설치되었다.

(2) 해방이후

해방이후 미군정시대에는 1948년 5월 4일과 8월 2일에 각각 공포된 법원조직법(군정법령 제192호)과 검찰청법(군정법령 제 213호)에 의해 조직이 개편될 때까지 일제하 검찰제도가 그대로 존속되었다. 다만 1946년 12월 6일자 군정청 사법부의 명령에 따라 공소원은 고등심리원으로, 지방법원은 지방심리원으로 또한 대법원 검사국은 대검찰청으로, 공소원 검사국은 고등검찰청으로, 지방법원검사국은 지방검찰청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당청도 대전지방심리원 서산지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검사가 검찰관으로 직책명이 바뀌고, 명칭이 변경된 것일뿐 실질적인 조직과 편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1948년의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당시 검찰조직은 대법원검사국이 정점에 있고, 경성과 대구에 공소원(控訴院)검사국이 있었다. 경성공소원검사국 산하에는 경성, 대전, 청주, 춘천지방법원검사국이, 대구공소원 검사국 산하에는 부산, 광주, 전주, 제주지방법원 검사국이 있었다. 서산지청 검사분국은 공주, 강경, 홍성, 천안지청 검사분국과 함께 대전지방법원 검사국의 산하에 있었다.

1949년 12월 20일에 공포된 검찰청법(법률 제81호)은 민선입법기관에서 제정된 최초의 검찰조직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 법률은 부분적인 개정을 제외하고는 군정당시의 기본적인 검찰조직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이에 따르면 검찰기관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나누고, 지방법원지원설치지역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1954년 3월 17일에는 정읍지청 및 안동지청과 함께 홍성지청이 합의지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이때부터 서산지청의 합의부사건은 홍성으로 이관되었다. 1956년 10월 23일에는 검사의 정원을 법률로 정한 검사정원법이 공포되었는데 대전지방검찰청은 검사장 1명, 차장검사 1명과 검사 5명으로, 서산지청은 지청장 1명만을 두도록 정해졌다.

이러한 서산지청의 1인검사체제는 제3공화국 시대에 들어서 1962년 6월 12일 검사정원법시행령(각령 제804호)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편제정원에 따라 실제 서산지청에 지청장외에 검사 1명이 추가배치된 것은 1966년 11월에 가사였다. 1970년 12월 31일의 개정검찰청법(법률 제2252호)은 국가를 당사자 혹은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및 감독권한을 검사의 직무권한에 포함시켰고, 지방검찰청지청에도 부(部)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이때이다.

제4공화국시대에는 검찰청법은 검찰사무기구에 관한 전면적인 개정(1973년 1월 25일)을 비롯하여 14번 개정되었으나 검찰조직과 제도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5공화국때는 4번에 걸쳐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는데 우선 주목되는 것은 1981년 4월 13일의 개정이다(법률 제3430호).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고등검찰관, 검찰관 등 다섯직급으로 나누고 각각의 보임직급을 규정하였다. 또한 검사장 이상을 대상으로 직급정년제를 도입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설치근거규정을 두었다. 또한 1981년 12월 31일 개정된 검찰청법(법률 제3683호)에 따르면 단독지청장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지방검찰청 및 지청검사를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할 수 있게 되었다.

서산지청이 합의지청으로 승격된 것은 1986년 9월 1일 부터였다. 1985년 12월 31일 법률 제3801호로 각급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단독지원이던 서산지원이 여주, 영월, 충무 및 해남지원과 함께 합의지원으로 승격되면서 서산지청도 그에 대응해서 합의지청으로 승격되었다. 1962년 이래 지청장외에 1명의 검사가 배치되어 오던 서산지청에 검사 1명이 증원편제된 것은 1981년 4월 1일 개정된 검사정원법시행령에 의해서였다(대통령령 제11090호). 그러나 지청장외에 검사 2명이 실제 배치된 것은 1986년 5월 5일이었다. 그후 지청장외의 검사정원이 3명으로 증원된 것은 1993년 3월 23일이었고(검사정원법시행령개정, 대통령령 13788호), 1996년 3월 1일에 4명으로 증원되어 4호검사실이 신설되었다. 현재는 1997년 2월 24일의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15285호)에 의해 지청장외에 정원 5명으로 편제되어 검사정원이 총 6명으로 되어 있으나, 1997년 8월 지청장을 포함하여 현재 5명만이 배치되어 있다.

2) 관할구역

서산지청은 서산시와 태안 및 당진군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관할구역내의 인구는 1997년 현재 341,265명이고, 면적은 전국토의 1.7%, 충남지역의 22%에 해당되는 충남서부지역의 1,895km²이다. 관할관서에는 서산, 당진경찰서와 태안해양경찰서가 있고, 기타 천안세관, 노동부 천안, 보령지방사무소 등이 지청관할에 포함된다.

3) 조직 및 시설현황

서산지청은 4개의 검사실과 사무과 및 수사과로 조직되어 있다. 검사는 지청장을 포함하여 6명이 정원이나 현원은 5명이고, 일반직은 정원 46명에 현원은 45명이다.

청사는 1972년 4월 19일에 준공되고 1986년 말에 증개축된 것으로 1997년 8월 현재 대지 853평에, 건평 462평, 총 6개동으로 되어 있다. 구치감은 1986년 증축된 것으로 그 면적은 40.54평이고, 5개의 방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세식화장실과 스팀난방시설을 갖추고 있다.

1986년에 증개축되어 사용되어 온 현 청사는 그간의 업무증가에 따른 공간수요의 증대로 수용능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인 바, 현재 신청사건립계획이 수립·집행중에 있다. 이미 1996년 8월에 서산시 예천동 일대 약 8천평이 청사부지로 확정되었고, 1997년 4월 1일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졌다. 1997년 8월 25일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여 97년 10월24일 토지수용결정을 한 상태이다.

또한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소건립이 계획중에 있다. 1997년 2월에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 일대의 2만 3천여평을 부지로 매입하였고, 1997년 8월 현재 법무부에서 건축기본설계도면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다. 건평 약 3,800여평에 수용인원 350명 규모로 1999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4) 업무처리현황

대체로 범죄가 점증하고 있는 전국적인 경향은 서산지청관할구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중반까지 예컨대 산림법이나 병역법위반 혹은 도박사건등이 정치·경제·사회적인 여건이나 정책 혹은 단속의지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는다든지, 밀수가 성행하던 1960년대 까지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 혹은 1980년대 초반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사건이 급증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1970년대 이후 부터는 간헐적으로 약간의 증감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접수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지

난 20년간 통계를 비교해 보면 1976년에 접수된 사건수는 3,505건이었는데, 1986년에는 5,549건이었고, 1995년 이후 10,000건을 상회해서 1996년에는 12,118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래에는 전체 접수사건중 교통범죄사건의 점유율이 48.6%로 전국의 27.6%에 비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 접수현황

구 분	1995년도	1996년도	대비
사 건 수	11,019	12,118	+ 10.0%
전체인원	14,089	15,034	+ 6.7%
구 속 자	1,068	1,105	+ 3.5%

〈표〉 처리현황(괄호안 숫자는 점유비율)

구 분	구공판	구약식	무혐의	가 소 유 예	기 소 중 지	기 타	소년부 송 치	이 송	미 제
1995년도	1,304 (9.4)	7,392 (53.1)	902 (6.4)	982 (7.1)	902 (7.1)	1,954 (14.1)	48 (0.3)	383 (2.8)	285 (2.1)
1996년도	1,280 (8.6)	7,162 (48.2)	948 (6.4)	2,573 (17.3)	775 (5.2)	1,814 (12.2)	10 (0.1)	289 (1.9)	183 (1.2)

〈표〉 죄명별분포

죄 명	인 원 수	점 유 율 (%)	
		1996년	1995년
도로교통법	4,798	31.9	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561	16.7	16.5
폭력	1,798	12.0	13.7
사기	1,335	8.9	9.1
절도	405	2.7	2.9
도박·복표	366	2.4	3.0
식품위생법	325	2.2	2.3
횡령·배임	217	1.4	1.5
향토예비군설치법	156	1.0	1.4
부정수표단속법	131	0.9	0.8

또한 공단설치 등 대단위개발사업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전반적

으로 향락적인 분위기가 조장되는 등 지역분위기가 해이해지면서 충동적인 강력범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 청소년범죄,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현상은 본시의 경우에도 그 예외가 아닌바, 서산지청에서는 검찰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에 부응하여 1997년 9월 23일 하용득검사를 전담검사로 하여 운동추진본부를 발족시키고 학원폭력신고전용전화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청소년계몽·선도 및 폭력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1995년과 1996년도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과 죄명별 사건분포현황만을 비교, 정리해 본다.

5) 역대지청장 현황

정부 수립후 이제까지 1946년 이래 초대 성세호지청장으로 부터 1997년 8월 27일 까지 총 34대지청장이 역임하고, 현재는 1997년 8월 28일부터 오세현 지청장이 재임하고 있다. 역대 지청장중 가장 재임기간이 길었던 지청장은 제 10대 홍순욱 지청장으로 1962년 4월 11일 1965년 10월 31일까지 약 3년 반을 재임하였다. 반면에 최단기간재임은 1954년 11월 9일부터 1957년 4월 21일 까지 약 2년 5개월동안 제 6대 지청장으로 재임한바 있었던 안승창 지청장이 12대 지청장으로 다시 부임하여 1968년 1월 1일부터 2월 24일 까지 불과 약 50일간 재임하였다. 그외에도 제 5대 이근수 지청장이 1954년 8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3개월 가량 단기간 재임하였고, 제 29대 이상형, 제 30대 양동철 지청장 및 제 8대 김창희 지청장 등이 각각 비교적 단기간인 6개월, 9개월간 재임하였다.

〈표〉 역대 서산지청장 명단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부 터	까 지	기 간	
초대	성세호	1946.	1948.	2년	단독지청
제2대	황옥주	1949.	1950.	2년	
제3대	이영직	1951.	1952.	2년	
제4대	이관제	1953.	1954.	1년	
제5대	이근수	1954. 8. 11	1954. 11. 8	3월	
제6대	안승창	1954. 11. 9	1957. 4. 21	2년 5월	
제7대	김낙현	1957. 4. 22	1959. 9. 30	2년 5월	
제8대	김창희	1959. 10. 1	1960. 6. 28	9월	
제9대	김여화	1960. 6. 29	1962. 4. 10	2년 10월	
제10대	홍순욱	1962. 4. 11	1965. 10. 31	3년 6월	
제11대	신형조	1965. 11. 1	1967. 12. 31	2년 2월	

〈표〉 역대 서산지청장 명단 (계속)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부 터	까 지	기 간	
제12대	안승창	1968. 1. 1	1968. 2. 24	2월	
제13대	김진석	1968. 4. 1	1970. 9. 30	2년 6월	
제14대	조승형	1970. 10. 1	1972. 4. 11	"	
제15대	송학상	1972. 4. 12	1974. 8. 31	2년 5월	
제16대	박준	1974. 9. 1	1975. 9. 30	1년	
제17대	홍순상	1975. 10. 1	1978. 2. 10	2년 4월	
제18대	김용환	1978. 2. 11	1980. 8. 6	2년 6월	
제19대	홍순상	1980. 8. 7	1981. 4. 29	9월	
제20대	한광수	1981. 4. 30	1982. 8. 15	1년 3월	
제21대	박주환	1982. 8. 16	1983. 8. 16	1년	
제22대	김영철	1983. 8. 17	1985. 3. 11	1년 6월	
제23대	한부환	1985. 3. 12	1986. 5. 5	1년 2월	합의지청 승격
제24대	유창중	1986. 5. 6	1987. 6. 14	1년 1월	2호검사실 신설 (1986년 5월 5일)
제25대	이정수	1987. 6. 15	1989. 3. 6	1년 8월	
제26대	김상희	1989. 3. 7	1990. 11. 5	1년 8월	
제27대	조창구	1990. 11. 10	1991. 7. 31	8월	
제28대	이병기	1991. 8. 1	1992. 8. 5	1년	
제29대	이상형	1992. 8. 6	1993. 3. 22	6월	
제30대	양동철	1993. 3. 23	1993. 9. 23	6월	3호검사실 신설 (1993년 3월 23일)
제31대	함승희	1993. 9. 24	1994. 9. 22	1년	
제32대	김상봉	1994. 9. 23	1995. 9. 22	1년	
제33대	김종남	1995. 9. 23	1997. 2. 28	1년 5월	4호검사실 신설 (1996년 3월 1일)
제34대	김 용	1997. 3. 1	1997. 8. 26	6월	
제35대	오세현	1997. 8. 27	현 재		

그외의 지청장들의 재임기간은 대부분 1년에서 2년 6개월 정도로 인사사정에 따라 일정치 않다. 다만 제 9대 김여화 지청장에서 제 15대 송학상 지청장까지 1960

년대와 1970년대 초까지의 기간동안은 두 번째 재임한 안승창 지청장을 제외하고는 최소한 2년이상 재임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 와서는 제 33대 김종남 지청장외에는 제 29대, 30대, 34대 지청장이 6개월간 재임하는 등 1년이내의 비교적 단기간 재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 6대와 12대 지청장을 역임했던 안승창지청장과 1975년 10월 1일부터 1978년 2월 10일까지, 1980년 8월 7일부터 1981년 4월 29일까지 각각 약 2년 4개월, 9개월간 제 17, 19대 지청장을 역임한바 있는 홍순상 지청장이 두차례에 걸쳐서 서산지청장으로 재임하는 특이한 기록이 남아 있다.

6) 범죄예방자원봉사 서산지역협의회

현재 서산지청에는 범죄예방과 상담 및 보호관찰 기타 검찰업무의 지원을 위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전에는 1983년 7월에 조직된 갯생보호위원회, 1981년 2월과 1987년 2월에 각각 설치된 소년선도위원회와 의료자문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서산과 당진지구에 2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6년 8월에 이를 범죄예방자원봉사서산지역협의회로 통합·확대 개편하였다.



〈사진〉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발대식

협의회는 각 분과위원회위원장 5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임원진과 위원장인 지청장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범죄예방지도협의회 및 8명으로 구성되는 고문회의를 두고 있고, 그 산하에는 급증하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민관협조체제의 일환으로 설치된 학교폭력예방지도 분과위원회(총 43명)를 비롯해서 상담지도 분과위원회(총 53명), 보호관찰분과 위원회(총 41명), 취업알선재정지원분과위원회(총 48명), 의료지원 분과위원회(10명) 등의 5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1997년 7월 1일부로 위촉·구성된 임원진과 지도협의회 및 고문회의위원과 임기 3년인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은 다음 별표와 같다. (학교폭력예방지도분과위원회와 상담지도분과위원회명단은 미정)

〈표〉 범죄예방자원봉사 서산지역협의회 임원명단

성명	생년월일	직업	비고
강 춘 식	1946. 11. 5	서산축협조합장	회 장
이 인 성	1934. 11. 1	소원양조장 대표	부 회 장
최 은 범	1947. 7. 1	당진축협조합장	"
조 영 호	1943. 5. 2	LG 패션	"
박 상 환	1949. 4. 7	삼성약국	"
한 봉 주	1955. 5. 10	한정형외과	"
박 기 성	1945. 7. 12	현대목욕탕대표	감 사
임 광 철	1951. 1. 20	(주)조광에너지대표	간 사

〈표〉 범죄예방지도협의회

성명	생년월일	직업	비고
오 세 현	-	지청장	위원장
김 세 규	1930. 12. 1	웨밀리볼링장	부위원장
하 용 득	-	1호 검사	위원
김 동 섭	-	사무과장	"
이 정 호	1933. 7. 30	서산교육청행정자문위원	"
송 영 국	1932. 4. 23	현대예식장	"
성 태 영	-	안면양조장	"
육 이 창	1943. 7. 7	호서건축대표	"
강 춘 식	1946. 11. 5	서산축협조합장	"

〈표〉 범죄예방자원봉사 서산지역협의회 고문회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비고
성 태 영	-	안면양조장	회 장
김 상 현	-	평통당진협의회장	위 원
김 언 석	-	동양카드코	"

〈표〉 범죄예방자원봉사 서산지역협의회 고문회의(계속)

성명	생년월일	직업	비고
이인준	-	서산관광고문	"
최윤식	-	법무사	"
김득환	-	(주)대호레미콘대표	"
이화영	-	태안양조장	감사
윤주옥	-	태안단협조합장	간사

〈표〉 보호관찰분과위원회(총 41명)

성명	생년월일	직업	비고
조영호	1943. 5. 2	LG패션	위원장
표공신	1935. 11. 9	세무회계업	부위원장
이종훈	1936. 11. 13	농협조합장	"
김덕섭	1942. 7. 1	농협조합장	"
강원식	1934. 2. 21	가로상회	감사
이종목	1950. 5. 28	원예농협전무	간사
고규만	1933. 1. 27	농업	위원
구자상	1944. 4. 30	상업	"
안근혁	1940. 11. 7	서산농협이사	"
이영배	1931. 11. 10	상업	"
조재홍	1940. 4. 20	농업	"
채수철	1940. 5. 10	농업	"
김병수	1949. 11. 14	상업	"
김완유	1961. 3. 17	가야고교사	"
김희동	1962. 1. 5	목사	위원
성기문	1947. 2. 16	대영택시	"
이만선	1955. 11. 23	회사원	"
이선웅	1941. 7. 20	목사	"
이필주	1949. 3. 5	상업	"
최재식	1946. 1. 8	이리오서점	"
한인석	1943. 2. 27	양축업	"
가기철	1942. 9. 20	음식업조합장	"
김기창	1932. 11. 7	주유소	"
김광모	1946. 8. 31	농협조합장	"
김덕배	1936. 4. 2	악곡	"
문제승	1933. 6. 2	수협이사	"
박경부	1942. 6. 10	상업	"
설래영	1933. 12. 2	농업	"
임상직	1957. 11. 5	회사원	"
정지근	1947. 2. 27	상업	"

〈표〉 보호관찰분과위원회(총 41명) (계속)

성명	생년월일	직업	비고
최운규	1958. 7. 14	공무원	"
권혁화	1955. 2. 10	건축업	"
배동규	1955. 8. 1	바르크가구	"
정수도	1945. 1. 1	수도회관	"
조영일	1947. 6. 2	요식업	"
윤준수	1942. 6. 25	서산건설	"
이철수	1949. 8. 15	서령버스전무	"
김진희	1939. 4. 25	우두감리교회목사	"
박종민	1946. 10. 10	삼환신탁	"
조만상	1959. 6. 6	상업	"
임남재	1954. 7. 10	동원수산	"

〈표〉 의료지원분과위원회(총 10명)

성명	생년월일	직업	직업
한봉주	1950. 5. 10	한정형외과	위원장
정구열	1952. 2. 3	자모산부인과	부위원장
강경식	1941. 8. 20	유화약국	감사
한봉헌	1950. 5. 27	한내과	간사
김경선	1938. 12. 20	성모의원	위원
김세영	1943. 2. 26	서울약국	"
이상구	1947. 5. 17	상구약국	"
하재철	1933. 2. 28	하산부인과	위원
신장철	1959. 5. 8	반도정형외과원장	"
하홍근	1954. 9. 15	한내과의원	"

〈표〉 취업알선·재정분과위원회

성명	생년월일	직업	비고
박상환	1949. 1. 7	삼성약국	위원
이문수	1952. 3. 12	배아산업	"
김재도	1949. 9. 14	당진농지개발조합전무	"
이상국	1953. 8. 21	태영보령기공사대표	"
김영준	1952. 12. 18	서해주류판매전무이사	"
가주현	1962. 3. 15	대전엘리트교복대리점	"
김웅환	1942. 12. 14	서령새마을금고이사장	"
김영경	1957. 4. 25	대우전자 대산대리점	"
김익수	1933. 9. 15	서산상공회의소회장	"

〈표〉 취업알선·재정분과위원회 (계속)

성명	생년월일	직업	비고
김정환	1943. 1. 20	서동새마을금고이사장	위원
김종순	1956. 1. 24	애향자동차정비(주)대표	"
김종선	1939. 4. 15	대신정기화물대표	"
김종신	1945. 8. 15	아담농원	"
김해숙	1933. 6. 7	삼일빌딩	"
리진광	1961. 3. 25	행운종합화장품대리점	"
방인석	1950. 9. 2	서해골프	"
배영원	1934. 11. 20	부동산협회지회장	"
이갑준	1938. 8. 7	충남도의원	"
이복구	1945. 10. 17	충남도의원	"
이순자	1941. 3. 1	서산서점대표	"
정차정	1928. 11. 20	대한교육생명관리지소장	"
최옥용	1946. 2. 24	고북의용소방대장	"
홍순백	1952. 5. 23	우인건축사무소장	"
한승수	1954. 2. 2	한성주택대표	"
강금산	1936. 8. 17	운수업	"
박순신	1940. 10. 5	건설업	"
유위영	1932. 5. 17	유신상회	"
임형락	1937. 2. 9	축산업	"
호경기	1954. 1. 24	상호감리교회목사	"
가길로	1929. 5. 20	농업	"
가종인	1955. 1. 5	한진건재대표	"
가창열	1934. 4. 15	태청건설대표	"
김동민	1936. 7. 21	태안의료보험조합장	"
김미호	1960. 2. 16	상업	"
김순례	1949. 12. 13	상업	"
김창렬	1933. 12. 8	창성약방대표	"
박기곤	1945. 1. 4	상업	"
이만선	1949. 1. 10	태안군의원	"
이은귀	1935. 7. 10	반도신용협동조합장	"
최충의	1943. 3. 28	농업	"
한상국	1935. 9. 9	태안단위농협조합장	"
구본영	1948. 2. 13	민주평통위원	"
김길수	1936. 5. 5	서산건축사무소장	"
가명로	1945. 11. 12	농업	"
박용두	1954. 5. 12	부령약국	"
심재영	1949. 3. 24	반촌정미소	"
정문식	1943. 10. 1	농업	"
조영일	1947. 6. 8	요식업	"

제4절 서산시의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1. 특별행정기관

- 1) 서산교육청
- 2) 서산경찰서
- 3)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4) 서산소방서 및 의용소방대
- 5) 서산우체국
- 6) 법무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산출장소
- 7) 충청남도 농업통계사무소 서산출장소
- 8) 국립농산물검사소 충청남도지사 서산출장소
- 9) 기상청산하 서산기상대

2. 기타 공공기관

- 1) 서산시농업협동조합

- 2) 서산시 지역 농업협동조합
- 3) 서산수산업협동조합
- 4) 서산축산업협동조합
- 5) 서산임업협동조합
- 6) 서산원예농업협동조합
- 7) 서산농지개량조합
- 8) 서산시 의료보험조합
- 9) 서산양잠농업협동조합
- 10) 서산상공회의소
- 11)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한우개량부
- 12) 서산문화원
- 13) 지역 언론사
- 14) 한국전력공사 서산지점
- 15) 한국통신 서산전화국

(집필자 : 이준원)

제4절 서산시의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1. 서산시의 특별행정기관

1) 충청남도서산교육청

① 연혁

1952년 5월 24일 서산군교육구 초대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거에 이어 동년 6월 4일 서산교육위원회가 설치되는 동시에 서산교육구가 설정되어 사무를 개시하였다. 또한 동년 7월 28일 서산군청에서 농업협동조합 건물 청사로 대체이전하였으며, 8월 8일에는 초대 정성모 교육감이 취임하였다. 1953년 11월 6일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정미·대호지·조금)3개교를 당진교육구로 이전하였고, 1958년 7월 9일에는 구청사(농협건물)에서 서산읍 읍내리 491번지(구 도립병원) 건물로 이전하였다.

1962년 10월 3일에 구청사(도립병원 건물)에서 서산읍 읍내리 481-1번지(구 세무서건물)로 이전하였으며, 1963년 12월 1일에 서산교육연구소를 설치하였고, 1964년 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동년 1월 4일에 서산군교육청 개청식을 거행하였다.

1971년 12월 31일에는 연건평 92평 규모로 청사를 증축하였고, 1982년 11월 20일에는 서산군 읍내리 576-18번지 교육청 청사를 신축이전하였으며, 1989년 1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충청남도서산교육청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기구 및 인력

서산교육청의 기구는 교육장 이하 2과 7계, 2공공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학무과에는 초등교육계, 중등교육계, 사회교육계가 있으며, 관리과에는 서무계, 관리계, 경리계, 시설계가 있다. 교육장 이하 교육전문직 11명, 일반직 23명, 기능직 12명 등 총 46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진〉 서산시 학생종합예능 발표회

〈표〉 서산교육청 인력현황

구분	교 육 전문직	일 반 직					기 능 직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7등급	9등급	10등급	
정원(명)	11	1	4	14	4		1	6	5	46
현원(명)	11	1	4	9	5	4	1	6	5	46

초대 정성모 교육장(당시는 교육감)을 시작으로 현재는 류상동 교육장에 이르기까지 제17대에 걸쳐 16명의 교육장이 재직하였다.

〈표〉 역대 서산교육장

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1	정성모	52. 8. 8	56. 9.24	10	유종선	81. 3. 1	83. 2.28
2	남세원	56. 9.25	60.11.23	11	안일승	83. 3. 1	85. 8.31
3	박일래	60.11.24	63.12.31	12	김관희	85. 9. 1	89. 2.28
4	전시덕	64. 1. 1	67. 3. 1	13	배기호	89. 3. 1	92. 8.31
5	박일래	67. 3. 2	70. 7.19	14	정홍진	92. 9. 1	94. 2.28
6	홍맹선	70. 7.20	73. 1. 4	15	김광섭	94. 3. 1	95. 2.28
7	심재규	73. 1. 5	76. 8.31	16	이 무	95. 3. 1	97. 2.28
8	신영준	76. 9. 1	79. 2.28	17	류상동	97. 3. 1	현 재
9	권양원	79. 3. 1	81. 2.28	18			

③ 주요업무 및 활동

관내의 학교수는 유치원과 대학을 포함하여 99개교에 이르며 학생수는 32,447명이며, 사회교육기관은 212개소에 이르고 있다.

〈표〉 교육기관 현황

학 교			사 회 교 육 기 관		
구 분	학 교 수	학 생 수	구 분	기 관 수	학 생 수
유 치 원	45	2,152	학 원	168	7,123
초등학교	32	12,283			
중 학 교	14	6,915	교 습 소	37	439
고등학교	7	6,411			
대 학 교	1	4,686	독 서 실	7	159
계	99	32,447	계	212	7,721

서산시의 교육재정은 약 152억 3천만원 수준이며, 의존수입이 140억원이고, 자체수입은 12억 3천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세출측면을 보면 102억 5천만원이 학교운영에 소요되며, 시설비는 47억 2천만원, 교육행정비가 6억 6천만원정도 소요되고 있다.

서산시의 경우 다른 시·군과 달리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산공단 등 산업시설의 유치로 교육시설의 확충, 전입주민의 문화적 융화, 환경문제, 유흥시설의 증가에 따른 학생범죄의 증가 등 교육환경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서산시교육청은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통한 인성교육강화, 창의력을 기르는 새 학력관 정착, 교육정보화를 위한 교실개혁의 적극추진, 향토애를 제고하는 교육실천 강화, 수요자 존중의 열린교육 행정실현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특히 '서산인심' 함양교육, '교육정보자료실' 설치운영 등의 특수시책을 추진중이다.

2) 서산경찰서

(1) 서산경찰서

① 연혁

1914년 서산경찰서가 설치된 이래 1945년 8.15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시에 동부 13개면을 관할하는 제1구 경찰서와 서부 7개면을 관할하는 제15구 경찰서를 두었다가, 1948년 제1구 경찰서를 서산경찰서로, 제15구 경찰서를 태안경찰서로 개칭



〈사진〉

112순찰차 증편 발대식

하였다.

1956년 3월 16일에는 태안경찰서 관할구역을 서산경찰서 관할로 통합하였으며, 1957년 12월 16일에는 행정구역개편으로 정미·대호지면 등 2개면이 당진경찰서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었다. 1965년에는 274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였으며, 1968년에는 양대파출소를 읍내리로 이전하면서 서부파출소로 개칭하였고, 1973년 7월 1일에는 당진군 정미면 여미리가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로 편입되면서 서산경찰서의 관할구역에 들게 되었다. 1989년 서산시·군 및 태안군으로 분리되었지만 모두 서산경찰서의 관할구역으로 1995년 서산시·군통합이 이루어진 현재까지도 관할구역에는 변화가 없다.

② 조직

서산경찰서의 조직은 경찰서장 아래에 모두 6개 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부기관으로서 24개 파출소와 낙도출장소 4개소, 보안도서 2개소, 경찰초소 2개소가 있다.

본서에는 경무과·방법과·수사과·경비과·정보과·보안과 등 6개 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 과에 설치된 계를 살펴 보면, 경무과에는 경무계·경리계·통신계가 있으며, 방법과에는 방법계·방법지도계가 있고, 수사과에는 수사계·조사계·형사계가 있다. 또한 경비과에는 경비계·교통지도계·교통사고조사계가 있으며, 정보과에는 정보1계와 정보2계가 있고, 보안과에는 보안1계와 보안2계가 설치되어 있다.

③ 인력

〈표〉 서산경찰서 인력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1966	221	1	0	3	8	3	0	173
1969	210	1	1	4	14	30	31	125
1976	254	1	0	5	20	26	29	173
1979	268	1	1	4	21	26	35	180
1986	260	1	1	4	20	30	98	106
1990	244	1	1	5	21	33	97	86
1996	323	1	2	5	22	39	117	137

〈표〉 역대 서산경찰서장

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대	성 명	취 임 일	이 임 일
1	이주삼	45. 8.20	45.11.23	24	함윤해	61. 8. 6	61.12.20
2	박유진	45.11.12	46. 4. 1	25	송제근	61.12.20	63. 6.26
3	이근창	46. 4. 3	46. 9.28	26	김보찬	63. 6.26	63.10.29
4	정광문	46. 9.29	47. 3. 7	27	김정호	63.10.29	65.11. 9
5	서점순	47. 3.31	48. 9.20	28	한해동	65.11. 9	67.10.27
6	홍인출	48. 9.21	49. 2. 7	29	김태수	67.10.27	69. 1.16
7	김용덕	49. 2. 7	50. 5. 8	30	박병찬	69. 1.16	71. 8.16
8	주신곤	50. 5. 8	50.12.29	31	이석중	71. 8.16	73. 1.10
9	정광문	50.12.29	51. 2. 8	32	김태중	73. 1.10	74.12.13
10	김종걸	51. 2. 8	53.10.31	33	김진국	74.12.13	76. 4.10
11	김갑용	53.10.31	53.12.21	34	윤창원	76. 4.10	79. 2.20
12	우상덕	53.12.21	54. 4.10	35	유재선	79. 2.20	81. 6.22
13	정동섭	54. 4.19	55. 8.23	36	서정연	81. 6.22	82.12.27
14	조원승	55. 8.23	56. 3.24	37	송성학	82.12.27	84. 7.19
15	김선호	56. 3.24	57. 7.10	38	설병선	84. 7.19	86. 7.28
16	심의락	57. 7.10	58. 1.23	39	김기왕	86. 7.28	88. 6. 3
17	서석래	58. 1.23	58. 9.20	40	박범재	88. 6. 3	90. 9. 3
18	심의락	58. 9.20	60. 5.14	41	이상덕	90. 9. 3	92. 7.29
19	송영진	60. 5.14	60. 7.31	42	조남석	92. 7.29	93.11. 7
20	이화복	60. 7.31	60. 9.26	43	박병규	93.11. 7	95. 7.12
21	신원식	60. 9.26	61. 2. 6	44	이강연	95. 7.12	97. 1.10
22	김영준	61. 2. 6	61. 6.25	45	이상필	97. 1.10	현 재
23	배달이	61. 6.25	61. 8. 6				

경찰서장의 직급은 총경이며, 각 과장은 경정 및 경감으로 보해진다. 특히 경무

과장은 경정으로 보해지는 것이 관행이며, 계장 및 파출소장은 경위 및 경사로 보해지고 있다. 서산경찰서의 직급별 인력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산경찰서의 인력은 일반행정기관이 급성장한 데 비해 인력규모와 구조에 있어서 성장이 매우 또한 안정적이다. 특히 간부직은 인원이나 인력구조면에서 20년전과 크게 다를바 없다. 과거와 다른 점은 하위직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과 하위직의 구성에 있어서 경장과 순경의 비율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역대 서산경찰서장을 살펴보면, 초대 이주삼서장을 시작으로 현재 이상필 서장까지 45대에 걸쳐 43명의 서장이 역임하였다. 가장 장기간 재임한 서장은 제34대 윤창원 서장이 36개월간 재직하였으며, 가장 짧게 근무한 서장은 제23대 배달이 서장으로 2개월미만을 재직하였다. 또한 4대 정광문 서장과 제16대 심의락 서장은 두 번 재임하기도 했다.

(2) 중부파출소

1914년 서산경찰서가 설치된 후 직할로서 관내치안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1937년 양대파출소의 출범으로 관할내에 있던 5개리를 이관하였으며, 1956년 9월 24일에는 읍내파출소로 개칭하였다. 1960년 7월 22일에는 서산읍 동문리 986번지에 건평 30평규모의 청사로 이전하였고, 1964년 10월 9일에는 국고보조 10만원과 지방유지 김정황 등 4명이 25만원을 협조하여 서산시 동문동 913-11의 현청사로 이전하게 되었다.

1968년에는 서부파출소의 설치와 함께 동부파출소로 개칭되었고, 1973년 7월 1일의 행정구역개편으로 읍암면 수석리 1·2·3·4구가 읍으로 편입됨에 따라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1989년 1월 26일에는 동부파출소가 개소되면서 중부파출소로 개칭되었고, 동문동 일부와 온석동·잠흥동·수석동과 석림동 일부가 동부파출소 관할로 이관되었으며, 1992년 11월 13일에는 현재 위치에 40여평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하였다.

현재 인력을 보면, 파출소장 경위 1명을 비롯하여 경사 2명, 경장 1명, 순경 9명이 근무 중이며, 97년 상반기만 해도 총 251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300명을 검거하였으며, 관내 각종 범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3) 읍내동파출소

1937년 4월 17일 서산군 서산읍 죽성리 산22번지에 국비로 대지 100평을 구입 건평25평의 지서를 개축하여 죽성, 양대, 오남, 장리, 덕지천리 등 5개리를 관할하는 본서 직할의 양대파출소로 발족하였다. 그러나 1945년 해방후 인지지서가 복구

되자 당파출소가 폐지되었다가 1954년 5월 20일에 충청남도 규칙에 의거 양대경찰관파출소로 다시 발족하였다.

1968년 10월 30일에는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141-2번지 서산군 소유 대지 109평을 임대 건평 21.88평 단층 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면서 서부파출소로 개칭되었으며,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지면 갈산리가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었다. 1989년 서산시의 출범에 따라 석남동이 중부파출소 관할구역으로 이전되었으며, 1992년 7월 18일에는 충청남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정 중 개정규정 하달에 의거 서산경찰서 서부파출소를 읍내동파출소로 개칭하였다.

인력은 파출소장 경위 1명을 비롯하여 부소장 경사 1명, 경장 1명, 그리고 순경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6년에는 절도사건 33건 발생에 37명검거, 폭력사건 15건발생에 23명을 검거하였으며, 기타형사범 133건 발생에 133명을 검거하였으며, 이밖에도 경범 133건, 교통단속 1,571건 등을 처리하였다.

(4) 동문동파출소

1989년 1월 27일 서산시의 발족과 함께 동부파출소로 개소하여 1992년 8월 1일에 동문동파출소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파출소장인 경위 1명을 비롯하여 경사 1명, 경장 2명, 순경 9명 등 총13명이 근무하고 있다.

(5) 대산파출소

대산파출소는 1945년 10월 21일에 대산지서로 발족하였으며, 1971년에 대로리·기은·대죽·독곶·화곡이 신설된 명지지서로 이관되었고, 1991년 12월 1일에 대산파출소로 개칭되었다. 1993년 3월 25일에는 현재의 청사로 신축이전하였다. 파출소장 경위 1명 이하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6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내치안업무 교통질서확립에 힘쓰고 있다.

(6) 명지파출소

1971년 9월 11일 대로지서로 창설되어, 1972년 4월 28일에 명지지서로 개칭되었고, 1991년 12월 1일에는 명지파출소로 승격되었다. 현재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5명 등 총6명이 근무하면서 관내치안업무와 교통질서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7) 인지파출소

1927년에 인지지서가 발족 한 이래 1994년 11월 29일에 현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1995년 인지파출소로 개칭되었다. 현재 파출소장 경사1명, 경장 1명, 순경 3

명 등 총5명이 근무하고 있다.

(8) 부석파출소

1914년 11월 1일 부석면 창리에 서산경찰서 부석경찰관파출소로 발족하여, 1922년 11월 5일에 취평리 368번지로 이전하였다. 1945년에는 부석지서로 개칭되었으며, 1981년 5월 15일에는 구청사를 철거하고 현재의 2층건물을 축조하였다. 또한 1994년에는 부석지서 관사를 신축하였고, 1995년 1월 1일자로 통합서산시의 발족과 함께 부석파출소로 변경되었다.

파출소장 경위1명, 이하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3명등 총 6명이 근무 중이다.

(9) 팔봉파출소

1914년 팔봉면 호리에 구도주재소가 개설된 이래 1953년 12월 7일에는 팔봉지서로 개칭되었고, 1955년 9월의 간첩침투사건 후 어송리 김진복씨의 협조로 어송검문소를 설치하였다. 1958년 9월 22일에는 안돈원씨 소유의 토지를 기부받아 팔봉면 어송리로 청사를 이전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자로 팔봉파출소로 개칭되었다.

팔봉파출소 내에 어송경찰초소와 고파도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파출소장 경사1명 이 외에도 경장 1명, 순경 3명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다. 96년도 활동실적을 보면,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사건은 거의 없으며 절도 및 폭력사건 등 194건을 처리하였다.

(10) 지곡파출소

1933년 9월 15일에 청사를 신축하여 일본경찰 2명이 근무하는 지곡주재소가 설치된 이래 해방과 더불어 동년 10월 21일에 서산경찰서 지곡지서로 개칭되었다. 1987년 12월 11일에는 구청사를 허물고 대지 114평에 건평44평의 2층건물로 신축하였고, 1995년 1월 1일자로 지곡파출소로 개칭되었다.

직원은 파출소장인 경사 1명을 비롯하여 부소장인 경장 1명, 그리고 순경 3명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범죄예방 및 단속으로 민생치안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지도 또는 각계 각층의 여론 수집 민원의 청취 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1) 성연파출소

1914년 성연면 명천리에 경찰관주재소가 설치된 이래 1948년 성연지서로 개칭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1965년 9월 20일 성연면 평리298번지로 이소하였고,

1989년 12월 15일에 청사를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후 1995년 1월 1일자로 성연파출소로 개칭하였다.

파출소장 경사 1명을 비롯하여 부소장 경장 1명과 순경 3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형사범 70여건과 경범 900여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내 9개리 21개 마을에 대해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12) 음암파출소

1914년 음암경찰관주재소로 개설되었으며, 1936년 3월에 음암면 도당리 1340번지에 유택호씨의 협조로 청사를 신축하였다. 해방과 함께 음암지서로 개칭되었으며, 1973년 7월 1일자로 수석리 3개 구가 동문동파출소로 이관되어 10개리 27개 구를 관할하게 되었다. 1988년 4월에는 청사가 노후되어 철거하였고, 1989년 8월 10일에 44평규모로 신축하였다. 1995년에는 통합서산시의 발족과 함께 음암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4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다.

(13) 운산파출소

1916년 8월 20일 서산군 운산면 용장리 378번지에 목조건물 24평을 신축하여 서산경찰서 운산주재소로 발족되었다. 그후 1940년 3월 6일 동면 용장리 428-5번지에 대지 394평 건평 74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이전하였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운산지서로 개칭되었다. 1951년에는 운산면 거성리에 거성출장소를 신설하고 신창리와 거성리를 관할로 책정하였으나 1956년에 거성출장소를 폐지하고 운산지서에 편입시켰다.

1973년 7월 1일에는 당진군 정미면 여미리가 운산면으로 편입되면서 19개리 29개 구를 관할하게 되었다. 1974년 9월 18일에는 용장리 윤장구씨의 기부로 용장리 428-8번지 약 220평규모의 대지로 이전하였으며, 1986년에는 동 대지에 청사 41평, 관사 15평을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5년 1월 27일에는 경찰관서 명칭 단일화 방침에 의거하여 서산경찰서 운산지서에서 서산경찰서 운산파출소로 개칭하였다.

직원은 파출소장 경사 1명을 비롯하여 경장 2명, 순경 3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다.

(14) 해미파출소

해미파출소는 1917년 서산군 해미면 읍내리 274-2번지에 서산경찰서 해미주재소로 설립되었다. 그후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서산경찰서 해미지서로 개칭되었으

며, 1950년 10월 한국전쟁 중에 청사가 폭파되어 부근에 있는 양조장 부속건물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1957년 10월에 총공사비 25만원을 들여 해미면 읍내리369-1번지에 신축이전하였으며, 1991년 12월 5일에 해미면 황락리 419-1번지에 대지 154평에 건평 15평의 청사를 신축이전하였다. 1995년 시·군통폐합에 따라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직원은 소장 경위 1명을 비롯하여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6명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요활동을 보면, 형사범 134건에 160여명을 조치하였고, 교통관련 558건을 처리하였으며, 기초질서확립을 위해 192건을 처리하였다.

(15) 고북파출소

1926년 10월 25일에 고북면 경찰관주재소가 설치된 이래 해방과 더불어 고북지서로 개칭되었고, 1985년 6월 24일에는 지방비 2,600만원으로 청사를 신축하였다. 1995년에 고북파출소로 개칭되었다. 파출소장인 경사1명과 부소장 경장 1명, 순경 4명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다.

3)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①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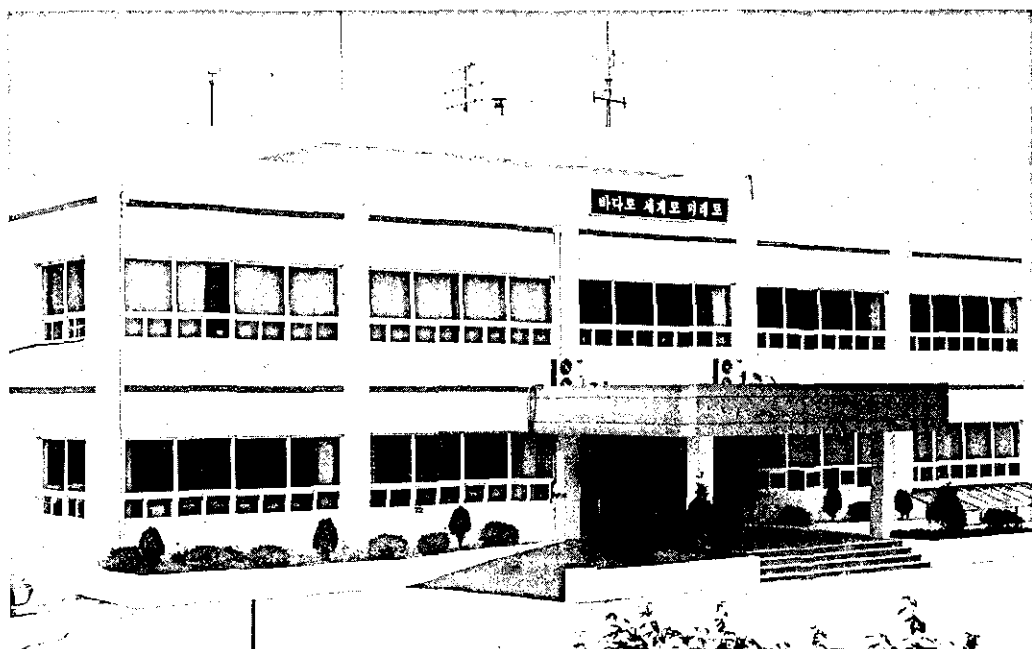
1991년 10월 14일에 대산항이 개항되면서 1992년 2월 13일자로 해운항만청 군산지방해운항만청 대산출장소로 출범하였다가 1996년 4월 16일 해운항만청 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 승격되었고, 동년 8월 8일 해양수산부의 발족과 함께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 개칭되었으며, 1997년 5월 24일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칭되었다.

② 기구 및 인력

청장 이하 총무과·해무과·항무과·항만공사과·어촌지도과 등 5과와 보령어촌지도소로 구성되어 있다. 초대 청장은 4급 박정천 청장(96. 4. 15 - 97. 1. 8)이며, 현재 송예용 청장은 제2대 청장으로 97년 1월 8일부터 재직하고 있다. 현재 인력을 보면, 4급 청장 1명을 비롯하여 5급 4명, 어촌지도관 2명, 6급 11명, 어촌지도사 17명, 7급 16명, 8·9급 11명, 기능직 3명 등 총 95명이 근무하고 있다.

③ 주요활동

주요 업무는 해상운송사업의 지도감독, 선원행정 및 선원근로감독, 항로표지시설 업무의 관리 및 지도 등 해운에 관한 업무와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항만운송사



〈사진〉 해양수산청

업의 지도감독, 개항질서 유지 및 항만보안, 공유수면 관리 등 항만운영에 관한 업무, 항만공사의 조사, 설계 및 시공감독,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등 항만건설에 관한 업무, 경쟁력있는 실용기술 보급, 어업인 교육 및 어업경영지도, 어촌후계 인력육성 등 어촌지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주요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건설사업으로 대산항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총사업비 2,310억원 규모의 안면축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2,307억원 규모의 보령항 접안시설공사와 2001년 완공목표로 682억원 규모의 대천항 공사, 2000년 완공예정인 134억원 규모의 비인항 공사 등이 진행중이다.

둘째, 어항건설사업으로 232억원 규모의 모항항 공사가 200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이며, 이밖에도 흥원항, 오천항, 안흥항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셋째, 어촌지도 및 수산통계업무로 주요품종 양식기술 적기보급, 어장관리, 양식 어장 환경 개선지도 등 살기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각종 지도업무와 정확한 통계 정보수집과 이를 통한 업무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산통계처리 시스템(TTS)의 조기구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넷째, 해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통한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위험물 안전관리 철저로 항내 안전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며, 해양오염방지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순찰선 건조 운영, V. T. S 설



〈사진〉 소방서 활동

치계획, PORT-MIS 운영, 청항선 건조 추진, 해안의 각종 오물수거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4) 서산소방서 및 의용소방대

(1) 서산소방서

① 연혁

1990년 3월 16일자로 서산시·군, 당진군, 태안군을 관할하는 서산소방서와 예천파출소가 설치되었으며, 동년 4월 6일에는 당진파출소를 개소하였다. 1992년 9월 4일에는 대산파출소가, 1994년 5월 26일에는 태안파출소가, 1995년 12월 5일에는 합덕파출소를 각각 개소하였고, 1996년 11월 19일에는 119구조대를 발족하였다.

〈표〉 서산소방서 관할구역

구 역	면적(km ²)	인구(명)	세대(가구)
계	1,755.64	338,364	99,920
서 산 시	636.60	145,591	43,489
당 진 군	615.78	122,182	35,469
태 안 군	503.26	70,591	20,962

발족 당시의 관할구역은 서산시·군과 당진군, 태안군 등 1시 3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재는 서산시를 비롯한 당진군과 태안군 등 1시 2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총면적 1,756km²에 99,920세대 338,364명을 관할하고 있다.

② 기구 및 인력

본서의 기구는 2과 5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소방과에는 소방계와 장비계가 있고, 방호과에는 방호계, 예방계, 구조구급계가 있고, 직속으로 119구조대가 있다. 또한 하부기관으로서 5개 파출소와 26개 대기소가 설치되어 있다. 예천파출소에는 8개 대기소가 있으며, 당진파출소에는 5개 대기소, 대산파출소에는 1개 대기소, 태안파출소에는 7개 대기소, 합덕파출소에는 5개 대기소가 있다.

역대 서산소방서장을 보면, 초대 정희철 서장이 90년 3월 16일부터 92년 4월 30일까지 재직한 것을 시작으로 제2대 김병목(92. 5. 1 - 93. 4. 6), 제3대 남상호(93. 4. 7 - 95. 5. 23), 제4대 강대웅(95. 5. 24 - 97. 4. 23) 서장이 재직하였으며, 제5대 이상의 (97. 4. 24 - 12. 14)현재 6대 김관범서장이 97년 12월 15일부터 재직하고 있다. 직급별 인원을 보면, 서장인 소방정 1명을 비롯하여 소방사 130명에 이르기 까지 총 220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서산소방서 인력현황

구 분	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인원(명)	220	1	2	5	8	16	58	130

③ 주요활동

소방서의 주요업무는 크게 화재진화 및 예방·구조·구급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화재관련 업무를 보면 1990년 이래 97년말 현재 884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활동하였으며, 94년부터 시작된 인명구조활동은 96년까지 총 923건을 처리하여 총 1269명을 구조하였고, 구급활동은 역시 94년부터 97년까지 20,939건에 26,767명을 처리하였다.

(2) 서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서산의용소방대는 1946년 3월 1일에 대원 50명 규모로 출발하였으며, 1990년 2월 12일 청사를 신축하였다. 그 동안 역대 대장을 보면 변정운, 박봉섭, 라창현, 박영기, 한방우, 이연현, 모익순, 김민배 신형석대장으로 이어져 내려왔으며, 현재 김종하대장이 '93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3) 서산소방서 부녀의용소방대

부녀의용소방대는 1972년 9월 1일에 대원 28명 규모로 출범하였으며, 1990년 2월 12일 청사를 신축하였다. 그 동안 대장을 보면 구본영대장을 이어 현재는 권준희 대장이 95년도부터 활동하고 있다.

(4) 서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양대지역대

양대지역대는 1995년 11월 13일에 대원 20명 규모로 출범하였으며, 대장은 95년부터 현재까지 조희천 대장이 활동하고 있다.

(5) 서산소방서 인지의용소방대

인지의용소방대는 1946년 6월 1일에 대원 40명 규모로 출범하였으며, 1990년 11월에 청사를 신축하였다. 그동안 역대 대장을 보면, 박배옥('51-'52), 우광옥('52-'64), 유병주('64-'65), 유영환('65-'77), 윤주삼('77-'84), 유순희('84-'91), 최영주('91-'95)대장으로 이어져 내려 왔으며, 현재 안상춘 대장이 96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6) 서산소방서 부석의용소방대

부석의용소방대는 1948년 6월에 40명의 대원으로 출발하였으며, 1956년에는 취평리 370번지에 10평 규모의 소방대 건물을 신축하였고, 83년도에는 지프를, 86년에는 소형펌프차를 구입하였으며, 동년 12월 13일에 사무실 25평, 차고 30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였다. 또한 91년에는 구급차를 배치하기도 하였다. 기구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그리고 총무·방호·지도부장 각각 1명과 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대 임경순 대장('53-'56)을 시작으로 강현구('56-'65), 박상현('65-'75), 김기석('76-'80), 이승국('80-'87), 박상돈('88-'90), 이칠수('91-'92), 강문길 대장('93-'96)으로 이어졌으며, 현재는 장석인 대장이 활동하고 있다.

(7) 서산소방서 팔봉의용소방대

팔봉의용소방대는 1961년 4월 10일 발대하였으며, 기구로는 대장과 부대장, 3개부와 6개반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녀의용소방대도 조직되어 있다. 부녀의용소방대는 대장과 부대장, 그리고 홍보부와 구호부로 구분되며, 4개 반으로 편제되어 있다. 총 대원수는 남자 32명, 여자 30명 규모이다. 역대 대장을 보면, 김정해 대장이 61년부터 92년까지 활동하였고, 이어 이두영 대장('92-'93)이 활동하였고, 원봉희 대장(93-97. 12)이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최기행 대장이 97년 12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8) 서산소방서 팔봉면부녀의용소방대

부녀의용소방대는 1991년 7월12일에 대원30명 규모로 출범하였으며, 역대대장을 보면 박길자대장을 이어 현재는 조경란 대장이 1997년 11월 15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9) 서산소방서 지곡의용소방대

1955년에 발족하였으며, 1965년에는 완용펌프를 구입하였고, 1978년도에 면사무소로 이관하였으며, 1987년 소방차를 구입하였다. 조직은 소방대장 아래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으로 이어지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초대 한월동 대장을 시작으로 이진하, 이병철, 원필은, 정영현, 정준익, 이상목, 김수현, 김재학, 박한상, 최호열 대장으로 이어져 현재에는 김동윤 대장이 담당하고 있다.

(10) 서산소방서 성연의용소방대

성연의용소방대는 1946년 3월 1일에 발족하였으며, 1970년도에는 성연면 평리에 의용대사무실을 매수하였다. 1976년에는 발족 당시 서산경찰서 소속이었다가 서산군 소속으로 편입되었으며, 1992년에는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서산소방서 소속으로 편입되었고, 동년 8월에는 시축정사가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직은 대장과 부대장 각각 1명을 비롯하여 총무·지도·방호부장과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역대 대장을 보면, 초대 손원식 대장(46. 3. 1 - 57. 2. 20)을 시작으로 남득석(57. 2. 21 - 69. 3. 3), 장석영(69. 3. 4 - 80. 2. 14), 하현규(90. 2. 15 - 92. 2. 14)대장에 이어 현재는 유홍렬 대장이 92년 2월 15일부터 재직하고 있다.

(11) 서산소방서 음암의용소방대

음암의용소방대는 1946년 8월에 대원 50명과 싸이렌과 타종, 수동식분무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발족하였다. 그후 1955년 5월에 수동식 완용펌프 1대를 배치받았으며, 1991년 6월에는 청사를 신축하였고, 1992년에는 소형소방펌프차를 배치하였다. 역대 소방대장을 보면, 이은목 대장('45-'46)을 시작으로 박상호('46-'50), 윤선용('50-'54), 최동규('54-'61), 이종운('61-'64), 민영운('64-'69), 최용환('69-'78), 윤민구('78-'91), 최봉렬('91-'94)대장으로 이어져 왔으며, 현재는 고광우 대장이 94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12) 서산소방서 운산의용소방대

운산면 의용소방대는 대장 및 부대장, 방호·총무·지도부장, 6개반장 등 30명 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단독청사와 화재진압용 차량, 구급차 등을 갖추고 있다. 초대 이대용 대장을 비롯하여 이각성, 이범춘, 임춘삼, 한기설, 윤병덕, 이규복, 조순옥, 최부원, 임태봉 대장으로 거쳐 현재 조광식 대장에 이르고 있다.

(13) 서산소방서 고북의용소방대

고북의용소방대는 대장 이하 부대장과 총무·지도·방호부장, 그리고 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대 김의배 대장(창설-'48)을 시작으로 김국환('48-'53), 신중현('53-'56), 최창수('56-'56), 김명환('57-'65), 김유환('65-'81), 이재홍('81-'86), 김봉석('86-'91)대장으로 이어져 현재에는 최옥용 대장이 91년 5월부터 활동 중이다.

(14) 서산소방서 대산읍의용소방대

대산읍의용소방대는 1946년도에 대원 40명으로 출범하였으며, 그 동안 역대 대장을 보면 손부근, 남궁복, 이세교, 이진복, 강동목, 김지복, 김윤웅대장을 이어 현재는 송광식 대장이 92년 4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15) 서산소방서 대산읍부녀의용소방대

부녀의용소방대는 1995년 11월 15일에 대원 30명으로 출범하였으며, 대장은 김정숙대장이 활동하고 있다.

(16) 서산소방서 해미면의용소방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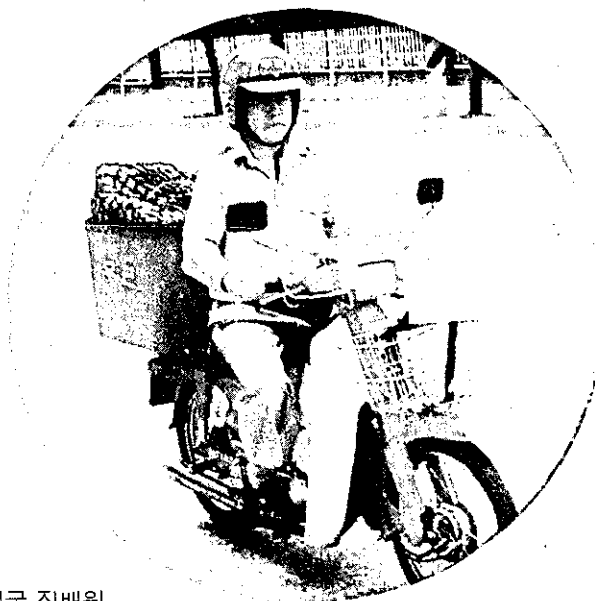
해미면의용소방대는 1945년 8월에 대원 30명으로 출범하였으며, 그 동안 역대 대장을 보면 조학봉, 김성학, 김석리, 강순경, 이봉하, 이석하, 조기중, 정완길, 권언석, 구자길, 최선문대장에 이어 현재는 박용구 대장이 97년 11월 1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17) 서산소방서 해미면의용소방대 지역대

해미면의용소방대 지역대는 1994년 2월 28일에 대원 20명으로 출범하였으며, 대장으로는 김양수대장이 94년 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활동중이다.

(18) 서산소방서 해미면부녀의용소방대

부녀의용소방대는 1991년 7월 23일 대원 30명으로 출범하였으며, 대장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유금준 대장이 활동하고 있다.



〈사진〉 우체국 집배원

5) 서산우체국

(1) 서산우체국

① 연혁

1923년 3월 26일 서산우편국으로 개국한 이래, 1949년 11월 21일에 사무관국으로 승격하였고, 1957년 9월 28일 서산을 동문리 797번지로 신축이전하였으며, 1970년 11월 21일에는 동문리 968번지 전신전화분실 청사를 신축하고 자동전화업무를 개시하였다. 1977년 7월 1일에는 서기관국으로 승격하였으며, 1982년 1월 1일자로 전기통신공사가 발족하면서 기술과가 폐지되었고, 1983년 1월 1일자로 전신전화업무가 한국통신으로 이관(관리계, 전신전화계 폐지)되었고, 1983년 7월 1일부로 예금보험계가 신설되었다.

1984년 1월 31일에는 다시 사무관국으로 조정되었으며, 1984년 5월 10일에는 현 청사를 신축하였으며, 1991년 1월 21일에는 태안우체국이 분리(일반국 7국, 별정국 4국)되었으며 1997년 7월 1일 기구개편에 따라 3과(영업과, 업무과, 관리과) 1실(지도실)로 개편조정되었다.

② 기구 및 인력

서산우체국의 조직은 국장 이하 영업과, 업무과, 관리과의 3과와 지도실로 편제

되어 있으며, 일반국 8개소와 별정국 5개소, 그리고 우편취급소 2개소가 있다. 현재 인력은 우체국장 5급 사무관 1명을 비롯하여 6급 10, 7급 4명, 8급 10명, 9급 6명과 집배원인 기능직 83명외에 별정직 39명등 총 153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서산우체국 인력현황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별정직
정원	153	1	10	3	10	7	83	39
현원	152	1	10	4	4	12	82	39

③ 역대 우체국장

초대 국장은 설재철국장으로 시작하여 현재 29대 이환웅국장에 이르고 있다. 최장수 국장은 설재철 국장으로 14년이 넘으며, 최단명 국장으로는 10대 문달곤 국장으로 단 8일간 재직하였다.

〈표〉 역대 서산우체국장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1	설재철	45.10. 1	49.12. 31	16	이한섭	70. 1.20	72.10.15
2	설재철	50. 1. 1	58. 6. 9	17	이광직	72.10.16	76. 6.16
3	서정열	58. 6.10	58. 7. 28	18	김준호	76. 6.17	77. 7.26
4	신석현	58. 7.29	58.10. 31	19	채수영	77. 7.27	80. 1.14
5	윤상우	58.11. 1	60. 6.29	20	김천복	80. 1.15	81. 7.19
6	설재철	60. 7. 2	61. 6.19	21	김재철	81. 7.20	82. 7.20
7	손철이	61. 6.21	61.12. 30	22	김동선	82. 7.21	84. 1.13
8	한용옥	62. 1. 9	62. 3.16	23	이종석	84. 1.14	86. 6.12
9	박기철	62. 3.17	62. 5. 8	24	문성태	86. 6.13	88. 7.20
10	문달곤	62. 5. 9	62. 5.17	25	명노창	88. 7.21	90. 2. 1
11	임병호	62. 5.18	63. 2.25	26	최원규	90. 2. 2	91. 2. 6
12	임창학	63. 2.26	65. 8. 1	27	강정명	91. 2. 7	94. 2.23
13	박창식	65. 8. 2	67. 7.10	28	이용섭	94. 2.24	95. 9.28
14	임만호	67. 7.11	67.11. 9	29	이환웅	95. 9.29	현 재
15	이상규	67.11.10	69.12. 30				

(2) 해미우체국

해미우체국은 1905년 6월 11일 해미임시우편소로 읍내리 58-2번지(해미읍성 내)에 개소 하였고, 1968년 11월 8일 343-4번지에 신축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역대 국장을 보면, 초대 복강우길 국장부터 4대 목하달희 국장까지 일본인이었으며, 김덕건, 김동운, 이흥범, 김동운, 김흥범, 김동운, 김택균, 이환웅, 이용규, 이종석, 장세풍, 이좌현, 박봉태, 손봉열, 정사학국장이 재직하였다. 현재 손봉열 국장을 비롯하여 일반행정직 2명과 기능직 9명 등 총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활동을 보면 체신예금 58억여원, 우편접수 196,411통, 배달 552,684통을 취급하였다.

(3) 성연우체국

1938년 2월 16일 성연면 명천리에 성연우편소를 개소하여 1955년 3월 31일 성연면 평리 289-9로 신축이전하면서 성연우체국으로 승격되었고, 1995년 12월 12일 성연면 평리 292-11번지에 청사를 신축이전하였다. 역대 국장을 보면, 초대 김종학 국장 이후로 김재철, 정기연, 임만호, 윤성만, 윤종목, 이은호, 성만제, 김종학, 김창현, 황개성, 이좌현, 이종석, 장세풍, 정사학, 한기정, 이좌현, 방인석, 박봉태 국장이 재직하였다. 현재 방인석국장을 비롯하여 일반행정직 2명과 기능직 5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활동을 보면, 체신예금이 20여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연간 63,058통의 우편접수와 313,109통의 배달업무를 취급하였다.

(4) 운산우체국

1938년 3월 16일 여미우편취급소로 설립된 후 1949년 11월 22일에 용장리 452-2번지에 여미우체국으로 승격되었다. 그 후, 1983년 6월 30일에는 갈산리 433-2번지의 현 청사로 신축이전하였으며, 1996년 3월 5일자로 운산우체국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한기정 국장이하 행정서기 1명과 총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체신예금이 32억여원이며, 연간 99,740통의 우편접수와, 451,199통의 배달업무를 취급하였다.

(5) 대산우체국

대산우체국은 1960년 9월 9일에 개국되었으며, 1961년 7월 10일에 산전우체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8년에는 온라인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97년 2월 14일자로 서산대산우체국으로 개칭되었다. 그동안 초대 이윤성 국장을 비롯하여 한상덕, 김구원, 신석현, 이창수, 김항수, 임상문, 정규만, 서병옥, 서만현, 안의승, 이승태, 이좌현, 조준식, 이종준, 박정환, 최완석, 최항연, 이좌현, 장세풍, 한기정 국장으로 이어 왔으며, 현재 민형철국장(6급 행정주사)을 비롯하여 8급 1명, 9급 1명, 그리고 기능직 11명 등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융업무, 우편취급업무, 우정사업, 체신사업, 체신금융 등을 처리하고 있다.

(6) 인지우체국

인지우체국은 1966년 9월1일 별정우체국으로 설치되었다가 1969년 6월 20일 일반우체국으로 전환되었다. 역대국장을 보면, 초대 우현모국장을 시작으로 조병남, 김택균, 정병직, 황선림, 이종석, 김준호, 전병주, 정진부, 강재연, 박정환, 전민창, 김영조, 정사학, 한기정, 박봉태, 정사학, 장세풍국장이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박희남국장이 97년 12월 10일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국장 이하 일반직 1명과 기능직 5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활동 및 실적을 보면 체신예금이 23억원 규모이며, 우편접수건수가 6만여통이고, 배달건수는 29만여통에 이른다.

(7) 서산읍내동우체국

1997년 12월 10일자로 개국한 서산읍내동우체국은 박봉태 초대국장이하 행정직 2명과 기능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치는 읍내동 421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8) 제384군사우체국

1997년 7월 1일자로 개국한 제384군사우체국은 해미면 제20전투비행단 영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대 박기당국장과 9급 1명, 기능직 1명이 근무하고 있다.

(9) 명지우체국

1973년 6월 30일에 산전명지분국을 개국하였으며, 1990년 1월 1일자로 서산명지우체국으로 승격하였다. 초대 우체국장은 이관우 국장이었으며, 현재는 신선철 국장이하 9급 1명, 기능직 1명이 근무하고 있다.

(10) 고북우체국

1962년 6월 30일에 고북면 가구리 308번지에 별정우체국으로 설립되었으며, 1981년 7월에는 가구리 568-6번지에 청사를 신축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대 김원련 국장이 개국부터 1997년 6월 15일까지 재직하였고, 이어 김완경국장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직원은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체신예금 실적은 32억여원이며, 우편접수가 113,735통이고, 배달은 395,588을 취급하였다.

(11) 부남우체국

1962년 7월 31일 별정우체국으로 발족하였으며, 63년에는 전신전화업무를, 1965년에는 전화교환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87년에는 교환업무가 폐지되었다.

1989년에는 온라인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94년 6월 8일에는 현 청사를 부석면 취평리273-6번지에 신축하였다. 초대 강현구 국장(62. 7. 31 - 73. 12. 17)을 시작으로 강모홍(73. 12. 18 - 81. 7. 5), 강모준(81. 7. 6 - 84. 4. 15), 김연영(84. 4. 16 - 96. 4. 16)으로 이어져, 현재는 유진호 국장이 96년 4월 16일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국장아래 4명의 창구직원과 5명의 집배원이 근무하고 있다. 연간 우편물 접수건수는 105,194건이며, 배달건수는 474,003통이고, 보통예금구좌수는 4,808건, 체신보험가입자수는 323건이다.

(12) 음암우체국

음암우체국은 1965년 별정우체국으로 설립된 이후 1975년과 1994년에 청사를 개축하였다. 역대국장을 보면, 초대 강항식 국장이 개국과 함께 77년 10월까지 재직하였으며, 83년까지는 김동묵국장이, 그리고 1983년 5월 13일부터 현재의 김낙영국장이 재직하고 있다. 연간 70,791통의 우편접수와 338,584통의 배달업무를 취급하였다.

(13) 팔봉우체국

팔봉우체국은 1962년 11월 15일 별정우체국으로 개국하였다. 초대국장은 김형설국장으로 개국시부터 1982년까지 근무하였고, 현재는 박상애국장이 1982년 3월부터 재직하고 있다. 직원은 사무원3명과 집배원4명이며 체신예금이 20억원 규모이고, 우편접수건수가 54,784건이며, 우편배달건수는 239,188건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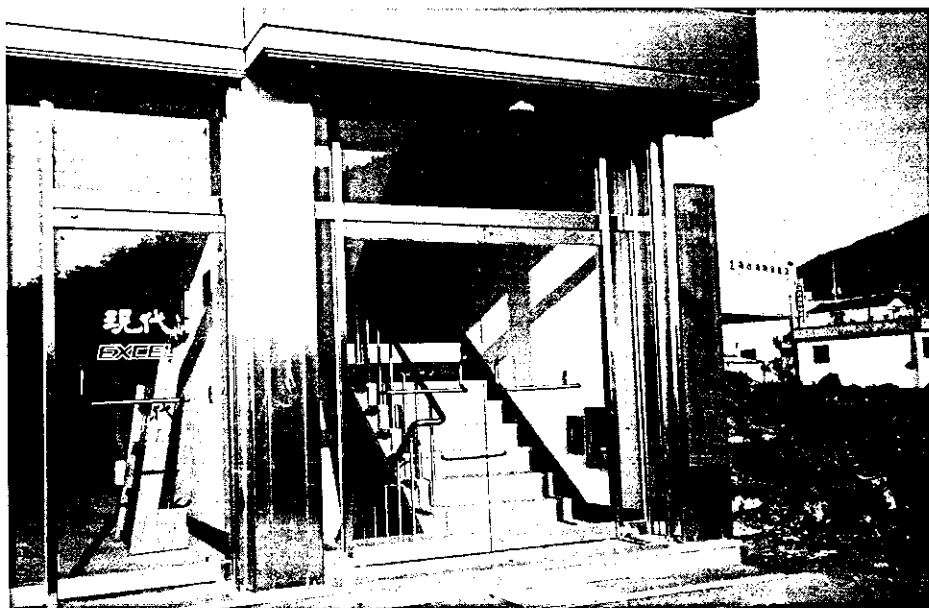
(14) 신성우체국

1966년 8월 19일 별정우체국으로 개국하였으며, 지곡면 화천리 325번지에 1995년 11월 18일 69평규모의 청사를 신축하였다. 초대국장은 김수현국장으로 78년 2월 28일까지 재직하였고, 현재는 김재도국장 이하 사무장 2명, 그리고 집배원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체신예금은 39억여원 규모이고, 우편접수건수가 73,287건, 우편배달건수는 351,129건이다.

6) 법무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산출장소

① 연혁

1992년 8월 31일 직제개정(대통령령 제 13720호)으로 법무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산출장소로 출범하였다. 관할구역은 대산항(대산석유화학단지내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등 3개 전용부두), 보령항(보령화력발전소 전용부



〈사진〉 출입국관리사무소

두), 태안화력발전소 전용부두(태안군 소재), 한보철강 전용부두(당진군 소재)와 서산시, 보령시, 예산군, 당진군, 태안군, 홍성군, 청양군을 대상으로 한다.

② 기구 및 인력

초대 남기빈 소장(92. 11. 10 - 95. 3. 1)을 시작으로 제2대 박기석 소장(95. 3. 2 - 97. 8. 31)이 재직하였으며, 현재 김재천 소장이 97년 9월 1일부터 재직하고 있다. 총 정원은 5명으로 6급 1명, 8급 2명, 9급 1명, 기능직 1명이 근무하고 있다.

③ 주요활동

주요 임무는 선박검색과 동향조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항선박 입출항검색, 선원자격 심사, 선원 상륙허가, 출입국심사,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 단기체류자격(C-1내지 C-4)소지자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기타 외국인체류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활동한 실적을 보면 1994년 밀입국자 3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조치시킨 것을 시작으로 97년 4월까지 총 190명을 적발하여 처리하였고, 4건의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을 처리하였다.

7) 충청남도 농업통계사무소 서산출장소

① 연혁

1974년 1월 28일 농업통계사무소 및 출장소 설치령이 공포되어 동년 2월 8일에 충청남도 농업통계사무소 서산출장소가 개소되었다. 이어 1978년 4월 12일에는 충청남도 농수산물통계사무소 서산출장소 개편되었으며, 1996년 8월 8일에는 충청남도 농업통계사무소 서산출장소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조직 및 인력

농업통계사무소 서산출장소에는 소장을 포함하여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즉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그리고 9급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대 소장을 보면, 초대 김상희 소장이 1974년부터 1989년까지 15년간 재직하였으며, 제2대 윤길상 소장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재직하였고, 현재는 제3대 심상우 소장이 1997년부터 재직하고 있다.

③ 주요활동

농업통계사무소의 주요활동은 농업관련 조사업무를 실시하는데, 작물재배면적 조사(연 6회), 가축통계 조사(연 6회), 각종 작물생산량 조사(논벼포함 20개 품목), 경지면적 조사(연 1회), 농산물 생산비조사(15개 품목), 축산물 생산비조사(18호 농가), 양곡소비, 재고량 조사, 유통정보 조사(쌀 가격), 논벼 병충해 조사, 주산지 재배 의향조사(맥류, 마늘, 고추, 감자 등), 농기계화율 조사, 농기관련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8) 국립농산물검사소 충청남도지소 서산출장소

① 연혁

1932년 곡물검사소 군산지소 서산출장소로 발족한 이후 1945년 식량검사소 군산지소 서산출장소로 개칭되었다가, 1946년 곡물검사소 군산지소 서산출장소로 환원되었다. 1949년에는 국립농산물검사소 대전지소 서산출장소로 개칭되었다가 1978년 국립농산물검사소 충남지소 서산출장소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인력

현재 5급 소장 1명을 비롯하여 6·7급 5명, 8·9급 3명과 기능직 1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③ 주요활동

주요업무로는 서산, 태안 2개 시군의 하·추곡 약 13만톤에 대한 검사업무와 5년근 이상의 인삼채굴 및 가공업회를 통하여 인삼의 불법유통과 연산허위표시를 막아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은 물론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인삼검사, 국립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하는 각종 농산물 종자의 포자 및 종실검사, 무농약·저농약·유기재배·일반재배 등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국가가 그 품질을 인증하는 것으로 재배과정에서 부터 출하시까지 지도, 감독하는 농산물인증제의 실시와 표준규격출하사업, 농산물원산지 관리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9) 기상청 산하 서산기상대

① 연혁

1955년 11월 1일 인천측후소 서산어업기상출장소로 발족하여, 1968년 1월 1일부터 정규관측업무를 시작하였다. 1968년 12월 19일에는 인천측후소 소속에서 대전측후소 소속으로 편입되었고, 1970년 7월 18일에는 서산측후소로 승격되었다.

1985년 7월 2일에는 산하의 보령분실을 보령관측소로 개칭하였으며, 86년에는 보령관측소를 대천관측소로 개칭하였다. 1992년 3월 13일에는 대전지방기상청 서산기상대로 기관명칭을 바꾸었으며, 1995년 2월에는 대천관측소를 다시 보령관측소로 명칭을 환원시켰다.



〈사진〉 서산기상대

② 기구 및 인력

서산기상대에는 기관장 5급 1명을 비롯해 9급 2명에 이르기 까지 총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3명은 보령기상관측소에 근무하고 있다.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인 원	11	1	2	1	3	2	2

③ 주요활동

서산기상대의 주요업무는 예보업무, 관측업무 및 통계·조사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예보업무는 2개시 4개군(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당진군, 홍성군, 서천군)지역과 충청남도 앞바다 및 앞바다 평수구역, 대천-어청도외 4개항로, 대천해수욕장의 6개해수욕장(7월초 - 8월말)에 대해 기상예보를 하고, 일일예보 등 각종 예비를 지원하며,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131번과 정기 통보처에 대한 통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둘째, 관측업무로서 기상관측 및 기상감시와 함께 기후관측, AWS 및 등대위탁 관측을 하고 있다. 셋째, 통계 및 조사업무로서 일기상 통계, 기후자료 생산 등 각종 통계를 축적하고 있으며, 기상증명·자료제공 등 민원업무와 기상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기타 공공기관

1) 서산관내농업협동조합

(1)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

① 연혁

농업협동조합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 보면, 1957년 2월 구 농협법이 공포되고, 1958년 5월 농협중앙회장의 선거를 거쳐 동년 10월 업무를 개시하였다. 한편 1956년 5월 1일 금융조합과 동 연합회를 모체로 하는 주식회사 농업은행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농업금융에 국한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은행과 다를 바 없었으므로 특별한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1957년 2월 농업협동조합법과는 별도로 농업은행법이 통과되어 특별법의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농협과 농업은행은 농촌의 이원화된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적 체제



〈사진〉 농협 활동

속에서는 서로 유기적 운영을 기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일원적 체제에 대한 요구가 비등해 졌다. 1960년 4.19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후 구농협과 농업은행의 통합 개편 논의가 시작되었고 5.16이후 두기구를 통합하기로 의결하였으며 1961년 8월 15일에 현재의 농업협동조합으로 발족하였다.

〈표〉 역대 서산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1	김창돈	61. 8. 15	62. 8. 6	3	김남복	69. 7. 11	73. 3. 23
2	김용석	62. 8. 7	69. 7. 10	4	김정환	73. 3. 24	80. 12. 31

서산에도 서산군농협과 농업은행 서산지점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이를 일원적으로 통합하여 61년 8월 15일에 서산군농업협동조합으로 발족하였다. 당시의 서산농업협동조합은 부석, 해미, 대산, 안면, 태안, 원북 등 6개지소를 두고 초대 조합장으로 김창돈씨가 취임하였으며 '80. 12. 30자 입법회의 의결을 거쳐 농협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81년 1월부터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으로 이원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조직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는 서산시지부, 시청출장소, 용성대출장소로 구성되어 있

다. 서산시지부는 지부장, 부지부장, 지도경제차장, 신용차장이 있으며, 지도경제차장 아래에는 총무과(총무·감정·기획·계산계)와 지도경제과(판매구매·지도·부너지도계)가 있고, 신용차장 아래에는 여신과(정책대출·일반대출·공제·종합대출계), 출납과(예금·외환·출납·어음교환·온라인계), 수신과(신탁·공금·외환·공과금계), 저축추진과(저축추진·신용카드계)가 있다. 또한 지역농협으로는 서산조합을 비롯하여 인지·부석·팔봉·지곡·대산·성연·음암·해미·고북조합과 전문농협으로 원예조합이 있다.

서산시지부의 역대 지부장을 보면, 초대 김창돈 지부장을 시작으로 현재 이삼용 지부장에 이르기 까지 모두 12명이 재직하였다.

〈표〉 역대 농협중앙회 서산지부장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1	강희평	81. 1. 1	82. 8. 5	7	박응태	89. 4. 22	91. 3. 6
2	강용석	82. 8. 6	83. 2. 13	8	최교선	91. 3. 7	92. 8. 23
3	이우영	83. 2. 14	84. 2. 12	9	이영용	92. 8. 24	94. 4. 21
4	김동비	84. 2. 13	86. 2. 16	10	황종태	94. 4. 22	95. 2. 7
5	윤상렬	96. 2. 17	87. 1. 31	11	이은갑	95. 2. 8	97. 2. 23
6	정창화	87. 2. 1	89. 4. 21	12	이삼용	97. 2. 24	현재

③ 주요 활동실적

97년도에는 종합성적 평가에서 그룹별(A2),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서울 용산역에서 년중 행사로 제2회 서산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10일간(97. 6. 24 - 7. 3) 개최하므로 신토불이 운동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2) 서산농업협동조합

서산농업협동조합은 1972년 7월 25일 14개의 이동조합을 합병하면서 서산시 읍내동 141-9번지에 설립되었다. 1975년 8월 8일에는 동부지소를 개점하였고, 1985년 온라인망을 구축하였으며, 1989년 5월 2일 연쇄점 및 경제사업장을 신축하였으며, 1993년 4월에는 남부지소를 동년 9월에는 양성지소를 개점하였다. 1994년 1월 1일자로 복지농협으로 승격하였으며, 1994년 11월 1일에는 직영 주유소를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합원은 준조합원 포함 11,021명이며, 본소 1 지소3개소와 하나로마트 2개소, 농자재백화점, 농기구센터, 주유소 각각 1개소, 창고 5개소, 지대미공장 1개소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조직은 조합장 1명, 이사 8명, 감사 2명과 전무 1명, 상무 4명, 부장 10명, 일반직원 60명 등 총 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영농회 37개, 부녀회 63개, 작목반 18개 청년회 1개 등 126개의 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장은 1972년 설립당시의 초대 이회준조합장이 제10대인 현재까지 계속 맡고 있다.

(3) 인지농업협동조합

인지농업협동조합은 1972년 5월 2일 리동조합을 합병하면서 설립되었고, 동년 7월 29일 인지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73년 10월 22일 조합청사를 준공하였으며, 1981년 10월 26일 유류취급소를 준공하며 업무를 시작하였고, 1982년 7월 12일 중합청사 영선 및 연쇄점을 개축하여 이전하였다. 1983년 12월 31일 연쇄점을 폐쇄하였고 1989년 2월 인지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6년 12월 3일 중합시설들을 신축하고 수퍼마켓을 개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대 류병주 조합장(72. 8. 8 - 81. 4. 29)이 취임하여 제3대까지 연임하였으며, 제4대 류기승(81. 4. 30 - 83. 3. 29), 제5대 조병국(83. 3. 30 - 86. 3. 30), 제6대 김수웅(86. 3. 31 - 89. 3. 31), 제7대 류병우(89. 4. 1 - 93. 3. 31)조합장이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김수웅 조합장이 1993년 4월 1일에 취임하여 재직중이다. 기구로는 조합장 아래에 전무 1명, 부장 4명과 11명의 직원 등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다.

(4) 부석농업협동조합

부석농업협동조합은 1970년 11월 16일 부석리 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971년 9월 13일 연쇄점을 개점하였으며 1973년 3월 5일 부석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89년 2월 24일 부석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재변경되었다. 1994년 11월 8일 마늘, 생강 가공 공장을 본 조합의 산하에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대 오수필 조합장(70. 8. 8 - 73. 10. 31)이 취임한 이래, 제2대 유이환(73. 11. 1 - 76. 3. 30), 제3대에서 6대까지 이훈구(76. 3. 31 - 88. 3. 30), 제7대부터 8대까지 유홍근(88. 3. 31 - 94. 2. 17)조합장이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이광로 조합장 94년 2월 18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조합장 아래에 1급 전무 1명을 비롯하여 상무 2명, 부장 9명 등 33명이 근무하고 있다.

농협시설로는 판매장, 연쇄점, 농기구서비스센터, 유류취급소, 화물자동차, 창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밖에도 가강화훼작목반을 운영하고, 마늘·생강포장개선사업, 어리굴젓의 상품화사업, 서산육쪽마늘 보전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5) 팔봉농업협동조합

팔봉농업협동조합은 1969년 11월 16일 이동조합을 합병하여 팔기리 농협으로 설치되었으며, 1973년 팔봉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동년 10월 22일 사무실을 신축하였다. 1977년 6월 20일 연쇄점을 개점하였으며, 1978년 2월 28일 양길리 양곡창고를 신축 준공하였다. 1982년 성장조합으로 승격되었으며 1986년 12월 22일 양길리 비료창고를 신축하였고 1987년 11월 30일 사무실 영선 및 증축을 했으며 1989년 2월 24일 팔봉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2년 12월 11일 농협회관을 준공하였고 1994년 3월 25일에 어송지소를 개소하였고 1996년 11월 28일 양길지소를 개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대 서원모 조합장(69. 12. 31 - 73. 4. 23)이 취임한 이래 제2대 성기충(73. 4. 24 - 76. 7. 2), 제3대부터 5대까지 박상순(76. 7. 3 - 85. 7. 2), 제6·7대 이강수(85. 7. 3 - 90. 3. 12), 제8대 최준엽(90. 3. 13 - 94. 3. 12)조합장이 재직하였으며, 현재에는 이규호 조합장이 1994년 3월 13일에 취임하여 현재 재직 중이다. 조직기구를 보면 조합장과 전무, 어송·양길지소, 4개의 부와 19개의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인원은 조합장을 비롯하여 전무 1명, 부장 6명 등 22명이 근무하고 있다.

(6) 지곡농업협동조합

지곡농업협동조합은 1970년 5월 4일 관내 6개의 리동조합을 합병하여 지곡단위농협이 신설되었으며, 1972년 3월 1일 비료·구매·정책자금업무 및 상호금융여·수산업무를 개시하였다. 1972년 10월 30일 사무실을 신축하였으며, 1989년 2월 14일 지곡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1년 12월 3일 종합청사를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대 김찬영 조합장(71. 1. 1 - 94. 2. 25)이 취임하여 8대까지 역임하였고, 9대에는 임영래 조합장(94. 2. 26 - 95. 6. 19), 10대에는 유충식 조합장이 95년 7월 16일에 취임하여 근무중이다. 조직은 조합장 아래에 전무가 있고, 산하에는 지도부, 판매부, 자재부, 신용부 등의 조직을 두고 있으며,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7) 대산농업협동조합

대산농업협동조합은 1964년 5월 26일 대산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1970년 7월 4일 대산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대 조합장은 김덕환씨가 취임하였으며 2대 이상은, 3대 김두환씨를 거치면서 현

재 김용호 조합장이 재직하고 있다. 조직은 조합장 이하 전문 1명, 상무 3명, 부장 9명, 서기 9명, 서기보 4명, 기원 20명 등 총 46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이밖에도 농기구수리센터운영, 서울농산물직판장운영, 독곶 3사 부식납품, 미곡종합처리장운영, 쌀판매활로개척, L.P.G 판매 공급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8) 성연농업협동조합

성연농업협동조합은 1972년 10월 1일 9개 이동조합을 합병하여, 성연리 농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1973년 3월 5일 성연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76년 12월 31일 기초 자립조합으로 육성되었으며 1985년 12월 1일 성장조합으로 승격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 성연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7년 8월 13일 성연농협 종합시설 신축공사를 착공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대 조성윤 조합장이 취임하였으며, 제2대 안상진, 3대 이재성, 4대 류이환, 5대 박영수, 6대 안상진, 7대 한상현, 8·9대 성용식 조합장이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현대행 조합장이 재직하고 있다. 조직은 조합장과 전무, 상무와 4개의 부와 23개의 개별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장과 임원들을 포함하여 2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9) 음암농업협동조합

음암농업협동조합은 1969년 12월 31일에 11개 이동조합을 합병하여 설립되었으며 1971년 3월 26일 사무실 및 연쇄점을 신축 개점하였고, 1973년 3월 5일 음암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76년 12월 31일 기초자립조합으로 승격되었으며 1980년 9월 30일 성장조합으로 승격되었고 1987년 12월 31일 봉사조합으로 승격되었다. 1988년 12월 5일 종합청사를 신축개점하였으며 1989년 4월 1일 음암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1년 5월 30일 농기구수리센터를 개점하였으며 동년 7월 15일 장의용품 사업허가를 취득하였으며 1995년 12월 31일 복지조합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대 민영근 조합장(69. 12. 31 - 76. 3. 31)이 취임한 이래 제2대 이용교(76. 4. 1 - 79. 2. 15), 제3대 이종은(79. 7. 25 - 92. 3. 31)이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이석희 조합장이 1992년 4월 28일에 취임하여 재직 중이다. 조직을 보면, 임원으로는 조합장을 비롯하여 이사 6명과 감사 2명이 있으며, 전무·상무 각각 1명, 부장 5명, 기타 21명 등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다.

(10) 운산농업협동조합

운산농업협동조합은 1969년 11월 26일 면내 16개리 리동조합을 해산하고 운산리 농업협동조합으로 합병되면서 설립되었고, 1970년 2월 18일 법인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동년 4월 11일 사무실 및 연쇄점 건축대지를 매입하여, 동년 10월 14일 운산면 회의실 임시 사무실에서 신축청사로 이전하여 상호 금융업무를 개시하는 한편 동년 12월 30일에 연쇄점을 개점하였다. 1974년 1월 19일에 운산리동조합에서 운산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80년 9월 30일 자립조합에서 성장조합으로 승격되었고, 1988년 11월 26일 지하1층 지상2층의 252평 규모의 종합청사를 준공하였으며 동년 12월 31일 성장조합에서 봉사조합으로 승격되었다. 1989년 2월 27일 운산단위농업협동조합에서 운산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1년 12월 31일 농용자재 백화점을 준공하였고 1994년 12월 31일 지대미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1996년 11월 30일 농산물 슈퍼를 준공하였고, 1996년 12월 31일 봉사조합에서 복지조합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대 김준식 조합장(70. 2. 18 - 76. 6. 15)이 취임한 이래 제2대 김진호(76. 6. 16 - 79. 6. 16), 제3대 김동성(79. 8. 30 - 82. 8. 30), 제4대부터 7대까지 이광용(82. 8. 31 - 93. 8. 9), 제8대 박장열(93. 8. 10 - 97. 8. 9) 조합장이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김동현조합장이 1997년 8월 10일 취임하여 재직중이다. 조직을 살펴 보면, 조합장 이하 전무·상무와 신용부·여신부·판매부·자재부·생활물자부 등 5개부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은 전무·상무 각각 1명과 부장 7명, 이하 20명이 있어서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11) 해미농업협동조합

해미농업협동조합은 1972년 7월 25일 22개의 이동조합을 합병하여 설립되었으며, 1973년 5월 1일 해미이동조합을 해미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개명하였고, 동년 12월 31일에 청사를 신축하였다. 1975년 1월에 자립조합으로 승격하였으며, 1977년 12월 14일 농협중앙회 해미지소를 인수하여 청사를 이전하였으며, 1979년에는 성장조합으로, 1980년에는 봉사조합으로 승격되었다. 1996년 10월 30일에는 종합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조합의 기구를 보면, 대의원 55명, 임원 8명, 작목반 35개, 영농회 27개소, 부녀회 27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장 이하 전무 1명, 상무 2명과 신용부 및 경제부로 구성되어 있다. 초대부터 제5대까지(72. 7. 29 - 85. 9. 20) 최순기 조합장이 재직하였으며, 제6대부터 제8대까지(85. 9. 21 - 94. 2. 24) 권원식 조합장이 재직하였고, 현재는 제9대 임준철조합장이 지난 94년 2월 25일부터 재직하고 있다.

(12) 고북농업협동조합

고북농업협동조합은 1969년 8월 10일 고북리 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1970년 4월 20일 14개리 리동조합을 합병하였으며, 1974년 1월 9일 고북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89년 4월 1일 고북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재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대 최수찬 조합장(69. 8. 10 - 70. 4. 20)을 시작으로 제2대 김두환(70. 4. 21 - 72. 1. 15), 제3대부터 제7대까지 김기혁(72. 1. 16 - 89. 4. 8), 제8대와 제9대 김일석(89. 4. 9 - 97. 4. 8) 조합장이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신남철 조합장이 97년 4월 9일부터 근무하고 있다. 조직은 조합장 이하 이사 8명, 감사 2명의 임원을 비롯하여 53명의 대의원과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 서산수산업협동조합

① 연혁

1940년 4월 30일 서산어업조합으로 설립된 이래 1961년 소원·안흥·남면어업조합을 합병하였으며, 1969년에는 주사무소를 서산읍에서 남면 신온리로 이전하였다가 1971년에 다시 서산읍으로 이전하였다.

1972년 9월 7일에는 서산군 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였으며, 1974년에 상호금융업무를, 1975년에는 여·수산업무를 시작하였다. 1977년 4월 1일에 서산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되었으며, 1980년에는 청사를 신축이전하였다. 1989년 4월 26일에는 서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함과 동시에 태안읍 남문리로 이전하였다가 1993년 2월 16일 서산시 동문동 879-8로 주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며, 1996년 2월부터 상임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② 조직 및 인력

업무영역은 서산시와 태안군이며, 총조합원수는 6,132명이고 어촌계수는 법인 3개 비법인 27개 등 총 30개이며, 조합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6명, 감사 2명, 대의원 44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구는 조합장 이하 상임이사가 있고, 본점에는 검사실·지도부(지도·총무기획과)·신용부(저축·관리·금융공제과)·경제사업부(안흥판매사업소·서산수산물백화점·복지회관)가 있으며, 태안지점을 비롯하여 9개지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인력은 남자직원 71명과 여자직원 33명 등 총 104명이 근무하고 있다.

③ 역대조합장

초대부터 제4대까지 이중만 조합장(62. 4. 1 - 73. 4. 5)이 재임하였으며, 이어 제5대부터 제7대까지 변상권 조합장(73. 4. 6 - 80. 10. 16)이 재임하다 사망함으로써 박석칠 조합장 직무대행(80. 10. 17 - 81. 4. 29)이 조합장을 대행하였다. 제8·9대 조합장은 심능두 조합장(81. 4. 30 - 87. 4. 29)이 재직하였으며, 제10대부터 현재 제12대에 이르기 까지 지난 87. 4. 30일 이후 진태구 조합장이 재직하고 있다.

3) 서산축산업협동조합

① 연혁

1957년 9월 1일 서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 창립되었으며, 1977년 11월 1일 집유장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81년 1월 1일 축협중앙회 가입으로 서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6년 12월 26일 동부지소를, 1988년 12월 30일 대산지소를 설치하였으며, 1990년 1월 8일 생축사업장을 확보(음암 울목리)하였다. 1990년 5월 8일 태안지소 개점, 1991년 4월 1일 축산물 및 생활물자 판매장 개점하였고, 1992년 12월 3일 대산지소를 이전하여 개점하였다.

1994년 9월 1일 신동부지소 이전 개점, 1996년 2월 15일 신중부지소 개점하였고, 1996년 3월 9일 생축사업장을 현대식 시설로 준공하였다. 1997년 6월 4일 집유장 이전 입찰,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997년 6월 25일 축산물 종합판매장 주차장 확장부지를 취득하는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조직 및 인력

조직은 조합장과 전무, 고객상무, 지도상무, 신용상무와 14개의 개별 계, 축산물 종합판매장, 생축사업장, 집유장 등의 사업장과 신동부, 대산, 태안, 해미, 신중부지소 등의 조직과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초대 이세춘 조합장(57. 9. 1 - 61. 2. 25)이 취임한 이래 제2대 강영갑(61. 2. 26 - 62. 2. 8), 제3대 정벽해(62. 2. 9 - 82. 4. 12), 제4대 강재선(82. 4. 13 - 89. 12. 10) 조합장이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강춘식 조합장이 1989년 12월 11일 취임하여 재직중이다.

③ 주요활동

가축방역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각 읍·면별 양가축 조합원 밀집지역에 비치하고 있으며, 가축공동방역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

다. 또한 축종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조합원의 확장(조합원수 현재 1,968명)과 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전 조합원의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협 중앙회장의 특별강연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4) 서산임업협동조합

서산임업협동조합은 산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1913년 산림조합의 형태로 유지되어 오다가 1949년 사단법인 서산군 산림조합으로 발족하였고, 1953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리·동단위의 252개 산림계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산림법 시행이후에는 1962년 1월 7일에 창립총회를 열어 동년 2월 24일에 설립인가를 얻었으며, 동년 4월 24일에 설립등기하였다. 이 당시는 252개 계에 31,804명의 조합원 규모였다. 1967년 2월 11일에는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268번지에 청사를 매입하여 이전하였으며, 1973년에는 당진군의 1개 계가 서산군으로 편입되어 253산림계로 구성되었다. 1980년 1월 4일에는 산림조합법에 의거하여 법인으로 변경되었고, 1981년에 조직을 정비하여 249산림계에 36,617명의 조합원을 두게 되었다.

또한 1987년 10월 10일에는 서산읍 읍내리 815-9번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며, 1989년 서산시·군의 분리와 태안군의 분군을 계기로 1시 2군을 관할하는 조합이 되었다. 동년 8월에는 서산군 산림조합 임산물직매장을 개설하였으며, 1990년에는 서산군산림조합 태안사업소를 설치하였고, 1992년에는 태안군산림조합으로 분할되었다. 당시 태안군산림조합은 83개 산림계 12,9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1시 1군을 관할하던 서산군산림조합은 166개 산림계에 23,713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92년에는 공군비행장의 건설과 함께 4개 산림계가 폐지되고 162개 산림계에 23,235명의 조합원으로 감소하였다. 그후 1993년 12월 12일부로 서산임업협동조합으로 개칭되었으며, 1995년에는 서산시와 서산군의 통합으로 인해 조합구역이 서산시로 설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 조합의 조직 및 인력을 보면 기구로는 조합원 4,870명에 대의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장과 이사 6명, 감사 2명, 그리고 162개의 산림계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의 사무기구인 조합장, 상무, 지도원 4명, 기능직 3명, 기타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서산원예농업협동조합

① 연혁

원예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의 특수조합이다. 서산원예농업협동조합은 1957년 11월 26일 서산원예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1961년 11월 6일 법률 제670호 농협법 개정 공포로 농림부 장관의 존속판정(농정 제4127호)을 받았고 1971년 8월 15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1984년 5월 10일 서산읍 동문리 894-5번지에서 서산읍 동문리 311-24번지로 사무소를 신축하여 이전하였고, 1989년 4월 1일 서산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 1990년 7월 27일 종합시설 및 농산물 직판장을 신축(신용사업실시)하였으며 서산시 동문동 289-3번지로 사무소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조직 및 인력

조직은 조합장 이하 전무, 상무 각각 1명과 기획과, 신용과, 지도.판매과, 자재과 등의 4개개별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1급 1명, 2을 2명, 3급 11명, 4급 4명, 기능직 서무원 각각 2명 등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사과작목반을 비롯한 17개 작목반, 259반원이 활동하고 있다.

〈표〉 작목반 현황

작목반명	합 계	사과	배	포도	복숭아	토마토	참외	딸기	오이	화훼
작목반수	17	6	2	1	1	1	1	2	1	2
반원(명)	259	125	33	13	8	11	12	22	16	19

초대 오세득 조합장(57. 11. 26 - 67. 7. 29)을 시작으로 제2대 정동수(67. 11. 18 - 70. 3. 10), 제3대 안봉순(70. 7. 20. - 71. 9. 8), 제4대 윤진구(71. 9. 9. - 74. 9. 8), 제5대부터 10대까지 홍혁기(74. 12. 30 - 94. 2. 19) 조합장이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전두영조합장이 1994년 2월 20일에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다.

③ 주요활동

당 조합의 주요사업은 농산물판매사업, 영농자재구매사업, 영농지도사업, 신용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농산물판매사업을 살펴보면, 관내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 농협 직판장을 통해 판매함은 물론 대도시 공판장으로 조합차량을 이용하여 출하하도록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으며, 농협차량을 이용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농산물을 수집하며, 집판장을 통해 소비자와 직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98년까지 농산물 공판장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다.

구매사업으로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전

화주문배달제를 통해 적기에 자재를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영농지도사업으로 영농지도요원의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품목별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영농기술지발간과 보급에 힘쓰고 있고, 정부지원사업을 유치하고 시설설치지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신용사업으로는 조합원의 영농생산자금을 지원하고 연중무휴근무를 통해 고객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였고, 공과금자동이체사업 등을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6) 서산농지개량조합

① 연혁

서산농지개량조합은 1942년 2월 25일 서산수리조합으로 창립 인가되었으며 1953년 3월 4일 해미수리조합, 1954년 9월 25일 안면수리조합, 1955년 8월 26일 태안수리조합 설치·인가를 받았다. 1962년 1월 21일 서산, 해미, 태안, 안면수리조합을 각각 토지개량조합으로 개칭하였으며, 1970년 1월 12일 서산, 해미, 태안, 안면토지개량조합을 각각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하였고 1973년 4월 19일 서산, 태안, 안면조합을 해미농지개량조합으로 통합과 동시에 서산, 태안, 안면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76년 3월 1일 운산출장소를 설치, 1976년 10월 25일 해미농지개량조합을 서산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하였으며 1976년 11월 19일 서산으로 사무실 신축 이전과 동시에 해미출장소를 설치하였고 1984년 5월 1일 서산출장소를 설치, 안면출장소를 안면연락소로 개칭하였다. 1994년 4월 15일 본소 청사를 서산시 동문동 804-6번지에서 서산시 석림동 508의 5 번지로 이동, 1997년 6월 5일 서산출장소를 본소에, 해미·운산출장소를 해미지소로, 태안출장소·안면연락소를 태안지소로 각각 통폐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조직 및 인력

본 조합은 조합장 아래에 전무와 총무부, 관리부등 2개의 부와 총무과, 재무과, 시설관리과, 개발과 등의 4개의 업무전담 과와 해미, 태안지소와 운산주재 사무소와 안면주재 사무소등 4개의 출장소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인력은 조합장을 포함하여 일반직 34명과 기능직 14명 등 총 48명이 근무중이다.

역대 조합장을 살펴 보면, 초대 허선(76. 11. 3 - 80. 11. 2), 2대 홍선기(80. 11. 2 - 81. 4. 29), 3대 이관현(81. 4. 30 - 85. 4. 29), 4대 박영호(85. 4. 30 - 86. 2. 1), 5대와 6대 허선(86. 2. 1 - 93. 8. 22), 7대 류상희(93. 8. 23 - 97. 8. 22)로 이어져 왔으며, 현재는 김용수 조합장이 97년 8월 23일부터 재직 중이다.

③ 주요활동

농업용수(저수지)개발사업으로 7개 저수지에 몽리면적 2,709ha에 이르며, 경지정리사업은 16개지구 2,992ha를 달성하였고, 양수장 설치 및 보강사업을 10개소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배수개선사업으로 서령지구 31ha, 중왕지구 220ha를 실시중이며, 콘크리트보 설치 및 보강사업이 34개소에서 실시되었으며, 대형관정을 3개소에 설치하였다.

7) 서산시의료보험조합

① 연혁

서산시의료보험조합은 1987년 10월 26일 복지부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 동년 11월 1일 조합이 개소되었으며, 1988년 1월 1일에 156,101명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개시하였다. 1991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산군, 서산시, 태안군으로 조합이 분립되었으며 1995년 4월 1일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서산시, 서산군 조합이 통합되어 피보험자 25,768세대, 피보험자수 86,021명에 이르는 조합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역대기관장 및 인력

1987년 12월 30일 조명호 초대 대표이사가 취임하였으며 제2대에는 1991년 1월 4일 서산시 이강호 대표이사, 서산군 김달제 대표이사, 제3대에는 1993년 12월 31일에서산시 이장용 대표이사, 서산군 김달제 대표이사가 취임하였다. 1995년 4월 1일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서산시, 서산군 조합이 통합되어 통합조합 초대 대표이사에 이장용 대표이사가 취임하였으며, 통합 2대 대표이사에 조병국 대표이사가 1997년 1월 17일에 취임하여 현재 재직중이다. 인력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정원 42명에 4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구 분	계	대표이사	2급	3급	4급	5급	6급	전산	기능
정 원	42	1	2	3	5	11	17	2	1
현 원	40	1	2	3	6	12	13	2	1

③ 조직 및 주요활동

조직구조와 업무분장사항을 보면, 대표이사 아래에 총무부와 업무부 등의 2개의 부와 부 아래에 총무과, 급여과, 징수과 등의 3개의 개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무과에서는 사무일반, 회계, 자재관리 및 부과, 전산관리, 문서관리, 조직 및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급여과에서는 급여비 지급 및 결정, 보건예방 사업, 요양기관 관리, 부가급여 관리 등의 업무를 징수과에서는 징수관리, 보험료 이체, 채납처분, 수납기관 관리 등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업무실적을 보면, 27,106세대에 88,081명의(평균 가구당 3.24명) 피보험자가 등록되어 있다.

8) 서산양잠농업협동조합

서산양잠농업협동조합은 1971년 3월 24일에 설립되어 동년 4월 20일에 인가를 얻어 동년 6월 14일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동년 6월 17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업무구역은 서산시와 태안군을 포함하는 일원이며, 조합장 1명과 이사 6명, 감사 2명의 임원진과 상무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역대 조합장을 보면, 초대 이종철 조합장(71. 10. 15 - 76. 9. 5)을 시작으로 조인석(76. 9. 6 - 77. 2. 12), 유기승(77. 2. 13 - 78. 1. 13), 이종은(78. 1. 14 - 78. 2. 4), 유병환(78. 2. 5 - 81. 3. 31), 이형로(81. 4. 1 - 83. 10. 7), 이만구(83. 10. 8 - 85. 2. 28), 윤명식(85. 3. 1 - 97. 2. 28)조합장이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장성욱 조합장이 97년 3월 1일부터 재직 중이다.

9) 서산상공회의소

① 연혁

서산상공회의소는 1990년 6월 20일 서산지역 기업인이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1991년 8월 20일 태안지역 기업인을 통합하였고, 1993년 11월 7일 서산상공회의소 설립 발기인 회의를 구성하였으며 1994년 11월 25일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5년 2월 9일 서산상공회의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동년 3월 22일 설립인가(충청남도 공고제1995-67호)를 받았다. 1995년 4월 27일 초대의원선거를 실시 하였고 동년 5월 10일 법인등록후 동년 동월 13일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5년 5월 25일 서산상공회의소를 개소하여 현재에 이른다.

② 조직

조직을 보면, 회장 아래에 사무국과 경영상담실, 의원총회, 상임위원회, 감사 등의 특별기구와 총무과와 진흥과의 2개과와 회원분야, 진흥분야, 경리분야, 조사분야, 서무분야, 검정분야 등의 업무부서로 기구가 구성되어 있다. 회원업체로는 제조업 67개, 광업 14개, 건설업 76개, 도소매업 329개, 운수업 28개, 금융보험 16개, 서비스 10개, 기타 3개 업체 등 총 540여개의 업체가 가입해 있다.

③ 주요활동

가. 상공진흥 사업 :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각종 강좌,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정보와 동향을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기업성장과 실무능력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기술혁신과 기능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조사, 연구 및 홍보 사업 : 급변하는 산업정보시대에 대처하고 상공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경제활동과 기업정보 등을 조사, 연구, 수집, 분석하여 이를 회원업체에 제공, 경제지침자료로 삼게함은 물론 관계당국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상공총람, 주요 조사연구자료, 홍보책자, 기타 각종 간행물을 출판·배포하여 기업경영에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고 있다.

다. 건의 사업 : 상공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회원업체의 당면 애로사항과 요망 사항을 파악하여 관계 당국에 건의하여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일을 한다.

라. 회원서비스 사업 : 각종 회원 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회원사업의 경영 개선은 물론,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10)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한우개량부

① 연혁

1969년 1월 삼화축산주식회사로 출발한 이래 1982년 10월 축협중앙회에서 인수하여 축협중앙회 서산목장으로 변경되었다. 1985년에는 축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로 개칭되었다가 1996년 1월에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한우개량부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조직 및 인력

개량사업본부장 이하 한우개량부가 있으며, 여기에 관리과·검정과·종축과·초지과·가축병원 등 5개 부서로 편제되어 있으며, 일반직 20명, 전문직 12명, 기능·생산직 78명 등 총 1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초대 오성환 장장을 시작으로 유남열, 이공수, 이기복, 신언익, 최정철, 김정식 소장이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허삼웅본부장이 재직하고 있다.

③ 주요활동

재산상황을 보면, 초지 730ha, 임야 361ha, 기타 36ha 등 토지가 총 1,127ha에



〈사진〉 서산목장

이르며, 보유가축은 종모우 193두와 종빈우 및 육성우가 1,287두, 검정우 337두, 비육우 및 송아지 489두 등 총 2,306두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능력검정을 통해 우량 보증 종모우를 선발하고, 우수 유전자원(정액, 수정란) 생산보급으로 개량을 촉진시키고, 개량연구 및 축산기술 보급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11) 서산문화원

① 연혁

1957년 6월 15일에 조직되었으며, 1965년 2월 11일에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었다. 1987년에는 읍내동 472-2에서 읍내동 268번지로 원사를 이전하였으며, 1990년에는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받았고, 1991년 8월 23일에는 행정구역 분할에 따라 태안문화원이 분립되었다. 1992년 5월 10일 도서관지정을 받았고, 동년 9월에는 전국문화원간행물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93년 5월 10일에는 문화학교지정을 받았으며, 1994년 8월 22일에 지방문화원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조직 및 인력

서산문화원의 조직은 임원진으로 원장 1명, 부원장 2명, 이사 12명, 감사 2명의



〈사진〉 문화원 활동

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으로는 일반회원 764명, 특별회원 602명 등 총 1,366명의 회원이 있으며, 문화가족으로 284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2명의 상근직원이 재직하고 있다.

초대 안상혁 원장이 57년 6월 15일 창립시부터 83년 5월 16일까지 재직하였으며, 이어 김현구 원장이 83년 5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③ 주요활동

그동안 서산문화원은 지역문화 창달과 선양, 그리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서산시민의 높은 문화의식을 기반으로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내고장의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여 왔다.

서산문화원 소식지인 '스산의 숨결'을 매월 3,500부씩 14년간 발간해 오고 있음은 물론 서산의 전설조사, 서산의 옛소리조사, 서산의 민속조사, 문화유적지표조사, 향토사연구소의 설치·운영, 문화대상시상, 서산의 마을실태조사, 벚가리대놀이, 굴부르기제 등 각종 민속놀이의 발굴 및 시연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이밖에도 매년 한서대학교에서 성년례를 실시하고 있으며, 1989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지육교실의 운영, 출향인사들·고향사랑을 유도하는 애향운동, 국내외 문화교류사업과 각 읍·면·동에 분원을 설치하여 문화사업의 전파에 통력을 기울이고 있다.

12) 지역 언론사

(1) 서산신문

서산신문은 1990년 11월 5일에 최초 발행을 시작하였으며, 초대 사장에는 백승익 사장이 취임하였고 2대까지 연임하였으며 3대에는 정운상 현 사장이 취임하였다. 편집인과 발행인은 백승익 초대 편집인·발행인이 계속 근무중이다. 또한 본지는 1990년 11월 15일 최초 발행당시 서산밝은소식이라는 제호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1992년 7월 30일 서산밝은 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였으며 1993년 8월 30일 서산신문으로 제호가 재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산신문은 1990년 9월 4일 발행당시에는 월간이었으나 1993년 9월 4일부터는 특수주간으로 변경되었고 1996년 6월 6일부터는 주간으로 바뀌었으며 1997년 1월 1일 부터는 일간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서령신문

서령신문은 1995년 3월 6일 최초발행을 시작하였으며, 초대 사장·편집인·발행인인 이의형사장이 현재까지 근무중이다. 또한 1995년 2월 16일 최초발행당시 서령신문이라는 제호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며, 현재까지 같은 제호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1995년 2월 16일 발행당시에는 특수주간이었으나 1996년 9월 9일 부터는 일반주간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새너울신문

새너울신문은 1993년 9월 13일 최초발행을 시작하였으며, 초대 사장에는 함일성 사장이 취임하였으며 2대에는 윤철수 사장, 3대에는 조문호 사장이 취임하여 현재 재직중이다. 발행인과 편집인은 초대에 취임한 함일성 편집인 겸 발행인이 현재까지 재직중이다. 또한 최초 발행당시 제호였던 주간 새너울이라는 제호를 변경없이 현재까지 사용중이며, 최초 발행당시 부터 현재까지 종별·발행일 변경사항 없이 사용중이다.

13) 한국전력공사 서산지점

① 연혁

1930년 1월 서산전력주식회사로 발족한 이래 1961년 7월 한국전력주식회사 대전지점 예산영업소 서산출장소로 개칭되었다가 1977년 한국전력주식회사 대전지점 서산영업소로 승격되었다. 1982년 2월에는 한국전력주식회사 충남지사 서산지

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2년 한국전력공사 충남지사 서산지점으로 개칭되면서 1급지점이었다가 1966년 2월에 2급지점으로 낮아졌다. 1997년 1월에는 태안이 분리되었다.

② 조직 및 인력

조직은 지점장 이하 영업부와 배전부 등 2개 부를 두고 있으며, 영업부 내에는 총무과, 영업과, 요금과가 설치되어 있고, 배전부에는 배전과와 배전운영과가 있다. 인력은 간부 8명과 직원 45명 등 총 53명이 근무하고 있다.

③ 주요활동

1997년 현재 계약전력 현황을 살펴 보면, 주택용 38,940호 등 총 65,981호에 판매량은 627,095,474Kw이며, 판매수입은 391억 2,361만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표〉 계약전력 현황

계 약 종 별	수 용 호 수	판매량(Kw)	판매수입(천원)
주 택 용	38,940	87,789,905	7,930,457
심 야 전 력	1,028	6,981,582	155,584
임 시 전 력	137	4,062,246	416,867
일 반 용	4,782	70,885,645	6,949,232
교 육 용	71	2,399,793	204,411
산 업 용	484	413,405,958	21,924,083
농 사 용	16,163	37,447,917	1,293,891
가 로 등	4,376	4,122,428	249,085
계	65,981	627,095,474	39,123,610

14) 한국통신 서산전화국

① 연혁

1923년 3월 26일 서산우편국이 개국된 이래, 1958년 12월 31일 처음으로 자석식 전화가 개통되었다. 그후 1970년 12월 31일에는 자동식 전화가 개통되었으며, 1982년 공기업으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산사업소가 발족되었고, 1983년 1월 1일부로 서산전신전화국으로 승격되었다. 1987년 6월 29일부로 광역자동화가 완결

되었으며, 1990년 1월 1일자로 서산전화국으로 개칭되었으며, 1994년 7월 18일에는 전전자 교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② 조직 및 인력

조직은 국장 이하 2부 9과 1분국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바, 국장 직속으로 총무과와 회계과가 있고, 마케팅부업무 내에는 마케팅과, 요금과, 고객지원과, 고객시설과가 있으며, 시설운용부에는 교환기술과, 전송과, 도서통신과가 있으며, 해미분국이 설치되어 있다.

인력은 일반직 142명과 기능직 16명, 그리고 용원 1명 등 총 15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역대 기관장은 다음과 같다.

〈표〉 역대 서산전화국 기관장

대	성 명	취 입 일	이 입 일	대	성 명	취 입 일	이 입 일
1	엄 용 식	82. 1. 1	82.10.26	6	이 석 규	91. 1.12	92.10.19
2	황 광 호	82.10.27	82.12.31	7	전 남 수	92.10.20	94. 8.31
3	황 광 호	83. 1. 1	84. 7. 6	8	엄 용 식	95. 1.16	95. 7. 3
4	김 준 호	84. 7. 7	89. 1. 3	9	김 홍 석	95. 7. 4	96. 9.30
5	이 종 석	89. 1. 4	91. 1.11	10	최 완 석	96.10. 1	현 재

③ 주요활동

주요업무실적으로 보면, 편리하고도 신속한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일반전화 62,452회선에 55,454가입계약자와 공중전화 총 1,147대, 정보통신분야의 급속한 확산과 114안내요원 20명과 연간 100만건의 안내, 도서통신 16개 도서에 457명이 계약하였다.

또한 통신망 초고속화, 지능화사업의추진은 교환기의 전전화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고, 지역정보통신 마인드를 확산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정보통신학교의 상설 운영과 하이텔 단말기 및 S/W무상제공, 이동정보통신학교 개설, 어린이 정보통신전학단의 운영, 학생대상으로 전화국 통신시설 개방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제5절 서산시의 정치와 선거

1. 대통령 및 부통령선거

- 1) 초대 대통령 및 제1·2대 부통령 선거
- 2)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직접선거
- 3)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부통령직접선거
- 4)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직접선거
- 5) 제4대 대통령간접선거
- 6) 제5대 대통령직접선거
- 7) 제6대 대통령직접선거
- 8) 제7대 대통령직접선거
- 9) 제8대 대통령간접선거
- 10) 제9대 대통령간접선거
- 11) 제10대 대통령간접선거
- 12) 제11대 대통령간접선거
- 13) 제12대 대통령간접선거
- 14) 제13대 대통령직접선거
- 15) 제14대 대통령직접선거

2. 서산시의 국회의원선거

- 1) 제헌국회의원선거
- 2) 제2대 국회의원선거
- 3) 제3대 국회의원(민의원)선거

4) 제4대 국회의원(민의원)선거

- 5) 제5대 국회의원선거
- 6) 제6대 국회의원선거
- 7) 제7대 국회의원선거
- 8) 제8대 국회의원선거
- 9) 제9대 국회의원선거
- 10) 제10대 국회의원선거
- 11) 제11대 국회의원선거
- 12) 제12대 국회의원선거
- 13) 제13대 국회의원선거
- 14) 제14대 국회의원선거
- 15) 제15대 국회의원선거

3. 지방자치단체선거

- 1) 도지사선거
- 2) 도의회 의원선거
- 3) 초대 민선시장선거
- 4) 서산시·군의회 의원 선거
- 5) 읍·면장선거
- 6) 읍면의회 의원 선거



(집필자 : 이덕연)

제5절 서산시의 정치와 선거

1. 대통령 및 부통령선거

1) 초대 대통령 및 제1·2대 부통령선거

1948년 7월 17일부터 발효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제1대 대통령,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서 각각 선거한다. 선거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투표로서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의 2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되었다. 이에 의하여 1948년 7월 20일 신익희 부의장 사회하에 초대 대통령선거를 재적의원 198명중 재석 196명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180표를 얻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부통령선거에서는 재적의원 197명에 의하여 제1차 투표를 행했던 바 3분의 2이상을 얻은자가 없었으므로 최고득표자 2인 이시영과 김구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였는데 이시영이 133표를 얻어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회에서 실시된 간접선거이기 때문에 본군 선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서술순서상 이 간접선거상황을 약기한다. 제2대 부통령선거 역시 간접선거방식으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관점에서 달리 기술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생략한다.

2)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직접선거

1951년 11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하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익년 1월 18일 투표결과가 19표, 부 143표 부결되어 소위 정치파동이 발생되었다. 정부제출의 개헌안을 부결한 국회는 광상훈의원 외 122명 연서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여 개헌파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세하에서 당시의 국무총리인 장택상의 조정안으로서 대통령직선제·상하양원제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한 국무위원의 임명과 면직·국무원에 대한 국회 불신임결의등 4개원칙에 의한 발체개헌안이 제출되어 1952년 7월 4일 대통령 직선제의



〈사진 63〉 대통령 선거 유세장면

헌법이 통과되었다. 이른바 '발췌개헌'이다.

동 헌법개정은 그 내용상의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개헌의 절차에 있어서도 헌법규정과 법원리에 어긋나는 위법적인 것이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사결정도 독회(讀會)절차와 자유토론이 생략된 채 폭력과 불법적인 수단에 의해 강제되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위헌적인 것이었다. 이리하여 대통령 및 부통령의 간접선거제도는 직접선거제로 전환하였으며 동년 8월 5일에 선거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에는 이승만, 부통령에는 함태영이 당선되었는데 본군의 투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제2대 대통령선거

선거인수	투 표 자 수			기권자수	투표율 (%)	후보자별득표수				
	유효	무효	계			조봉암	이승만	이시영	신홍우	계
90,307	79,396	1,899	81,195	9,112	90	3,998	69,993	3,413	1,892	79,296

〈표〉 제3대 부통령선거상황

선거인 수	투 표 자 수			기 권 자 수	투 표 율 (%)	후 보 자 별 득 표 수								
	유효	무효	계			이 윤 영	함 태 영	이 갑 성	조 병 옥	임 영 신	백 성 옥	정 기 원	전 진 한	이 범 석
90,307	79,782	1,413	81,195	9,112	90.6	2,456	3,727	1,857	2,627	1,441	755	842	2,984	63,093

3)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부통령직접선거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부통령선거는 1956년 5월 15일에 실시되었다. 선거제도는 제2대 선거에 적용된 대통령 및 부통령선거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3대 대통령선거는 자유당의 이승만, 민주당의 신익희, 무소속의 조봉암 등 3인이 입후보하여 이승만후보와 신익희후보간의 치열한 접전과 조봉암후보의 만만치 않은 추격으로 과열양상을 보였는데 선거일 직전 신익희후보가 급서하는 바람에 이승만 후보가 무난히 당선되었다. 이 선거는 신익희후보가 서거하지 않았다면 야당이 승리하여 정권교체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졌던바, 우리나라 민주정치발전의 관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선거 결과 무효표가 상당수 나왔던 것도 신익희 후보에 대한 지지와 추모의 표시로 볼 수 있다.

제3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된 제4대 부통령선거에는 자유당의 이기붕, 민주당의 장면을 비롯해서 조선민주당에서 이윤영, 대한국민당에서 윤치영, 진보당에서 박기출이 출마하였고, 기타 이범석, 백성옥, 이종태 등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도중에 박기출, 이종태후보가 사퇴하여 총 6명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장면이 당선되었다. 본 군에서는 당선된 민주당의 장면후보보다 자유당의 이기붕후보에게 약 13,000여표를 더 주어서 유효투표수의 거의 50%정도의 지지를 보였는바, 전국적인 선거흐름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나타냈다. 본군의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제3대 대통령선거상황

선거인수	투 표 자 수			기권자수	투표율 (%)	후보자별득표수		
	유 효	무 효	계			조봉암	이승만	계
98,091	74,900	17,728	92,628	5,463	94.4	11,666	63,234	74,900

〈표〉 제4대 부통령선거상황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율 (%)	후보자별득표수					
	유 효	무 효	계			장면	이기붕	윤치영	이윤영	백성옥	이범석
98,091	88,034	4,557	92,641	5,450	94.6	29,258	42,709	3,005	415	7,018	5,679

4)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직접선거

제4대 대통령직접선거는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되었는데 이 선거에 있어서는 자유당의 이승만, 민주당의 조병옥이 입후보하여 처음으로 여야정당의 단일대결전이 있을것으로 보였으나 선거운동중 민주당의 조병옥이 사망하여 자유당의 이승만

이 단일 대통령후보가 되었다.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한 부통령선거에는 자유당의 이기붕, 민주당의 장면, 통일당의 김준연, 국민당의 임영신등 4인이었으며 민주당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승만의 노선을 지지하였다. 제4대 부통령선거 때 각기 다른 정당에서 정·부통령이 당선되었던 결과를 뼈저리게 느껴 이를 되풀이하지 않고자 공무원을 통한 선거조직 형성과 조기선거를 감행한것이다. 선거결과 대통령에 자유당의 이승만, 부통령에 역시 자유당의 이기붕이 당선하였으나 4.19 학생의거후에 소집된 4.26 국회결의에 의하여 당선은 무효가 되고 말았다. 어쨌든 3.15 부정선거의 본군에서의 투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제4대 대통령선거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율(%)	후보자별득표수
	유효	무효	계			이승만
97,554	91,022	4,650	95,672	1,882	98.0	91,022

〈표〉 제5대 부통령선거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율(%)	후보자별득표수			
	유효	무효	계			이기붕	김준연	임영신	장면
97,554	94,762	874	95,636	1,918	98	88,147	1,000	224	5,391

5) 제4대 대통령간접선거

1960년 3월 15일 시행한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의 직접선거의 결과가 국민의 항의에 의해 무효로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함에 따라 국회는 내각책임제로 개헌하고 해산하였다. 이에 의하여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인 대통령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표를 얻어 당선해야 하므로 1960년 8월 12일 양원 합동회의에서 투표한 결과 윤보선이 208표를 얻어 당선되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제4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6) 제5대 대통령직접선거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소장을 중심으로한 군사쿠데타가 성공하여 이른바 군사혁명위원회가 3권을 장악하게되었다. 그후 많은 난관을 거쳐 1962년 11월 5일에는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즉일로 발의·공고하였다. 30일간의 공고기간이 경과한후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동년 12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쳤던바 유효투표의 78%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었고, 동년 26일에는 정식으로 공포하였다. 이로써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로 환원한 결과가 되며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선거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제5대 대통령 직접선거에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를 비롯하여 7명이 입후보하였으나 선거도중 자유민주당의 송요찬과 국민의 당의 허정이 입후보를 사퇴하여 결국 5명이 경쟁하였는데 사실상 선거전은 민주공화당의 박정희후보와 민정당 윤보선후보간의 각축전이었다. 선거결과는 박정희후보가 4,702,640표를 얻어 4,546,614표를 획득한 윤보선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여 제5대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본군에서의 투표상황은 다음 별표와 같다.

〈표〉 제5대 대통령선거

선거인 수	투 표 자 수			기권자 수	투표율 (%)	후보자별득표수				
	유효	무효	계			신흥당	민주공화당	추풍회	민정당	정민회
						장이석	박정희	오재영	윤보선	변영태
113,753	87,402	11,653	99,055	14,698	87	3,040	39,549	5,368	36,290	3,155

7) 제6대 대통령직접선거

1967년 5월 3일에 실시한 제6대 대통령의 직접선거에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신민당의 윤보선, 대중당의 서민호, 한국독립당의 전진한, 민중당의 김준연, 통한당의 오재영, 정의당의 이세진 등 7인이 입후보하였다. 선거도중 대중당의 서민호가 사퇴 6인이 경쟁하였으나 사실상의 선거전은 민주공화당 박정희와 신민당의 윤보선후보간의 대결이었다. 치열한 사상논쟁으로 일관된 선거결과는 박정희후보의 당선이었다. 유효투표의 46.6%를 획득하여 제6대대통령으로 당선된 박정희후보와 45.1%를 얻은 윤보선후보와의 표차는 약 15만표차이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까지의 역대 대통령선거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에 의한 당선이었다.

그러나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것과 같이 본군에서는 윤후보가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박후보를 누르고 5800여표를 더 얻는 주목할만한 선거경향을 보였다.

〈표〉 제6대 대통령선거

선거인 수	투 표 자 수			기권자 수	투표율 (%)	후보자별득표수					
	유효	무효	계			신민당	정의당	독립당	민중당	공화당	통한당
						윤보선	이세진	전진한	김준연	박정희	오재영
123.37	98.901	6.754	106.665	17.713	85.6	47.886	1.088	2.742	3.179	42.065	1.941

8) 제7대 대통령직접선거

1967년에 재선된 박정희는 같은 해에 실시된 제7대 총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이 개헌선인 국회의석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자 대통령의 3차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관철시켰다. 1969년의 제6차 헌법개정은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채 국회의사당이 아닌 국회별관특별회의실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된 반민주적인 폭거였다. 이후 이른바 3선개헌안은 동년 10월17일에 국민투표에서 유효투표의 65.1%(본군의 경우는 64.8%, 서산읍은 52.3%의 찬성에 불과하였다)라는 이례적으로 저조한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1971년 4월 27일에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에는 박정희후보가 세 번째로 집권 여당의 대통령후보로 나서게 되었고, 제1야당인 신민당에서는 사상유례가 없을 정도로 치열한 경선전을 벌인 끝에 김대중후보가 막판에 이철승후보의 지지를 얻어내 이른바 '40대기수론'을 내세워 기선을 잡았던 김영삼후보를 누르고 신민당대통령후보로 지명되었다.

제6대선거에서도 윤보선후보에게 힘겹게 승리했던 박후보는 한편으로는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심과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야당내경선과정과 세대교체에 대한 관심과 지지열기 또한 이를 발판으로 한 김후보와 야당의 역동적인 선거운동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를 치루었다.

결과는 박후보가 약 95만표의 비교적 안정된 차이(유효득표율의 51.2%대 43.6%)로 당선되었으나 당시 선거의 투개표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부정이 저질러졌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어쨌든 신민당의 김대중후보는 영남에서는 열세였으나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과 경기·호남지역 등에서 강세를 보임으로서 장기집권을 꾀하던 집권세력에게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실질적인 견제세력으로서의 야당의 출현과 함께 심각한 정치적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위기감이 결국은 직선제로 대통령에 재선될 가망이 희박하다는 정치적 판단과 함께 집권세력이 헌정중단을 통해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독재체제로 전환하게 하는 결정적인 동인이었다.

〈표〉 제7대 대통령선거

선거인 수	투 표 자 수			기권자 수	투표율 (%)	후보자별득표수				
	유효	무효	계			공화당 박정희	신민당 김대중	국민당 박기출	자민당 이종윤	정의당 진복기
124,780	92,592	6,234	98,826	25,954	79.2	52,764	37,212	597	287	1,732

본군에서는 야당이 다수를 획득했던 제6대 선거의 양상과는 달리 충남지역에서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인 박정희후보가 신민당의 김대중후보보다 약 15,000표를

더 얻어 친여적인 선거결과를 보였다.

9) 제8대 대통령간접선거

〈표〉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상황

투표구	선거인 수	투표수	후보자득표수				당선자	무효 투표수	기권자 수	투표율 (%)
			후보자	득표수	후보자	득표수				
서산읍	15,018	11,337	김재선	700	김정환	1,426	김영일 나원기	140	3,681	75.5
			성백선	1,549	홍혁기	1,528				
			정천호	969	김영일	1,680				
			이용호	1,593	나원기	1,752				
인지면	5,190	3,864	유기승	2,337	박종태	1,302	유기승	225	1,362	74.5
부석면	7,560	5,189	강모준	3,146	박종빈	1,709	강모준	334	2,371	68.6
팔봉면	4,758	3,598	서원모	1,781	성기충	1,667	서원모	150	1,160	75.6
지곡면	4,572	3,341	임종연	1,742	이원우	1,436	임종연	163	1,231	73.1
대산면	6,752	5,201	윤정권	2,246	김득환	2,748	김득환	207	1,551	77.0
성연면	3,897	2,811	이재성	1,443	황노원	1,201	이재성	167	1,086	72.1
음암면	6,805	5,103	한기연	1,574	최성환	325	김기홍	127	1,702	75.0
			최종호	1,362	이종운	1,025				
			김기홍	1,690						
운산면	6,958	5,085	유중호	1,717	김진오	2,159	김진오	196	1,873	73.1
			임승열	1,013						
고북면	7,330	5,617	김기혁	2,347	김종환	1,040	김기혁	174	1,713	76.6
			한지격	2,056						
안면면	11,503	8,367	지창권	2,539	윤주옥	3,298	지창권 윤주옥	329	3,136	72.7
			김진	2,201						
남면	4,742	3,728	문세호	1,562	고훈	778	문세호	83	1,014	78.6
			이대우	1,305						
근흥면	6,027	4,189	김인학	1,977	이수진	1,928	김인학	284	1,838	69.5
소원면	6,033	4,591	이인성	2,044	이재원	2,290	이재원	257	1,442	76.1
원북면	5,040	3,974	안덕순	2,130	조태호	1,650	안덕순	194	1,066	78.8
이북면	3,862	3,145	조인호	1,406	이은신	1,619	이은신	120	717	81.4
해미면	8,226		박준상	단독후보 무투표당선						
태안읍	10,738		김연석	이화영 무투표당선						

우리 헌정사상 '4. 19' 와 '5. 16' 에 이어 세번째의 헌정중단인 1972년 10월의 이른바 '10.17비상조치' 로 확립된 새헌법은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여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열어 놓았다. 대통령입후보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국민회의사무처

에 등록신청을 해야하고, 국민회의는 등록된 입후보자에 대하여 토의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표〉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서산군대의원당선거 인적사항

선거구	성명	직업	생년월일	학력	경력
	김영일(金永一)	운수업	1916. 5. 6	국졸	한양여객사장
	나원기(羅元基)	상업	1927.10.12	대졸	재향군인회부회장
인지면	류기승(柳基升)	농업	1934. 9. 3	대졸	예비군중대장
부석면	강모준(姜模俊)	상업	1937.10.25	대졸	민주공화당선전부장
팔봉면	서원모(徐元模)	농업	1915. 8.29	국졸	국교육성회장
지곡면	임종연(林鍾淵)	농업	1928. 7.26	국졸	면의원
대산면	김득환(金得煥)	농업	1928.10.29	국졸	반공연맹인지지부정보부장
성연면	이재성(李載聖)	농업	1929.10.15	국졸	공화당관리장
음암면	김기흥(金基興)	농업	1938.10.10	대졸	민주공화당청년부장
운산면	김진오(金振五)	상업	1935.12.26	대졸	지서자문위원
해미면	박준상(朴準祥)	제조업	1933. 4.20	대졸	한국고공품대표이사
고북면	김기혁(金基赫)	농업	1936.12.10	고졸	예비군중대장
	윤주옥(尹柱旭)	실업가	1933. 9.20	고졸	민주공화당안면면관리장
	진창권(陳昌權)	사업가	1938.10. 3	고졸	안면면청년회장
남면	문세호(文世鎬)	농업	1929.11. 6	중졸	초등학교교사
	김언석(金彦錫)	도정업	1928. 6. 7	고졸	경찰서자문위원
	이화형(李華炯)	양조업	1935. 9.24	대졸	공화당충남12지구당부위원장
근흥면	김인학(金仁學)	농업	1926. 4.19	국졸	
소원면	이재원(李在遠)	농업	1916. 3.25	고졸	별정우체국장
원북면	안덕순(安德淳)	한의사	1913. 3. 1	한수	무
이북면	이은신(李殷臣)	농업	1933. 4. 7	대졸	이북국교육성회장

임기 6년의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1972년 12월 15일에 실시되었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2월 23일 개원한 후 바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박정희를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은 정당소속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30조) 정당이 그 제1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정권창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기형적인 정치구도가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대의원후보자는 단 1회만 허용되는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의 경력 및 입후보취지와 유신과업에 대한 주견만을 발표할 수 있었으며 특정인, 특정정당 및 사회단체를 지지 혹은 반대하지 못하게 하였고, 특정인이나 특정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특정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지 못하게 하여(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 42조) 정권교체를 위한 대안으로서 야당의 존재와 그 기능 자체가 완벽하게 부인되었다.

이는 선거결과가 잘 말해주는 바, 재적대의원 2,359명중 2표의 무효표를 제외하면 2357명 전원이 박정희를 지지하였다. 형식적으로는 초당적인 범국민적 성격을 갖는 기구에 의한 간선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또한 당시 정치상황상 정부여당에 의해 조작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전형적인 '비경쟁적선거'의 너무나도 당연하고,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그러나 우리 헌정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거결과였다.

본군의 대의원선거도 그 예외는 아니어서 자의견 타의견 현실적으로 대부분 야당성향인사들이 회피하였거나 혹은 선거참여와 당선외의 기회가 사실상 봉쇄된 비민주적인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총 2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본군에서는 모두 51명의 후보자가 나서 평균 2.4 대 1의 경쟁양상을 보였다. 비교적 대의원선거에 관심도가 높았던 도시성향의 서산읍에서는 2명 정원에 8명이 입후보하였고, 1명정원인 읍면의 경우에는 5명이 출마하여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였다. 기타 대부분의 면지역의 경우에는 1명정원에 2명, 2명정원에 3명이 경쟁하는 상황이었다. 해미면과 태안면선거구의 경우에는 각각 등록무효 혹은 자진후보사퇴 등으로 무투표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많은 선거구에서 대의원경선이 부락 혹은 씨족간의 대결양상으로 치달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대의원선거의 성격과 읍면단위로 실시되는 선거구제로 인해 야기되었던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10) 제9대 대통령간접선거

제9대 대통령 역시 제8대와 마찬가지로 유신헌법에 따라 박수부대에 지나지 않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단순한 요식행사에 지나지 않는 이른바 '체육관선거'식의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다.

본군내 18개 읍면에서는 21명의 대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었다. 충남전체로 보아도 현직 대의원의 약 90%가 재출마하였고, 본군에서도 해미면의 박준상 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재출마하였다. 이는 박정권하에서 정략적으로 대의원들을 후하게 예우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유무형의 이익들이 지역인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메리트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서산읍과 태안읍을 비롯하여 소원면 등 도시성향이 짙은 곳에서는 대의원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선거결과 제1대 대의원중 6명이 재선되었으며, 그밖에 거의 대부분 친여당성향의 인사들이 대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구체적인 선거의 성격과 경향은 제1대 대의원선거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제1대 대의원선거에서 나타났던 부락간 혹은 씨족간의 대결양상이 일부 지역에서 재현되기도 하였다.

선거상황은 선거자체가 중앙정치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지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독재정권에 대한 형식적인 정당화작업이외의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생략한다. 단 훗날을 위한 역사기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서산군 대의원 당선자 인적사항만을 각읍면별로 정리해 둔다.

〈표〉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서산군 당선자 인적사항

선거구	성명	직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서산읍	박성호(朴性浩)	수의사	1937.10. 3	대졸	JCH회장
	이정구(李鼎求)	신문보급소장	1933.11. 1	대졸	서산읍명예읍장
태안읍	손승원(孫勝源)	상업	1942.10.13	고졸	읍면직원6년
	김언석(金彦錫)	도정업	1928. 6. 7	고졸	초대대의원
인지면	류기승(柳基升)	농업	1933. 9. 3	대졸	초대대의원
부석면	강모준(姜模俊)	농업	1937.10.25	대졸	초대대의원
팔봉면	성기충(成耆忠)	농업	1926.11.13	한학	단위조합장3년
지곡면	김찬영(金燦榮)	농업	1933.11.21	대졸	단위조합장3년
대산면	김득환(金得煥)	제염업	1928.10.29	국졸	초대대의원
성연면	장석영(張錫暎)	운수업	1927. 6.21	국졸	소방대장3년
음암면	최종호(崔鍾浩)	농업	1922. 1.10	고졸	면장3년
운산면	표동운(表東雲)	농업	1928. 9.15	국졸	예비군중대장6년
해미면	정웅모(鄭雄模)	상업	1926. 3.15	고졸	도정자문위원
고북면	김우호(金沃鎬)	농업	1942. 2. 2	대졸	고북면지도위원장
안면면	윤주옥(尹柱旭)	제염업	1933. 9.20	대졸	초대대의원
	박작래(朴鵲來)	농업	1926. 4.18	고졸	예비군중대장6년
남면	문세호(文世鎬)	농업	1929.11. 6	중졸	초대대의원
근흥면	김용(金 鎔)	수산업	1927.11.21	국졸	명예면장
소원면	윤형상(尹滢相)	농업	1932. 1.18	대졸	부면장2년
원북면	안상학(安相學)	농업	1936.10.20	중졸	단위조합장3년
이북면	안응순(安應淳)	농업	1918.12.27	중졸	행정자문위원 면의회의원

11) 제10대 대통령간접선거

긴급조치로 오로지 힘에 의해 유지되던 유신독재체제는 급기야 '10.26 사태'로 박정희대통령이 시해되면서 순식간에 와해되었다. 그후 비상계엄의 상황속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권한을 대행하던 당시 최규하국무총리가 1979년 12월 6일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스스로 위기관리정부임을 표방하여 과도체제임을 분명하게 밝혔지만 제9대 대통령을 선출하였던 임기 6년의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간접선거였다.

12) 제11대 대통령간접선거

1979년에 이른바 '12.12사태'를 계기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부세력이 실권을 장악하고 난후 최규하과도정부의 퇴진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1980년에 '5.17조치'로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국회의 집회마저 이른바 신군부세력에 의해 봉쇄된 가운데 1980년 6월에 당시 실권자였던 전두환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1980년 8월 16일 최대통령이 사임하였다. 곧이어 1980년 8월 27일에 전두환이 재차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제11대 대통령으로 9월 1일에 취임하였다. 이로써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들은 계속해서 3대에 걸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정치적 진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표〉 대통령선거인 당선자인적사항

선거구	당선자	직업	생년월일	소속	학력	경력	득표수
서산읍	서희종	회사원	1940. 10. 10	민한당	고졸	신민당충남제7지구당청년부장, 금성출판사서산지부장	2,506
	명기창	운수업	1922. 5. 13	민정당	고졸	서산공용버스정유장대표, 서산읍면영화부회장	2,970
	문기원	예비군중대장	1942. 11. 7	민정당	대졸	예비군중대장	4,088
	임광재	농업	1938. 2. 15	민정당	국졸	새마을지도자	2,152
	이용호	농업	1937. 3. 5	무소속	고졸	전국전매노조대한염업지부부지부장	2,052
대안읍	강영주	상업	1936. 1. 6	민정당	대졸	태안라이온스클럽회장, 서산군정화위원	3,792
	가재길	농업	1942. 2. 20	무소속	중졸	도내리1구이장	2,883
	류승권	사진업	1947. 2. 10	민정당	독학	내무부장관위촉민방위교관	2,487
안면읍	윤주한	양조업	1921. 2. 19	"	국졸	안면읍남부면영화장	2,523
	성태영	양조업	1925. 1. 19	"	국졸	면장	3,398
	박병관	농업	1933. 10. 24	무소속	중졸	안면읍단위농협조합장	2,164
인지면	조병국	농업	1942. 6. 27	민정당	고졸	인지단위농협이사	1,294
	한만구	도정업	1933. 10. 7	"	국졸	인지면정화위원회부회장	964
부석면	김형환	농업	1939. 2. 18	"	중졸	부석단위농협이사	1,461
	이승국	상업	1928. 2. 17	"	중졸	부석면의회의원	2,300
팔봉면	안상환	농업	1936. 10. 12	"	국졸	서산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총무	721
	최준엽	농업	1928. 3. 1	"	국졸	팔봉면의회위원	1,401
지곡면	김종관	농업	1948. 7. 17	"	대졸	지곡면새마을지도자연합회부회장	1,444
	김환옥	농업	1929. 4. 20	"	중졸	지방공무원	1,496
대산면	김진경	도정업	1941. 12. 16	"	고졸	이장, 새마을지도자	무투표당선
	김기원	농업	1921. 8. 7	"	국졸	군정자문위원	무투표당선

〈표〉 대통령선거인 당선자인적사항 (계속)

선거구	당선자	직업	생년월일	소속	학력	경력	득표수
성연면	하헌규	양조업	1938. 6. 22	민정당	국졸	의용소방대장	951
	이영배	상업	1931. 11. 10	무소속	대졸	예비군중대장	924
음암면	명두식	농업	1943. 1. 15	민정당	고졸	새마을영농기술자연합회장	926
	최종호	농업	1922. 1. 10	"	중졸	제2대통대의원지역정화위원장	1,738
운산면	조남목	사법서사	1923. 3. 15	"	국졸	법원공무원	1,470
	김진오	농업	1935. 12. 26	"	중졸	초대통대의원, 운산단의농협장	1,791
해미면	조기중	약종상	1932. 9. 2	"	중졸	의용소방대장, 군정자문의원	2,339
	고상득	금융업	1931. 9. 28	"	고졸	예비군중대장	1,886
고북면	이남석	농업	1923. 11. 25	"	중졸	면장	2,131
	김태복	농업	1949. 5. 8	"	고졸	동서산라이온스클럽회장	2,184
남면	최명렬	상업	1943. 12. 7	"	고졸	예비군중대장	1,266
	이종명	상업	1939. 10. 17	"	국졸	반공연맹남면지도위원장	1,566
근흥면	김영우	농업	1932. 8. 12	무소속	중졸	예비군중대장	1,928
	김성진	수산업	1942. 1. 21	"	고졸	어촌계장	970
소원면	정길웅	농업	1949. 1. 15	"	중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1,548
	이만선	농업	1939. 1. 10	민정당	중퇴	만리포중학교육성회장	1,894
원북면	이경민	도정업	1939. 10. 15	무소속	독학	원리중학교육성회장,태안여상이사	1,150
	조경호	상업	1941. 11. 29	민정당	고졸	학암포청년회의소회장	1,263
이북면	조인호	농업	1935. 7. 5	국민당	국졸	새마을지도자이자	922
	안종상	농업	1936. 1. 17	민정당	고졸	관동새마을금고이사장, 이북면새마을금고지도의원	977

13) 제12대 대통령간접선거

1979년의 이른바 '12.12사태' 이후 일련의 '단계적 쿠데타' 과정은 '5.17비상계엄조치'를 거쳐 1980년에 거의 마무리되었다. 완전히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대통령이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은 새헌법의 발효와 신헌법부칙에 따른 국가보위입법회의 주도로 헌법부속법령의 정비를 마친후, 1981년 1월 25일에 비상계엄을 해제하였다. 동년 2월 11일에는 대통령선거인단(5,278명)이 선출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선출되어 1980년 9월 1일부터 제11대 대통령으로 재임해 오던 민정당의 전두환대통령후보가 정치적인 요식행사에 지나지 않았던 2월 25일의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인단의 90.23%인 4,755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981년 3월 3일에 취임하였다.

비록 형식적, 제도적으로는 간접선거이나마 대통령선거에서 정당활동을 바탕으로 한 자유경쟁선거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구도

나 국회나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대통령선거인단의 속성 등을 고려하면, 당시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회합해서 박수한번 치고 마는 이른바 '체육관선거'에 지나지 않는 극히 비민주적인 '선거 아닌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선거인단의 성격은 대통령선거기능만이 남게된 통일주체국민회의로 보면 틀림이 없다. 따라서 선거인단선거나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접선거에 관해 공히 상세한 선거상황을 기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다. 다만 서산군의 선거인당선거 인적사항만을 각 읍면 선거구별로 정리해둔다.

14) 제13대 대통령직접선거

1987년 초반의 개헌을 둘러싼 정국의 혼란은 명예로운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6.29선언'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헌법개정 길에 열리게 되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된 개정작업은 10월 12일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었고, 10월 27일에 국민투표에 붙여져 총유권자 78.2%의 투표와 투표자 93.1%의 찬성으로 개정이 확정되어 10월 29일에 공포되었다.

개정헌법에 따라 1987년 12월 16일에 직선제로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야당후보단일화문제였다. 6.10민주항쟁으로 직선제개헌을 쟁취한 민주화운동세력은 김대중과 김영삼의 야당후보단일화를 열망하였으나 결국은 결렬되어 집권여당인 민정당의 노태우와 이른바 '이민우구상'에 반대하여 통일민주당을 창당한 김영삼, 평화민주당을 따로 창당한 김대중 및 박정희전 대통령의 후계자를 표방하며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한 김종필 등 3인의 야당후보가 대결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사상 처음으로 주요 야당후보가 3명씩이나 출마하는 혼전의 야상을 보였다.

일부 개표부정의 시비가 있기도 하였지만 비교적 공정하게 치루어진 선거의 결과는 뜨거웠던 만주화의 열기와 시민들의 문민정부출현에 대한 열망어린 기대에도 불구하고 양김씨의 후보단일화결렬로 야당지지표가 세명의 야당후보에게 극도로 분산되면서 민정당의 노태우후보가 총유권자의 32%만의 지지를 얻고도 무난히 당선되었다. 총유권자 25,873,624명중 89.2%에 해당하는 23,066,41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노태우후보는 총유권자의 32%에 해당하는 8,282,783표(총유효투표의 37%)를 얻었다.

야당의 분열로 특징지워지는 제13대 대선은 역대 대통령선거중에서 지역간의 대립구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선거였다. 제7대 대통령선거 이후부터 상당부분 집권세력의 유도 혹은 조작에 의해 교묘하게 악용되어 왔던 지역감정, 특히 영호남간의 대립양상이 극도로 첨예한 양상을 보였고, 여기에서 김종필후보를 지지하는

충남지역까지 가세하게 되어 망국론이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지역할거구도가 자리 잡게 되었다.

본군의 경우에도 이러한 지역간 분열의 대세가 그대로 반영된 선거결과를 보여 주었다. 충북지역에서 유효투표의 13.5%를 얻은 것 외에 기타 지역에서는 10% 이하의 저조한 득표율을 보인 부여출신의 김종필후보가 충남지역에서만은 4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본군에서는 충남평균득표율을 약 5%나 상회하는 유효투표의 약 50%에 해당하는 55,770표를 얻어 각각 14,940표와 14,640표를 얻은 김대중, 김영삼후보는 물론이고 28,831표를 얻은 노태우후보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후보자별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제13대 대통령선거

선거인 수	투표자수			기권자 수	투표율 (%)	후보자별득표수				
	유효	무효	계			민 주 정의당	통 일 민주당	평 화 민주당	신민주 공화당	한주의통일 한 국 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신정일
138,312	114,618	4,472	119,009	19,222	86.1	28,831	14,640	14,940	55,770	437

15) 제14대 대통령직접선거

노태우정권의 출범이후 1988년 4월 26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의 결과는 집 권여당의 참패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여소야대 (與小野大)’의 현상이었다. 4당이 분점하는 ‘여소야대’의 다극구도에서 정국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른바 5공청산문제나 계층·집단간 갈등과 욕구분출, 노사대립문제 등 심각한 현안을 풀어 나가기에는 여당의 민주적 정당성의 기반과 그에 따른 정국 주도력이 너무나도 취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1990년 1월 22일 민정·민주·공화3당의 통합선언이 나오고, 2월 15일에 보수대연합을 표방하는 민주자유당이라는 새로운 거대여당이 출현하면서 여소야대의 정국구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대여당의 출현은 한편으로는 여야관계의 극심한 불균형상태를 초래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태생적으로 이질적인 집단간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여당내에서의 파벌간 갈등과 대립은 심각할 수 밖에 없었다. 구조적으로 취약점을 안고 있는 노정권에 대하여 국민은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제14대 총선거에서 다시 ‘여소야대’의 구도를 복귀시킴으로서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3당합당이라는 극단적인 승부수까지 동원하면서 ‘대통령되기’에 총력을 기울인 당시 김영삼민자당 대표가 심각한 당내대립과 공천경선을 둘러싼 갈등 등 우여곡

절 끝에 집권당의 대통령후보로 공천되었고, 야당측의 후보로는 평민당의 김대중, 신정당의 박찬중, 급조된 통일민주당의 정주영후보를 비롯해서 무소속의 백기완, 김옥선 등 6명의 후보가 대립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사상 가장 많은 후보자가 난립하는 혼전양상을 보였다. 정주영, 박찬중후보가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였으나 선거전의 대세는 민자당의 김영삼후보와 평민당의 김대중후보간의 양자대립구도였다.

선거결과는 9,977,332표(유효투표의 42.0%)를 얻은 김영삼후보의 압승이었다. 전라남북도에서 약 90%를 넘나드는 전폭적인 몰표지지를 받은 김대중후보는 서울과 대도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열세를 만회하지 못하고 8,041,284표(33.8%)를 얻는데 그쳐 대통령삼수(三修)에도 실패하였다.

각 후보에 대한 지지분포가 잘 보여주듯이 제14대 대선은 제13대 대선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지역할거문제, 특히 영호남간의 정치적 지역감정대립현상이 증폭되어 이어지면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선거였다. 어쨌든 군부출신인 아닌 김영삼후보가 당선되어 1993년 2월 25일에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우리나라는 30여 년만에 이른바 문민정부로 복귀하게 되었다.

본군의 후보자별 지지상황은 지역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김종필의 불출마에 따라 지역경제적인 관점에서 연고가 각별한 통일민주당의 정주영후보가 양김후보를 모두 압도하는 강세를 보였다. 이는 정주영후보가 비교적 강세를 보였던 충남지역에서도 유일한 이례적인 선거결과였다. 특히 서산시지역에서는 유력 후보자였던 김영삼, 김대중후보가 각각 8,084표와 6,497표를 얻는데 그친 반면에, 정주영후보는 10,292표를 얻었다.

〈표〉 제14대 대통령선거

선 거 인 수		투 표 자 수			기권자수	투표율(%)
		유 효	무 효	계		
서산군	57,365	44,622	984	45,606	11,759	79.5
서산시	34,281	26,963	431	27,394	6,887	79.9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민 주 자 유 당	평 민 당	통 일 민 주 당	신 정 당	대 한 정 의 당	무 소 속	부 소 속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박찬중	이병호	김옥선	백기완
13,619	12,829	14,605	2,346	245	421	558
8,084	6,497	10,292	1,556	87	146	301



〈사진〉 국회의원 유세

2. 서산시의 국회의원선거

1) 제헌국회의원선거

(1) 개요

제2차대전에서 패망한 일제가 8.15를 맞아 이땅에서 물러갔다고 해서 당장 조국의 독립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밖으로는 신탁통치문제와 미소간의 정략적인 대립이 있었고, 반면 국내에서는 좌우합작문제로 지도자들의 의견이 대립되어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정부를 수립하기에는 수없이 많은 난관이 있었다. 그러는 차에 1947년 9월 17일 제82차 U.N. 총회에서 미국대표에 의하여 "U.N.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는 동시에 그 국회가 정부를 수립케 하기 위하여 U.N. 감시한국위원단을 한국에 파견한다" 라는 제안이 있었고, UN 소총회는 동년 11월 14일 43 대 0으로 이를 가결하였다. 그러나 이 결의에 따라 한국에 파견된 동위원단은 소련점령군의 방해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 이를 U.N. 소총회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접수한 U.N.소총회는 1948년 2월 6일 "가능한 지역내의 선거실시에 관한 권한"을 U.N.한국위원단에 부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이에 한국위원단은 1948년 5월 10일 이내에 선거가능지역인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역사적인 제헌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제도

당시 미군정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법도 그 법적 형식은 군정법령이었지만 이는 남조선 과도정부입법위원회에 의하여 기초·제정되었던 「입법위원선거법」을 골자로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한국인의 독자적인 의사에 의한 선거법이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3월 17일 미군정법령 제175호로 공포된 전문 57조의 선거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담고 있었다.

① 선거권은 보통·평등선거를 원칙으로하여 만 21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하되 형의 선고와 금치산, 준금치산선고를 받은자와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되었다.

② 피선거권은 만 25세이상인 대한민국국민에게 인정하되 일제에 과도한 협력을 한 자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③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도를 택하여 시·군 및 서울의 구를 단위로 하되 인구 15만 이하를 1명의 정수로 하고 15만 이상 25만까지는 2명으로 하였다.

④ 선거인명부는 신고작성제도를 택했으며

⑤ 입후보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후보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200인 이상의 추천장을 받아 등록토록 하는 추천제도를 채택하였다.

⑥ 선거운동은 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 외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⑦ 기표방법으로는 단수 무기명투표제를 택하고, 기호는 1획 2획 3획 등으로 표시하게 하였으며

⑧ 개표는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입회하에 투표록에 의한 투표수를 대조하고 투표를 점검토록 하였고

⑨ 당선은 상대다수대표제를 택하였으며

⑩ 임기는 2년으로 하고

⑪ 선거 쟁송을 위하여 선거심사위원회를 두게 하고

⑫ 5년 이하의 징역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피선거권 등 공민권의 박탈등을 벌칙으로 규정하였다.

이 선거법은 한시법(限時法)으로서 아직 민주정치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군정법령으로 제헌국회의원 선거에만 과도적으로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 형식과 내용상 완벽을 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제도가 보장되었고 민주적 법치국가의 시발점인 공정한 선거제도의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인 의의가 크다.

(3) 서산군의 선거상황

본군은 서산갑구와 서산을구 2개의 선거구로 분할·획정되고 정원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토록 되었다. 서산갑구는 서산읍을 비롯하여 인지, 부석, 팔봉, 지곡, 대산, 성연, 음암, 운산, 정미, 대호지면 등 10개면으로 획정되었다. 해미면과 고북면이 서산을 선거구에 포함되게 된 것은 과도기에 차루어진 제헌국회의원선거라는 점을 감안하여도 부당하고 부자연스러운 획정이었다. 당시 서산군의 20개읍면의 기재순서대로 10개읍면씩 나눈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이른바 특정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에 해당한다. 읍구에 입후보하여 차점으로 낙선한 이종철을 위한 선거구역 획정으로 사료된다.

〈표〉 제헌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후 보 자	소 속	직 업	학 력	연 령	득 표 수	비 고
갑 구	남 정	대한민국총노동원본부	농업	한학	69	7,142	
	이종린	무소속	천도교장로	한학	66	12,335	당선
	백낙선	무소속	농업	국졸	53	2,726	
	신항균	대한독립촉성위원회	신문사지국장	국졸	44	1,038	
	채택용	대동청년단	무직	대졸	39	3,863	
	안만복	무소속	농업	국졸	39	4,588	
	박완석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약종상	구골	38	1,631	
	김남윤	조선민족청년단	농업	국졸	26	3,815	
을 구	이종철	무소속	농업	중졸	49	9,767	
	김기인	무소속	농업	대졸	47	1,812	
	박동래	무소속	농업	전문졸	47	실 격	
	김동준	무소속	농업	대졸	44	16,260	당선
	이상기	무소속	회사원	대졸	45	3,483	
	김제능	대동청년단	농업	대졸	38	6,620	

입후보 등록자는 서산갑구에 8명이 난립하고 서산을구에서는 6명이 등록했으나 한사람의 실격자가 생겼다. 서산갑구에는 채택용외는 지방연고자들이었고 을구에는 세사람의 갑구출신과 지방연고자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외지에 나가있던 인사들이었다. 후에 2대부터 수차 차점으로 낙선한 이경진은 남한만의 단정수립에 반대하여 참여하지 않았다. 정당이 지방에까지 조직을 확충하지 못한 초기인지라 거의가 무소속이었으며 비조직적인 선거운동이었다. 아직 선거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이 없

고 다만 독립과 정부수립에의 길이라는 점에서 선거구민들은 들뜨기만 했고 우국 애국지사를 뽑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 민심의 동향이었다. 혈연의 영향은 비교적 우려되었던 것만큼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상당수 후보자들이 금권선거현상을 비난하였고 재력이 부족한 일부 후보자들은 신문에 선거벽보를 써서 부쳤으며 호별방문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또한 미미한 근거라도 있으면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점과 농민과 노동자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열변을 토했는데 유권자들은 언변이 좋은 후보자를 좋아하였다. 갑을구 다 같이 선거사범은 없었고 평온한 가운데 선거운동을 끝내고 5월 10일 역사적인 투표를 시행했는데 무효표 비교적 많은 편이었으나 투표율은 전국적으로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았다.

갑구에서는 천도교장으로있던 이종란이 12,335표를 얻어, 을구에서는 김동준이 16,260표를 얻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고, 당선확정후 선거쟁송은 없었으며 각 후보자의 득표상황은 위의 표와 같다.

2) 제2대 국회의원선거

(1) 개요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단기인바, 2년 임기의 제헌의회에 이어 1950년 5월 30일에 제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제헌국회의원선거가 미군정의 주도적인 관리에 의해 실시되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 정부의 주도하에 시행된 최초의 선거라는 점에서 헌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시법(限時法)으로 제정되었던 국회의원선거법이 폐기되고, 제헌국회에서 새로 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총선거가 치루어졌다. 비록 길지 않은 경험이기도 하지만 2년동안의 국회운동을 통해 민주적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제도운용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혹은 지역구민이 국회의원의 국정활동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최초의 기회였다.

또 한편 정치적으로 주목되는 점은 우선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통해 점차적으로 독재화의 경향을 보이던 이 승만 대통령의 반대세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국회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당시 까지만해도 아직 정당의 조직력과 활동력이 미숙하였기 때문에 210명의 국회의석중 무소속이 126석이나 차지하였다. 각 정당별로는 민주국민당과 대한국민당이 각각 24석을 차지하고, 기타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노총, 사회당 등이 14석에서 2석을 얻은 것이 고작이었다.

(2) 제도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의하여 제헌국회가 제정한 국회의원선거

법은 그 전과 비교하여 대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거권에 있어 민족적 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선거권 제한을 해제하였다. 피선거권은 현역군인, 법관, 검찰관, 심계관(審計官), 감찰관 및 경찰관 등에게 제한을 가하고 개정전 선거법에서 반민족 행위자에 대하여 제한하였던 것을 해제하였다. 선거구는 1선거구 1인의 소선거구제와 구역획정에 있어 행정구역 단위 및 인구수에 의한 법정획정제도를 그대로 채택하고, 다만 200구이던 선거구를 210구로 늘렸다. 선거인명부는 자진신고등록제를 철폐하고 정기 직권작성제도를 택하였다. 선거관리기관으로서 각급 선거위원회와 위원수를 정하는데 각 선거구의 선거위원수는 7명이며 추천권은 구청장, 시장 및 군수에게 있었고 서울특별시 또는 도 선관리위원회가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후보자가 유권자의 추천을 얻어 등록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표〉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후 보 자	소 속	직 업	학력	연령	득 표 수	비 고
갑구	이종린	일민구락부	국회의원	한학	67	7,164	당선
	한동벽	무소속	군농장	국졸	62	1,729	
	전영석	국민회	농업	중졸	52	5,010	
	이종철	무소속	무직	중졸	50	4,909	
	채택룡	국민당	무직	중졸	47	4,148	
	이정규	무소속	종축원총재	대졸	47	5,526	
	김동현	무소속	무직	중졸	41	2,130	
	김제능	한청	농업	대졸	39	3,081	51.2.5보궐선거당선
	윤상구	무소속	회사중역	중졸	37	5,005	
	이한용	무소속	기자	대졸	32	6,456	
을구	이상린	무소속	회사원	대졸	46	미상	
	김동준	무소속	국회의원	대졸	45	미상	
	장동국	무소속	무직	국졸	45	미상	
	홍일섭	무소속	무직	국졸	45	미상	
	신항균	한독당	문방업	국졸	45	미상	
	안만복	무소속	농업	국졸	40	7,685	당선
	이경진	무소속	농업	국졸	40	미상	
	안덕순	한청	의사	한학	37	미상	
	류병하	무소속	농업	국졸	31	미상	
	이상희	무소속	회사원	대졸	28	미상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호별방문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였고, 후보자의 운동기회를 공평하게 하기 위한 조치와 부분적인 것이기는 하였지만 공영선거운동제도를 채택하였다. 선거소송에 있어서는 선거의 효력과 당선 효력에 관한 2종을

인정하고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게 하는 단심제로 하였다. 그 외에는 종전과 크게 다른바가 없었다.

(3) 서산군의 선거상황

이와 같은 선거법 아래 일체 외부세력의 간섭과 통제없이 우리 정부의 주도로 실시된 최초의 총선인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바 있는 바와 같이 한번의 선거 및 의정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치루어진다는 점과 함께 본군의 선거에서도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선거의 자유'와 '선택의 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된 민주적인 공명선거로 치루어졌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둘째는 최소한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정당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에서 유력한 무소속 후보자들이 사전에 기초적인 득표기반구축작업을 상당히 진척시켜 놓은 상태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제헌의회선거에서 갑구에서 4,588표를 얻어 3위로 낙선했던 안만복이 2년동안의 애경상문(哀慶喪問)과 이른바 논두렁 순찰등을 통해 지역구민의 인기를 얻어 을구에서 현역국회의원인 김동준을 누르고 당선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국민당, 한독당 등의 정당소속후보자들이 선전했으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기에는 조직과 활동면에서 아직 미흡한 상황이었다. 또한 무소속에서 일민구락부소속으로 출마한 제헌국회의원 이종린이 당선되기는 했지만 제1대 선거에서와 달리 무소속 이한용 후보를 비롯한 여러명의 유력한 후보자들의 거센 추격에 시달린 것도 후보자들의 상당한 사전정지작업의 영향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보궐선거

제2대 국회는 1950년 6월 19일 개원하였으나 불과 1주일만에 6.25동란으로 인해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었다. 전쟁중에 갑구의 이종린이 사망하여 1951년 2월 5일에 보궐선거가 실시되어 갑구에서 한청소속으로 출마하여 후보자 10명중 7위로 낙선했던 김제능이 자유당공천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3) 제3대 국회의원(민의원)선거

(1) 개요

제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게되었다. 소급해서 1952년 7월 4일 2대 국회에서 소위 정치파동에 의한 발체개헌안이 통과되어 국회는 참의원파와 민의원 양원(兩院)으로 구성하게 되어 민의

원의원으로 부르게 되었다. 참의원은 헌법에 규정되었으나 전시 등 복잡한 사정으로 구성하지는 않았었다.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특징적인 사항은 이승만대통령에 의해 주도되고 있던 자유당과 원내 제1야당인 민주국민당이 각각 공천후보자를 내세워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국회의원후보에 대한 정당추천제를 실시함으로써 정당정치의 기틀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선거결과는 자유당이 비공천당선자를 포함하여 116석을 차지하였고, 신익희와 조병옥이 이끄는 민주국민당이 15명, 무소속이 67명, 국민당이 3명, 국민회가 1명을 당선시켰다. 자유당의 압승이기는 하였지만 개헌선포에는 실패한 결과였다. 그러나 그후 자유당은 개헌선을 확보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포섭공작을 벌여 137석을 확보하게 된다.

(2) 제도

제3대 총선거는 선거법상 별다른 제도적 변화없이 치루어졌다. 선거법의 개정없이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선거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이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3) 서산군의 선거상황

여당인 자유당은 서산갑구에 나창현, 서산을구에 류순식을 공천후보자로 내세웠으며, 서산을구에서는 두사람이 민주국민당소속으로 동시출마하였고 갑구에서는 자유당 공천외에는 모두 무소속후보였다. 갑구에서 6명, 을구에서는 11명의 후보가 난립하였다.

당시 소속이 자유당이면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역의원으로 재직중이던 김제능이 당내 공천에서 탈락하여 무소속으로 입후보했음은 자유당내에서 민주청년단계가 거세되기 시작한 증거라 하겠다. 점차적으로 정당공천제가 자리잡게 되면서 치루어진 제 3대 총선거는 제헌국회의원선거와 제2대총선에 비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절차가 철저히 보장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예컨대 선거운동 기간중에 야당을 지지하는 운동원들의 과거의 범법사실이 관에 의하여 취조(取調)되고 각종 명목으로 구속되기도 하여 명량한 선거분위기라고는 할 수 없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던 갑구의 현역의원 김제능후보와 을구의 이경진 후보 등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선전하였으나 정비되기 시작한 당조직과 노골적인 관권지원에 힘입은 자유당의 세물이에겐 역부족이었다. 개표결과 갑을구 다같이 나창현, 류순식 자유당 공천후보자의 압도적 당선이었으며 각 후보자의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제3대 국회의원(민의원)선거

선거구	후보자	소속	직업	학력	연령	득표수	비고
갑구	전영석	무소속	농업	국졸	56	6,914	
	나창현	자유당	농업	중졸	53	16,662	당선
	최병을	무소속	농업	중졸	52	2,132	
	김재능	무소속	민의원의원	대졸	45	7,919	
	모호석	무소속	자유업	대졸	37	5,638	
	이한용	무소속	언론인	대학중퇴	36	4,408	
을구	양두희	무소속	무직	중졸	63	2,053	
	김동준	민국당	농업	대졸	48	3,756	
	이경진	무소속	언론인	대학중퇴	44	4,532	
	안만복	민국당	민의원의원	국졸	44	3,561	
	안덕순	무소속	의사	국졸	41	2,084	
	류순식	자유당	농업	중졸	41	7,854	당선
	채상근	무소속	농업	국졸	36	3,741	
	문제중	무소속	농업	대졸	34	3,280	
	박완교	무소속	농업	대졸	30	2,620	
	이원우	무소속	농업	대졸	30	1,838	
	편중범	무소속	회사원	중졸	29	3,115	

4) 제4대 국회의원(민의원)선거

(1) 개요

1952년 7월 소위 정치파동으로 인한 발췌개헌에서 대통령 직선제와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을 구성토록 개헌한 뒤에 이어 1954년 11월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개헌을 하여 놓고 4대 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외면적으로는 자유당의 전성기이기도 했지만 국민이 지지하는 야당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힘을 확대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자유당과 민주당이 다같이 일선조직을 완료하고 후보자를 공천하였으며, 정책에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당초부터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자유당은 대통령제정부형태를 견지하였고, 민주당은 내각책임제를 주장하여 왔었기 때문에 4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정견의 대결은 여기에 있었다. 양원제로 인한 선거법 개정이 필연적으로 요청되어 여야협상으로 이루어진 협상선거법에 의하여 4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선거결과 자유당은 126석을 차지하기는 하였지만 5만 내지 그 이상의 도시지역에서는 불과 13명만을 당선시킨데 반해, 민주당은 43명을 당선시켜 총 79석을 차

지하였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자유당이 관권선거와 비도시지역에서의 이른바 ‘준봉투표(遵奉投票)’ (conformity votes)에 전적으로 의지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선거후 105개 선거구에서 선거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부정선거시비가 극심하였고, 실제로 자유당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10개 선거구에서 재선거 혹은 당선무효판결이 내려질 정도였다.

(2) 제도

1957년 9월 18일부터 동년 11월 9일 사이에 무려 80여차의 협상을 거듭한 결과 민의원 의원선거와 참의원 의원 선거를 분리한 두 법안이 성립되었는데 소위 협상선거법중 민의원의원 선거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구수를 203개구에서 233개구로 늘렸다. 각급 선거위원회에는 여야 정당에서 추천하는 위원 각 1명씩을 참가시키며 입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탁금제도를 실시하였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특히 사전선거운동과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등 선거운동제한을 강화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여 선거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투·개표 참관인의 권한을 확대하였으며, 투표용지에는 정당추천위원이 가인(假印)하고 후보자별 득표수 발표는 투표구단위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한 것이 주목된다.

(3) 서산군의 선거상황

선거구의 증설에 따라 인접 당진군에 1개구가 증설되면서 서산갑구의 정미면과 대호지면이 당진선거구로 편입되었다.

후보자 등록 초기부터 선거분위기가 혼탁하였다. 특히 유력한 후보의 한명이었던 이경진후보가 등록마감일에 입후보등록서류를 팔봉면 어송리에서 정채불명의 괴한에게 탈취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다. 갑구와 을구를 막론하고 3대선거 까지는 각 구에서 최소한 6명 이상이 입후보했던 것에 비해 처음으로 갑구에서 3인, 을구에서 4인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가 시행되었다. 이는 첫째는 여야정당의 지구당조직기반이 어느정도 정비되고 그에 따라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기탁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후보난립이 어느정도 방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갑구의 후보자 3인, 특히 자유당 김제능 후보와 민주당의 전영석 후보는 서산읍의 원지인으로 전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각축을 벌인 결과 전 후보가 약 2천표 차로 당선되었다. 3대 민의원이고 상당한 득표기반을 가지고 있던 나창현 후보가 자유당의 공천에서 탈락하고 열세를 면치 못한 것은 임기중 정미면과 대호지면이

당진군에 편입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어쨌든 야당인 민주당 전영석후보가 당선된 것은 당시 정치상황에서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을구에서는 자유당의 류순식 후보가 민주당의 안만복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제4대 국회의원(민의원)선거

선거구	후 보 자	소 속	직 업	학 력	연 령	득 표 수	비 고
갑구	전영석	민주당	무직	국졸	60	18,206	당선
	나창현	무소속	민의원	중졸	57	6,112	
	김제능	자유당	농업	대졸	47	16,714	
을구	안만복	민주당	농업	국졸	48	13,047	
	류순식	자유당	민의원	대졸	45	20,775	당선
	장봉진	무소속	회사원	무학	45	2,217	
	박완교	무소속	회사원	대졸	34	7,260	

5) 제5대 국회의원선거

(1) 개요

1960년 3월 15일 실시한 정·부통령선거를 부정·불법선거로 규정하며 그 무효를 선언하고 다시 선거를 실시하라는 학생과 군중의 대규모적인 시위가 선거일로 부터 시작하여 전국에 파급되었다. 정부는 할 수 없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지의 대도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이때의 시위에 대하여 계엄사령부의 발표에 의하면 사망자 115인(민간인 111인 경찰관 4인), 부상자 730인(민간인 561인 경찰관 169인)으로서 사상자 총수는 845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정국에서 4월 25일 대학교수 300여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시위에 들어갔으며 학생과 시민의 시위는 밤을 새워 익일인 26일까지도 계속되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26일 상오 10시에 1.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2. 3.15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하겠다. 3.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도록 하겠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하였고

뒤이어 국회에서는 1. 이대통령의 즉시하야 2. 3.15 정 부통령선거의 무효 3. 내각책임제개헌 4. 개헌 통과후의 민의원해산 등 4개항목의 당해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승만대통령은 27일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허정 당시 외무부장관이 과도내각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국회는 그 결의에 따라 헌법개정에 착수하여 1960년 6월 15일에는 내각책임제에 입각한 개정헌법의 공포를 보게 되었다. 이 헌법에 따라 실시

되는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될 국회의원선거법이 동년 6월 23일에 공포되고 민의원은 해산하였으며 과도정부는 7월 29일에 민의원의원과 참의원의원의 선거를 실시할 것을 6월 27일자로 공포하였다.

제 5대 국회의원총선거는 일부 지역, 특히 자유당계 입후보자가 유력한 선거구에서 투표함이 소각되거나 파괴되는 등의 심각한 소요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공정하게 실시되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민주당 신파와 구파간의 대결구도속에 실시된 선거결과는 총 233석중 민주당이 175석을 석권하였고, 혁신계정당들은 지역구 123석중 단 5석을 얻는데 그쳤다. 4.19혁명이후 기대를 모았던 혁신계정당들이 부진하였던 것은 극심한 분열과 이합집산으로 지지기반이 확대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과 자금면에서도 취약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정강정책의 면에서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전혀 부각되지 못하였던 점도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2) 제도

정치적인 격변과 헌법의 개정은 필연적으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을 수반하였다. 그 주요 골자만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거권자격 연령기준을 종래 21세에서 20세로 낮춘 것이 주목된다. 등록방해의 폐단이 많았던 의원후보자의 추천제도를 폐지하였고, 선거권을 더욱 확실하게 행사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는 기본과 보충 선거인명부를 병용하였다. 또한 부재자 투표제도를 인정하는 한편 대리투표를 방지하기위하여 투표참관인 제도를 강화하였다. 헌법에서 독립성을 부여한 선거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을 전임기관으로 총당게 하였다. 기타 선거구역과 선거비용, 선거소송 및 벌칙등은 이전의 협상선거법 그대로였다.

(3) 서산군의 선거상황

4.19 혁명으로 이승만대통령의 하야와 함께 자유당이 몰락하면서 당시 유일한 유력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약진하게 된 정치구도는 본군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갑구의 경우 민주당계 인사가 대거 입후보한 반면에 현역 의원이었던 김제능후보 외에는 자유당계 입후보자가 전무하였고, 을구에서도 자유당 류순식 후보가 등록은 하였으나 사퇴하고 말았다. 갑구에서 출마한 후보자 7명 중 4명이 민주당계였는데 전영석이 공천되자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하였으며 을구에서는 20대 신인후보자 2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후보자가 난립하였다. 당시 29세로 무소속 후보였던 정동훈은 진보적인 정견을 내세워 주목받았고, 민주당계였던 25세의 한영수와 34세의 김영수는 선거구민에게 신선하고 강한 인상을 남겨 장래에 큰 가능성을 남

겨 놓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갑구에서는 민주당계열이지만 낙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34세 신인인 장경순 후보가 현역 의원인 민주당의 전영석 후보를 눌러 이변을 연출하였고, 을구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안만복 후보가 제4대총선때 등록서류를 탈취당해 후보등록을 못하여 아쉬움을 남긴바 있던 유력후보 이경진을 제치고 무난히 당선되었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루어졌던 것으로 평가되지만, 선거운동기간중 향음 제공이나 금전살포 등 후진적인 선거행태가 전혀 가셔지지 않은 것은 본군의 경우에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표〉 제5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후 보 자	소 속	직 업	학 력	연 령	득 표 수	비 고
갑구	전영석	민주당	무직	중졸	62	9,201	
	지창하	무소속	강사	대졸	55	3,926	
	김제능	자유당	농업	대졸	49	5,777	
	임창재	무소속	제염업	중졸	45	6,307	
	최병기	"	농업	중졸	44	4,553	
	장경순	"	농업	대졸	34	10,010	당선
	이풍우	"	회사원	대졸	34	5,340	
을구	이경진	무소속	농업	대학중퇴	50	8,549	
	안만복	민주당	농업	국졸	50	10,924	당선
	문원모	무소속	농업	국졸	50	3,313	
	류제풍	"	농업	국졸	50	2,051	
	류순식	"	민의원	대졸	48	사 퇴	
	장봉진	"	광업	국졸	47	5,061	
	채상근	"	농업	국졸	42	4,855	
	김동렬	"	농업	중졸	41	2,291	
	김영수	"	대학강사	대졸	34	3,414	
	정동훈	"	언론인	대졸	29	3,878	
	한영수	"	무직	대졸	25	3,205	

(4) 참의원선거

우리나라의 참의원제도는 기구했던 우리 헌정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기구한 운명을 지니고 있다. 당초 양원제로 구상되었던 헌법안이 헌법기초위원회의 토의과정에서 이승만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고 단원제로 바뀌게 되었고, 1952년 7월 4일의 이른바 발췌개헌안의 통과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략적 방안인 대통령직선제의 관철을 위해 야당측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장식품으로 양원제국회안을 받아들이면서 채택되었으나 전란 및 전란 후의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으

로 참의원의원선거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채 그 구성이 계속 연기되었다. 1957년 11월이 되어서야 참의원의원선거법이 여야합의로 제정되었으나, 이도 참의원구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기 보다는 민의원의원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정치협상전략 용에 지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민의원의원선거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참의원의원선거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구는 각 시도단위를 선거구로 하여 인구 60만에 2인씩 선출한다.

둘째 참의원의원선거는 법 공포후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동 법은 1958년 1월 25일에 공포되었으나 원래 정치협상용으로 이용되었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어 시한인 1년을 넘기고, 1960년 7월 29일이 되어서야 4.19 이후 제4차 개정헌법을 근거로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의원선거와 함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다. 4.19혁명 이후의 어수선한 정치사회분위기 속에서, 특히 민의원의원선거와 동시에 치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으며, 5.16 군사쿠데타와 함께 동 제도는 우리 헌정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본군 출신으로는 민주계의 윤상구와 충청남도의회부의장과 후에 6, 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자유당계의 이상화가 입후보로 나섰지만 모두 낙선되었다.

6) 제6대 국회의원선거

(1) 개요

5.16 군사혁명에 의하여 제5대 국회는 불과 7개월만에 해산되어 헌정은 일시 중단되고 혁명정부가 수립되었다. 혁명정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하여금 정부형태를 내각책임제대신 대통령중심제로 바꾸는 한편 국회는 단원제로 개편하고, 정당중심의 정치구도를 정립하는 내용의 개정헌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시키고 1962년 12월 26일 이를 공포하였다. 1년 이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개정헌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에 앞서 혁명세력은 1962년 3월 16일에 정치활동정화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동년 5월 30일의 결정발표에 따르면 총 4,369명의 정정법해당자중 1,336명만이 이른바 정치활동적격자로 판정되어 대다수 정치인의 정치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본군내 인사 가운데도 상당수의 해당자가 있었다. 그후 1963년 1월 1일을 기하여 법적으로 정치활동금지가 해제되면서 사실상 사전조직이 완료된 민주공화당을 비롯하여 신정당, 민주당, 국민의 당 등이 지구당을 결성하고 선거일자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추천을 필요로 하므로 어느때 보 다도 정당수가 많아졌다.

전체의석분포는 예상되었던 대로 민주공화당이 지역구 86석, 전국구 24석으로 총 110석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다수정당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기타 정당의 의석 분포는 민정당 41석, 민주당 13석, 자유민주당 9석, 국민의 당 2석이었다.

(2) 제도

혁명정부는 1963년 1월 16일 국회의원 선거법을 다시 제정·공포하였는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였으며 선거구를 지역구와 전국구의 2종으로하여 소선거구상대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 채택하였다. 한편 후보자 추천을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정당추천제로 하는 동시에 선거운동을 정당본위로하고 개인의 선거운동을 제한하였으며 과열선거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선거공영제를 확장하고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한정하였다. 또한 지연·혈연 등을 기반으로 한 구정치인들의 정계복귀를 저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233개 선거구를 131개 선거구로 줄이고 44석을 비례대표제로 선출케 하였다. 투표는 1인 1표의 단수투표제로 전국구와 지역구의 후보자를 동시에 선택하는 제도로 하였으며, 당선인 결정에 있어 전국구는 정국의 안정을 고려하여 기존 정당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볼수 있을 만큼 의석배분에 특례를 두었다. 선거인 명부는 수시작성제(隨時作成制)(개정전은 정기작성제)로 하였다. 선거법위반에 대한 벌칙을 재산형중심으로 개편·강화한 것도 주목된다.

(3) 서산군의 선거상황

제6대 국회의원 선거일 이전에 군내 정치활동정화법 해당자 전부가 해금되었다. 8명이 입후보한 본군 제6대 선거에는 종전의 갑·을구가 철폐되고, 서산군의 선거구는 충남제9지역선거구로 단일화되었다. 헌법에 따라 모든 후보가 정당추천을 받았다. 여당이 된 민주공화당은 자금, 조직의 면에서 타 정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리한 입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까지 받으면서 지방사업에대한 선심공약으로 득표활동을 하였다. 야당들은 군사독재라고 공화당을 규탄하면서 독재정치를 막고 강력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석을 야당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거기간중 중앙의 거물급 인사들의 내왕도 빈번했는데 국민당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범석과 민주당의 최희송 등이 다녀갔다. 정당법의 절차에 따라 지구당을 등록한 것은 민주공화당과 민정당, 국민의당 뿐이었으며 민주당은 과거의 향수 어린 당원을 규합하려했고 기타는 실질적으로 하부조직이 없는 일시적 당명의 차용이었다. 선거결과 사전에 조직된 공화당의 막강한 배후지원을 등에 업은 이상희 후보가 무난히 당선되었다. 비록 낙선하기는 하였지만 제5대총선에서 가능성을 보

여준 바 있던 한영수후보가 제5대국회의원을 지낸 민주당의 장경순후보를 약 천백여표차로 제치고 2위를 차지한 것이 크게 주목된 선거였다. 후보별 득표상황은 다음 별표와 같다.

〈표〉 제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후 보 자	소 속	직 업	학 력	연 령	득 표 수	비 고
충남 제9지역 선거구	이경진	한국독립당	농업	대학중퇴	54	7,316	
	이상희	공화당	농업	대졸	40	18,924	당선
	이풍우	민주당	상업	"	38	5,074	
	장경순	민주당	농업	"	37	12,368	
	김영수	국민의당	"	"	37	9,265	
	조제헌	보수당	"	"	30	7,832	
	이두연	자유당	"	"	29	2,412	
	한영수	민정당	"	"	28	13,491	

7) 제7대 국회의원선거

(1) 개요

사실상 군정양식을 벗어나지 못한채 이른바 '개발독재체제'를 구축한 박대통령과 공화당정부는 3권분립원칙과 민주주의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거수기역할에 지나지 않았던 여당소속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시너로 전락한 국회가 전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967년 6월 8일에 실시된 제7대 총선거는 서서히 장기집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고 있던 핵심집권세력에게는 국회의석 3분의 2의 개헌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한편 야당측의 입장에서는 군부독재체제의 영구화를 저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절박한 의미를 갖는 선거였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분별한 관권개입, 투개표과정에서의 부정문제가 두드러졌다. 선거 한달후인 7월 6일에 신민당은 선거무효 일괄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31개 대학과 136개 고등학교가 휴업하고 공화당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자당 소속의 당선자 8명을 스스로 제명하였을 정도였다.

선거결과는 공화당이 개헌선인 117석을 크게 상회하는 130석(지역구 103석, 전국구 27석)을 차지하였다. 기타 정당은 신민당이 44석(지역구 27석, 전국구 17석)을 차지한 외에 군소정당은 대중당만이 유일하게 1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선거결과 11개 정당후보가 난립하였던 제7대총선은 사실상 양당제의 토대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었다.

(2) 제도

제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중인 1966년 9월 22일 국회본회의는 정당법과 선거관계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동 특위는 장기간의 협상에 의하여 요강을 확정하였다. 이 요강에 의한 선거관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1966년 12월 14일 공포되었는데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선거인 명부의 교부제도(交付制度)를 신설하였고, 선거운동에 있어 선거사무원수와 연설회, 고지벽보 매수, 선거공보의 발행회수 및 후보자 성명의 제시등 선거운동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였다. 또한 투표통지서의 교부제도를 변경하였다. 타법령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리하였다.

한편 정치자금법이 사실상 현재 전국경제인연합에 해당되는 당시 한국경제협회를 주축으로 한 경제단체들에 의해 주도되어 제 47회 정기국회에서 1965년 2월 9일에 제정되었다. 제7대선거는 현실적으로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일수 밖에 없기는 하였지만 신설된 기탁금제도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정치자금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양성화된 상태에서 치루어진 선거였다.

(3) 서산군의 선거상황

제7대총선에서 본군의 출마자는 모두 6명이었는데 이는 당시까지의 역대선거중 후보자수가 가장 적은 것이었다.

정당질서가 확립되고, 정당의 조직적인 활동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제1당과 제2당의 공천획득은 본선거에서의 당락과 마찬가지로의 의미를 갖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따라서 특히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제1야당인 신민당의 공천경쟁은 격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5인의 경쟁을 물리치고 민주공화당은 이상희가, 신민당에서는 한영수가 각각 공천을 획득하였다. 초기의 선거전은 여야와 지역의 토착세력지지가 만만치 않았으나 전체적으로는 여당의 이상희, 신민당의 한영수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업적과 관록을 지닌 나창현후보가 추격하는 3자대결구도였다.

민주공화당은 사전에 형성한 조직과 6대 대통령선거 직전에 그 업적과 이념에 찬성하여 참여한 신참세력을 합하여 조직이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반면에 신민당은 공천에 낙천한 세력의 비협조와 일탈현상으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조직과 부동인기의 대결이었다. 민주공화당은 그간의 경제건설업적과 조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펼치면서 지방사업에 대한 선심공적을 제시했고, 신민당은 대중경제와 2중곡가제를 주장하면서 정부가 중농정책에 실패했다고 공격했다.

통사당의 정동훈은 진보적 정당에의 지지를 부르짖었으나 반응이 없었으며 자유당의 후보는 초반전의 인기를 회복하지 못했다. 한편 5차에 걸쳐 입후보한 이경진에게는 이번따라 유권자의 동정이 가지 않았으며 대중당의 정헌제는 가슴에 큰 글자로 기호표를 달고 지연(地緣-서산 갑구지역)을 외치면서 유권자에 호소하는 진풍경을 이루었다. 선거운동기간중인 5월 24일에는 당시 민주공화당의장이었던 김종필이 서산을 양류정(楊柳亭)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서산군 유사이래 최대의 인파가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여야 여러건의 선거사범이 있었으며 선거후 부정선거에 대한 야당의 비난은 일시나마 이 지역에도 그 여파가 있었다.

선거결과는 본군에서도 공화당의 이상희후보가 압승하여 재선되었다. 상세한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제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후보자	소속	직업	학력	연령	득표수	비고
충남 제9지역 선거구	나창현	자유당	농업	중졸	66	6,835	
	이경진	민주당	농업	대학중퇴	57	1,603	
	이상희	공화당	국회의원	대졸	44	57,559	당선
	정헌제	대중당	무직	"	41	2,879	
	정동훈	통사당	농업	"	36	1,930	
	한영수	신민당	농업	"	33	24,053	

8) 제8대 국회의원선거

(1) 개요

제7대 총선에서 개헌선을 확보한 박대통령과 집권여당세력은 장기집권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1969년 10월에 대통령의 3선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6차 헌법개정을 불법적으로 관철시켰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국회의결(9월 14일)과 국민투표(10월 17일)의 개헌절차를 밟은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인 의사진행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것이었다. 개정헌법에 의해 삼선에 도전한 박정희후보는 1971년 4월 27일에 치루어진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야당후보의 강력한 도전에 시달리면서 신승하였다.

약 1개월 후인 5월 25일에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도 제1야당인 신민당이 중전의 44석에서 89석으로 두배이상 크게 증가하여 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기능이 강화되었다. 비록 의석수면에서는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의 위치를 지켰지만 전체 득표수로는 유효투표의 43.6%를 얻은 야당에게 뒤지는 득표상황이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3선개헌으로 장기집권의 꿈을 숨기지 않는 박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심화되기 시작했던 심한 경기불안과 국제수지의 악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별 의석분포는 공화당 113석, 신민당 89석, 국민당 1석, 민중당 1석이었다.

(2) 제도

선거제도는 제7대 총선의 경우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다만 제6차 헌법개정으로 150인 이상 200인 이하의 범위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국회의원의 수가 150인 이상 250인 이하의 범위로 늘어났다. 제8대 국회의원의 총수는 전국구 51석을 포함해서 204명으로 늘었다.

한편 1969년 1월 23일 제67회 임시국회에서 표결로 처리된 제1차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탁금배분방법이 일부 변경되었다.

(3) 서산군의 선거상황

본군에서는 전반적인 선거경향과는 달리 광범위한 조직기반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후보가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유지하였다. 공화당소속으로 2선의원을 지낸바 있는 이상희의원 대신 입후보한 박승규후보의 압승이었다. 다만 1960년 25세의 나이로 제5대 총선때부터 계속 출마해왔고 제6, 7대선거에서는 비록 큰 표차이기는 하였지만 연이어 차점자로 낙선한 바 있던 한영수후보가 3만표이상을 득표하는 강세를 보임으로써 장래의 가능성을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제3대 도의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신민당의 명화섭후보가 당시의 전국적인 친야당적인 정국의 흐름과 해미, 고북면지역에서의 강세를 바탕으로 1만3천표이상을 득표한 것도 주목할만한 현상이었다.

〈표〉 제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후 보 자	소 속	직 업	학 력	연 령	득 표 수	비 고
충남 제9지역 선거구	박승규	공화당	회사대표	대졸	48	42,150	당선
	명화섭	신민당	농업	국졸	48	13,606	
	한영수	국민당	정당인	대졸	35	30,585	
	정헌제	대중당	농업	"	44	1,823	
	정재복	민중당	농업	국졸	36	758	
	이원근	통일사회당	농업	대졸	25	949	

9) 제9대 국회의원선거

(1) 개요

제7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총선에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패배한 박정권은 장기집권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할 수 밖에 없던차에 월남의 패망, 주한미군철수 등으로 야기된 국내외 정세불안을 틈타 국가위기상황의 극복을 명분으로 하여 헌정을 중단하는 초헌법적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른바 '10.17유신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헌정중단의 상황에서 1972년 10월 27일 유신헌법안이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공고되었고, 이어서 11월 21일의 국민투표에서 유효투표의 91.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확정되었다.

제8대 총선에서 나타났던 국민의 정치적 의지와 강화된 야당의 견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견제와 균형의 구도는 유신조치에 의해서 전면 부인되었고,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의 독재정치체제하에서 국회와 국회의원선거는 더 이상 민주정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는 대안선택의 자유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흔히 '동반선거(同伴選舉)'로 불리우는 매구(每區)2인 정원의 중선거구제와 대통령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국회의원 3분의 1이 결정되는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

어쨌든 1973년 12월 27일에 실시된 제9대 총선거의 결과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보장된대로 지역구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73명 당선되었고, 신민당이 52명, 통일당 2명, 무소속 19명 당선되었다. 다만 득표율에 있어서는 공화당이 38.7%로 신민당의 32.6%에 비해 불과 6.1% 앞선 것이었다. 결국 박정희 1인중심의 집권세력은 공화당소속의원 73명과 3년임기의 '유신헌정우회'(약칭 유정회)소속의원 73명을 확보하여 146석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2) 제도

총 276명의 국회의원중 1선거구 2인 중선거구제로 73개 지역선거구에서 6년임기의 지역구의원 146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임기 3년의 전국구국회의원(73명)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선거의 정당독점을 지양하여 국회의원의 무소속출마를 허용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소속정당의 탈당으로 인한 의원자격상실조항을 삭제하였다. 후보자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입후보 기탁금제도를 신설하였다.

(3) 서산군의 선거상황

서산군은 당진군과 함께 충남 제7선거구로 확정되었다. 2인 정원에 5명이 후보자로 나섰다. 3,580표를 얻는데 그친 통일당의 박희정후보를 제외한 4명이 상당한 접전을 벌였다. 본군에서는 집권여당인 공화당의 박완교후보가 3위로 낙선하는 이변을 일으켜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당시 정치상황에 비추어 볼 때 1선거구에

서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하에서 여당후보가 낙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던 한영수후보가 1960년 제5대 선거 이래 5번째 출마한 끝에, 그것도 51,527표를 얻어 2위와 상당한 표차로 당당히 1위로 당선되어 마침내 원내진출의 꿈을 이루었다. 한영수당선자는 개원 이후 무소속원내교섭단체에 속해서 활동하다 1974년 8월에 신민당에 입당하였다. 한편 제8대때 당진에서 당선된바 있는 39세의 현직의원인 신민당의 류제연후보도 당진군에서의 강세에 힘입어 공화당의 박완교후보를 약 1천표차이로 누르고 재선되었다.

〈표〉 제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후 보 자	소 속	직 업	학 력	연 령	득 표 수	비 고
충남 제7지역 선거구 (서산 ·당진)	박완교	공화당	회사대표	대졸	50	34,008	
	류제연	신민당	정치인	대졸	39	35,171	당선
	박희정	통일당	회사인	대학원졸	41	3,580	
	차의영	무소속	무직	대학원졸	47	31,366	
	한영수	무소속	농업	대졸	39	51,527	당선

10) 제10대 국회의원선거

(1) 개요

제10대 총선은 1978년 12월 12일에 실시되었다. 극히 비민주적인 제도에 따라 유효투표수의 32.8%를 얻은 야당이 전체득표율에서 집권당인 공화당을 1.1% 앞섰지만 의석수에서는 훨씬 뒤지는 이른바 ‘Bias현상’이라고 불리는 모순적인 선거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제10대 총선은 총유권자의 77.1%인 15,034,290명이 참여하여 5.16이후 실시된 5번의 총선거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또한 건국 이후 처음으로 야당의 득표율이 집권여당을 앞서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유신독재정권에 대한 정치적불신임을 분명히 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그 의미가 큰 선거였다. 바로 이러한 선거결과와 배경이 된 유권자의 높은 정치의식과 단호하고 비판적인 저항의 자세가 유신독재체제의 막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후락 등의 과거 집권세력의 중진이었던 일부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되면서 공화당의 정국주도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던 것도 주목되는 점이었다.

지역구선거결과 의석분포는 총 154석중 공화당 68석, 신민당 61석, 민주통일당 3석, 무소속 22석이었다. 그러나 여당세력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선출되는 전국구의원 72석을 합해서 140석을 차지하여 여전히 다수당으로서의 위치를 지켰다.

(2) 제도

제10대 총선은 심화된 정국긴장속에서도 유신독재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제9대 총선의 연장선상에서 치루어진 선거였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세력과 야당측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헌법개정은 물론이고 선거법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장기집권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해 놓았다고 맹신하였던 핵심집권세력은 이에 부응할 정치적 의사도 역량도 갖추지 못한 실정이었다. 선거제도상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은 물론이다.

다만 1973년 6월 14일에 제 86회 임시국회에서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된 제2차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배분방법이 일부 변경되었고, 관제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정회'도 정치자금배분에 참여하게 되었다.

(3) 서산군의 선거상황

제9대때와 마찬가지로 1구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에 따라 서산군은 당진군과 함께 충남 제7선거구로 확정되었다. 제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1974년에 신민당에 입당한바 있는 한영수후보와 역시 신민당소속이었고 제8, 9대 2선의원을 지낸 류제연후보 등 제1야당소속의 현직의원 2명을 포함하여 모두 6명이 후보자로 나섰다.

〈표〉 제1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후 보 자	소 속	직 업	학 력	연 령	득 표 수	비 고
충남 제7지역 선거구 (서산·당진)	심현직	공화당	육영사업	대학원수료	54	54,699	당선
	류제연	신민당	국회의원	대학원졸	45	26,799	
	한영수	"	국회의원	대졸	45	40,874	당선
	김현욱	무소속	무직	대학원졸	51	15,217	
	박완교	"	새마을금고군 연수원이사장	대졸	56	17,655	
	이명휘	"	도서출판업	"	49	23,764	

선거결과는 공화당의 심현직후보와 신민당의 한영수후보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여 9대 선거와 달리 여당과 제1야당이 한석씩 나누어 이른바 '동반당선' 되었다. 신민당의 류제연후보는 선전하였으나, 지지기반이 중복되는 당진출신의 이명휘, 김현욱 두 무소속후보의 강한 도전으로 인한 산표현상때문에 고배를 마셔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신민당의 한영수후보는 막강한 조직과 유무형의 각종 지원을 받는 여당의 심현직후보에게 뒤져 비록 2위로 당선되기는 하였지만 장기간 다져 놓은 서산지역의 지지세를 바탕으로 4만여표나 획득함으로써 확고한 지지기반을 과시하였다. 제3대, 4대총선때 을구에서 낙선했던바 있고, 제9대때도 공화당의 공천을 받아

입후보하였으나 세번째 도전에 실패하였던 박완교후보는 공화당의 공천경쟁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재도전하는 집념을 보였으나 17,655표를 얻는데 그쳐 4위에 머무르고 말았다.

11) 제11대 국회의원선거

(1) 개요

새 헌법의 발효와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헌법부속법령의 정비를 마친 신군부세력은 1981년 1월 25일에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2월 25일에는 민정당의 전두환후보가 새헌법에 따라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해 제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어서 정확히 한달후인 3월 25일에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총선거는 제5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위한 마지막 마무리준비작업이었다.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실세정당인 민정당의 독주가 사실상 보장되어 있던 선거였다. 기성 제도권정치인들이 대부분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뚜렷한 쟁점이 부각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민정당이 과반수를 크게 상회하는 다수의석을 차지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많은 유력 기성 정치인들이 정치무대에 발을 붙일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276의석중 78.6%에 해당되는 217석을 초선의원이 차지하여 신인정치인들이 대거 원내에 진출하였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정당별 의석분포는 총 276석중 민정당 151석, 민한당 81석, 국민당 25석, 기타 19석이었다.

(2) 제도

1981년 1월 29일에 공포시행된 국회의원선거법상의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과거 제3공화국의 전국구제도와 제4공화국의 지역구제도를 절충하여 답습한 것이었다. 총 92개의 지역구에서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2명씩 선출하고, 92석의 전국구의석은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게 배분하되 지역구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한 제1당에게 무조건 전국구의석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61석을 배정하고, 잔여의석을 제3공화국 당시와 달리 제2당이하의 정당에게 득표율이 아니라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였다. 또한 9대 총선 이래 시행되어 오던 기탁금제도를 정당공천 지역구후보자는 700만원, 무소속후보자는 1,500만원을 기탁하게 하여 차별화하였다. 이외에도 정당 공천후보자가 등록 이후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 것이 주목된다.

정치자금법 역시 기타의 정치관련 헌법부속법률들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이른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개정(1980년 12월 30일)되

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정치자금후원회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를 신설한 것이었다. 제5공화국 집권세력의 정치적 입지보전에 한 축을 이루었던 정치자금법은 제9차 헌법개정 이후 1989년 12월 제4차 개정시까지 9년간이나 그대로 유지되었다.

(3) 서산군의 선거상황

본군의 경우 당진군일원과 합쳐서 충남 제8선거구로 확정되었다. 2석을 놓고 5명이 입후보하였다. 민한당의 공천으로 2선의원을 지낸 한영수후보가 출마하였고, 제10대 총선때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최하위로 낙선하였던 단국대 교수출신의 김현욱후보가 민정당의 공천을 받아 재도전하였다. 그외에 검사출신의 장기욱이 무소속으로, 박승규와 박태권이 각각 국민당과 민립당공천으로 후보자로 나섰다. 처녀출마한 무소속의 장기욱후보가 3만여표를 얻어 돌풍을 일으키며 장래 그 가능성을 충분히 예감케 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신생 집권당의 막강한 조직력을 등에 업고 당진지역에서 강세를 보인 민정당의 김현욱후보와 서산지역에서 확고한 지지기반을 갖추고 있는 민한당의 한영수후보가 양분한 판세를 뒤엎을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한영수후보는 입법위원을 지내는 등 제5공 정치권에서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제9대 이래 연속 3선되어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중진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자리매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영수의원은 이로부터 약 1년 4개월이후 1982년 6월 29일 간통사건으로 구속·기소되고, 이어 7월 30일에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하였다. 당시 1981년 1월 29일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상 지역구선출위원의 경우 당해 지역구 의원 전원이 꺾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 제11대 국회재적의원은 276명에서 275명으로, 민한당 의석은 1석이 준 81석으로 줄게 되었다.

〈표〉 제1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후보자	소속	직업	학력	연령	득표수	비고
충남 제7지역 선거구 (서산·당진)	박승규	한국국민당	회사대표	대학원졸	58	15,078	
	박태권	원일민립당	공업	"	35	11,359	
	김현욱	민주정의당	교수	"	42	69,967	당선
	한영수	민주한국당	입법의원	대졸	47	51,376	당선
	장기욱	무소속	변호사	대졸	38	31,408	

12) 제12대 국회의원선거

(1) 개요

1984년 말에 제3차해금조치로 대부분의 야당정치인들이 정치활동규제에서 풀리고, '민주화추진협의회'(약칭 민주협)가 신당창당을 구체화하는 등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어느정도 강권통치의 위세가 줄어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제12대 총선은 전두환정권에 대하여 처음으로 국민이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회였다.

그 결과는 전두환정권의 권위주의적인 힘의 통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였다. 대통령직선제를 핵심선거공약으로 제시한 3개 야당이 민정당의 득표율 35.25%를 크게 앞질러서 58.10%를 득표하는 야당의 압승이었다. 특히 1980년 제5공화국의 출범당시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관제야당'에 지나지 않았던 민한당과 국민당이 참패하고, 선거에 임박해서 창당된 신민당이 102석을 차지하게 된 것은 민주적인 정치의식을 갖춘 국민이 5공정권에 대하여 내린 단호한 저항이고 준엄한 심판이었다.

(2) 제도

선거법개정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나 정략적으로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여당의 입장때문에 유야무야되고 말았고, 1984년 7월 25일의 개정선거법은 1981년 1월 선거법과 비교해보면 그 핵심적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기탁금제도를 전국구후보자에게도 확대적용해서 등록신청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700만 원을 기탁하도록 하였다.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약간 완화되고 개표참관인이 8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 또한 법정선거비용의 상한선이 정해져 최대선거구에서도 9천만원 이상을 쓸수 없도록 하여 공명선거의 의지를 보였으나 그 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3) 서산군의 선거상황

제9대 이래 본군 국회의원선거의 맹주였다고도 할 수 있던 한영수위원이 불미스러운 간통사건으로 1982년 7월 30일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고 후보로 나서지 못한 가운데, 민정당의 김현욱후보를 비롯해서 제 11대때 출마하여 가능성을 엿보였던 장기욱후보가 민한당후보로, 역시 11대때 입후보하였던 박태권후보가 신민당후보로 재도전하였고, 국민당의 김영수후보가 합류하였다.

평균 86.7%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본군의 선거결과는 한영수 전 3선의원이 빠진 상태에서 막강한 조직력을 앞세운 민정당의 김현욱후보가 당진지역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8만3천여표를 얻으며 여유있게 재선되었고, 민한당의 장기욱후보가 4만6천여표를 얻어 두번째 도전에서 당선되었다. 1946년생으로 네 후보중 가장 젊은 신민당의 박태권후보는 서산읍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전국적인 야세

의 흐름에 힘입어 3만5천여표를 획득하는 등 선전을 벌이며 가능성을 보였으나, 선거운동이 탄력을 받으면서 서산읍지역에서의 높은 득표와 함께 기타 모든 투표구에서 비교적 고른 득표를 한 민한당의 장기옥후보에게 약 1만천여표차로 패배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장기옥후보가 한영수 전의원의 퇴진으로 생겨난 공백을 매우게 된 형국이었다.

〈표〉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후보	소속	직업	학력	연령	득표수	비고
충남 제8선거구 (서산·당진)	김현옥	민주정의당	국회의원	대학원졸	57	83,579	당선
	김영수	한국국민당	농업	대졸	59	22,596	
	박태권	신한민주당	공업	대학원졸	39	35,647	
	장기옥	민주한국당	변호사	대졸	42	46,841	당선

13) 제13대 국회의원선거

(1) 개요

‘2.12총선’을 계기로 가시화된 대통령직선제개헌과 정치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이른바 ‘6월항쟁’과 ‘6.29선언’을 거쳐 헌법개정으로 이어졌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평화롭게 추진된 헌법개정안은 10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0월 27일에 국민투표에 붙여져 총유권자 78.2%의 투표와 투표자 93.1%의 찬성을 얻어 10월 29일에 공포되었다. 개정헌법에 따라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총선거는 전체적으로는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야당의 분열과 민정당의 노태우후보의 당선으로 인한 실망과 그에 따른 보상과 경계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선거였다.

또한 야당의 극심한 분열현상으로 의원들의 3김으로 대표되는 지역보스중심의 이합집산이 거듭되는 한편,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던 지역감정이 그대로 작용해서 4당이 분점하는 극단적인 지역할거현상으로 나타났다. 선거결과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집권당의석이 야당의석보다 적은 ‘여소야대’ 현상으로 나타났다. 의석분포는 민정당 125석, 평민당 70석, 민주당 59석, 공화당 35석, 기타 10석이었다. 정당별 득표율은 민정당 33.96%, 민주당 23.83%, 평민당 19.26%, 공화당 15.59%였다.

(2) 제도

1988년 3월 17일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해 종래 1구 2인대표의 중선거구제는 1구1인 상대다수대표의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지역구가 224개

구로 늘었으며,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전국구위원의 수는 75명으로 상대적으로 줄었다. 전국구위원의 배분은 지역선거구에서 제1당이 지역구위원총수의 100분의 50미만일 때에는 그당에게 전국구위원총수의 2분의 1을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지역선거구에서 5석 이상을 얻은 나머지 정당에게 지역구위원비율로 배분하였다.

기탁금을 상향조정하여 정당의 공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와 전국구후보자는 종래 700만원에서 1천만원,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기탁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표참관인을 12명으로 정하였던 종래와 달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당추천후보자는 8인을, 무소속후보자는 4인을 개표참관인으로 선정·신고하여 반씩 교대로 참관하도록 하였다.

특히 선거시에 중립성이 각별하게 요구되고, 과거에 선거개입의 의혹을 많이 받아왔던 검사나 경찰공무원 혹은 군인이 투·개표과정에 간섭하거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등 불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가중 처벌토록하여 선거절차의 공정성을 높였다.

(3) 서산군의 선거상황

제9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다시 소선거구제로 복귀되어 실시된 제13대 총선에서 본군은 당진군과 분리되어 단일 선거구로 독립되었다. 제 11, 12대 2선의원을 지낸 민정당의 김현욱의원이 출신지역인 당진에서 출마하였고, 장기욱 의원이 선거구를 옮기게 되어서 본군의 선거판세는 새로운 경쟁구도로 짜여지게 되었다.

11대 이래 계속 출마하여 제12대 총선때는 3만5천여표를 얻어 상당한 지지세를 과시했던 박태권후보가 통일민주당의 공천으로 세번째 출마표를 던졌고, 제11, 12대 전국구국회의원을 지낸 민정당의 유근환, 제5대 국회의원을 역임한바 있는 평민당의 장경순,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을 지낸 신민주공화당의 박성호후보가 출마하였다. 그외에도 제12대 대통령선거인을 지낸바 있는 서희종이 신한민주당공천으로 입후보하였고, 민통련조직국장을 지낸 태안출신의 류영래가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모두 6명이 후보자로 나섰다.

경선상황은 3강 3약의 판세속에서 민정당의 유근환, 통일민주당의 박태권, 신민주공화당의 박성호 등 세후보가 각축전을 벌인 끝에 전국적인 야당강세의 흐름을 타고, 지난 두번의 선거에서 착실하게 지지기반을 구축한 박태권후보가 36,311표를 얻어 35,148표를 얻은 민정당의 유근환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어 파란을 일으켰다.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나선 박성호후보도 지역투표현상에 힘입어 약 2만8천여표를 얻는 등 선전하였으나 당선권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태안출신의 류영래후보는 출신지역인 태안에서 조차 부진을 면치 못하여 약 3천여표를 얻는데 그쳐 제도권정치의 장벽을 실감케 하였고, 평민당의 장경순, 신한민주당의 서희종후보는 판세에 영향을 미칠만한 역량을 보이지 못하였다.

〈표〉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후 보 자	소 속	직 업	학 력	연 령	득 표 수	비 고
서산군	류근환	민주정의당	국회의원	대학원수료	60	35,148	
	박태권	통일민주당	정치인	대학원수료	42	36,311	당선
	장경순	평화민주당	무	대학원수료	62	2,732	
	박성호	신문주공화당	수의사	대졸	51	28,189	
	서희종	신한민주당	정치인	대학원재학	48	997	
	류영래	무소속	한국사회문제연구소장	대졸	42	3,097	

14) 제14대 국회의원선거

(1) 개요

제13대 국회는 '여소야대'와 지역할거구도를 바탕으로 한 4당분점체제로 인한 극한적인 대립과 소모적인 정쟁의 연속이었다. 극한 노사대립 등 과도기적인 혼란속에서 급기야 이른바 '구국의 결단'의 명분하에 1990년 1월 22일 민정, 민주, 공화 3당이 민자당으로 통합하면서 정국구도는 구조적으로 파벌성을 안고 있는 거대여당과 극한적인 대립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야당의 대립구도로 바뀌게 되었을뿐 정국의 안정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제14대 총선거는 우선적으로 3당합당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하는 기회였다.

또한 1991년의 지방자치선거를 통해서 현실정치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한 재야운동세력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거나 새로운 시민정치참여운동을 조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시된 선거라는 점에서, 특히 민주와 반민주의 단순한 대립구도가 불식되고 더이상 민주화가 쟁점 자체가 되지 못하는 선거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찾아진다.

선거결과는 '여소야대'로의 복귀였다. 각종 부정부패사건과 정국혼란으로 그 신뢰성과 도덕성이 훼손된 민자당은 과반수의석획득에 실패하였다. 선거결과 총 299석의 의석분포와 득표율은 민자당 149석(38.5%), 민주당 97석(29.2%), 통일국민당 31석(17.4%), 신정당 1석(1.8%), 무소속 21석(11.5%)이었다.

(2) 제도

1991년 12월 31일의 국회의원선거법개정에서 핵심적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기탁금제나 선거운동관련사항이 일부 개정되었다. 국회의원정원은 총 299명으로 처음으로 선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고, 260명의 지역구다수대표와 39명의 전국구비례대표로 구성되었다. 차등기탁금제도가 철폐되어 모든 국회의원후

보자가 공히 1천만원을 기탁하게 하였다. 이는 정당공천후보자의 경우 1천만원, 무소속후보자에게는 2천만원의 선거기탁금을 공탁하도록 했던 구국회의원선거법(제 33, 34조)의 '차등기탁금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재결 1989.9.8 88헌가 6)의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기탁금의 국고귀속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종래 유효투표수의 3분의 1미만이었던 것을 당해 지역구의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기타 하오 11시부터 상오 6시까지 야간연설회를 금지하였고,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등 가족의 경우에는 선거사무장이나 운동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표결로 개정된 제4차 정치자금법개정으로 1980년 제3차개정정치자금법에 의해 신설된 후원회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가 확대되었고, 기탁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또한 1991년 12월 30일 제5차 정치자금법개정은 야당의 반대속에 여당단독으로 처리되었는데 기탁금한도와 국고보조금이 인상되었고, 의석없는 정당에게도 보조금이 배분되게 하였다.

(3) 서산시·군의 선거상황

제13대 선거에 이어 계속 소선거구제로 실시되었는데 1989년 1월 행정구역개편으로 군과 분리 되어 설치된 서산시와 서산군 및 태안군 일원으로 확정된 본선거구에서는 모두 5명이 입후보하였다. 제14대 선거는 돌아온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한영수와 현직의원인 민자당 박태권 두후보간의 각축전이었다. 제13대 선거에서 공화당후보로 출마하여 선전 끝에 낙선한바 있던 박성호후보가 통일국민당 공천으로 재도전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또한 서산읍에서 변호사개업을 하고 있던 문석호와 장기옥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으나 큰 변수는 되지 못하였다.

〈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후 보 자	소 속	직 업	학 력	연 령	득 표 수	비 고
서산시	박태권	민주자유당	정치인	대학원수료	46	35,586	
	한영수	민주당	정당인	대졸	58	36,943	당선
서산군	박성호	통일국민당	수의사	대졸	55	15,559	
태안군	문석호	무소속	변호사	대졸	33	10,822	
	장기옥	무소속	변호사	대졸	49	7,189	

선거결과는 민주당의 한영수후보가 전지역에서 고른 득표를 하여 36,943표를 획득하여 35,586표를 얻은데 그친 박태권후보를 약 1,400여표차로 따돌리며 4선

의원으로 당당히 재기에 성공하였다. 전국적인 현상이었던 야당바람이 일부 도움이 되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제9대 이후 내리 3선의원을 지낸바 있고, 선거당시 민주당 충남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던 한영수후보가 고참정치인으로서의 저력과 수십년에 걸쳐서 토착화된 지역내 지지기반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15) 제15대 국회의원선거

(1) 개요

14대 국회의 개원후 즉시 민자당은 과반수 의석확보를 위해 무소속의원 3명을 입당시켜 인위적으로 과반수를 만들면서 정치구도를 바꾸었다. 그러나 이후 재산공개파문, 당내파벌 등으로 인해 김재순의원 등 상당수 여당중진의원들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고, 급기야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의원이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였다. 또 한편 제1야당인 민주당이 6.27지방선거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서 압승을 거두자 정계복귀를 암중모색하던 김대중이 이기택대표에 반대하며 당내 추종세력을 이끌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합집산의 과정을 거쳐 3당통합을 바탕으로 했던 정국구도는 신한국당, 민주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당명만이 바뀐채 다시 13대 국회 당시의 지역활거에 기초한 4당분점체제로 환원되었다.

이른바 통합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실시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였다. 한층 강화된 선거공영제의 첫 시험무대로 큰 기대속에 관심을 끌었으나 법정선거비용의 비현실성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었고, 실제 선거과정에서 제대로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수지급, 향응제공이나 대표현상 등이 적지 않았고 심지어 '20當10落'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낙선자들은 통합선거법이 휴지조각으로 변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1997년 9월 현재 당선된 국회의원중 17명이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선거법의 엄정한 집행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선거결과는 신한국당이 과반수획득에는 실패하였으나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여당이 승리하는 기록을 남겼다. 반면에 김대중총재가 이끄는 국민회의는 서울에서의 패배로 큰 타격을 입었다. 선거 직전에 발생한 비무장지대에서의 긴장사태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5대 총선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전체의원의 45.8%에 해당하는 137명의 대부분이 전문직 출신인 신인정치인이 초선의원으로 당선되어 정계세대교체의 조짐을 보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비교적 낮은 63.9%의 투표율을 보인 선거결과 의석분포(득표율)는 신한국당 139석(34.5%), 국민회의 79석(25.3%), 민주당 15석(11.2%), 자민련 50석(16.2%), 무소속 16석(11.8%)이었다.

(2) 제도

단수투표제와 1구1인 상대다수대표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총 299명 정원의 국회의원은 253명의 지역구대표와 46명의 전국구비례대표로 구성되고, 비례대표는 순위를 바꿀 수 없는 정당별후보명부에 의해 선거된다. 다만 전국구의석배분의 방법과 이른바 '저지규정(沮止規定)'의 기준이 변경되었다. 즉 전국구의석은 지역선거구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들이 이전의 배분기준이었던 의석비율이 아니라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받는다. 단 이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에도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5% 미만인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1석씩을 배분해 주고 잔여의석을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여 소수당의 의회진출기회를 넓혔다.

한편 1992년 11월 11일 제6차개정 이후 1995년 12월 30일 제8차개정까지 세 차례 여야합의로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원과 후원금이 상향 확대조정되고, 후원금모금방법이 추가되어 후원회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국고보조금이 대폭 확대되었고 정액영수증제도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기탁금제도는 거의 대부분이 여당인 신한국당에만 지정기탁되어 여당만을 위한 정치자금조달창구로 편향운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후원회제도 역시 야당의 활용기회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서산시의 선거상황

1995년 1월 시군이 통합되면서 서산 일원의 선거구는 행정구역상 서산시와 태안군으로 확정되게 되었다. 터줏대감 한영수의원을 승계한 자민련의 변웅전후보를 비롯해서 제14대 선거에서 한영수의원에게 석패하였던 신한국당의 박태권, 역시 14대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바 있는 문석호, 국민회의 안숙순 등 모두 4명이 후보자로 나섰다.

선거결과는 상당기간 지지기반조성에 공을 들여왔고,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서 지명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극심한 지역할거구도현상에 따라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었던 자민련소속 변웅전후보의 압승이었다. 아나운서출신인 변후보는 충남지역 최다득표(52,723표 - 총유효투표수의 54.2%)를 기록하면서 27,354표를 얻어 2위를 차지한 신한국당의 박태권후보에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9, 10, 11 14대에 걸쳐 4선의원을 지내고, 15대

총선에서는 자민련의 총선대책본부장을 맡아서 활동한 한영수 전의원의 폭넓은 지지기반이 그대로 자민련의 공천을 받은 변웅전후보지지로 연결된 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제11대 총선 이후 계속해서 다선번재 입후보하였고 제13대 의원을 지낸 박태권후보가 27,354표를 얻으면서 선전하였으나 지역선거바람을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14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만여표 득표하였던 문석호후보는 약 3천여표가 증가된 13,808표를 얻는데 그쳐 지지세확산에 한계를 보였다.

〈표〉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후보자	소속	직업	학력	연령	득표수	비고
서산시 태안군	박태권	신한국당	정치인	대졸	50	27,354	
	안숙순	새정치국민회의	건설업	국졸	45	3,435	
	문석호	통합민주당	변호사	대졸	37	13,808	
	변웅전	자유민주연합	정치인	대졸	36	52,723	당선

3. 지방자치단체선거

1) 도지사선거

(1) 제1대 민선도지사선거

도지사선거는 서울특별시장선거와 함께 1960년 12월 29일에 실시되었다. 당시 민주당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상정되었을때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된것은 도지사의 선임문제였다. 주민과의 관계에서 보면 2차적인 광역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를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은 번거로울뿐 무의미하다는 것이 반대하는 이유였다. 이에 맞서 야당인 신민당은 직선제를 주장하였고 4.19 혁명의 영향과 이상만을 추구했던 당시의 사정으로서는 도지사의 직접선거제 채택이 부득이 했다. 도지사직선제를 규정한 개정 지방자치법은 1960년 11월 1일에 공포되었는데 도지사의 선거에는 국회의원 선거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과같은 특징의 규정을 두었다.

- ① 서울특별시 도선거위원회는 구와 군단위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 ② 후보자는 개표구당 1회의 개인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고
- ③ 서울특별시와 도선거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하는 원고와 비용에 의하여 선언문을 작성하여 매세대 및 부재자에게 1회 무료우편으로 발송하며



〈사진〉 도지사 선거 벽보

④ 후보자는 선거구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2종에 1회씩 선거에 관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화성기는 1에 한하도록 하였다.

선거구는 도 전역이었으며 5명의 후보자가 경쟁하였으나 신민당과 민주당의 각 축전이었으나 선거결과 신민당의 이 기세가 당선되었다. 역대로는 제4대 충남도지사이고 민선도지사로는 초대였다. 이 선거의 특징으로서는 투표율이 본군 선거사상 가장 저조하였다는 점인데 서산갑구의 경우 선거인수 53,797명중 35,998명이 기권하여 39%의 투표율에 불과 했다. 이는 1960년에 4단계에 걸쳐 실시된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부통령선거를 비롯해서 제5대 국회의원선거 등 중앙정치차원의 각급 선거로 인하여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유지 내지는 집중되지 못하였고 또한 12월 하순의 계절적인 영향과 지역주민과의 직접 이해관계가 적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라는 데에 그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제2대 민선도지사선거

① 개요

노태우정권에 의해 독단적으로 연기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실시된 1995년 6월 27일은 1961년에 5.16군사쿠테타로 그 명맥이 끊겼던 지방자치제도가 완

전하게 부활되어서 명실상부하게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 날이었다. 지역활거의 정치구도가 그대로 반영된 선거였다. 또한 6.27지방자치선거는 1994년 3월이후 시행되어 온 통합선거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는 선거였다. 선거결과는 집권여당인 민자당의 대패였다.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의회선거를 제외하고 3대 선거에서 전국 평균득표율은 민자당이 33.8%, 민주당 30.5%, 자민련 10.8%, 무소속 24.5%로 1987년 민주화이후 여당이 기록한 최저득표율이었다.

민자당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총 15석의 3분의 1인 5석만을 차지하였고 민주당과 자민련이 각각 4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하였다. 이 선거결과 3당합당 이후 형성되었던 호남 대 비호남권의 2분화된 지역투표현상이 부산, 경남의 민자당, 호남의 민주당, 충청의 자민련으로 3극화되어 나타났다. 부여출신의 김종필총재를 주축으로 한 자민련은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물론이고, 대전의 기초단체장 5석중 4석, 광역의원 23석 전부, 충남의 기초단체장 15석 전부, 광역의원 55석중 49석을 차지하여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였다.

② 제도

임기 4년(단 초대 경우에 한해서 3년)의 도지사는 지방의회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인 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갖는다. 선거는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이고 선거인명부작성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상대다수대표선거제도에 따른다.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후보자는 기탁금제도에 따라 5천만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기탁금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0미만인 때에는 일정비용을 공제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자세한 투표구별 득표상황은 다음 별표와 같다.

③ 본시의 선거상황

충남도지사선거는 민자당의 박중배, 민주당의 조중연, 자민련의 심대평후보 3명이 입후보하여 유권자수 총 1,270,138에 937,009명이 투표하였는데 과거 관선충남지사를 역임한 바 있는 자민련의 심대평후보가 유효투표수의 65%에 해당되는 616,006표를 얻어 압승하였다. 전국적인 지역투표현상속에서 충청 전지역을 휩쓴 자민련의 독주는 본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평균 74.3%의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심대평후보가 전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유효투표수 68,372표중 46,858표를 얻어 거의 70%에 가까운 고득표율을 보였다.

〈표〉 제2대 민선도지사선거

투표구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 투표 수				기권수	투표율
			후보자별득표수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계		
박중배	조중연	심대평						
부채자	3,192	3,019	716	686	1,452	2,854	173	94.6
대산읍	11,031	7,513	1,857	1,161	4,286	7,304	3,518	68.1
인지면	4,114	3,060	801	294	1,844	2,939	1,054	74.4
부석면	6,427	4,799	767	692	3,164	4,623	1,628	74.7
팔봉면	3,724	2,867	679	360	1,723	2,762	857	77.0
지곡면	3,964	2,919	590	496	1,728	2,814	1,045	73.6
성연면	2,912	2,326	442	340	1,450	2,232	586	79.9
음암면	5,710	4,335	552	433	3,228	4,213	1,375	75.9
운산면	5,374	4,097	543	399	3,039	3,981	1,277	76.2
해미면	6,634	4,859	656	483	3,597	4,736	1,775	73.2
고북면	5,490	4,258	471	360	3,282	4,113	1,232	77.6
부춘동	7,391	5,394	1,086	457	3,728	5,271	1,997	73.0
동문동	9,951	7,162	1,589	671	4,806	7,066	2,789	72.0
활성동	5,743	4,173	814	319	2,965	4,098	1,570	72.7
수석동	5,429	3,938	687	351	2,829	3,867	1,491	72.5
석남동	6,065	4,457	862	481	3,002	4,345	1,608	73.5
오산동	1,555	1,202	287	132	734	1,153	353	77.3
총 계	94,706	70,379	13,399	8,115	46,858	68,372	24,327	74.3

2) 도의회 의원선거

(1) 초대 도의회의원선거

초대 도의회의원선거는 1952년 5월 10일에 실시되었다. 선거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본군 전역으로 이루어진 단일구였으며 의원정수는 5명이었고 10명이 입후보하여 각축전을 벌였다.

입후보자의 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는데 국회의원선거나 도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일이 있거나 또는 그후 당선된자들이 많다. 당시 정치발전의 초창기상황에서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것은 의정경험을 가진다는 점외에도 단기간내에 지역에서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점에서 중앙정치무대로의 진출에 매우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관심이 모아졌다. 실제로 이 상희, 장경순 당선자가 훗날 각각 제6, 7대와 제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바 있다.

당선자는 이상희, 장경순, 오순남, 박봉섭 및 채상근 이상 총 5명이다.

(2) 제2대 도의회의원선거

제2대 도의회의원선거는 1956년 8월 13일에 실시되었다. 이에 앞서 동년 7월 8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1선거구 1인 선출주의와 지리관계를 참작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본군은 5개 선거구로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제2대 도의원선거구

선 거 구	지 역
제 1 선 거 구	서산읍, 음암, 팔봉면
제 2 선 거 구	고북, 해미, 운산면
제 3 선 거 구	지곡, 성연, 대산, 정미, 대호지면
제 4 선 거 구	인지, 부석, 안면, 남면
제 5 선 거 구	태안, 근흥, 소원, 원북, 이북면

정원수는 초대와 같이 5명이었으며, 초대 도의원선거에 비해 70%이상 증가한 17명이 후보자로 나섰다. 특히 난립이 심했던 제2선거구는 5대 1의 경쟁이었다. 자유당과 민주당은 각각 후보를 공천하여 이 선거에 임했는데 명량한 선거분위기는 되지 못했으며 이 선거의 특징으로는 자유당의 대거 진출이 주목된다.

당선자는 초대 도의원중 유일하게 재선된 이상희후보를 비롯해서 이운재, 류제풍, 손창수, 최병기후보 등 5명이다.

(3) 제3대 도의회의원선거

제3대 도의회의원선거는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되었다. 이 지방자치선거에 앞서 동년 11월 1일 법을 개정 공포한바 있으나 선거권자의 연령을 20세로 내린 외는 도의회의원 선거에 관해서는 종전과 별로 다른바가 없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게 된 선거구역이 종전의 5개구에서 4개구로 줄었고 따라서 의원정수도 4명이 되었는데 선거구의 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제3대 도의원선거구

선 거 구	지 역
제 1 선 거 구	서산, 지곡, 대산, 성연면
제 2 선 거 구	음암, 운산, 해미, 고북면
제 3 선 거 구	인지, 부석, 팔봉, 안면, 남면
제 4 선 거 구	태안, 근흥, 소원, 원북, 이북면

후보자수는 도합 16명이었는데 정당으로서는 당시의 집권당인 민주당과 동일계

소위 구파로 형성된 신민당이 각각 후보공천을 했으며 순무소속계와 과거의 자유당 동조계 무소속의 성분으로 구성되며 특히 신인들의 진출이 많았다. 선거분위기는 비교적 평온하였으나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와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동시에 중복되어 선거운동에 혼잡을 이루었고 선거당일 일기불순으로 일부도서지방(賣誼島)에서는 부득이 투표일자가 연기되어 동 29일해야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3대 도의회의원 선거의 특징으로는 기권자수가 많았다는 점과 선거후 제4선거구에서 당선자를 상대로 한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당선자는 명화섭후보와 이종신, 가경로, 조제현 등 4명이다.

(4) 제4대 도의회의원선거

우여곡절 끝에 1990년 12월 15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기초시·군·자치구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된데 이어 동년 6월 13일 광역시·도의회의원선거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개막이었다.

기초의회의원선거와 달리 정당참여가 허용된 광역의회의원선거는 각 정당이 후보자공천 및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특히 집권당인 민자당이 3당합당 이후의 정치활동에 대한 중간평가의 기회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여야당 모두 다가올 국회의원총선과 대통령선거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전국적인 광역의회의원선거결과는 유효투표수의 41%를 득표하여 65%의 의석을 차지한 민자당의 압승이었다. 통합야당인 신민당을 포함하여 민주당과 민중당 등 군소정당은 참패하였고, 다만 무소속의 대거진출이 두드러졌다.

〈표〉 제4대 도의원당선자 인적사항

선거구	성명	소속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서산시	1	이복구	무소속	45	상업	동국대 농학과졸	서산JC회장, 민정당서산·태안지구당사무국장
	2	이갑준	민자당	55	건축사	대전공고졸	건축사협회충남지부장, 민주평통자문위원
서산군	1	강모준	무소속	56	농업	성균관대 법학과졸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부석신용협동조합이사장
	2	김진경	민자당	52	도정업	서울배문고졸	서산군개발위원장, 대신신용협동조합이사장
	3	김기홍	민자당	55	농업	성균관대 법학과졸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서산군체육상임부회장

〈표〉 제4대 서산시 도의원선거

선거구	투표구	선거인 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후보자별득표수										계
				민자당	민주당	무소속	무소속							
서 산 시 제 1 선 거 구				김동희	서희종	이복구	이진구							
	부 재 자	360	348	47	69	148	58			322	12	96.7		
	부춘동 제1	2,444	1,662	269	222	1,024	123			1,638	782	68.0		
	제2	1,748	1,132	166	258	585	112			1,121	616	64.8		
	제3	2,204	1,495	330	291	688	157			1,466	709	67.8		
	제4	567	425	39	47	273	53			412	142	75.0		
	석남동 제1	1,557	1,070	149	202	487	222			1,060	487	68.7		
	제2	1,129	809	144	116	353	178			791	320	71.7		
	제3	1,093	798	103	313	276	88			780	295	73.0		
	오산동 제1	715	542	124	209	148	50			531	173	75.8		
	제2	707	534	68	300	125	33			526	173	75.5		
	합 계	12,524	8,815	1,439	2,027	4,107	1,074			8,647	3,709	70.4		
서 산 시 제 2 선 거 구				민자당	신민당	민주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문기원	임석재	김한성	이갑준	이세권	최남수					
	부재자	460	440	94	23	62	83	46	90	398	20	95.7		
	동문동 제1	2,410	1,608	316	77	289	321	365	220	1,588	802	66.7		
	제2	2,575	1,678	316	110	252	432	399	147	1,656	897	65.2		
	제3	2,549	1,761	206	94	357	419	300	366	1,742	788	69.1		
	제4	1,203	827	135	31	182	254	144	72	818	376	68.7		
	제5	1,150	896	350	44	102	172	125	89	882	260	77.5		
	활성동 제1	2,078	1,498	278	52	306	335	269	242	1,482	580	72.1		
	제2	1,632	1,125	220	87	255	280	179	95	1,116	507	68.9		
	제3	1,116	780	190	45	160	168	138	72	773	336	69.9		
	제4	1,391	970	282	44	228	203	147	59	963	421	69.7		
	수석동 제1	931	640	143	34	90	199	125	43	634	291	68.7		
	제2	2,235	1,572	393	59	326	349	232	185	1,544	663	70.3		
	제3	961	713	156	24	125	151	177	69	702	248	74.2		
	합 계	20,697	14,508	3,079	724	2,734	3,366	2,646	1,749	14,298	6,189	70.1		
총 계		33,221	23,323							22,945	9,898	70.2		

〈표〉 제4대 서산군 도의원선거

선거구	투 표 구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후보자별득표수		계		
				민자당	민주당			
서 산 군 제 1 선 거 구				이완복	강모준			
	부 재 자	608	588	216	325	541	20	96.7
	동문동 제1	1,805	1,304	832	444	1,276	501	72.2
	제2	1,228	876	583	262	845	352	71.3
	제3	986	681	415	155	570	305	69.1
	소계	4,019	2,861	1,830	861	2,691	1,158	71.2
	부석면 제1	1,732	1,253	245	975	1,220	479	72.3
	제2	1,283	912	201	689	890	371	71.1
	제3	1,351	863	245	588	833	488	63.9
	제4	1,161	792	472	301	773	369	68.2
	제5	1,149	773	304	444	748	376	67.3
	제6	220	183	85	96	181	37	83.2
	소 계	6,896	4,776	1,552	3,093	4,645	2,120	69.3
	팔봉면 제1	1,669	1,170	637	496	1,133	529	68.9
	제2	941	688	399	274	673	253	73.1
	제3	452	320	185	125	310	132	70.8
	제4	722	539	246	267	513	183	74.7
	제5	96	77	57	17	74	19	80.2
	소 계	3,910	2,794	1,524	1,179	2,703	1,116	71.5
	합 계	15,433	11,019	5,122	5,458	10,580	4,414	71.4
서 산 군 제 2 선 거 구				민자당	민주당			
				김진경	이상은			
	부 재 자	419	419	215	163	378	12	97.1
	지곡면 제1	1,735	1,735	582	673	1,225	455	73.8
	제2	1,406	1,406	449	549	998	385	72.6
	제3	1,214	1,214	436	400	836	361	70.3
	소계	4,355	4,355	1,467	1,622	3,089	1,201	72.4
	대산면 제1	1,851	1,851	479	697	1,176	643	65.3
	제2	2,044	2,044	587	584	1,171	851	58.4
	제3	2,912	2,912	984	603	1,587	1,289	55.7
	제4	996	996	274	403	677	294	70.5
	제5	1,929	1,929	581	648	1,299	673	65.1
	제6	1,060	1,060	678	117	795	244	77.0
	소계	10,792	10,792	3,583	3,052	6,635	3,944	63.0
	성연면 제1	1,217	1,217	365	511	876	322	73.5

(표) 제4대 서산군 도의원선거 (계속)

선거구	투표구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후보자별득표수		계			
서산군 제2 선거구	제2	828	575	271	292	563	253	69.4	
	제3	986	729	383	332	715	257	73.9	
	소 계	3,031	2,199	1,019	1,135	2,154	832	72.6	
	합 계	18,597	12,558	6,284	5,972	12,256	6,039	67.5	
서산군 제3 선거구				민자당 김기홍	신민당 김석현	민주당 명노회			
	부 재 자	931	907	232	211	391	834	24	97.4
	음암면 제1	2,136	1,533	929	217	353	1,499	603	71.8
	제2	821	570	393	39	126	558	251	69.4
	제3	903	606	397	75	125	597	297	67.1
	제4	1,456	1,052	867	56	114	1,037	404	72.3
	소 계	5,316	3,761	2,586	387	718	3,691	1,555	70.7
	운산면 제1	2,382	1,570	769	261	517	1,547	812	65.9
	제2	1,021	703	329	185	179	693	318	68.9
	제3	1,030	721	418	69	218	705	309	70.0
	제4	1,322	919	429	137	327	893	403	69.5
	소 계	5,755	3,913	1,945	652	1,241	3,838	1,842	68.0
	해미면 제1	2,744	1,927	427	413	1,060	1,900	847	69.5
	제2	2,043	1,367	510	101	740	1,351	676	66.9
	제3	766	547	222	91	223	536	219	71.4
	제4	959	674	184	184	295	663	285	70.3
	소 계	6,542	4,515	1,343	789	2,318	4,450	2,027	69.0
	고북면 제1	2,063	1,518	603	176	717	1,496	545	73.6
	제2	1,088	781	372	134	263	769	307	71.8
	제3	1,033	736	263	120	342	725	297	71.2
	제4	1,379	1,008	439	121	434	994	371	73.1
	소 계	5,563	4,043	1,677	551	1,756	3,984	1,520	72.7
	합 계	24,017	17,139	7,783	2,590	6,424	16,797	6,968	71.1
총 계		58,137	40,716			39,633	17,421	70.0	

충남도의회 의석분포도 총 55석중 민자당이 37석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다수정당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나머지는 민주당 4석, 무소속 14석이었다. 서산지역에서는 1989년 1월 1일부로 설치된 서산시 2개선거구와 서산군 3개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 모두 5명 정원에 총 17명이 입후보하였다. 서산시 제2선거구에서는 정당소속후보와 무소속후보가 각각 3명씩 모두 6명이 입후보하여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였다.

서산시 2개선거구에서는 2명 모두 이복구, 이갑준 후보 등 무소속 후보자가 당

선되어 주목되었다. 특히 제1선거구의 이복구후보는 대부분 치열한 접전을 벌인 다른 선거구와 달리 유효투표수 8,647표중 4,107표를 얻어 압승하였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의 강모준후보가 서산군 제1선거구에서 민자당의 이완복후보에 신승하였고, 서산군 제2선거구에서는 민자당의 김진경후보가, 제3선거구에서는 김기흥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5) 제5대 도의회의원선거

1995년 6월 27일의 통합선거법에 따라 4대지방자치단체동시선거에서 실시된 도의원선거는 역대 제5대 도의원선거였다. 선거결과는 심각한 지역선거의 바람에 따라 충분히 예상되었던 바대로 총 55의석중 49석을 차지한 자민련의 압승이었다.

서산지역에서는 각각 1명씩 선출하게 되는 서산시의 2개선거구, 서산군의 3개선거구의 총 5명정원에 19명이 후보자로 나섰다. 1991년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지만 동시선거에서는 자민련소속으로 출마하여 재선된 이복구, 이갑준 현직 도의원 2명을 포함하여 5명의 당선자 전원이 자민련후보였다. 인지, 부석, 팔봉면의 제3선거구에서 세후보가 출진면별로 갈린 지지세를 바탕으로 비교적 접전을 벌였다. 특히 대산읍과 지곡면 및 성연면의 서산 제4선거구에서는 대산읍과 지곡면에서의 상당한 득표를 바탕으로 현직 도의원인 민자당의 김진경후보가 선전하였으나 자민련의 김용호후보에게 석패하였다. 그외에 나머지 제 1, 2, 5선거구는 2위득표자와 거의 두배 내지 세배 표차이를 보인 자민련후보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자세한 투표구별 후보자득표상황과 당선자 5명의 인적사항은 다음 별표와 같다.

〈표〉 제5대 도의원 당선자 인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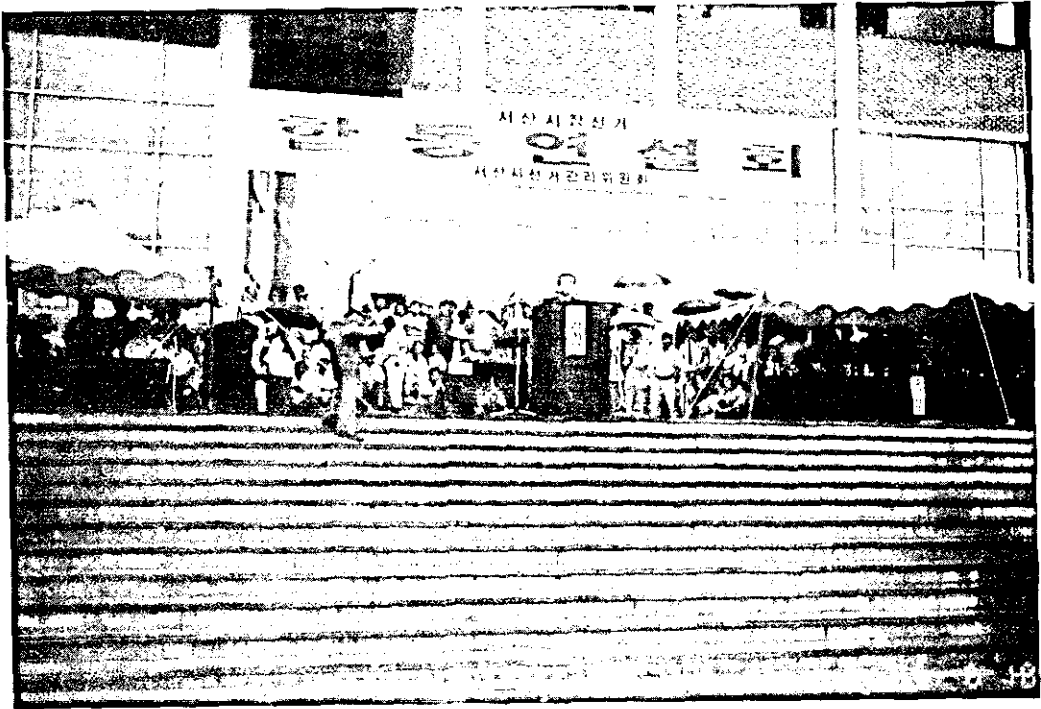
선거구	성명	소속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서산시 제1선거구	이복구	자유민주연합	'45.10.17	정치인	동국대 농과졸	충남새마을문고지부장 충남도의회의원
서산시 제2선거구	이갑준	"	'38. 8. 7	설계업	대전 농고졸	충남도의회건설위원장 충남도의회의원
서산시 제3선거구	류인석	"	'39.10.25	자영업	서산 농고졸	경향신문 대전 충청권 취재본부장 자민련인지면연락소장
서산시 제4선거구	김용호	"	'44.11. 3	농협조합장	고려대 농학과졸	서산시방위협의회위원장 대산농협조합장
서산시 제5선거구	허영일	"	'37. 3.17	자영업	단국대 3년 중퇴	해미·교북면장 해미중충동창회장

〈표〉 제5대 도의원선거

선거구	투 표 구	선거인수	투 표 수	유효 투표 수			기 권 수	투표율 (%)	
				후보자별득표수		계			
				민자당	자민련				
서산시 제1 선거구				서회중	이복구				
	부 재 자	475	447	118	313	431	28	94.1	
	부춘동 제1	1,350	1,001	201	765	966	349	74.2	
	제2	1,602	1,095	210	852	1,062	507	68.4	
	제3	2,097	1,526	282	1,197	1,479	571	72.8	
	제4	565	435	58	356	414	130	77.0	
	제5	1,777	1,336	196	1,088	1,284	441	75.2	
	소 계	7,391	5,393	947	4,258	5,205	1,998	73.0	
	석남동 제1	2,435	1,791	344	1,385	1,729	644	73.6	
	제2	1,131	849	182	631	813	282	75.1	
	제3	2,499	1,820	426	1,304	1,730	679	72.8	
	소 계	6,065	4,460	952	3,320	4,272	1,605	73.5	
	오산동	1,555	1,202	426	698	1,124	353	77.3	
	소 계	1,555	1,202	426	698	1,124	353	77.3	
	총 계	15,486	11,502	2,443	8,589	11,032	3,984	74.3	
서산시 제2 선거구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김동희	김한성	이갑준			
	부재자	757	710	71	244	358	673	47	93.8
	동문동 제1	2,558	1,718	120	479	1,082	1,681	840	67.2
	제2	2,283	1,568	107	438	993	1,538	715	68.7
	제3	1,663	1,270	74	439	720	1,233	393	76.4
	제4	2,334	1,778	185	642	928	1,755	556	76.2
	제5	1,113	829	55	249	506	810	284	74.5
	소계	9,951	7,163	541	2,247	4,229	7,017	2,788	72.0
	활성동 제1	1,973	1,472	116	446	879	1,441	501	74.6
	제2	1,422	1,013	57	295	635	987	409	71.2
	제3	993	700	46	204	430	680	293	70.5
	제4	1,355	990	71	293	605	969	356	73.1
	소계	5,743	4,175	290	1,238	2,549	4,077	1,568	72.7
	수석동 제1	957	679	51	162	441	654	278	71.0
	제2	2,704	1,992	128	535	1,281	1,944	712	73.7
	제3	1,768	1,270	66	280	879	1,225	498	71.8
	소계	5,429	3,941	245	977	2,601	3,823	1,488	72.6
	총계	21,880	15,989	1,147	4,706	9,737	15,590	5,891	73.1

〈표〉 제5대 도의원선거 (계속)

선거구	투 표 구	선거인수	투 표 수	유효 투표수			기 권 수	투표율 (%)	
				후보자별득표수					
				민자당 이완복	민주당 이종선	자민련 류인석			
서산시 제3 선거구	부 재 자	534	508	122	151	212	485	26	95.1
	인지면 제1	1,736	1,301	561	107	582	1,250	435	74.9
	제2	1,205	889	467	75	303	845	316	73.8
	제3	1,173	870	314	49	433	796	303	74.2
	소 계	4,114	3,060	1,342	231	1,318	2,891	1,054	74.4
	부석면 제1	1,632	1,253	314	415	453	1,182	379	76.8
	제2	1,183	891	146	321	376	843	292	75.3
	제3	1,235	883	166	182	500	848	352	71.5
	제4	1,081	815	159	423	191	773	266	75.4
	제5	1,062	798	163	322	265	750	264	75.1
	제6	234	160	25	19	113	157	74	68.4
	소 계	6,427	4,800	973	1,682	1,898	4,553	1,627	74.7
	팔봉면 제1	1,633	1,251	469	163	553	1,185	382	76.6
	제2	883	695	278	123	276	677	188	78.7
	제3	396	301	79	43	163	285	95	76.0
	제4	724	561	170	77	295	542	163	77.5
	제5	88	62	19	21	16	56	26	70.5
	소 계	3,724	2,870	1,015	427	1,303	2,745	854	77.1
	총 계	14,799	11,238	3,452	2,491	4,731	10,674	3,561	75.9
				민자당 김진경	자민련 김용호				
	부 재 자	491	479	257	190		447	12	97.6
	대산읍 제1	1,750	1,158	491	628		1,119	592	66.2
	제2	2,204	1,363	609	681		1,290	841	61.8
	제3	2,137	1,411	604	749		1,353	726	66.0
	제4	874	649	135	469		604	225	74.3
	제5	2,350	1,664	802	811		1,613	686	70.8
	제6	1,716	1,267	878	341		1,219	449	73.8
	소 계	11,031	7,512	3,519	3,679		7,198	3,519	68.1
	지곡면 제1	1,563	1,190	481	637		1,118	373	76.1
	제2	2,294	927	345	525		870	367	71.6
	제3	1,107	806	334	433		767	301	72.8
	소 계	3,964	2,923	1,160	1,595		2,755	1,041	73.7
	성연면 제1	1,243	988	319	596		915	255	79.5
	제2	793	630	188	399		587	163	79.5
	제3	876	709	249	427		676	167	80.9
	소 계	2,912	2,327	756	1,422		2,178	585	79.9
	합 계	18,398	13,241	5,692	6,886		12,578	5,157	72.0



〈사진〉 시장 선거 합동 연설회

3) 초대 민선 서산시장선거

평균 74.3%의 투표율을 보인 서산시장선거도 충남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지역투표심리의 흐름속에서 자민련의 압승으로 드러났다.

민자당의 강춘식, 민주당의 김의경, 자민련의 김기홍, 무소속 김석현 및 조규선 후보 등 모두 5명이 입후보하였다. 전 지역에서 고르게 높은 득표를 한 자민련의 김기홍후보가 유효투표수의 45.4%인 31,045표를 얻어 무난히 당선되었다. 민주당의 김의경, 무소속의 조규선후보가 2위를 놓고 접전을 벌였으나 시군통합이전의 시지역, 특히 부춘동과 동문동투표구에서 상당한 표를 얻은 조후보가 유효투표수의 22.0%에 해당하는 15,615표 를 얻어서 2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집권당인 민자당의 강춘식후보는 1만표에도 못미치는 9,403표(유효투표수의 13.8%)를 얻는데 그쳐 확산된 지역투표바람의 위세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달라진 지방자치단체선거의 정치적 위상을 실감하게 하였다. 그밖에 무소속의 김석현후보는 1,635표를 얻는데 그쳐 아무런 변수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후보자별 자세한 득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초대 민선시장 선거현황

읍·면·동·별	선거인수 (부재자)	투표수 (부재자)	투표율 (%)	후보자별투표수						무 효 투표수
				계	민 자	민 주	자민련	무 소 속		
					강춘식	김의경	김기홍	김석현	조규선	
계	94,706	70,380	74.3	68,359	9,403	11,266	31,045	1,635	15,010	2,021
부춘동	7,600	5,644	73.7	5,517	664	681	1,905	67	2,200	127
동문동	10,311	7,449	72.7	7,389	1,440	1,118	2,716	140	1,975	110
활성동	5,961	4,380	73.5	4,303	598	616	1,795	34	1,260	77
수석동	5,608	4,105	73.2	4,022	471	512	1,825	53	1,161	83
석남동	6,234	4,629	74.1	4,497	577	716	1,755	77	1,352	122
오산동	1,52	1,237	77.7	1,188	170	142	453	16	407	49
대산읍	11,261	7,734	68.7	7,484	1,320	1,754	2,877	163	1,370	250
인지면	4,271	3,203	75.0	371	590	436	1,269	35	741	132
부석면	6,672	5,039	75.5	4,852	739	868	2,214	101	930	187
팔봉면	3,856	2,993	77.6	2,896	402	617	1,200	65	613	97
지곡면	4,109	3,065	74.6	2,947	371	1,375	787	46	368	118
성연면	3,028	2,438	80.5	2,345	387	414	895	52	597	93
음암면	5,975	4,586	76.7	4,455	394	386	2,978	142	555	131
운산면	5,628	4,323	76.8	4,181	521	396	2,581	127	556	142
해미면	6,825	5,049	74.0	4,919	418	521	2,990	414	576	130
고북면	5,711	4,466	78.2	4,293	341	714	2,785	103	350	173

4) 서산시·군의회 의원선거

(1) 초대 선거

6.29 민주시민항쟁에 의해 성취된 1987년의 제9차 헌법개정에 의해 민선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었다. 헌법의 입법위임에 의한 지방자치관련법을 제정 및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었으나 노태우정권의 독단에 의해 지방자치법의 명문규정이 무시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1992년 말의 시한을 넘겨서 불법적으로 그 실시가 연기되었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는 1991년 3월 26일에 실시되었는바, 단체장선거의 자의적인 연기로 일단 불완전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발아단계에서 정착단계로 발전해나가고 있던 지방자치제도가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유명무실해진 후 실로 30년만에 재출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선거이다.

1991년 3월 8일에 대통령공고 제112호로 선거일이 공고되고, 3월 21일에 선거



〈사진〉

시의원 선거 합동 연설회

인명부가 확정되었다. 확정된 선거인수는 1989년 1월 1일에 행정구역개편으로 서산군과 분리·설치된 서산시가 33,187명, 서산군이 57,708명이었다. 후보자등록 마감결과 서산시는 의원정수 7명의 6개 선거구에 19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2.7 : 1, 서산군은 의원정수 10명의 10개 선거구에 28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평균 2.8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후보자별 득표상황과 당선자인적사항은 다음 별표와 같다. 지방자치제도를 지역차원에서 대의제도가 실현되는 제도라고 한다면 지역중심으로 치루어진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유권자들과 후보자들간의 인적인 신임관계를 가장 근거리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지역정치적 관점에서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각 후보자의 투표구별 득표수를 포함시켰다.

〈표〉 서산시 투표상황

선거구	투표구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후보자별 득표수							계
				윤찬구	정태우	가대현	최익주				
부 춘 동	부 재 자	178	172	59	33	60	17		169	6	96.6
	부춘동 제1	2,475	1,467	484	631	236	85		1,436	1,008	59.3
	제2	1,774	920	311	185	251	153		900	854	51.9
	제3	2,239	1,220	473	398	214	120		1,205	1,019	54.5
	제4	562	417	180	114	82	35		411	145	74.2
	계	7,228	4,196	1,507	1,361	843	410		4,121	3,032	58.1
				최은우	이재병	송정길	최수길	조재길			
	부 재 자	199	192	42	27	38	20	60	187	7	96.5
	동문동 제1	2,442	1,120	314	325	61	196	205	1,101	1,322	45.9
	제2	2,578	1,399	399	541	79	135	219	1,373	1,179	54.3

〈표〉 서산시 투표상황 (계속)

선거구	투표구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후보자별 득표수					계		
동문동	제3	2,251	1,174	109	402	245	111	287	1,154	1,077	52.2
	제4	1,220	625	138	195	86	55	141	615	595	51.2
	제5	1,164	664	151	246	44	93	110	644	500	57.0
	계	9,854	5,174	1,153	1,736	553	610	1,022	5,074	4,680	52.5
활성동				이영재	박영웅						
	부재자	136	133	51	81				132	3	97.8
	활성동 제1	2,131	1,326	557	746				1,303	805	62.2
	제2	1,659	978	365	595				960	681	59.0
	제3	1,111	695	246	440				686	416	62.6
	제4	1,437	839	323	503				826	598	58.4
	계	6,474	3,971	1,542	2,365				3,907	2,503	61.3
수석동				박충구	한기만	김용한	조계창				
	부재자	110	105	26	23	40	14		103	5	95.5
	수석동 제1	926	639	317	86	115	109		627	287	69.0
	제2	2,188	1,398	120	252	285	706		1,363	790	63.9
	제3	956	700	47	340	271	33		691	256	73.2
	계	4,180	2,842	540	701	711	862		2,784	1,338	68.0
수석동				손연복	임덕재						
	부재자	114	108	52	49				101	6	94.7
	수석동 제1	1,599	1,001	685	295				980	598	62.6
	제2	1,140	757	173	563				736	383	66.4
	제3	1,099	774	519	235				754	325	70.4
	계	3,952	2,640	1,429	1,142				2,571	1,312	66.8
수석동				안근혁	정진국						
	부재자	56	54	19	34				53	2	96.4
	수석동 제1	723	580	126	442				568	160	77.8
	제2	720	560	312	237				549	143	80.2
	계	1,499	1,194	457	713				1,170	305	79.7
	합계	33,187	20,017						19,627	13,170	60.3
인지면				안근혁	우상훈						
	부재자	181	176	78	83				161	5	97.2
	인지면 제1	1,829	1,311	532	745				1,277	518	71.7
	제2	1,243	936	392	513				905	307	75.3
	제3	973	705	207	478				685	268	72.5
	계	4,226	3,128	1,209	1,419				3,028	1,098	74.0
				류해영	서경원						
	부재자	285	275	76	166				242	10	96.5

〈표〉 서산시 투표상황 (계속)

선거구	투표구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후보자별 득표수				계		
부석면	부석면 제1	1,730	1,264	453	781			1,234	465	73.1
	제2	1,331	955	539	389			928	378	71.6
	제3	1,355	879	427	417			844	475	64.9
	제4	1,194	781	286	468			754	413	65.4
	제5	1,163	780	386	370			756	383	67.1
	제6	228	162	63	97			160	66	71.1
	계	7,286	5,096	2,230	2,688			4,918	2,190	69.9
팔봉면				편무중	박찬교	안상환	이수중			
	부 재 자	156	154	8	41	59	23	131	2	98.7
	팔봉면 제1	1,713	1,296	239	464	261	303	1,267	417	75.7
	제2	957	749	112	358	225	40	735	208	78.3
	제3	466	364	47	140	132	41	360	102	78.1
	제4	735	562	53	230	88	174	545	173	76.5
	제5	97	70	26	14	23	5	68	27	72.2
	계	4,124	3,195	485	1,247	788	586	3,106	929	77.5
지곡면				김환옥	원덕연					
	부 재 자	1,766	145	48	77			125	20	98.6
	지곡면 제1	1,406	1,289	817	438			1,255	34	73.0
	제2	1,406	1,057	474	560			1,034	23	75.2
	제3	1,196	878	668	198			866	12	73.4
	계	4,515	3,369	2,007	1,273			3,280	89	74.6
대산면				김충환	이원영	호철주	김재경			
	부 재 자	175	159	39	15	29	47	130	29	90.9
	대산면 제1	1,853	1,136	198	202	179	532	1,111	25	61.3
	제2	1,677	1,106	400	53	132	497	1,082	24	66.0
	제3	2,559	1,615	828	49	404	293	1,574	41	63.1
	제4	997	710	157	38	74	428	697	13	71.2
	제5	1,869	1,172	276	134	125	618	1,153	19	62.7
	제6	1,072	748	247	57	118	308	730	18	69.8
	계	10,202	6,646	2,145	548	1,061	2,723	6,477	169	65.1
성연면				이창배	김병환					
	부 재 자	139	134	60	61			121	13	96.4
	성연면 제1	1,250	932	488	413			901	31	74.6
	제2	836	617	372	221			593	24	73.8
	제3	983	739	384	332			716	23	75.2
	계	3,208	2,422	1,304	1,027			2,331	91	75.5
				정동욱	유규일	최광식				

〈표〉 서산시 투표상황 (계속)

선거구	투표구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후보자별 득표수					계		
부석면	부 재 자	240	235	38	76	92			206	5	97.9
	음암면 제1	2,126	1,458	222	437	767			1,426	668	68.6
	제2	820	535	142	154	228			524	285	65.2
	제3	921	618	341	199	63			603	303	67.1
	제4	1,463	977	87	646	216			949	486	66.8
	계	5,570	3,823	830	1,512	1,366			3,708	1,747	68.6
팔봉면				한정수	김진오	유병민					
	부 재 자	249	246	52	135	30			217	3	98.8
	운산면 제1	2,331	1,660	641	702	275			1,618	671	71.2
	제2	1,037	701	167	248	268			683	336	67.6
	제3	1,015	701	115	242	331			688	314	69.1
	제4	1,339	878	261	371	222			854	461	65.6
	계	5,971	4,186	1,236	1,698	1,126			4,060	1,785	70.1
				조기중	이병섭	김길환					
지곡면	부 재 자	237	228	65	50	77			192	9	96.2
	해미면 제1	2,802	1,849	676	626	517			1,819	953	66.0
	제2	2,018	1,292	260	617	393			1,270	726	64.0
	제3	780	522	97	236	170			503	258	66.9
	제4	951	660	157	166	319			642	291	69.4
	계	6,788	4,551	1,255	1,695	1,476			4,426	2,237	67.0
지곡면				최옥용	김오경	김관기					
	부 재 자	238	232	63	54	83			200	6	97.5
	고북면 제1	2,066	1,511	706	220	537			1,463	555	73.1
	제2	1,077	761	157	137	449			743	316	70.7
	제3	1,056	655	187	165	293			645	401	62.0
	제4	1,381	967	368	142	433			943	414	70.0
	계	5,818	4,126	1,481	718	1,795			3,994	1,692	70.9
합 계		57,708	40,542						39,328	17,166	70.3

〈표〉 서산시 당선자인적사항

선거구	성명	직업	학력	학력	경력	득표수
부춘동	윤찬구	43.4.16 (47세)	축산업	대졸	서산시 민방위소양강사, 서산축산업협동조합수석이사	1,507
동문동	최은우	49.3.10 (42세)	상업	대학원 수료	서산시육성협회장, 서산경찰서청소년선도위원	1,153

〈표〉 서산시 당선자인적사항 (계속)

선거구	성명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동문동	이재병	'25.1.25 (66세)	회사원	전문학교 수료	자유총연맹서산지부장, (주)서부종합상가회장	1,736
활성동	박영웅	'42.10.30 (48세)	상업	대졸	서산청년회의소회장	2,365
수석동	조계창	'39.1.15 (62세)	농업	초졸	서산농협감사, 서산시정자문위원	862
석남동	손연복	'41.10.24 (49세)	회사 대표	대학원 수료	대광레저대표이사, 서령중육성회장	1,429
오산동	정진국	'43.10.18 (47세)	농업	대학원 수료	오산동개발위원장, 서산시정자문위원	713

〈표〉 서산군 당선자 인적사항

선거구	성명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인지면	우상훈	'54.11.23 (36세)	상업	대졸	국제라이온스 309-E지구 국제전 선협력위원, 인지면 청년단체협의회회장	1,819
부석면	서경원	'39.1.11 (52세)	농업	고졸	부석농협이사, 부석면체육회장	2,688
팔봉면	박찬교	'40. 2. 2 (51세)	농업	중졸	팔봉면체육회부회장, 팔봉면농협감사	1,247
지곡면	김환욱	'29.4.20 (61세)	농업	중졸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대통령선거인	2,007
대산면	김재경	'36.11.1 (54세)	건설업	초졸	대산농협이사, 구민정당서산지구당부위원장	2,723
성연면	이창배	'35.1.30 (56세)	목축업	대졸	충남예총사무국장, 서산군4H자원지도자	1,304
음암면	유규일	'42.10.15 (48세)	농축업	고졸	새마을지도자음암면협의회회장, 음암농협감사	1,512
운산면	김진오	'35.12.26 (55세)	광업	초졸	평통자문위원, 운산고등학교육성회장	1,698
해미면	이병섭	'26.10.17 (64세)	상업	대퇴	바르게살기운동서산군협의회회장, 서산군개발위원회 운영위원	1,695
고북면	김관기	'38.7.25 (52세)	농업	고졸	서산농지개량조합이사, 서산군환경보호협의회이사	1,795

(2) 제2대 서산시의회의원선거

통합선거법에 따라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 4대동시선거가 실시되었다. 서산시의회의원선거는 1995년 1월 1일부로 시군이 통합되어 설치된 서산시의 16개 선거구(1읍 9면 6동)에서 각각 1명씩 총 16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총 56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2.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명이 입후보한 선거구가 대산읍, 인지면, 지곡면, 활성동, 오산동 등 5개 선거구였고, 운산, 해미면, 부춘동, 동문동, 수석동 및 석남동 등 6개 선거구에서 각각 5명의 후보자가 나서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였다. 기타 부석, 팔봉, 성연, 고북면 등 4개선거구에서 각각 3명, 음암면선거구에서 4명이 입후보하였다.

〈표〉 제2대 서산시 지방의원선거 득표상황

선거구	선거인 수	투표수	유효 투표 수					기권수	투표율 (%)	
			후 보 자 별 득 표 수				계			
대산읍	11,261	7,736	김재경 4,059	김환성 3,338				7,397	3,525	68.7
인지면	4,271	3,203	우상훈 1,773	류선호 1,260				3,033	1,068	75.0
부석면	6,672	5,039	서경원 1,264	신준범 1,728	이희찬 1,776			4,768	1,633	75.5
팔봉면	3,856	2,996	이수양 898	박찬교 1,157	이수종 792			2,847	860	77.7
지곡면	4,109	3,067	김환옥 1,623	원덕연 1,292				2,915	1,042	74.6
성연면	3,028	2,439	윤용문 411	이창배 886	김병환 1,007			2,304	589	80.5
음암면	5,979	4,586	김낙중 857	최인영 914	유규일 1,113	최광식 1,508		4,392	1,393	76.7
운산면	5,628	4,324	한정수 1,468	한기옥 138	김진오 1,262	윤광영 453	류병민 828	4,149	1,304	76.8
해미면	6,825	5,052	석락환 289	구자길 1,406	김재호 1,172	조기중 1,184	김길환 806	4,857	1,773	74.0
고북면	5,711	4,466	김완경 1,231	김관기 1,496	최옥용 1,489			4,216	1,245	78.2
부춘동	7,660	5,646	정태우 1,257	김국제 345	가대현 1,289	최진원 1,086	윤찬구 1,492	5,466	2,014	73.7
동문동	10,311	7,498	최은우 1,566	문기원 1,917	최연용 1,652	박동원 1,707	송정길 502	7,344	2,813	72.7
활성동	5,961	4,382	박영웅 2,346	권창제 1,914				4,260	1,579	73.5
수석동	5,608	4,108	김천식 429	조계창 1,178	김용환 1,446	방승섭 355	임광재 584	3,992	1,500	73.3
석남동	6,234	4,620	임덕재 1,591	이학태 1,393	손연복 676	최수길 298	최상목 490	4,448	1,614	74.1
오산동	1,592	1,238	홍성기 555	정진국 605				1,160	354	77.8
계	94,706	70,400						67,548	24,306	74.3

〈표〉 제2대 서산시의회의원당선자 인적사항

선거구	성명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율)
대산읍	김재경	36.11. 1	건설업	국졸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시의회의원	4,059(54.9%)
인지면	우상훈	54.11.23	양조업	대졸	민주평통위원, 시의회의원	1,773(58.5%)
부석면	리회찬	48. 8.15	농업	독학	환경운동연합집행위원, 서산4H후원회장	1,776(37.2%)
팔봉면	박찬교	40. 2. 1	"	중졸	시의회의원, 팔봉농협감사	1,157(40.6%)
지곡면	김환옥	29. 4.20	"	중졸	시의회의원, 서산군청근무	1,623(55.7%)
성연면	김병환	45. 4.20	"	고졸	예비군중대장	1,007(43.7%)
음암면	최광식	58. 8.21	"	고졸	농어민후계자서산군연합회장, 서산장학재단이사	1,508(34.3%)
운산면	한정수	49. 4.25	"	국졸	보호관찰위원, 운산면개발자문위원	1,468(35.4%)
해미면	구자길	43. 5. 5	상업	고졸	방위협의회위원, 해미의용소방대장	1,406(28.9%)
고북면	김관기	38. 7.25	농업	고졸	시의회의원, 서산농조이사	1,496(35.5%)
부춘동	윤찬구	43. 4.16	"	대졸	시의회의원, 민자당서산태안지구당 사무국장	1,492(27.3%)
동문동	문기원	42.11. 7	농업	대퇴	민주산악회지부장, 서산시재향군인회장	1,917(26.1%)
활성동	박영용	42.10.30	상업	대퇴	시의회의원, 서산시체육회자문위원	2,346(55.1%)
수석동	김용환	37.12.25	농업	대졸	새마을지도자, 서산신용협동조합이사	1,446(36.2%)
석남동	임덕재	54. 8.29	자영업	고졸	민자당지구당부위원장, 청소년지도위원	1,591(35.8%)
오산동	정진국	43.10.18	금융업	독학	의회의원, 오남새마을금고이사장	605(52.2%)

당선자 16명중 8명이 현직 시의원으로 재선되어 1991년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 특히 지방의회의 의정운영의 계속성에 대한 큰 기대와 관심을 반영하였다. 선거경쟁의 양상은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어느 후보자도 압승을 한 경우가 없을 정도로 매우 치열했다. 이는 우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추천을 배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높은 관심과 시의회의원의 위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16개 선거구중 두번재로 높은 78.2%의 투표율을 보였던 고북면과 75.5%의 투표율을 보인 부석면 등 2개 선거구에서는 각각 1위로 당선된 김관기, 리회찬 후보자와 2위로 낙선한 최옥용, 신준범후보와의 표차가 불과 7표와 48표밖에 안되는 접전을 보였다. 최다, 최소득표 당선자는 4,059표를 얻은 대산읍의 김재경후보와 555표로 당선된 오산동의 홍성기후보였다. 유효투표수 대비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후보는 58.5%의 득표율을 보인 인지면의 우상훈후보였고, 동문동의 문기원후보가 26.1%의 최저득표율로 당선되었다.

5) 읍·면장선거

(1) 초대 읍·면장선거

여기에서 초대라고 함은 1952년 4월에 지방자치법이 최초로 실시된 때를 기점

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초대 읍·면장은 1952년 4월 25일에 처음으로 지방주민이 직접선거한 지방의회의원에 의하여 간접선거 되었으므로 생략한다.

(2) 제2대 읍·면장선거

1956년 2월 13일에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고 동년 7월 8일 다시 그 일부를 개정하여 8월 8일 읍·면장 직접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읍·면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게 된 역사적인 사실이다.

당초의 지방자치법이 읍·면장을 의회에서 간선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제도 초기의 특수사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후의 운영과정에서 간선된 읍·면장이 의회와 대립하여 상호 권력의 견제와 지위의 균형을 취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많았고 지방의회는 읍·면장을 선출한 기관이라는 배경 때문에 그에 구속될 가능성 등 각종 폐단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이념이나 주민근거리행정 혹은 민주주의의 학교 등과 같은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부응하는 단체장직선제의 채택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는바, 읍·면장을 직접선거하는 제도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3) 제3대 읍·면장선거

1960년에 시행할 예정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1958년 12월 24일 읍·면장을 임명제로 하는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이 자유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동년 12월 26일에 공포되어 임기가 만료된 읍·면장은 다시 임명제로 되었다.

그러나 그후 4. 19 혁명으로 헌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법도 개정되어 다시 주민직선제로 환원되었고, 1960년 12월 26일 읍·면장 선거를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시·군이 제2차적 자치단체가 되는 동시에 읍·면은 이의 출장기관으로 전락되어 읍·면장은 또 다시 임명제로 되었다.

6) 읍·면의회 의원선거

(1) 초대 읍·면의회의원선거

초대 읍·면의회의원선거는 1952년 4월 25일에 실시되었다. 지나간 2차의 국회의원선거에서 호기심과 매력을 느끼게 되어 상당한 난립을 이루었으나 지방의 유력자 또는 씨족의 문중대표들이 비교적 다수 당선되었으며 당선자의 연령도 높은 편이었다.

〈표〉 초대 읍·면의회의원당선자

읍·면	인원(명)	당 선 자 성 명
서산읍	15	김덕태, 김봉기, 김창돈, 류두필, 류한수, 류형수, 민형근, 박병룡, 이광업, 이영우, 임복준, 최용안, 정병희, 한백희, 홍완순
인지면	11	김석배, 류병운, 류병하, 류병규, 박종철, 요용기, 우광옥, 이세춘, 이홍성, 류갑호, 임병록
부석면	13	강주환, 김진홍, 류병석, 류제몽, 류수창, 문창우, 박영석, 이선교, 이종만, 이종성, 지규보, 최병찬, 최영제
팔봉면	9	김규원, 김시중, 백낙영, 신태진, 안기원, 안상목, 양승필, 이춘하, 조장환
지곡면	11	김갑산, 김후곤, 류석태, 심상원, 윤창모, 이상영, 이상학, 이윤의, 이익하, 정준익, 최상기
대산면	12	김동하, 김동운, 김성길, 김영환, 김용순, 김정관, 김정직, 김태봉, 류설진, 신낙윤, 장석호, 한상덕
성연면	11	김연성, 박상준, 성우용, 손원식, 이명준, 이문학, 이충득, 조종근, 최기옥, 최영순, 한경우
음암면	12	김성운, 김영환, 남상기, 남규환, 류철호, 성백석, 박용달, 이기하, 이석환, 이선용, 정종해, 최종우
운산면	12	김연택, 김형각, 명용균, 박수남, 박준기, 서용용, 이각성, 이정석, 이정하, 장기찬, 조남훈, 최병엽
해미면	12	강순경, 김성학, 김성현, 김종환, 김찬재, 김학창, 박종린, 심진기, 심현중, 신임현, 이영순, 한만갑
고북면	12	권종옥, 김기동, 김종환, 김홍한, 박석환, 신중현, 엄익섭, 조병진, 최석우, 최용현, 최항환, 한영배
안면면	14	강태점, 김건봉, 김유봉, 박상규, 박석칠, 박용식, 박황준, 소병린, 오준환, 이윤창, 이종학, 전성용, 정봉안, 주경옥
남면	11	가 형, 김민형, 문영모, 문재배, 박병수, 이상우, 이덕용, 조문호, 조재순, 최백순, 최팔성
태안면	16	가경로, 가재덕, 가재일, 가충로, 강종윤, 김동웅, 류제동, 명규태, 문선직, 박을윤, 백만기, 조장호, 주일선
소원면	12	김동환, 김원길, 김복순, 국송환, 문복철, 이장룡, 박성교, 장갑수, 장창렬, 이충길, 조장호, 주일선
근흥면	11	김기황, 김용권, 김용무, 김지영, 변영달, 설수동, 송영출, 이기윤, 이기현, 조세환, 최창보
원북면	12	김용호, 김진해, 류세동, 문장혁, 신순택, 윤기선, 전영벽, 조태호, 조한두, 최원희
이북면	12	구하서, 김봉제, 김형동, 박명중, 안용순, 양두환, 이갑수, 이병상, 이춘환, 조재명, 조재영, 조태석

(2) 제2대 읍·면의회의원선거

제2대 읍·면의회의원선거는 1956년 8월 8일에 실시되었다. 이에 앞서 초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총선거에 대비하여 1956년 2월 13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동년 7월 8일에 그 일부를 다시 개정하였다. 개정된 내용의 대요를 살펴보면, 시·읍·면장의 지방의회 간접선거를 폐지하고 주민이 직접선거 하였으며, 선거권에 있어 주소요건이 6개월이었던 것을 90일로 단축하였고 후보자 등록요건으로 요구되었던 선거권자추천을 폐지하는 것 등이었다. 본군의 읍면의회의원 정수는 232명에, 후보자수는 366명으로 약 1.6대 1의 경쟁이었다. 당선자는 다음 별표와 같다.

〈표〉 제2대 읍·면의원 인적사항

읍·면	인원(명)	당 선 자 성 명
서산읍	13	가 형, 김덕태, 김영규, 류성중, 박병관, 박양래, 박영진, 오동수, 이요현, 정병희, 한태희, 한홍규, 홍은표
인지면	11	김민창, 류병규, 류병운, 류양현, 오용기, 이기현, 임종철, 조상옥, 조성환, 차규호, 최장엽
부석면	12	강현구, 김성희, 김형일, 류병연, 류병호, 류선환, 류슈창, 오수필, 이양교, 이선교, 이승국, 이종성
팔봉면	11	김규원, 김시중, 박기린, 박용준, 신태진, 안상덕, 이원영, 장익진, 조장환, 최덕엽, 최준엽
지곡면	10	김기광, 김의환, 김후곤, 복행균, 심상원, 윤창모, 이상득, 이상학, 이병철, 한동현
대산면	12	김기원, 김기직, 김동근, 김동운, 김두환, 김정관, 권동신, 윤정권, 이완교, 이은갑, 장현순, 한상익
성연면	11	강홍봉, 김중홍, 박상준, 성우용, 손원식, 안상진, 이문학, 이충득, 이한경, 장완태, 최기옥
음암면	11	김상명, 김상옥, 김순각, 김영환, 남상기, 류양목, 이기하, 이근대, 임각순, 최태우, 한창섭
운산면	12	김해봉, 명용균, 문홍모, 박수남, 박준기, 박창래, 이규석, 이정구, 이태의, 조남훈, 최병엽, 홍순
해미면	12	강순교, 김학창, 명화섭, 박종린, 박충현, 신임현, 오진원, 이상선, 이석하, 정재승, 최순기, 한기완
교북면	12	김유환, 김홍덕, 김홍환, 문병갑, 박석환, 박량진, 신중현, 엄익섭, 조병진, 최규수, 최석우, 한영배
안면면	12	강용일, 김유봉, 김용덕, 박상규, 박석철, 박항준, 성낙균, 원천극, 장기용, 전성용, 정봉우, 최광중

〈표〉 제2대 읍·면의원 인적사항 (계속)

읍·면	인원(명)	당 선 자 성 명
남 면	11	김재희, 강갑권, 김명복, 김상구, 문영모, 문제배, 박홍래, 이상우, 이억용, 조문호, 최백순
태안면	12	가 재, 가재일, 가충로, 김용식, 명규태, 문선직, 박수용, 이채근, 조도현, 최우석, 한규섭, 한익규
근흥면	12	김경환, 김병순, 김영백, 신현환, 윤상선, 이승희, 이평순, 최갑순, 최병연, 최황수, 최홍익, 함 길
소원면	11	국남호, 김공덕, 김복순, 김봉덕, 박노환, 심능목, 장갑열, 장창열, 정만홍, 조상호, 주일선
원북면	11	김의곤, 김낙수, 윤희선 이홍우, 문석위, 전영벽, 조상호, 조천호, 조태호, 조한두, 최원희
이북면	11	가학로, 김봉제, 김형동, 안상철, 이갑수, 이무동, 이병상, 이춘환, 안용순, 조인호, 홍재홍

(3) 제3대 읍·면의회의원선거

제3대 읍·면의회의원선거는 1960년 12월19일에 실시되었다. 제2대 읍·면의회의원의 임기는 자치법상 동년 8월에 만료되게 되었으나 4. 19혁명으로 지연되었으며 기간법의 개정을 거쳐 실시하게 된 것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중 선거권자의 연령은 21세로부터 20세로 낮추었고 선거운동은 국회의원 선거운동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후보자의 상황을 보면 의원정수 209명에 410명이 입후보하여 약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선자는 다음 별표와 같다.

〈표〉 제3대 읍·면의원 인적사항

읍·면	인원(명)	당 선 자 성 명
서산읍	12	김덕태, 김윤지, 강부길, 문유고, 성백우, 신석호, 오동수, 오탈호, 이영재, 이종익, 정병희, 최영성
인지면	11	류병규, 류병운 류병섭, 배학영, 서재철, 오용기, 윤 윤, 이원산, 이태의, 이흥기, 임윤실
부석면	12	김형일, 류선환, 박우동, 서기원, 오수진, 이병교, 이승국, 이종현, 이필로, 조철현, 지백흠, 지석규
팔봉면	11	김규원, 김춘수, 김호중, 류시열, 문모옥, 안종옥, 안효택, 양승철, 이계동, 최덕엽, 최준엽
지곡면	11	김기홍, 김상만, 김정하, 박종현, 윤창모, 이면의, 이규용, 이상목, 지동윤, 표창희, 홍창기

〈표〉 제3대 읍·면의원 인적사항 (계속)

읍·면	인원(명)	당 선 자 성 명
대산면	12	김기원, 김기훈, 김용남, 김정권, 김지빈, 손원근, 이선교, 윤정권, 장석길, 전갑섭, 장현순, 최동근
성연면	11	강홍봉, 김호남, 남성우, 배유남, 배현우, 손원식, 이몽주, 조순태, 최기영, 편병환, 홍홍섭
읍암면	12	구준희, 김승재, 남상기, 류태수, 민영근, 이근대, 이근휘, 이수산, 이순하, 임웅재, 정중해, 정허경
운산면	12	김동준, 김동춘, 김진화, 류기현, 류기황, 박병옥, 박세환, 박응만, 신흥돈, 이범춘, 이세춘, 임희주
해미면	12	김기원, 김영배, 문철희, 박충진, 서연춘, 윤병석, 이오상, 이현규, 정수학, 정재승, 편무례, 한기만
고북면	12	김두환, 김옥환, 김유환, 김종현, 김홍환, 문병갑, 박봉실, 엄기섭, 엄주창, 조충원, 한동규, 허창형
안면면	12	김복록, 김순택, 김 장, 강용일, 노남복, 신기성, 신춘식, 박상규, 문복만, 윤정원, 최광중, 최종석
남 면	11	고현규, 김상균, 문남혁, 박만원, 성기원, 이대우, 이종만, 조광호, 조대호, 정종만, 최용운
태안면	12	가병수, 가재곤, 가재일, 강종안, 김현복, 문선직, 권남수, 이맹환, 이상모, 안정학, 최기춘, 최병권
근흥면	12	김광재, 김면규, 김세곤, 김인학, 김차환, 박광덕, 송기섭, 신원능, 유덕제, 이용현, 정남진, 최갑순
소원면	10	가봉춘, 김동환, 김봉덕, 김원길, 심능목, 윤철선, 이두용, 장동일, 정낙원, 주일선
원북면	11	김창원, 김봉호, 박상복, 박정규, 신두호, 윤기상, 이병재, 조재선, 조태호, 조한두, 정국한
이북면	11	박준길, 손황규, 송태홍, 안종기, 이갑수, 이봉환, 전영봉, 조규복, 조영호, 조인호, 조한태

서산시지 제3권 시산업의 정치와 행정

인 쇄 : 1998년 4월 일

발 행 : 1998년 4월 일

편 찬 : 서산시지 편찬위원회

발행처 : 서 산 시

인 쇄 : 대전충남인쇄공업협동조합

 작업자 : 청 오 인 쇄 소

 (0455)64-6366